

漢陽趙氏世稿

한 양 조 씨 세 고

『한양조씨세고』 소개

이 책은 둔암 조규양(鈍巖 趙葵陽) 선생의 선조이시며 조선 중기 문인이신 회계공(檜溪公, 趙貫), 죽림공(竹林公, 趙鳴漢), 유계공(幽溪公, 趙鳳徵), 산곡공(山谷公, 趙元益)이 남기신 글을 모은 유고집으로 한양 조씨(漢陽 趙氏) 가문의 빛나는 정신과 학덕을 기리는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이 분들의 삶과 업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시와 산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분들의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 자손 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 없던 삶의 태도는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전통 명문가의 아름다운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번역본은 누구나 읽기 쉽게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 현대어로 옮긴 것으로, 조선 선비의 정신과 문학을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目次(목차)

趙氏世稿序(조씨세고서) (1~2)

詳細目次(상세목차) (3 ~ 7)

趙氏家藏世稿(조씨가장세고)

崇禎處士趙公事實 (8 ~10)

贈司僕正成均進士府君墓誌銘 (11~13)

宜人宣城金氏墓誌銘 并序 (14~15)

檜溪公遺稿(회계공유고)

試 (17~30)

檜溪公遺稿附錄

輓司 (31~42)

竹林公遺稿(죽림공유고)

詩 (44~60)

贈承政院左承旨成均進士府君墓碣銘 (61~64)

幽溪公遺稿(유계공유고)

贈嘉善大夫禮曹叅判同知義禁府事魚五衛都摠府副摠

管行奉列大夫黃海道都事府君行狀 (66~71)

詩 (72~139)

山谷公遺稿(산곡공유고)

詩 (141~146)

正憲大夫同知中樞府事府君行狀 (147~156)

正憲大夫同知中樞府事趙公墓碣銘 (157~161)

世稿跋(세고발) (162~163)

趙氏世稿序

記曰先祖有燬而不傳不仁也夫人子之於祖先追慕愛敬之極雖器用玩好之物猶
기왓산조유미이부전부인야부인자지어조선추모애경지극수기용완호지물유
不敢輕易褻慢而曰手澤存焉口澤之氣存焉矧乎吟詠唼唾之餘精神心術之所存
부감경역설만이왓수택존언구택지기존언신평음영마타지여정신심술지소존
乎是以世之君子介斤於先世遺文字不欲其散逸埋沒於陳箱破篋之間而以寓子
호시이세지근자개근어선세유문자부욕기산일매몰어진상파협지간이이우자
孫羹藿之思兼以示勿替繼述於後來也然文字之傳至一再世已不易矣況至於四
손갱장지사검이시물체제술어후래야연문자지전지일재세이부역의황지어사
五世而詩章鉛槧之業如貫珠蟬聯之美則又豈非難中之難邪漢陽趙公普陽仁鄉
오세이시장연참지업여관주선련지미칙우기비난증지난사한양조공보양인향
兄弟俱以文學科甲已有名於當世矣間嘗哀緝先世詩章誌碣之作名曰趙氏世稿
형제구이문학과갑사유명어당세의간상부집선세시장지갈지작명왓조씨세고
以示其友光靖曰此吾高祖以下四代詩章也雖無赫然之名位文章動人之視聽而
이시기우광정왓차오고조이하사대시장야수무혁연지명위문장동인지시칭이
亦可見其累世種績之工子其為我識諸卷以為吾子孫家藏之寶余謹受而伏讀之
역가견기루세종적지공자기위아식제권이위오자손가장지보여근수이복독지
歎曰美矣哉公家文獻之傳也自世教衰家塾黨庠之制廢而人家所以教誨子弟之
탄왓미의재공가문헌지전야자세교쇠가숙당상지제폐이인가소이교회자제지
方疎矣恬於挽樂則博奕徵逐之是尚汨於利欲則貨財篇乏之是計其能以詩書文
방소의념어만악칙박혁징축지시상루어리욕칙화재편핍지시계기능이시서문
墨維持鞏固於百有餘年之久又以溫雅勤儉篤倫厚本為傳家之長物文藝科第接
묵유지공고어백유여년지구우이온아근검독륜후본위전가지장물문예과제접
武聯芳鬱然為山南文學之區如公家之比殆未之多見焉嗚呼其亦賢遠於世之遺
무련방을연위산남문학지구여공가지비태미지다전언명호기역현원어세지유
滿篇之金矣為公之子孫者念累世勤苦之積而益寫於間學之功詞章非立身之本
만편지검의위공지자손자념루세근고지적이익사어간학지공사장비림신지본
科第非寄命之地内外之分不可以不明辨也義利之塗不可以不先定也博究乎聖
과제비기명지내외지분부가이부명변야의리지도부가이부선정야박구호성
賢經傳之訓體行乎日用動靜之間則此前頭天有事在而真可謂善繼而善述不但
현경전지훈체행호일용동정지간칙차전득천유사재이진가위선제이선술부단
為傳微之小仁而已也茲因俯囑之勤敢效古人頌禱之辭倘或小助於貽謀垂裕之
위전미지소인이이야자인부촉지근감효고인송도지사당혹소조어이모수유지

萬一否邪

만일부사

韓山李光靖謹序

한산리광정근서

조씨세고 서문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선조의 아름다운 덕행을 전하지 않는다면 인(仁)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자손으로서 선조를 추모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비록 그들이 쓰던 평범한 물건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손택(手澤)이 남아 있다', '입김(口澤)이 서려 있다' 하여 소중히 여깁니다. 하물며 시문(詩文)과 같은 것은 선조의 정신과 마음이 서린 것이니, 더욱 소홀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세상의 군자들은 선대의 유문(遺文)을 귀중히 여겨, 낡은 상자나 부서진 광주리 사이에 흩어지거나 묻히지 않게 하며, 자손들에게는 '추모의 정(羹牆之思)'을 담아 전하고, 후대에는 '계승(繼述)의 도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글이 한두 대를 넘어 전해지기조차 어려운데, 하물며 4~5 대에 걸쳐 시문(詩章)과 저술(鉛槧)이 진주처럼 이어지고 매미의 울음처럼 아름답게 계속된다면, 이는 참으로 이는 정녕코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한양(漢陽)의 조공(趙公) 보양(普陽)과 인향(仁鄉) 형제는 모두 문학(文學)과 과거(科擧)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들이 선대의 시문과 지식(誌碣)을 모아 <조씨세고(趙氏世稿)>를 편찬하고, 친구인 나(광정, 光靖)에게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고조부(高祖)로부터 4 대에 걸친 시문입니다. 비록 세상을 떠날 만한 명성이나 지위는 없으나, 대를 이어 쌓아온 학문의 정성을 볼 수 있소. 청컨대 서문을 지어 우리 자손들이 집안의 보배로 삼도록 하시오."

나는 공경히 받아 읽고 감탄하였습니다. "아, 아름답도다! 조씨 가문의 문헌 전통이여!"

세상의 가르침이 쇠퇴하고 가정 교육의 제도가 무너진 뒤로, 자제(子弟)를 가르치는 법이 허술해졌습니다. 유흥에 빠져 노름과 사치를 좇고,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재물만 꾀하는 이 시대에, 조씨 가문은 온아(溫雅)와 근검(勤儉)을 바탕으로 100 여 년 간 학문(詩書文墨)을 지켜왔습니다. 예술과 과거의 영광이 대를 이어 호남(山南)의 문학 중심지로 빛났으니, 이는 참으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 조씨 가문의 유산은 '황금으로 가득 찬 상자'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 자손들이여! 선조의 수고로 쌓아온 업적을 생각하고, 학문에 더욱 정진하십시오.

시문(詞章)은 입신(立身)의 근본이 아니요, 과거(科第)는 생명을 의탁할 곳이 아닙니다. 안(內, 도덕)과 밖(外, 명예)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의(義)와 이(利)의 길을 먼저 정하십시오.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을 깊이 연구하며, 일상의 움직임과 안정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잇고(繼) 넓히느(述)" 참다운 효(孝)를 이루리니, 이는 단순히 유물을 전하는 '작은 인(仁)'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에 따라, 옛사람의 송축(頌祝)을 본받아 이 서문을 씁니다. 비록 그들의 계획(貽謀)과 번영(垂裕)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산(韓山) 이광정(李光靖) 삼가 서문을 쓰다.

■ 趙氏家藏世稿目錄

조씨가장세고목록

崇禎處士趙公事實

승정처사조공사실

贈司僕正成均進士府君墓誌銘

증사복정성균진사부군묘지명

宜人宣城金氏墓誌銘 并序

의인선성김씨묘지명 병서

■ 檜溪公遺稿

회계공유고

詩(시)

春貼 乙亥 / 春貼 甲申 / 奉呈金參判 忘窩 丙子 / 次李司藝 崇彦 韻

춘첩 을해 / 춘첩 갑신 / 봉정김참판 망와 병자 / 차리사에 승언 운

丁丑 / 樂志堂集句 丁丑 / 芙蓉臺奉呈金參判 丁丑 / 芙蓉臺次金參判 韻

정축 / 악지당집구 정축 / 부용대봉정김참판 정축 / 소용대차김참판운

丙子秋 / 星巖亭 / 仙巖 / 次權進士點韻 / 濟民樓次權進士韻 / 別金監司

병자추 / 성암정 / 선암 / 차권진사점운 / 제민루차권진사운 / 별김감사

/ 和金進士 遇秋 韻 / 戊申秋送金啞軒遊清涼 / 奉呈南厓 鶴沙 / 月下吟

/ 화김진사 우추 운 / 무신추병김아현유청량 / 봉정남애 학사 / 월하음

/ 次東槎錄 / 寄謝李追齋 崇彦 贈扇 / 基谷禹同知老職宴次權正郎 省吾

/ 차동차록 / 기사리추재 승언 증선 / 기곡우동지로직연차권정량 성오

韻 / 次贈山僧 / 積雨 / 送金掌令 島川 / 曾祖 贈爵日題示一座 / 輓

운 / 차증산승 / 적우 / 송김장령 도천 / 증조 증작일제시일좌 / 만

鳥川 金掌令 / 輓郭奉事 / 輓金平叟 / 輓裴判官 尚益 / 除夜口占拙句呈

조천 김장령 / 만곽봉사 / 만김평수 / 만배판관 상익 / 제야구점졸구정

南厓案下 / 奉別金大可憲 榮祖 忘窩 / 盤桓堂次南厓韻 / 省吾堂李先生

남애안하 / 봉별김대가헌 영조 망와 / 반환당차남애운 / 성오당리선생

附錄(부록)

輓詞(만사)

司諫金應祖 / 進士權 點 / 掌令申悅道 / 正郎權省吾 / 司藝李崇彦 /

사간김응조 / 진사권 점 / 장령신열도 / 정량권성오 / 사에이승언 /

判事秦尚弘 / 正字李尚彦 / 都事琴忠達 / 生員張龍遇 / 都事黃益清 /
판사진상홍 / 정자리상언 / 도사금충달 / 생원장룡우 / 도사황익청 /
縣監安 頊 / 郡守金念祖 / 察訪朴檜茂 / 進士朴樅茂 / 正言全益禧 /
현감안 옥 / 군수김념조 / 찰방박회무 / 진사박종무 / 정언전익희 /
進士宋尚憲 / 宋尚寬 / 同知金成沃 / 那守李 埤 / 府使琴是調 / 朴感范
진사송상헌 / 송상관 / 동지김성옥 / 나수리 안 / 부사금시조 / 박감범
/ 生員李成樞 / 張龍變 / 金裕後 / 府使李達意 / 進士權昌震 / 朴文范 /
/ 생원리성화 / 장룡변 / 김유후 / 부사리달의 / 진사권창진 / 박문범 /
李 嶼 / 金雲章 / 閔覺 / 生員宋天年
리 전 / 김운장 / 민각 / 생원송천년

■ 竹林公遺稿

죽림공유고

詩(시)

醉贈南叔初 乙未 / 訪愚川不遇 鄭弼 / 寄贈尹仲晦 晟 / 伏次聘君韻
취증남숙초 을미 / 방우천부우 정척 / 기증윤중회 성 / 복차빙군운
二首金別座時忱 / 送金絨齋歸觀潭陽 時行 / 鶴沙朴密陽以詩酒追餞
이수금별좌시침 / 송김함재귀근담양 시행 / 학사박밀양이시주추전
干甘泉 / 寓居茅山時贈尹仲晦 / 在茅山時伏次聘君韻 二首 /
간감천 / 우거모산시증윤중회 / 재모산시복차빙군운 이수 /
月寺次愚川 韻 / 次愚川亭韻 / 次伴鶴亭韻 / 送李參奉以正 達意 朴京
월사차우천 운 / 차우천정운 / 차반학정운 / 송이참봉이정 달의 박경
二首 / 次啞軒草堂韻 三首 / 茅山集句 / 次柳生員曲江亭韻 / 次柳丈韻 /
이수 / 차아현초당운 삼수 / 모산집구 / 차류생원곡강정운 / 차류장운 /
次洪判官 汝河 立春韻 五首 / 次伯孝韻 / 次仲孝韻 / 求畫鶴 /
차홍판관 여하 립춘운 오수 / 차백효운 / 차중효운 / 구화학 /
鶴沙除工曹參議 / 輓黃司禮 又清 / 輓金奉禮 堯欽 / 輓安進士 夢徵
학사제공조참의 / 만황사례 우청 / 만김봉례 요흠 / 만안진사 몽징
輓金秀才 / 輓李容之 / 輓金寿才 / 輓李述南 / 輓閔高原 希顔 /
만김수재 / 만리용지 / 만김수재 / 만리술남 / 만민고원 희안 /
鄭參奉愚川 / 輓安德章 / 輓趙院長獻鄉 / 輓申寬叔 / 輓李子宜 /
정참봉우천 / 만안덕장 / 만조원장헌향 / 만신관숙 / 만리자의 /
追步珙學士次退溪先生南洞韻 木齊 / 次寄金雲章野軒八詠 斗岩 /
추보공학사차퇴계선생남동운 목제 / 차기김운장야현팔영 두암 /
次義山不飲酒會韻 / 次金止卿 時行 韻
차의산부음주회운 / 차김지경 시행 운

贈承政院左承旨成均進士府君墓碣銘

증승정원좌승지성균진사부군묘갈명

■ 幽溪公遺稿

유계공유고

贈嘉善大夫禮曹叅判同知義禁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行奉列大夫黃海道

증가선대부례조참판동지의금부사겸오위도총부부총관행봉렬대부황해도

都事府君行狀

도사부군행장

詩(시)

寄葛山諸益 / 經痘後口占 丙戌病脚疽故篇中有 大痛跛行等語丁亥 /

기갈산제익 / 경두후구점 병술병각저고편중유 대통파행등어정해 /

送元謙 / 奉別蔡城主 時益 / 贈金萬魚 重鎰 / 與緒益分曹洛韻 /

송원겸 / 봉별채성주 시익 / 증김만어 중일 / 여서익분조락운 /

贈姜聖叟 載後 / 用前韻金士 建倣 / 次友人韻 / 南仲由奉 /

증강성수 재후 / 용전운김사 건주 / 차우인운 / 남중유봉 /

南歸以詩送別 / 送人歸覲 / 代人輓 / 送權叔章 斗紀 謫海南 / 思家

남귀이시송별 / 송인귀근 / 대인만 / 송권숙장 두기 적해남 / 사가

客中鳳懷 / 送洪監司 / 送友人 / 客中逢故人 / 次呈李叅奉 / 洛陽秋思

객중봉회 / 송홍감사 / 송우인 / 객중봉고인 / 차정리참봉 / 락양추사

送友人 / 烏臺同宿 / 次金進士士行 二首判決令 / 贈金致一 / 次友人韻 /

송우인 / 오대동숙 / 차김진사사행 이수판결령 / 증김치일 / 차우인운

次聖叟韻 / 自試射還凍雨終日偶得 二首 / 大殿元日延祥時 戊子 /

차성유운 / 자시사환동우종일우득 이수 / 대전원일연상시 무자 /

次除夕韻 / 送南箕瑞 九明 / 送安補天 鍊石 之延日 / 偶吟 /

차제석운 / 송남기서 구명 / 송안보천 련석 지연일 / 우음 /

端午延祥時 / 次巡相許亭韻 李公名濟時 為海西伯 / 題金沙寺 / 觀海吟

단오연상시 / 차순상허정운 리공명제시 위해서백 / 제김사사 / 관해음

過龍井 / 次文化使君皇華梅韻 / 到停轂寺得一絕寄殷栗使君李 漢佐 /

과룡정 / 차문화사군황화매운 / 도정곡사득일절기은를사군리 한좌 /

殷栗倅和詩以贈卽次送之 / 黃州勝竹樓 / 踰嶺吟得一絕 祭西登第時 /

은율취화시이증즉차송지 / 황주승즉루 / 유령음득일절 제유등제시 /

過九馬遷 / 宿黃江驛 戊辰 / 贈師道 羅承旨學川 / 次掌持平以達 適意韻

과구마천 / 숙황강역 무진 / 증사도 라승지학천 / 차장지평이달 적의운

/ 次師道韻 / 次掌以能望鄉臺韻 / 代人輓 / 泮中送友 / 輓柳晦叔 甲戌 /

/ 차사도운 / 차장이능망향대운 / 대인만 / 반중송우 / 만류회숙 갑술 /

輓李監察 商霜 / 次基川倅任 道三 / 九月望日遊喜方寺 / 同日次軟泡韻 /
 만리감찰 상상 / 차기천취임 도삼 / 구월망일유희방사 / 동일차연포운
 寄豐倅 / 次呈 / 上東樓書懷 呈基守求和 / 次基川倅韻 / 次玉溜泉韻 /
 기풍취 / 차정 / 상동루서회 정기수구화 / 차기천취운 / 차옥류천운 /
 次贈玄上人 / 次吳以三韻 / 次吳以三草堂韻 / 送金敬文 / 次李持平韻 /
 차증현상인 / 차오이삼운 / 차오이삼초당운 / 송김경문 / 차리지평운 /
 丙子冬至書懷 / 書懷 / 次崔相 錫鼎 韻 丁丑 / 次崔相韻 戊寅三月 /
 병자동지서회 / 서회 / 차최상 석정 운 정축 / 차최상운 무인삼월 /
 又次金川暎水屏韻 / 又次呈 / 次金都事善餘韻 / 次贈金善餘 / 次慎兄
 차차김천영수병운 / 우차정 / 차김도사선여운 / 차증김선여 / 차신행
 後尹 壁上韻 / 次舍兄韻 / 隨勅行到東陽次贈趙 光璧 / 詠月 / 閑情
 후윤 벽상운 / 차사형운 / 수래행도동양차증조 광벽 / 영월 / 한정
 此十首次 西厓先生別集韻 / 定州偶題 / 宿烏嶺 / 題畫 / 元日有感 /
 차십수차 서애선생별집운 / 정주우제 / 숙조령 / 제화 / 원일유감 /
 初春感事 / 義州迎春堂 / 無題 / 高陽途中 / 定州南臺懷故人 /
 초춘감사 / 의주영춘당 / 무제 / 고양도중 / 정주남대회고인 /
 控江亭留別友人 / 暮望定州 / 西行 / 西齋翫月 / 正月遇雪與金 士俊 偁
 공강정류별우인 / 모망정주 / 서행 / 서재완월 / 정월우설여김 사준 집
 同吟 / 義山八齋時與諸益酬唱 / 輓禹錫圭 辛巳 / 輓李院長 聖命 /
 동음 / 의산팔재시여제익수창 / 만우양규 신사 / 만리원장 성명 /
 輓羅院長 壬午 / 輓李承旨 東標 庚辰 / 乙酉春帖 / 孤峰精舍韻 /
 만라원장 임오 / 만리승지 동표 경진 / 을유춘첩 / 고봉정사운 /
 晚年有移待豐北之計將 築孤峯精舍故先有此詩 / 冬至日和金以悅 佑 韻
 만년유이대풍북지계장 축고봉정사고선유차시 / 동지일화김이열 화 운
 立春帖子 / 伏次 / 次杜草堂向夕韻 / 薄暮韻 / 日暮歌 / 次贈別士達
 립춘첩자 / 복차 / 차두초당향석운 / 박모운 / 일모가 / 차증별사달
 濟州令公 / 贈李察奉 萬根 / 送轉直講 在晦 歸覲咸興 / 輓人 / 輓金監司
 제주령공 / 증리찰봉 만근 / 송전직강 재회 귀근함흥 / 만인 / 만김감사
 聲久 / 輓南岳李先生 葛庵舊號 / 輓李察訪裕叔 碩意 / 輓竹林權生員華
 성구 / 만남악이선생 갈암구호 / 만리찰방유숙 석의 / 만죽림권생원화
 輓柳士會 / 輓金進士 夏鎮 / 輓金參奉 輝壁 / 輓權進士 / 輓權生員 稽
 만류사회 / 만김진사 하진 / 만김참봉 휘벽 / 만권진사 / 만권생원 기
 輓李進士妹兄 斗精 / 輓柳諮議君誨 後章 / 佳嶺膾魚 /
 만리진사매형 두정 / 만류자의군회 후장 / 가령회어
 義山次南注書雪舉 圖翼 韻 / 又次南上舍韻 / 避炎亭八景韻 李希音 /
 의산차남주서설거 도익 운 / 우차남상사운 / 피염정팔경운 리희음 /
 伊山南寺次諸益 / 又次煎花詩韻 / 次金叔商老韻 / 句溪次權進士宅于韻
 이산남사차제익 / 우차전화시운 / 차김숙상로운 / 구계차권진사택우운

庚辰 / 輓金院長 孝基 / 東閣偶題 / 送李郎 守仁 / 觀燈夜登南門樓口占
경진 / 만김원장 효기 / 동각우제 / 송리랑 수인 / 관등야등남문루구점
七月望日登悅樂亭得一韻示座中 / 又次崔生韻 / 次以悅韻 /
칠월망일등열악정득일운시좌중 / 우차최생운 / 차이열운 /
沈承旨季良韻 / 赴水操口占示姪兒 / 次朴佐郎斗寅韻 / 寄金士行 / 無題
침승지계량운 / 부수조구점시질아 / 차박좌랑두인운 / 기김사행 / 무제
觀物 / 輓黃叅奉 昌述 / 次姜聖叟呈李上舍景玉 / 次金護軍 榮進 慶席韻
관물 / 만황참봉 창술 / 차강성수정리상사경옥 / 차김호군 영진 경석운
次基川太守李禎慶席韻 二首 / 晚人 / 寓中與士俊唱和 / 次柳望久贈別韻
차기천태수리정경석운 이수 / 만인 / 우중여사준창화 / 차류망구증별운
/ 次柳知禮 後光 詠霧韻 / 輓李院長 鴻達 / 呈巡相 /
/ 차류지례 후광 영무운 / 만리원장 홍규 / 정순상 /
次呂天卿江亭韻示姜聖叟 / 輓全君俊 萬雄 / 進士公輓全君俊
차려천경강정운시강성수 / 만전군준 만웅 / 진사공만전군준
辛酉正月幸得進士公文蹟故寫于此 / 輓李進士台翊 /
신유정월행득진사공문적고사우차 / 만리진사태익 /
趙休仲為昌樂郵官往訪醉吟 丙子
조휴중위창악우관왕방취음 병자

■ 山谷公遺稿

산곡공유고

詩(시)

勺溪會中次雲亭韻 / 次李輝謙 光翊 亭西齋韻 / 寄謝李亭西 /
작계회중차운정운 / 차리휘겸 광익 정서재운 / 기사리정서 /
義山次李亭西 / 次東坡韻謝追齋送桃竹葉國扇 / 寄謝亭西倒韻 /
의산차리정서 / 차동파운사추재송도죽엽국선 / 기사정서도운 /
輓再從兄 / 輓槐川金瑞燭 / 輓百拙齋黃公陽中 / 贈趙伯謙元益經疫後 /
만재종형 / 만괴천김서민 / 만백졸재황공양중 / 증조백겸원익경역후 /
石居公原文抄出 / 諫趙中樞山谷公文
석거공원문초출 / 퇴조중추산곡공문
正憲大夫同知中樞府事府君行狀
정헌대부동지중추부사부군행장
正憲大夫同知中樞府事趙公墓碣銘
정헌대부동지중추부사조공묘갈명

世稿跋

세고발

■ 趙氏家藏世稿目錄

조씨가장세고목록

崇禎處士趙公事實

승정처사조공사실

崇禎處士趙貫漢陽人字汝一生乙亥中丙午進士父光先祖濟皆蔭仕曾祖亨琬贈
승정처사조관한양인자여일생을해중병오진사부광선조제개음사증조형완증
叅議高祖琮縣監五代祖云從郡守六代祖憐知敦寧七代祖涓世宗朝右議政諡良
참의고조종현감오대조운종군수륙대조련지돈녕칠대조연세종조우의정시량
敬公八代祖仁璧以麗朝壁上功臣三重大匡都兵馬使入我朝贈右議政封龍源君
경공팔대조인벽이려조벽상공신삼중대광도병마사입아조증우의정봉룡원군
諡襄烈公以太祖娣壻見天人之望有歸歸老襄陽沒後襄陽人慕其風節立忠賢祠
시양렬공이태조제서견천인지망유귀귀로양양몰후양양인모기풍절립충현사
祖豆之處士趙貫以司馬著文行聞於世萬曆丙午朝家以人材選嶺士八人而趙貫
조두지처사조관이사마저문행문어세만력병오조가이인재선령사팔인이조관
叅於其中廢朝已酉與嶺儒疏首金奉祖等數百人斥鄭仁弘之邪又與徵士金玲為
참어기증폐조이유여령유소수김봉조등수백인척정인홍지사우여징사김령위
道義交丙子之亂與郡守金友益等應旅軒張顯光倡義之檄及丁丑城下之盟稱病
도의교병자지란여군수김우익등응려헌장현광창의지격금정축성하지맹칭병
謝世事隱於榮川葛山里自號繪溪時朝廷有招賢之旋皆不應自稱崇禎逸民而痛
사세사은어영천갈산리자호회계시조정유초현지선개부응자칭승정일민이통
王春之已改題詩丁丑曆書曰檜溪茅舍白頭人六十三回見早春忍說域中每正朔
왕춘지이개제시정축력서왈회계모사백두인륙십삼회견조춘인설역중매정삭
藥爐聊可養吾眞且與道內名流作不飲酒之會盖寓其中州陸沈之痛也右尹鶴沙
약로료가양오진차여도내명류작부음주지회개우기증주륙침지통야우운학사
金應祖題誌銘云丙丁以後稱病謝仕嘉其標致其輓詞云龍源遺烈曰星昭今有賢
김응조제지명운병정이후칭병사사가기표치기만사운룡원유렬왕성소금유현
孫節義高盖取龍源歸老襄陽不仕本朝而崇禎守義有光佇先烈也觀於邑誌及漢
손절의고개취룡원귀로양양부사본조이승정수의유광저선렬야관어읍지급한
陽譜班班可考而不但此也故相臣俞柘基戊午年按本道時聞崇禎逸民趙貫之風
양보반반가고이부단차야고상신유자기무오년안본도시문승정일민조관지풍
節使人訪其子孫家採其遺事謄出誌銘及遺集嘖嘖歎賞慨幽先之未聞惜高義之
절사인방기자손가채기유사등출지명금유집책책탄상개유선지미천석고의지
不顯而亦奧隣近章甫至今有祖豆之議其前後事實如此而以子孫追
부현이역오린근장보지금유조두지의기전후사실여차이이자손추

恩贈司僕正

은증사복정

승정처사 조공의 사실

승정처사 조관(趙貫)은 한양 사람으로, 자는 여일(汝一)이다. 을해년(乙亥)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병오년(丙午)에는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부친은 광선(光先)이고, 조부는 제(濟)이며, 모두 음관(蔭仕)으로 관직에 올랐다. 증조는 형완(亨琬)으로 증 참의(叅議), 고조는 종(琮)으로 현감(縣監), 5 대조는 운종(云從)으로 군수(郡守), 6 대조는 련(隣)으로 지돈녕(知敦寧), 7 대조는 연(涓)으로 세종조의 우의정을 지냈고 시호는 양경공(良敬公)이다. 8 대조는 인벽(仁璧)으로 고려 말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서 삼증대광 도병(都兵)을 지냈으며, 우리 조선에 귀화하여 우의정에 추증되고, 봉호는 용원군(龍源君), 시호는 양열공(襄烈公)이다. 그는 태조의 여동생의 부마로서, 천명과 인심이 모두 그에게로 돌아감이 있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향양(襄陽)에서 말년을 보내며 세상을 떠났다. 향양 사람들이 그 충절을 사모하여 충현사(忠賢祠)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처사 조관은 사마시에 급제하고 문장과 인행(人行)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만력 병오년(丙午)에 조정에서 인재를 뽑아 영남 사대부 중 여덟 사람을 등용하였는데, 조관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 조정이 기울어진 기유년(己酉)에는 영남 유생 수백 명과 함께, 김봉조(金奉祖)를 비롯하여 정인홍(鄭仁弘)의 간악함을 탄핵하는 소에 수서하였고, 또 증사 김령(金玲)과는 도의로 교유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수 김우익(金友益) 등과 함께 군사로 응하여 거병하였고, 장현광(張顯光)이 의병을 일으킨 격문에 호응하였다. 이듬해 정축년(丁丑)에는 청과 강화 조약이 체결되자 병을 핑계로 세상일에서 물러나, 영천의 갈산리(葛山里)에 은거하며 자호를 ‘회계(檜溪)’라 하였다. 이 무렵 조정에서 거듭 초빙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스스로 ‘승정 유민(崇禎逸民)’이라 칭하며, 왕통이 이미 바뀌었음을 통탄하였다.

정축년 역서에 스스로 이렇게 적었다.

“회계 초가집의 백발 노인이여, 예순세 번이나 이른 봄을 보았구나. 세속의 정월이 바뀌었다는 말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구나. 약탕기로 내 참된 삶을 보양하며, 도를 함께하는 이들과는 술을 마시지 않는 모임을 갖노라.”

이는 중원(中原)이 무너진 아픔을 시로 표현한 것이었다.

우원 학사 김응조(金應祖)가 비문에 다음과 같이 찬하였다.

“병정년 이후,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한 것은, 그의 기개와 품체가 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만사(輓詞)에 이르기를 ‘용원군의 남긴 충절은 별처럼 빛나고, 오늘날 그 자손 중에도 절의가 높다’ 하였으니, 이는 바로

용원군이 조선에 벼슬하지 않고 낙향하여 충절을 지킨 것과 조관이 승정의 도의를 따랐음을 이어보는 것이다.”

그에 대한 사적은 읍지(邑誌)와 한양 조씨 족보에 상세히 실려 있으며,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정(正)의 재상 유적기(兪柘基)가 무오년(戊午)에 본도를 순시하던 중, 승정 유민 조관의 절의와 풍조를 듣고 그 자손들을 수소문하여 유고를 수집하고 비문과 시문을 베껴 보존하였으며, 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선현의 미덕이 드러나지 못함을 애석히 여기고, 높은 절의가 알려지지 않음에 안타까워하였다. 지금도 인근 마을에서는 제사를 올리는 논의가 남아 있으며, 앞뒤의 사적은 이와 같고, 자손이 조정에 청하여 조관에게 사복정(司僕正)을 추증하였다.

贈司僕正成均進士府君墓誌銘

증사복정성균진사부군묘지명

趙氏漢陽著姓有諱仁璧諱涓父子相繼為議政封君世未有也高祖諱琮清河縣監
조씨한양저성유휘인벽휘연부자상계위의정봉군세미유야고조휘종청하현감

始居榮川草谷曾祖諱亨琬贈刑曹叅議祖諱濟不仕考諱光先禦侮將軍妣安東全
시거영천초곡증조휘형완증형조참의조휘제부사고휘광선어회장군비안동전

氏諱舜輔之女以萬曆癸酉生公諱貫字汝一十二歲喪怙恃猶能自力業文遇南亂
씨휘순보지녀이만력계유생공휘관자여일십이세상호시유능자력업문우남란

猶不廢丁酉郡守黃公是始聚郡之多士試才拔某尤得七人而公與焉丙午中進士
유부폐정유군수황공시시취군지다사시재발모우득칠인이공여언병오증진사

自是遁處林園詩酒自娛者四十年戊子以疾卒初葬所居榮川葛山村之南終移暨
자시둔처림원시주자오자사십년무자이질졸초장소거영천갈산촌지남종이기

于安東府北後龍湫山直洞辛向原卽公之配空人金氏墓右也嗚呼公篤屹終身之
우안동부북후룡추산직동신향원즉공지배공인김씨묘우야명후공독골종신지

慕每痛念先妣遭喪過哀絕粒自盡語及必流涕好善愛客出作至誠如盤桓堂秦公
모매통념선비조상과애절립자진어급필류체호선애객출작지성여반환당진공

尚弘鶴胡金公奉祖歸嚴李公微音念言先生金公榮祖諸公最相善每客至輒欣然
상홍학호김공봉조귀엄리공미음념언선생김공영조제공최상선매객지첩흔연

開酌雖屢空不恤也晚築檜溪精舍書春帖曰檜溪茅舍白頭人六十三回見早春長
개작수루공부홀야만축회계정사서춘첩왈회계모사백두인륙십삼회견조춘장

伴藥鑪無箇事靜中聊得卷吾眞其雅趣可想也配宣城金氏吏曹判書文節公淡之
반약로무개사정중료득권오진기아취가상야배선성김씨리조판서문절공담지

五代孫從仕郎諱允誠之女性溫而行淑後公十年卒男二曰承漢生三男四女曰鳴
오대손종사랑휘윤성지녀성운이행숙후공십년졸남이왈승한생삼남사녀왈명

漢進士生二男二女女二長全有一無后次權遇巽生二男進士君即总言公之孫女
한진사생이남이녀녀이장전유일무후차권우손생이남진사군즉총언공지손녀

壻忘言公嘗謂其友人曰趙某固善人其教于必善公之見信格大人君子如此而進
서망언공상위기우인왈조모고선인기교우필선공지견신격대인군자여차이진

士君雅歸能文公之能教子忘言公之能知人俱可尚已銘曰既往必復旣屈必神固
사군아귀능문공지능교자망언공지능지인구가상사명왈기왕필복기굴필신고

空德門長有人

공덕문장유인

通政大夫前承政院右承旨無經筵叅贊官 春秋館修拱官 金應祖撰

통정대부전승정원우승지무경연참찬관 춘추관수공관 김응조찬

사복정 성균진사 부군 묘지명

한양조씨는 조선에서 이름난 가문으로, 조(趙)씨 증 휘(諱)가 인벽(仁璧), 연(涓)인 부자가 연이어 정승을 지내고 봉군(封君)까지 된 예는 세상에 드뭅니다.

고조 휘 종(琮)은 청하(淸河)현감으로 처음으로 영천(榮川)의 초곡(草谷)에 터를 잡았습니다. 증조 휘 형완(亨琬)은 형조 참의에 증직되었고, 조부 휘 제(濟)는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부 휘 광(光)은 선무위장군이었고, 모는 안동 전씨(安東全氏)로 휘 순보(舜輔)의 딸입니다.

만력(萬曆) 계유년(癸酉, 1633년)에 공(公) 휘(諱) 관(貫)이 태어났고, 자는 여일(汝一)입니다. 열두 살에 부모를 여의었으나 스스로 학업에 힘썼고, 남란(南亂: 병자호란)을 겪을 때에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년(丁酉, 1637년) 군수 황공(黃公)이 고을의 많은 선비들을 모아 인재를 시험하였을 때, 특히 7인을 뽑았는데 공이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오년(丙午, 1666년)에 진사에 급제한 이후부터는 숲과 정원에 은거하며 시와 술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십 년을 지냈습니다.

무자년(戊子, 1708년)에 병을 얻어 졸하였고, 처음에는 거처하던 영천 갈산촌(葛山村)의 남쪽에 묻혔으나, 후에 안동부 북쪽의 후룡추산(後龍湫山) 직동(直洞)의 신향원(辛向原)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는 공의 배워인 공인(空人) 김씨의 묘 우측입니다.

아, 공은 효우하고 우직하여 평생토록 배필을 사모하고,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지나치게 슬퍼하여 곡기를 끊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고, 말만 하면 반드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을 좋아하고 손님을 사랑하였으며, 응대함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반환당(盤桓堂) 진공 상홍(秦公尙弘), 학호(鶴胡) 김공 봉조(奉祖), 귀엄(歸嚴) 이공 미음(微音), 염언(念言) 선생 김공 영조(榮祖) 등과는 매우 친밀하였고, 손님이 오면 언제나 기쁘게 술을 권하였으며, 자주 가난하여 빈 술자리가 되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만년에는 회계(檜溪)에 정사를 짓고, 봄에 쓰는 글을 적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회계 초가에 사는 백발 노인, 예순세 번째 봄을 맞노라. 약로와 더불어 지낼 일 말고는 없으니, 고요함 속에 한 권의 책을 얻으면 그것이 곧 나의 진면목이라.” 그의 고아한 취미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배위는 선성 김씨로, 이조판서 문절공 담지(淡之)의 5세손인 종사랑(從仕郎) 휘 윤성(允誠)의 딸입니다. 성품은 온화하고 행실이 어질었습니다. 공보다 10년 늦게 졸하였습니다.

아들 둘이 있으니, 장남은 승한(承漢)이며 손자 셋과 딸 넷을 두었습니다. 차남은 명한(鳴漢)으로 진사이며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습니다. 딸은 둘인데, 장녀는

전유(全有)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권우손(權遇巽)에게 출가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며, 진사군이 바로 손자 총언(總言)공입니다.

사위 망언공은 일찍이 친구에게 말하길 “조 모는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의 자식 교육이 마땅히 훌륭하다” 고 하였고, 공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크고 믿을 만하여 군자들에게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총언공은 문장을 잘하고 바른 성품을 지녔으며, 망언공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나 둘 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명(銘)하여 이르되:

“이미 갔으나 반드시 돌아오고, 이미 굶었으나 반드시 신령하도다.
허물없이 덕을 쌓은 집안에는 항상 사람이 이어지리라.”

통정대부 전 승정원 우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공관 김응조(金應祖) 지음.

宜人宣城金氏墓誌銘 并序

의인선성김씨묘지명 병서

故進士趙公諱貫有賢配曰宜人宣城金氏五世祖諱淡爲世宗朝名臣官至吏曹判
고진사조공휘관유현배왈의인선성김씨오세조휘담위세종조명신관지리조판

書諡文節公生諱萬杔贈左通禮生諱佐忠順衛生諱澤民司瞻僉正生諱允誠從仕
서익문절공생휘만평증좌통례생휘좌충순위생휘택민사침침정생휘윤성종사

郎屹宜人為高曾祖考也姚咸陽朴氏叅奉諱桓之女以萬曆乙亥生宜人後丁酉卒
랑골의인위고증조고야요함양박씨참봉휘환지녀이만력을해생의인후정유졸

葬安東府北直洞辛向原嗚呼空人稟性粹濕不色於喜怒十七而笄敬君子謹祭祀
장안동부북직동신향원오호공인품성수습부색어희노심칠이제경군자근제사

敦宗族無不得其空至屹妬忌婦人常情而空人處之泊如也進士公愛客必有酒食
돈종족무부득기공지골투기부인상정이공인처지박여야진사공애객필유주식

宜人每拔貧設餉無難色平生不與人相較鄰里嘖嘖積其譬疾病預令澣濯衣裳盥
의인매발빈설향무난색평생부여인상교린리책책적기비질병예령한탁의상관

洗以待盡其神志不亂如此生二男曰承漢有三子四女曰鳴漢進士有二男二女女
세이대진기신지부란여차생이남왈승한유삼자사녀왈명한진사유이남이녀녀

二全有一死后權遇巽有二子進士君性孝今廬墓萬疊空山中藥棘可哀宜人精靈
이전유일사후권우손유이자진사군성효금려묘만첩공산중약극가애의인정령

有知豈無冥佑銘曰於維宜人之德靜以淑宜人之行貞以慤宜其子賢且孝以膺餘
유지기무명우명왈어유의인지덕정이숙의인지행정이각의기자현차효이응여

慶之發戊戌三月清明日通政大夫前承政院右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경지발무술삼월청명일통정대부전승정원우승지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金應祖撰

김응조찬

의인 선성 김씨 묘지명 및 서문

고 진사 조공(趙公), 휘는 관(貫)이시며, 부인으로는 선성 김씨가 계셨다. 부인의 오대조부 휘 담(淡)은 세종조의 명신으로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절공(文節公)이다. 아들 휘 만평(萬枰)은 좌통례로 증직되었고, 생 휘 좌(佐)는 충순위였으며, 생 휘 택민(澤民)은 사첨정(司瞻僉正)으로, 생 휘 윤성(允誠)은 종사랑으로 부인의 고조부가 된다. 외조모는 함양 박씨로 참봉 휘 환(桓)의 딸로, 만력 을해년(乙亥年)에 태어나셨고, 정유년(丁酉年)에 돌아가셨다. 안동부 북쪽 직동 신향원(辛向原)에 안장되었다.

아, 부인은 천성이 맑고 고왔으며 기쁨이나 분노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셨다. 열일곱에 가례를 올리셨고, 군자를 공경하며 제사를 삼가고, 종족을 돈독히 하여 모두가 공경해 마지않았다. 남편과 화목하고, 질투나 시기와 같은 여인의 혼한 심정을 넘어서셨으며, 그 마음은 항상 평온하였다. 진사공께서는 손님 접대를 좋아하여 반드시 술과 음식을 내놓으셨고, 부인은 항상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다. 평소에도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이웃들도 모두 칭송하였다. 병이 나시자 미리 의복을 세탁하고 몸을 정갈히 하여 임종을 대비하셨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으셨다. 아들 둘을 두셨는데, 장남 승한(承漢)은 세 아들과 네 딸을 두었다. 그 아들 명한(鳴漢)은 진사로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으며, 두 딸 중 첫째는 전씨에게 출가하였고, 둘째는 권씨에게 출가하였다. 손자 진사 군(君)은 효성이 지극하여 지금도 만첩 빈산 속에 묘소를 지키고 있으며, 약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애처롭기 짝이 없다. 부인의 영혼이 만약 영험이 있다면, 어찌 자손들을 음으로 도우시지 않겠는가.

묘비명

오호라, 부인의 덕은 고요하고 어질었으며, 행실은 정숙하고 신실하였다. 아들과 손자 모두 효성으로써 남은 복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전해진 것이다.

무술년 3월 청명일

통정대부 전 승정원 우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김응조(金應祖) 지음.

檜溪公遺稿

회 계 공 유 고

詩 (시)

- 春貼(춘첩) 乙亥
을해년 봄에 씀

檜溪茅舍白頭人 六十三迴見早春
회계모사백두인 륝십삼형전조춘
長伴藥爐無箇事 靜中聊得卷吾眞
장반약로무개사 정중료득권오진

회계(檜溪) 마을의 초가에 사는 백발 노인,
예순셋의 나이로 다시 맞이하는 이른 봄
긴 세월 약로 곁을 지키며 별다른 일도 없고,
고요한 속에서 책을 펼치며 나의 참모습을 찾노라.

- 春貼(춘첩) 甲申
갑신년 봄에 씀

陽氣先傳雪上梅 牕前啼鳥報春回
양기선전설상매 창전제조보춘회
年年病叟添牛齒 自酌松醪慰老懷
넌넌병수첨우치 자작송료위로회

햇살이 눈 덮인 매화에게 먼저 속삭이네, 창가에 울던 새들, 벌써 봄을 알리러
왔구나.
해마다 병든 늙은이는 나이만 더해가고, 홀로 소나무 술을 따르며 늙은 마음을
달래누나.

- 奉呈金叅判(봉정김참판) 丙子
김참판에게 바칩

高軒幾許過荆扉 一語曾無問布衣
고헌기허과형비 일어증무문포의
相公不識桃源路 誰遣華旋入翠微
상공부식도원로 수전화선입취미

수레는 높았건만, 가시문 앞을 지나가니, 한 마디조차 묻지 않네, 이 누추한 벼룩을
입은 이를.
상공께서는 복숭아꽃 피는 길을 알지 못하셨건만
누가 그대를 보내 푸른 산속으로 이끄셨는지요.

• 次李司藝(차이사예) 崇彦 韻 丁丑

이사예 승언의 운에 차운하다

林下歸來對酒樽 草堂瀟灑倚山根

림 하귀래대주준 초당소쇄의산근

藏蹤還喜紅塵遠 蒲壑白雲長掩門

장종환희홍진원 포학백운장엄문

숲 아래서 돌아와 술잔을 마주하니 소박한 초당은 그림처럼 산뿌리에 기대셨네.
세상 시름 떨치니 다시금 속세가 멀어져 홀가분하고, 흰 구름 덮인 부들 골짜기,
그윽히 문을 닫았네.

• 樂志堂集句(악지당집구) 丁丑

낙지당에서 모은 시구

客滿高樓水滿塘[檜溪] 一年離別此壺觴[追齋]

객만고루수만당 회계 일년리별차곤상 추재

天公亦解留人意[檜溪] 潦漲前溪路阻長[追齋]

천공역해류인의 회계 료창전계로조장 추재

손님은 높은 누대에 가득하고, 연못엔 물이 그득하네. [회계]

일 년의 이별을 이 술잔으로 풀고 있네. [추재]

하늘 또한 사람을 붙잡는 마음을 아는 듯하니 [회계]

불어난 물에 앞 시냇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추재]

• 芙蓉奉呈金叅判(부용봉정김참판) 丁丑

진홍빛 연꽃을 김참판께 바치며

睽分幾日各東西 何幸高臺一席同

규분기왈각동서 하행고대일석동

照鬢白毛垂暮歲 醉霜紅葉耐秋風

조빈백모수모세 취상홍엽내추풍

日暎松林鳴鳥雀 桂連蓮萼間蛇龍

일영송림명조작 계련련악간사룡

平生今夕遨遊處 但願樽中酒不窮

평생금석오유처 단원준중주부궁

헤어져 지낸 지 여러 날 서로 동서로 흩어져 있었는데, 무슨 복인지 높은 정자에
함께 한 자리를 같이하니,
희끗해진 귀밑머리, 해는 저무는 나이 비추이고 서리에 물든 단풍은 가을바람을
이겨내고 있네.

햇살은 소나무 숲에 비치고 새들은 지저귀며 계수나무와 연꽃송이 이어진 그 사이로 뱀과 용도 함께하는 듯,
평생 오늘 이 저녁처럼 놀러 다닌 곳이 있었던가 다만 슬통 속의 슬이 마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네.

• 芙蓉臺次金叅判韻(부용대차김참판운) 丙子秋
부용대에서 김참판의 운을 따라 짓다

芙蓉勝會屬佳辰 捻是芙蓉舊楔人
부용승회속가진 총시부용구설인

風入松林添爽氣 月生山角助精神
풍입송림첨상기 월생산각조정신

秋光不染頭還雪 酒力能回面上春
추광부염두환설 주력능회면상춘

酩酊莫辭今日飲 信陵豪貴已成塵
명정막사금일음 신릉호귀이성진

부용대의 아름다운 모임이 좋은 때를 맞이했네 이 모두가 부용대 옛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네.

솔바람이 숲 사이로 불어 상쾌함을 더해주고 달은 산 귀퉁이에서 떠올라 정신을 북돋우네.

가을빛은 물들지 않고 머리는 다시 눈처럼 희어졌고 술기운은 돌아와 얼굴에는 봄빛이 돌고,
흠뻑 취함을 마다 말고 오늘 술 마심을 즐기세 신릉군의 영화도 이미 티끌이 되었거늘.

• 星巖亭(성암정)
성암정에서

百尺朱欄相共憑 千尋綠水八秋澄
백척주란상공빙 천심록수팔추징

風來江上何須扇 月滿樓中不用燈
풍래강상하수선 월만루중부용등

白鳥雙雙沉復出 蒼烟漠漠散還規
백조쌍쌍침복출 창연막막산환규

醉來浪詠諸賢作 舌上清詞冷欲冰
취래랑영제현작 설상청사랭육빙

백 척 붉은 난간 서로 함께 기대니 천 길 푸른 물결 여덟 해 맑도다.

바람이 강가에 오니 어찌 부채질하랴 달빛은 누각에 가득하니 등불 쓸 필요 없네,
흰 새 쌍쌍이 잠졌다 다시 나오고, 푸른 연기 아득하여 흩어졌다 다시 모이네

취하여 흥얼거리는 여러 어진 이들, 작품 허끝의 맑은 시어 차가움이 얼음 갈네.

• 仙巖(선암)

선바위에서

山勢龍飛縱復橫 抱村流水八秋清
산세룡비종복횡 포촌류수팔추청
谷中採藥穿雲去 總外者書步月行
곡중채약천운거 총외자서보월행
風動溪林紅葉散 日斜漁店白炯生
풍동계림홍엽산 일사어점백형생
相逢只可論肝膽 何必區區共結盟
상봉지가론간담 하필구구공결맹

산세 용이 나는 듯 세로로 가로로 뻗었고 마을 감싸 흐르는 물결 여덟 해 맑도다.
골짜기 속 약초 캐러 구름 뚫고 가고 세상 밖에 있는 이는 달빛 아래 거닐고 바람 따라 가네.

바람에 시냇가 숲 붉은 잎 흘날리고 해 기울자 어부 주막 희게 밝네.

서로 생겨나 서로 만나니 오직 간담만 논할뿐 어찌 구구하게 함께 맹약을 맺으랴.

• 次權進士點韻(차권진사점운)

권진사 운에 맞추어 짓다

邂逅相逢別忽然 盤中時果即隨便
해후상봉별홀연 반중시과즉수편
屠龍壯志今堪笑 題柱初心虬可憐
도룡장지금감소 제주초심기가련
我撫瑤琴思舊調 君披越紙寫新篇
아무요금사구조 군피월지사신편
他時若問良宵會 正是銀蟾缺欲圓
타시약문량소회 정시은섬결옥원

뜻밖에 서로 만나 헤어짐이 홀연하니 쟁반 속 시절 과일 곧바로 제멋대로 놓인 듯
용 잡을 응대한 뜻 이제 와 웃음거리 되고 기둥에 쓴 처음 마음 좀벌레 먹은 듯
가련하네.

내 요즘 어루만지며 옛 곡조 생각하고 그대 월지 펼쳐 새 글 쓰네.

훗날 좋은 밤 모임 묻거든 바로 은빛 둥근 달 기울었다 다시 차려는 때라고 말하리.

• 濟民樓次權進士韻(제민루차권진사운)

• 巍然盡閣厭溪邊 左右龜形列眼前(외연진각염계변 좌우구형렬안전)

높고 웅장한 제민루는 시냇가가 싫은듯이 서 있고, 좌우의 거북 모양 기이하게 눈 앞에 벌여 있네.

月光滿地樓臺月天影沉 江上下天物外剩為漁釣客

월광만지루대월천영침 강상하천물외잉위어조객

蓬山不美羽衣仙 遨遊半世醒還醉 清濁何嫌聖與賢

봉산부미우의선 오유반세성환취 청탁하혐성여현

달빛은 땅에 가득하고 누대는 달빛과 하늘 그림자 잠기었네 강 위아래 하늘 밖 세상일에 남은 것은 오직 낚시하는 나그네.

봉래산은 아름답지 않고 날개옷 입은 신선도 부럽지 않으니 반평생을 노닐며 깨었다 취했다 하네 맑고 흐림 어찌 거리라, 성인과 어진 이인 것을.

• 奉別金監司(봉별김감사)

김감사께 삼가 작별을 고하며

觀周千里興方闌 渡海還鄉信所難

관주천리흥방란 도해환향신소난

六翮飛騰天上鳳 一叢蕭索谷中蘭

륙편비등천상봉 일총소색곡중란

秋深蘆渚花如雪 雨過楓林葉欲丹

추심로저화여설 우과풍림과욕단

佳節盡簪公莫負 雙眸長向嶺雲寒

가절진잠공막부 쌍모장향령운한

주나라 천리 땅을 둘러보니 흥취는 이미 쇠잔하고, 바다 건너 고향 돌아가는 소식은 믿기 어렵네.

여섯 날개 훨훨 나는 하늘 위의 봉황처럼 한 떨기 쓸쓸한 골짜기의 난초로다.

가을 깊으니 갈대밭 꽃은 눈처럼 희고 비 지나간 단풍 숲엔 열매 붉어지려 하네.

좋은 시절 다하도록 벼슬 잊지 마시고 두 눈은 늘 저 멀리 차가운 고개 구름 향하시길.

• 和金進士遇秋韻(화김진사 우추운)

김진사의 가을 시 운에 차운하다

世間行路太行難 愛子舍光王蘊山

세간행로태행난 애자사광왕운산

殷室未求調鼎手 渭川還把釣魚竿

은실미구조정수 위천환파조어간

休言關塞風塵暗 獨占林園日月閑

휴언관새풍진암 독점림원일월한

徒古贊才當晚用 莫樵頭上二毛斑
도고찬재당만용 막초두상이모반

세상 살아가는 길이 태행산처럼 험난한데 사랑하는 아들 빛 버리고 산에 은거했네.
은나라 조정에서 찾지 않으니 술 다를 손재주 위수 강가에 돌아와 오히려 낚싯대를
잡았네.

변방의 바람 먼지 어둡다 말하지 마오 홀로 숲 동산의 해와 달을 한가로이
차지했네.

부질없이 옛날 재주 칭찬하나 만년에 쓰일 텐데 나무꾼 머리 위의 희끗한 머리털
슬퍼하지 마오.

• 戊申秋 送金啞軒遊清涼(무신 추 송김아현유청량)
김아현의 청량 유람길을 전송하며

清涼蕭寺送君行 正值秋山錦編
청량소사송군행 정치추산금편
鼻窓接長松同鶴夢 路連高漢駕風霆
비창접장송동학몽 로련고한가풍정

白雲紅樹供詩興 碧澗清泉洗俗情
백운홍수공시흥 벽간청천세속정
半世相從多病客 沉吟徒自望行旌
반세상종다병객 침음도자망행정

청량산 쓸쓸한 절에서 그대 떠나보내니 마침 아름다운 비단 펼친 듯한 가을
산이로다.

창가에 달은 긴 소나무는 학과 함께 꿈꾸는 듯 길은 높은 하늘에 달고 바람과
천둥을 몰아가는 듯.

흰 구름 붉은 나무는 시흥을 돋우고 푸르게 윤나는 맑은 샘은 속된 정을 씻어주네.
반평생을 서로 따르던 병 많은 나그네 침음하며 부질없이 떠나가는 깃발 바라보네.

• 奉呈南厓 鶴沙(봉정남애 학사)
남애 학사께 반들어 올립니다

分外軒裳故屐輕 白雲終日鎖空庭
분외헌상고사경 백운종일쇄공정
梅香滿室冷風動 竹影橫牕白月生
매향만실랭풍동 죽영횡창백월생
臺閣當年汲子直 江湖今日范公情
대각당년급자직 강호금일범공정
致唱堯舜違初計 空把琅玕闕下呈
치창요순위초계 공파랑간궐하정

분수 넘치는 높은 벼슬 옛 신발처럼 가벼이 여기고 흰 구름 종일토록 빈 뜰에 잠겨 있네.

매화 향기 가득하고 찬 바람 불어오니 대나무 그림자 창문에 비끼고 하얀 달빛 드리우네.

높은 누각엔 당년에 금자처럼 강직했고 강호에 있는 오늘은 범려처럼 뜻이 높네.
요순 임금 찬양하나 처음 계획 어긋나 부질없이 아름다운 대나무 임금께 바치네.

• 月下吟(월하음)

달 아래 읊다

扶藜徐步出溪行 銀漢西傾王露橫
부려서보출계행 은한서경왕로횡

月色鋪沙汝轉白 秋光入水水逾清
월색포사여전백 추광입수수유청

石橋人影遊魚散 蘆渚颺音睡驚驚
석교인영유어산 로저공음수로경

白髮憂時多所思 水晶巖畔坐三更
백발우시다소사 수정암반좌삼경

지팡이 짚고 시냇가를 천천히 걸어나서니 은하수 서쪽으로 기울어, 이슬이 왕처럼 드리웠네.

달빛이 모래를 깔아두니 강물은 더욱 희어지고, 가을 빛이 물속으로 스며들어 물은 더욱 맑아졌구나.

돌다리 위 내 그림자에 물고기들은 흩어지고, 갈대 습지엔 발소리 때문에 잠든 백로가 깜짝 놀라네.

백발의 늙은이, 세상을 걱정하며 생각은 많지만, 수정 같은 바위 곁에서 삼경까지 홀로 앉아있네.

• 次東槎錄(차동차록)

동사록의 운을 따라 짓다

關西形勝望長河 萬頃炯波十里沙
관서형승망장하 만경형파십리사

老去羈懷吟不盡 通來鄉信問如何
로거기회음부진 통래향신문여하

人迎鳳詔巖程迫 馬踏龍橋古渡過
인영봉조암정박 마답룡교고도과

男子平生懷壯志 中宵彈劍發長歌
남자평생회장지 중소탄인발장가

관서(關西)의 빼어난 경치에서 장강(長河)을 바라보니 만 이랑 넘실대는 물결과 십리 모래벌이 펼쳐진다.

늪어감에 떠도는 정은 끝이 없어 시로 풀고 고향 소식 전해 들으려 해도 소식이 막연하구나.

어떤 이가 봉서(鳳詔)를 맞으며 험한 벼랑길을 달리고 말은 용교(龍橋)를 밟으며 옛 나루를 건넌다.

사내란 평생 장한 뜻을 품고 사는 법 한밤중 칼을 휘두르며 길게 노래를 부른다

• 寄謝李追齋 崇彦 贈扇(기사이추재 승언 증선)

추재 이승언께서 부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편지로 감사드리며

經春饘粥保殘軀 故舊誰憐此老夫

경춘전죽보잔구 고구수련차로부

二載音書稀北路 一封佳惠自南隅

이재음서희북로 일봉가혜자남우

桃花紅艷驚人眼 竹葉清風拂鬢鬚

도화홍염경인안 죽엽청풍불빈수

當暑炎威雖得避 雨中無冒愒登途

당서염위수득피 우중무모게등도

긴 봄 동안 죽 한 그릇에 몸을 겨우 붙이고 있었는데 옛 친구들 중에 누가 이

늪은이를 가엽게 여길까.

두 해 동안 소식 끊긴 북녘에서 남쪽 끝에서 보내온 한 통의 편지와 귀한 선물이 있었다.

복사꽃 붉게 빛나는 아름다움이 눈을 놀라게 하고 부채에서 이는 맑은 바람이 귀밑 머리카락을 스친다.

여름 땀별의 더위는 그 부채로 피했지만 장맛비 내리는 이 길에선 아쉽게도 펼 수 없었네.

• 基谷禹同知老職宴次權正郎 省吾韻(기곡 우동지노직연차권정랑 성오운)

기곡우 동지 노직 연회에서 권정랑 성오의 운에 차운하다

義皇天地此田園 九十年來卧簞門

희황천지차전원 구십년래와필문

上壽感天優古老 中樞賜爵荷新恩

상수감천우고로 중추사작하신은

淸和四月開高宴 福祿千秋獻賀言

청화사월개고연 복록천추헌하언

白首亦來叅末席 香山九老可追論

백수역래참말석 향산구로가추론

희황 시대 같은 이 땅에서 아흔 해를 초가집에 누워 지냈네.
 하늘의 은혜 감격한 장수 누리니, 조정에서 벼슬 내려 새 은혜 입었네.
 화창한 사월, 성대한 잔치 열리니, 천추의 복록을 드려 하례하네.
 흰 머리 나도 말석에 참여하니, 향산의 아홉 노인을 가히 논할 만하네.

• 次贈山僧(차증산승)

산승의 운을 따라 지어 드리다

暫離蘿月出人世 錫杖今朝返舊樓
 잠리라월출인세 석장금조반구루
 碧潤淸冷心可洗 蒼厓戍削足難躋
 벽윤청랭심가세 창애수삭족난제
 床前罄響銀河澈 爐上恭炷竹塢迷
 상전경향은하철 로상공형죽오미
 他日禪扉相訪處 重開淸眼手提携
 타일선비상방처 중개청안수제휴

잠시 달빛 드리운 세상 떠나, 석장 짚고 오늘 옛 암자로 돌아왔네.
 푸르고 윤택하며 차가운 기운에 마음 씻을 수 있고, 푸른 벼랑 험준하여 발 디디기
 어렵네.
 상 앞에는 맑은 소리 은하수처럼 흘러, 화로 위에는 공손히 밝힌 불빛 대숲에
 어른거리네.
 훗날 선방 다시 찾아뵈을 때, 맑은 눈으로 손잡고 함께 가리라.

• 積雨(적우)

장마

雨脚連旬迄未霽 雲陰蔽日暫無開
 우각련순흘미제 운음폐일잠무개
 今年何異前秋失 積雨猶深久旱災
 금년하이전추실 적우유심구한재
 竈下水沉蛙產子 門前客斷履生苔
 조하수침와산자 문전객단리생태
 廟堂變理知誰任 萬姓嗷嗷自歎哀
 묘당변리지수임 만성오오자탄애

열흘 넘게 비발이 이어져 그치지 않고, 구름 그림자 해를 가려 잠시도 개이지 않네.
 올해가 어찌 지난 가을과 다른가, 묵은 장마 더욱 깊어 오랜 가뭄 재앙이네.

부뚜막 아래 물이 저 개구리 새끼 낳고, 문 앞엔 손님 끊겨 이끼가 끼었네. 조정의
다스림 변화를 누가 말할지 알 수 없으니, 만백성은 슬피 탄식하며 스스로
애달파하네.

• 送金掌令 烏川(송김장령 오천)
오천으로 가는 김장령을 전송하며

御使胷中濟世謀 當當聲譽動青丘
어사흉중제세모 당당성예동청구
升除邪正清朝著 扶植綱常在筆頭
승제사정청조저 부식강상재필두
風度曾欽超百辟 精忠會驗出凡儔
풍도증흠초백피 정충회험출범주
治平邦國男兒事 然後林泉可退休
치평방국남아사 연후림천가퇴휴

어사 가슴속엔 세상을 구제할 계책이 가득하여, 당당한 명성이 온 나라에 떨치네.
간사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함에 조정에 뚜렷한 공이 있고, 나라의 기강을
불들어 세움이 붓끝에 달려 있네.

빼어난 풍모 일찍이 모든 신하들 뛰어넘었고, 순수한 충성 마침내 범상한 무리에서
드러났네.

나라를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은 사나이의 일이니, 그 후에야 비로소 숲과
샘에서 편안히 쉴 수 있으리라.

• 曾祖 贈爵日題示一座(증조 증작일제시일좌)
증조부 증작되시던 날 한 자리에 모여 써드리다

今朝此會非他飲 遠近諸孫會廟庭
금조차회비타음 원근제손회묘정
千派皆徒元派水 一身分你百身形
천파개도원파수 일신분니백신형
追封先祖高官顯 恩及重泉感淚零
추봉선조고관현 은급중천감루령
祭羈開樽同醉處 不知誰弟又誰兄
제기개준동취처 부지수제우수형

오늘 이 모임은 다른 술자리가 아니라, 멀고 가까운 여러 손자들이 사당 뜰에
모였네. 일천 갈래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물줄기요, 한 몸이 나뉘어 너와 나의
백 몸을 이루었네. 돌아가신 증조부께 높은 벼슬 추증되니, 깊은 땅에까지 미쳐

감격의 눈물 흐르네. 제사 지내고 술잔 열어 함께 취한 자리에서, 누가 아우고 또 누구의 형인지 알지 못하겠네.

• 輓烏川金掌令(만오천김장령)

김장령에 바치는 조문시

千載三韓正氣衰 烏川何幸有吾師
천재삼한정기쇠 오천하행유오사
腸摧憂國身成病 血泣傷時鬢變絲
장쇠우국신성병 혈읍상시빈변사
址牖淸風元亮卧 西山春蕨伯夷飢
탕유청풍원량와 서산춘꺾백이기
仁而無賴延遐壽 哭向寒雲不盡思
인이무뢰연하수 곡향한운부진사

천 년 세월 삼한의 바른 기운 쇠퇴했는데, 오천에 어찌 이리 다행히 나의 스승 계셨던가. 나라 근심에 창자가 끊어질 듯 병이 들고, 시절 슬퍼 피눈물 흘리니 귀밑머리 희어졌네. 흙벽 창문에 맑은 바람에 원량이 누웠듯, 서산의 봄 고사리에 백이가 굻주렸네. 인자하나 기댈 곳 없어 긴 세월 보내셨으니, 차가운 구름 향해 슬피 울며 다함없는 생각에 잠기네.

• 輓郭奉事(만곽봉사)

곽 봉사에게 바치는 조문시

半世幽居不用名 林塘一面掩柴荆
반세유거부용명 림당일면엄시형
安貧自得開中趣 樂道環輕分外榮
안빈자득개중취 악도환경분외영
仁壽悠悠終有限 神明漠漠遽無情
인수유유종유한 신명막막거무정
從知積善留餘慶 王胤賢孫揔俊英
종지적선류여경 왕윤현손총준영

반평생을 그윽이 살아 이름을 쓰지 않았고 숲과 연못 언저리, 한쪽 얼굴은 가시덤불에 가리웠네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스스로 즐거움을 열었으며 도(道)를 즐기며 걸치레한 영예는 가볍게 여겼네
인애와 장수를 누렸지만 결국 유한한 것이며 신령의 세계는 아득하여 갑작스레 무정하구나
알겠노라, 선을 쌓으면 여운은 남고 왕손과 손자들 모두가 준걸이로다

• 輓金平叟(만김평수)

김평수에게 바치는 조문시

積善由來多有慶 山川孕出杜安童
적선유래다유경 산천잉출두안동
文章孝悌傳家世 質實寬容自古風
문장효제전가세 질실관용자고풍
二豎嬰身終你崇 十年磨劍竟無功
이수영신종니수 십년마검경무공
檜溪老叟偏多感 為善無兒伯道同
회계로수편다감 위선무아백도동

선을 쌓으면 예부터 복이 많다 하였거늘 산천이 길러낸 이는 마치 두안동 같도다
문장과 효도, 형제애로 집안을 이어왔고 질박함과 관용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풍모였네
두 아이의 병환에 몸을 앓기고 끝내 화를 피치 못했으며 십 년 간 갈고 닦은 검도
끝내는 쓰지 못했구나
회계의 늙은이는 유난히도 슬퍼하니 선한 이가 아들 없이 가니 백도와 같도다

• 輓裴判官尚益(만배판관상익)

배 판관 상익에게 바치는 조문시

雪月之精王冰面 早將聲譽振朝端
설월지정왕빙면 조장성예진조단
西風驚浪危孤棹 南塞偏方赴薄官
서풍경랑위고도 남새편방부박관
萱堂方擬專城眷 漢水俄看旅櫬還
훤당방의부성권 한수아간려친환
地下精靈聊可慰 盈庭蘭玉出羣班
지하정령료가위 영정란왕출군반

눈빛과 달빛 같은 정기, 왕빙과 같은 얼굴빛 이른 나이에 명성을 조정에 떨쳤네.
서풍의 파도 놀람에 외로운 배가 위태롭고 남쪽 변경의 외진 곳으로 낮은 관직
말으러 가네.
어머니께선 한 고을의 살림을 맡을 줄 아셨거늘 한수 물가에서 갑작스레 위향한 관
뚜껑을 보았네.
지하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뜰 가득한 난초와 옥 같은 자손, 무리
중에서도 빼어난 이들이라오.

• 除夜口占拙句呈南厓案下(제야구점졸구정남애안하)

제야에 즉흥적으로 읊은 졸렬한 시를 남애 어른의 책상 아래에 올립니다

拙身城市稟南麓 任幽棲人物南中斗 文章天上奎 生涯同栗里

추신성시품남록 임유서인물남중두 문장천상규 생애동률리

儒術慕廉溪 應有求賢曰 松扉降紫泥

유술모렴계 응유구현왈 송비강자니

속세를 벗어나 남쪽 기슭에 의탁하니, 그윽한 곳에 사는 인물은 남쪽 하늘의 북두성과 같네. 글 솜씨는 하늘의 규성과 같고, 삶은 율곡 선생과 같으니, 유학은 염계 선생을 흠모하네. 응당 어진 이를 구하는 조서가 있으리니, 소나무 사립문에 임금의 조서가 내리리라.

• 奉別金大司憲榮祖愍窩(봉별김대사헌영조망와)

김대사헌 영조 께 이별을 고하며

嶺外多君子 我公最忠良 濟川安你楫 構厦可成標

령외다군자 아공최충량 제천안니楫 구하가성표

戀主心猶赤 夏時髮已黃 今為島府長 將見振顏綱

련주심유적 하시발이황 금위도부장 장견진퇴강

영남 지방에 군자가 많지만, 우리 어른이 가장 충성스럽고 어질시네. 강을 건너 백성을 편안하게 할 굳건한 배요, 큰 집을 지을 만한 훌륭한 재목이시네. 임금 그리는 마음 여전히 붉은데, 여름철에 이미 머리털 희어졌네. 이제 도백이 되시니, 장차 기울어진 기강을 펴쳐 일으키시리라.

• 盤桓堂次南厓韻(반환당차남애운)

반환당에서 남애의 운에 따라

昨夜城西照德星 諸賢相會酒盈瓶

작야성서조덕성 제현상회주영병

醉中愛惡君休問 偏愛孤松雪嶺青

취중애악군휴문 편애고송설령청

지난밤 성 서쪽에 덕성이 빛나더니, 여러 어진 이들 모여 술병에 술 가득하네. 취중에 좋고 싫음은 그대 묻지 마오, 외로이 선 소나무와 눈 덮인 푸른 산을 유독 좋아하노라.

• 輓省吾堂李先生(만성오당리선생)

성오당 이선생을 애도하며

平生廉介出格裏 清白持身德業崇 敦熟詩書思復釋 沉潛義理擴而充
평생렴개출격과 청백지신덕업숭 돈숙시서사복석 침잠의리확이충
貧居陋巷欽顏子 師表儒林繼退翁 運去一朝臯比撤 文星從此晦吾東
빈거루항흙안자 사표유림계퇴옹 운거일조고비철 문성종차회오동

생전에 청렴하고 강직함은 세상 밖에 비길 데 없었고, 몸가짐은 맑고 곧아, 그 덕과 업적은 높이 쌓였네.

시서(詩書)에 익숙하여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즐겼고, 깊이 있는 의리(義理)를 깊이 연구하여 널리 확장하였네.

가난한 살림에 누추한 골목에 살아도 안자(顏子)를 흠모하였고, 유학자들의 스승이 되어 퇴계(退溪)를 잇는 분이었네.

운명이 다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니, 문운(文運)의 별이 이로부터 우리 동쪽에서 빛을 잃었네.

檜溪公遺稿附錄

회계공유고부록

• 輓詞(만사)

雙城遺烈未全衰 丞相風流子獨追 素性縱貧猶愛客 高才雖老尚吟詩
쌍성유렬미전쇠 승상풍류자독추 소성종빈유애객 고재수로상음시
一生心賞餘倉壁 百世家聲付白眉 四十五年懼會地 此翁垂死更依誰
일생심상여창벽 백세가성부백미 사십오년구회지 차옹수사정의수

司諫 金應祖

사간 김응조

쌍성의 남긴 충절은 아직 다 쇠하지 않았거늘 승상의 기품을 오직 그 자제가 홀로
계승했도다. 성품이 소탈하여 가난해도 손님을 사랑하고 재능이 높아 나이 들어서도
시를 읊조리셨네
한평생 마음이 기려 남긴 것 창고와 벽에 남고 백대에 이어질 집안의 명성은 흰
눈썹에 맡겼도다. 사십오 년 세월 속 만나기 두려운 이 땅 위에서 이 노인 임종에
이르러 의지할 이는 누구이리오?

사간 김응조

詩酒從遊八十年 碧松同是舊生員
시주종유팔십년 벽송동시구생원
君今先去吾何久 未盡餘懷指九泉
군금선거오하구 미진여회지구천

進士 權 點

진사 권 점

시와 술로 함께 노닌 팔십 년, 푸른 소나무처럼 같이 늙은 벗이여. 그때는 이제
먼저 떠나가니, 나는 어찌 이리 오래 남았는가. 다 못한 회포 구천을 가리키네.

진사 권 점

共折斧宮丙午蓮 芳隣又接卅年前 花朝聯袂窮南陌 月夕携壺上北阡
공절부궁병오련 방린우접삼년전 화조련매궁남맥 월석휴호상탕천
陳迹似雲空起憶 浮生如露更堪憐 臨詩欲忍無從淚 詩到題時涕自漣
진적사운공기억 부생여로경감련 림시욕인무종루 시도제시체자련

掌令 申悅道

장령 신열도

함께 꺾던 부궁(斧宮) 병오년의 연꽃 향기로운 이웃 다시 삼십 년 전으로 이어지네
꽃 피는 아침 소매 걸고 남쪽 길 끝까지 다니며 달 밝은 저녁 술병 들고 언덕 길
오르던 날

옛 자취 구름처럼 허망히 추억만 떠오르니 떠도는 인생 이슬같이 더욱 애처롭구나
 시 앞에선 눈물 참으려 하나 어찌 참으리 시 제목 쓰니 저절로 눈물 고이네
 장령 신열도

虞庠上客卧龜城 眷拙衡茅送此生 學道初心參一唯 傳家舊姓晋三卿
 우상상객와구성 권졸형모송차생 학도초심참일유 부가구성진삼경
 伊山早歲聯書榻 德谷前秋對酒觥 豈料春風吹老淚 旅摠殘月倍傷情
 이산조세련서탑 덕곡전추대주굉 기료춘풍취로루 려총잔월배상정

正郎 權省吾
 정랑 권성오

우상(虞庠)의 고귀한 손님이 귀성(龜城)에 누워있으니, 어리석은 재주로 초가집에서
 평생을 보내네. 학문에 처음 마음둔 뜻은 오직 한 길[一唯]이었건만, 대대로 이어온
 우리 가문은 진나라 삼경(三卿)과 같았도다.

이산(伊山)에서는 젊은 날 함께 책상 나란히 했고, 덕곡(德谷)에서는 지난 가을
 술잔을 나누었더니, 어찌 알았으랴 봄바람에 늙은 눈물이 흐를 줄, 여행길에 지는
 달빛이 슬픔을 더욱 깊게 하네.

정랑 권성오

白首林園事事閑 山翁野老慣開顏 高門忠義三韓後 令子文華兩漢間
 백수림원사사한 산옹야로관개안 고문충의삼한후 령자문화량한간
 旅館空留七旬杖 佳城今卜萬年山 素車那得南鄉去 却羨天涯吊鶴還
 려관공류칠순장 가성금복만년산 소차나득남향거 각이천애적학환

上同
 상동

백발이 되어 숲속 정원에서 한가롭게 지내니 산속 노인과 들판 늙은이들 늘 환하게
 웃네 명문가의 충의는 삼한의 후예로 전해지고 훌륭한 자식의 문장은 양한의 글씨
 사이 빛나리.

여관엔 헛되이 칠십 쥘신만 남아있고 아름다운 무덤 자리 이제 만년산에 정했네
 소박한 수레 타고 남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차라리 천애에서 학(鶴)을 조문하며
 돌아오리라.

상동

忘形早歲許相隨 晨夕洽溪不覺疲 色動初筵知愛客 髭撚半醉認吟詩
 망형조세허상수 신석흠계부각피 색동초연지애객 자연반취인음시
 一村自作朱陳杜 七老仍成白首期 臘月俄驚三十盡 可堪和淚鴈哀詞
 일촌자작주진두 칠로임성백수기 랍월아경삼십진 가감화루안애사

司藝 李崇彦
 사예 이승언

어린 모습으로 일찍이 서로 따르기로 하여 아침 저녁으로 시냇가에서 지쳐줄
모르네 잔치 자리에서 기쁨 빛나니 손님 사랑 알겠고 수염 만지며 반취에 시 읊는
모습 알아보리.

한 마을 스스로 주진두(朱陳杜)가 되고자 하니 일곱 노인이 여전히 백두의 약속
이루네 선달 그름에 문득 서른 해 다함을 깨달으니 어찌 눈물 섞인 기러기 슬픈
노래 화답하리.

사에 이승언

與君同病一時深 中夜方書東燭尋 孝子藥修終不驗 遽肱忽作大鑪金
여군동병일시심 중야방서동촉심 효자약수종부험 거거홀작대로김
巖下茅齋巖上松 可憐無復響吟筇 我在人間知幾許 九原相待話從容
암하모재암상송 가련무복향음공 아재인간지거허 구원상대화종용

判事 秦尙弘
판사 진상홍

그대와 같은 병을 앓은 때가 깊었고, 한밤중, 등불을 밝혀 글을 쓰며 그대를 찾았네.
효자가 정성껏 지은 약도 끝내 효험이 없고, 갑작스레 관을 열고 큰 화로에 금처럼
몸을 바쳤지.

바위 아래 초가집과 바위 위의 소나무 애달프게도 다시는 지팡이 소리 들리지 않네
내가 인간 세상에 머문 시간 얼마나 되었던가 구천(九原)에서 만나 편히 이야기
나누리.

판사 진상홍

兩世交遊鬢已蒼 高風常仰支人行 早年聲價青蓮榜 晚歲襟期一草堂
량세교유빈이창 고풍상앙지인행 조년성가청련방 만세금기일초당
客至杯盤頻剪髮 醉來篇什動盈箱 傷心里社春方好 雲馭茫茫隔帝鄉
객지배반빈전후 취래편십동영상 상심리사춘방호 운어망망격제향

正字李尙彦
정자이상언

두 세월을 함께한 벗이여 이제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섰네 높은 절개 늘 우러르니
지공(支公)의 품모라 하겠다 젊은 날의 명성은 청련방(靑蓮榜)에 빛났더니 늙어서
바라는 건 다만 초당(草堂) 한 칸이로구나.

손님 오면 술상 차려 수염 자르고 맞이하며 취하면 시구(詩句) 줄줄 쏟아져 상자
가득 넘치네 애달픈 이별의 마을 봄빛은 한창인데 구름 타신 임금님은 아득히
제향(帝鄉)에 계시네.

정자 이상언

自從沉病廢開行 未奉清儀歲累更 準擬他年承教誨 何知今日隔幽明
자종침병폐개행 미봉청의세루경 준의타년승교회 하지금월격유명
傳家聲有青蘊業 裕後恆留長者名 山下草堂依宿昔 為誰重酌舊時觥

전가성유청전업 유후항류장자명 산하초당의숙석 위수중작구시평

都事琴忠達
도사금충달

병든 뒤로 문을 열고 나서지 못한 지 그대의 맑은 모습 못 뵈은 지 몇 해인가
다른 해에 가르침 받으리라 여겼더니 어찌 오늘 유명(幽明)이 갈라질 줄 알았으리.
가문의 소문 푸른 장막의 업적 전해지고 후대에 넉넉히 어진 이의 이름 남겼네
산 아래 초당은 예전 그대로인데 이제 누구를 위해 옛 술잔 다시 들까.

도사 금충달

怡神晚節卧林泉 身世休休地上仙 四壁圖書生計足 一區風月醉吟邊
이신만절와림천 신세휴휴지상선 사벽도서생계족 일구풍월취음변
茅齋每嘆如千里 人事誰知變一年 記得逢迎常款款 不堪今日過門前
모재매탄여천리 인사수지변일년 기득봉영상관관 부감금월과문전

生員張龍遇
생원장룡우

마음을 편히 하고 만년을 숲과 샘가에 누워 지내며 세속을 초탈한 삶은 마치 인간
세상의 신선과 같았지요.

방 안 네 벽은 책으로 가득하고, 한 모퉁이의 풍월도 시로 노래하며 즐기셨습니다.

초가집에 들를 때마다, 마치 천 리를 다녀온 듯 감회에 젖었고,

인간사의 변화가 어찌 이렇게도 1년 만에 바뀌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반겨 맞아주시던 모습이 정겨웠는데, 오늘은 그 집 문 앞을 지나며 이내
눈물이 맺힙니다.

생원 장룡우

龜城西畔鶴峰前 卜築幽居問幾年 鄉里一生稱長老 騷壇半世號詩仙
구성서반학봉전卜축유거문기년 향리일생칭장로 소단반세호시선
門欄有慶盈蘭玉 名利無心斷醜妍 七十六年真一夢 玉山春色淚痕邊
문란유경영란옥 명리무심단추연 칠십륙년진일몽 옥산춘색루흔변

都事黃益淸
도사황익청

거북이 섬 서쪽 언덕 학산 앞에 점쳐 짓은 숨은 집 몇 해를 살았던가.

마을에선 평생을 '장로'라 불렀고 시단에선 반생을 '시선'이라 칭했네.

대문 앞엔 경사로 난초와 옥 같은 자식들 넘쳐났으나 名利엔 마음 없어 아름다움과
추함 가리지 않았더니, 칠십육 년이 참으로 한바탕 꿈이로다.

옥산 봄빛에 눈물 자욱이 젖어있네.

도사 황익청

病我三年苦 多君一問之 我猶瘞境邊 君已復聲悲

병아삼년고 다군일문지 아유전경변 군이복성비
 皓首名何晦 青蓮世共知 白眉應約變 覃慶似君誰
 호수명하회 청련세공지 백미응약변 담경사군수

縣監安頊
 현감 안옥

내 병이 삼년이나 되도록 괴로움이 많았는데 그대가 한 번 물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오히려 병이 나은 듯했지요. 그러나 지금 그대는 벌써 저 경계 너머에 계시고, 슬픈
 목소리는 백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름 높은 분이 어찌 이리도 어둡게 사라지는가 세상은 청련(靑蓮)처럼 그대를
 알아주었건만. 흰 눈썹 같은 어른이 다시 태어나시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대처럼
 깊은 은혜와 경사를 남긴 이를 누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현감 안옥

憶吾童卅事 如兄未死 如今鬢雪明 痛我棠華晉代謝
 억오동관사 여형미사 여금빈설명 통아당화진대사
 謂公龜筭八旬盈 如何數十餘年別 永隔千秋萬歲情 病滯終南達執紼
 위공구산팔순영 여하수십여년별 영격천추만세정 병체종남위집불
 追惟儀範淚如傾
 추유의범루여경

郡守金念祖
 군수김념조

어린 시절[童卅] 일을 추억하니 형님은 아직 살아계신 듯
 이제야 내 두발은 눈[雪]처럼 희건만 아! 우리 사랑하던 배꽃[棠華]은 진(晉)나라처럼
 지고
 그대는 거북 점[龜筭]으로 팔십[八旬]을 누리셨네 어찌하여 수십 년[數十餘年] 의
 이별 끝에 영원히 천추만대[千秋萬歲]의 정을 막히셨는가 병들어 종남산[終南]에
 갇혀 장례[執紼]도 못 다하고 그 풍모[儀範]만 추억하며 눈물이 쏟아지네

군수 김념조

早結金蘭契 追隨若弟昆 騷壇同琢玉 蓮榜共題名
 조결김란계 추수약제곤 소단동탁옥 련방공제명
 南極星達晦 西阡馬鬣成 素交零落盡 白首濱沾纓
 남극성체회 서천마렵성 소교령락진 백수빈침영

察訪朴檜茂
 찰방박회무

일찍이 금란의 맺음[金蘭契]을 하고 형제처럼 따르며 지냈더니
 시단[騷壇]에선 함께 옥[玉]을 갈고 과방[蓮榜]에선 함께 이름을 올렸네.

남극성[南極星]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서쪽 언덕[西阡]에 말갈기[馬鬣] 무덤
이르렀구나 오랜 벗[素交]들은 다 흩어지고 백발에 눈물만 끈[纓]을 적시네
찰방 박희무

北漢衣冠裔 採蓮太華英 追隨當日義 膠忝百年情
북한의관에 채련태화영 추수당일의 교첩백년정
濁世知難住 淸都夢忽驚 抱痾違執紼 遺恨負幽明
탁세지난주 청도몽홀경 포아위집불 유한부유명

進士朴樅茂
진사박종무

북쪽 한나라의 풍류를 이은 후에, 연꽃을 줍듯 아름다움을 좇던 시절, 눈부신
재능이 함께했네. 따라 그날에 우리의 의로운 정은 굳건한 아교와 같았으나,
부끄럽게도 백 년에 걸친 그 깊은 정을 제가 감히 칭합니다. 흐린 세상에 머물기
어려움을 알기에, 문득 깨어난 맑은 도읍의 꿈에 놀랍니다. 병을 안고 상여를 잡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니, 남은 한이 저승과 이승 모두에 맺혀 무겁습니다.
진사 박종무

蓮榜寸名大鄉堂 齒德尊閑隨賢士 友靜卧好山村 世業饒田圃
련방촌명대향당 치덕존한수현사 우정과호산촌 세업요전포
家聲侈子孫 後生叨眷顧 題輓更消魂
가성치자손 후생도권고 제만경소혼

正言全益禧
정언전익희

벼슬길 작은 이름이나마 고향 마을에 빛났고, 높은 연세와 덕망으로 어진 선비들과
함께하셨네.
고요한 벼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산골에 누워 지내셨고, 대대로 물려온 농토는
풍요로웠네.
훌륭한 가문 명성은 자손 대대로 이어졌으며, 후배인 제가 외람되이 보살핌을
받았나이다. 이제 만시를 쓰니 더욱 애통하여 혼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정언 전익희

我識夫公童丱 曰純真頻有古人風 青春司馬香名甚 白首癯容道氣濃
아식부공동관 월순진빈유고인풍 청춘사마향명심 백수구용도기농
塵世百年如幻夢 落花三月閉幽宮 人生到此堪長嘆 況復交親臭味同
진세백년여환몽 락화삼월폐유궁 인생도차감장탄 황복교친취미동

進士宋尚憲
진사송상헌

내가 그대 공을 처음 알았을 때 어린 나이였는데, 순수하고 진실하여 자주 옛
현인의 풍모가 보였네. 젊은 시절 사마상여처럼 향기로운 이름 드높았고, 흰 머리
수척한 얼굴에는 도가의 기운이 짙었지.

덧없는 세상 백 년은 한바탕 꿈과 같고, 꽃잎 지는 삼월에 깊은 궁궐은 닫히는
듯하네. 인생 여기까지 이르니 길게 탄식할 만한데, 하물며 오랜 교우인 그대와
취미마저 같으니 더욱 슬프오.

진사 송상헌

昔在岐陽最見親 慣從門下躡清塵 才論北麓詩無敵 宅近南厓德有隣
석재기양최견친 관종문하섭청진 재론북록시무적 택근남애덕유린
守靜生涯閑是樂 待人誠歛老愈新 遽然厭世乘雲去 花柳空餘寂寞春
수정생애한시악 대인성애로유신 거연염세승운거 화류공여적막춘

宋尚寬
송상관

지난날 기양에 계실 적 가장 친견하여, 늘 문하에서 맑은 티끌을 밟았습니다. 북쪽
산기슭의 시를 논할 때 적수가 없으셨고, 남쪽 언덕 가까운 곳에 사시며 덕으로
이웃하셨네.

고요함을 지키는 삶에 한가로움이 즐거움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정성은 나이 들수록
더욱 새로웠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싫어하고 구름을 타고 떠나시니, 꽃과 버들만
공허히 남아 쓸쓸한 봄이로다.

송상관

敦厚高風衆所贊 偏蒙情愛自穉年 身多疾病嫌難奉
돈후고풍중소현 편몽정애자치년 신다질병혐난봉
住異東西根斷便為趨 陽春開一笑那知此日隔重泉
주이동서근단편위진 양춘개일소나지차일격중천
邇來親戚凋零盡 老弟人間孰板聯
이래친척조령진 로제인간숙판련

同知金成沃
동지김성욱

돈독하고 후덕한 높은 풍모는 여러 사람의 칭송받았고, 어려서부터 남다른 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몸에 병이 많아 모시기 어려웠음을 싫어했는데, 동서로 떨어져
살며 뿌리 끊기니 문득 봄을 좇는 듯합니다. 화창한 봄날 한 번 웃으셨을 때 어찌
오늘날 황천으로 가셨을 줄 알았겠습니까.

가까운 친척들마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늙은 아우인 저는 이 세상에 누구와
의지해야 할까요.

동지 김성옥

人間壽福萃高門 人哭吾君我賀君 手中蓮幕耀鄉國 餘慶應知在後昆
인간수복평고문 인곡오군아하군 수증련모요향국 여경응지재후곤

郡守李 塔
군수 이 탑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장수와 복을 누리다 높은 문턱을 넘으셨으니, 남들은
곡할지라도 저는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손안의 연꽃 그림은 고향 마을과 나라를
빛나게 했으니, 남은 경사는 응당 당신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군수 이 탑

<원문 57 쪽 원본 누락>

笑詩酒逍遙八十春 丈夫志願隨所適 不用平生苦一身 已矣儀形今莫見 追思昔時倍傷神
소시주소요팔십춘 장부지원수소적 부용평생고일신 이의의형금막전 추사석시배상신
小子最掩無窮痛 先考於公骨肉親
소자최엄무궁통 선고어공골육친

張龍變
장룡변

웃으며 시와 술로 유유자적 팔십 평생을 보내셨으니, 대장부의 뜻은 가는 곳마다
만족스러웠으리라. 평생 홀로 괴로워할 필요 없으셨네. 이미 돌아가신 모습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니,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 된 제가
끝없는 슬픔을 감히 감춥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공과 골육과 같은
친분이셨습니다.

장룡변

昔我零丁十二三 來依喜得伴諸男 子憐厚意雖難報 父事深情久自含
석아령정십이삼 래의희득반제남 자련후의수난보 부사심정구자함
性本溫和身亦潤 心無榮辱德何慚 鄉鄰共慕敦而睦 士友爭稱樂且湛
성본온화신역윤 심무영욕덕하참 향린공모돈이목 사우쟁칭악차담
司馬功名才未展 算瓢陋巷味猶甘 有時花月詩兼酒 幾接親朋笑又談
사마공명재미전 산표루항미유감 유시화월시겸주 기접친봉소우담
塵世每歎離杖屨 玉京何意駕仙驂 贊多窮陋人皆惜 仁不遐齡理未諳
진세매탄리장구 옥경하의가선참 찬다궁액인개석 인부하령리미암
餘慶必須看後日 季郎名字播吾南 泉臺此曰 白首孤鸞痛不堪
여경필수간후일 계랑명자파오남 천대차왈 백수고란통부감

金裕後
김유후

지난날 외롭고 의지할 곳 없어 열두세 살에 와 의탁하여, 기쁘게 여러 남자아이들과 벗이 되었네. 자애로운 마음에 비록 보답하기 어려웠으나, 아버님 섬기는 깊은 정 오래도록 스스로 간직했네.

본성은 온화하고 몸 또한 윤택했으며, 마음에 영화와 치욕 없어 덕에 어찌 부끄러움 있으리오. 고향 이웃들 모두 흠모하여 돈독하고 화목했으며, 선비 친구들은 다투어 즐거워하고 또 깊이 사귀었네.

비록 사마의 공명은 아직 펼치지 못했으나, 대나무 바가지와 좁은 골목의 맛도 오히려 달았네. 때로는 꽃과 달 아래 시와 술을 함께 즐기며, 가끔 친한 벗들 만나 웃고 이야기 나누었네.

덧없는 세상 매번 지팡이와 신발 벗어놓고 떠남을 슬퍼했는데, 어찌하여 하늘나라에 신선 수레를 타고 가셨는지.

기리는 이 많았으나 궁핍하고 액운 많아 사람들 모두 안타까워했고, 인자함에도 오래 살지 못했으니 이치를 알 수 없네.

남은 경사는 모름지기 뒷날을 봐야 알 것이니, 제랑의 이름은 우리 남쪽 지방에 널리 퍼지리라.

저승에서 이에 말하노라. 흰 머리 외로운 난세의 슬픔 전달 수 없도다.

김유후

吾鄉耆舊幾人存 此老如今又九原 不向世間爭得失 且將清福臥田園
오향기구기인존 차로여금우구원 부향세간쟁득실 차장청복와전원
諸郎歲獻南山祝 小子頻添北海樽 門掩草堂春寂寂 忍看花月鎖黃昏
제랑세헌남산축 소자빈첨북해준 문엄초당춘적적 인간화월쇄황혼

府使李達意
부사리달의

내 고향의 늙은 어른들, 이제 몇이나 살아 계신가. 이 늙은이 또한 이제 저 아득한 구원(九原)에 들어가셨구나. 세상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맑은 복을 누리며 들판과 정원에 누워 계셨네.

아들들과 손자들이 해마다 남산의 장수를 빌고, 어린 자손들은 북해의 술잔을 자주 채워 올렸지. 문 닫힌 초당엔 봄이 쓸쓸히 깃들고, 꽃과 달이 황혼에 잠기니 차마 바라볼 수 없구나.

부사 이달의

天上壽星晦 人間大夢驚平生敦孝友 餘慶耀琉璃
천상수성회 인간대몽경평생돈효우 여경요림리
古宅含悽色 前溪送响聲 何知前歲奉 永訣隔幽明

고택 함처색 전계송향성 하지전세봉 영결격유명

進士權昌震
진사권창진

하늘의 수성마저 어두워지니, 인간 세상의 큰 꿈이 놀라 깨는 듯하네.
평생 돈독한 효심과 우애로, 남은 경사 아름다운 옥처럼 빛나리.
오래된 집은 슬픈 기색을 머금고, 앞 시냇물은 흐느끼는 소리 보내는 듯.
어찌 알았으랴, 지난 해 영원한 이별을 모셨을 줄, 이제 저승과 이승으로
나뉘었으니.

진사 권창진

與子從遊久 交情伯仲間 相約共白首 何遽隔青山
여자종유구 교정백중간 상약공백수 하거격청산
盡翬溪水濕 丹旌曉月寒 還將無盡恨 題輓涕沅瀾
진삼계빙습 단정효월한 환장무진한 제만채환란

朴文范
박문범

그대와 함께 놀며 지낸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우정은 친형제처럼 가까웠네.
함께 백발이 되도록 살자고 약속했거늘 어찌하여 느닷없이 푸른 산 너머로
떠났는가.

부채(翬)는 다하고 시냇가의 얼음은 젖어 있으며 붉은 상기는 새벽달 아래 차갑게
나부끼네. 그대에 대한 끝없는 한을 다시 끌어올려 이 추도시를 적으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

박문범

追遊自少卅餘年 臭味同來枕幾聯 時月難堪萌鄙吝 幽明況復隔踰躔
추유자소삼여년 취미동래침기련 시월난감맹비린 유명황복격편선
題名蓮榻非公慶 積善平生有胤賢 人事已非春獨老 野花依舊草堂前
제명련방비공경 적선평생유윤현 인사이비춘독로 야화의구초당전

李 嶼
이 명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 지낸 지 서른 해가 넘었고,
마음과 취향이 같아 몇 번이나 함께 베개를 나누며 지냈네.
세월이 흐르며 점차 속 좁고 인색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참기 어렵거늘,
이제는 삶과 죽음을 사이에 두고 아득히 헤어지게 되었구려.
연꽃 앞에 이름을 적는 것도 그대의 경사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대는 평생 선행을 쌓아 자손에게 복을 남겼거늘.

인간 세상사는 이미 달라졌고, 봄날에도 홀로 늙어가니,
들꽃만이 여전히 그대가 머물던 초당 앞에 피어 있네.

이 명

檜翁詩志蕩春雲 厚德高風更出羣 早歲香名騰壁水 暮年幽迹掩荆門
회옹시지탕춘운 후덕고풍경출군 조세향명등벽수 모년유적엄형문
那知溪舍前秋別 遽作泉臺此日分 痛矣鄉鄰先友盡 欲題哀輓却忘言
나지계사전추별 거작천대차일분 통의향린선우진 욕제애만각망언

金雲章
김운장

회옹의 시 뜻은 봄날 구름처럼 드넓고, 후덕한 높은 품모는 더욱 무리 중에서
뛰어났네. 젊은 시절 아름다운 이름 벽수(벽란도)에 떨쳤고, 만년의 은거한 자취는
가시덤불 문에 가려졌네. 어찌 알았으랴, 시냇가 집에서 지난 가을 이별이, 갑자기
저승에서 오늘날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이야. 슬프다, 고향 이웃과 먼저 간 벗들 모두
사라지고, 애도하는 만사를 쓰려 하나, 슬픔에 겨워 말을 잊었네.

漢甸稱華閥 玄山有檜翁 清詩重趙壁 香譽精周廡
한전칭화별 현산유회옹 청시중조벽 향예정주옹
南極星初晦 東巖迹已空 從今先友盡 萬事涕雙瞳
남극성초회 동암적이공 종금선우진 만사체쌍동
草堂晴日愛吟詩 上舍風流出等夷 交義夙從姻好重 不堪題輓涕交頤
초당청일애음시 상사풍류출등이 교의숙종인호중 부감제만체교이

閔覺
민각

넓은 한나라 땅에서 명문가로 일컬어졌고, 현산에는 덕 높은 회옹이 계셨네. 맑은
시는 조나라의 벽처럼 귀하게 여겨졌고, 향기로운 명예는 주나라의 웅처럼
정미로웠네. 남극성이 처음으로 어두워지니, 동쪽 바위 언저리 거처는 이미 텅
비었네. 이제부터 먼저 간 벗들 모두 사라졌으니, 만사에 눈물만이 두 눈동자에
가득하네. 초가집 맑은 날에 시 읊기를 즐기셨고, 높은 집에 풍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났네. 사귄 의리는 오래되었고 혼인으로 맺어진 우정은 더욱 깊었는데, 차마
만사를 적으니 눈물이 턱에 흐르는구나.

민각

司馬高名動夙時 掉頭軒冕卧溪湄 兄稱皇考情因重 子視吾身誼可知
사마고명동숙시 도두헌면와계미 형칭황고정인중 자시오신의가지
餘慶綿綿蕃蕙玉 行仁坦坦亨期顧 芙蓉臺上他年會 無復吟詩索和詩
여경면면번혜옥 행인탄탄형기고 소용대상타년회 무복음시색화시

生員宋大年

사마의 높은 명성은 일찍부터 세상에 알려졌고,
벼슬과 명예를 뿌리치고 시냇가에 은거하셨네.
형이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칭송함은 정이 깊어서였고,
그대는 나를 자식처럼 여겼으니 그 우의가 명백하도다.
남긴 복은 끊임없이 이어져, 향기로운 난초와 옥같은 후손을 낳고,
행실은 어질고 길도 평탄하니 마침내 뜻을 이루었구나.
연꽃대 위에서 웃으며 다시 만나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더는 시를 지으며 화답할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네.

竹林公遺稿

죽림공유고

詩(시)

• 醉贈南叔初 乙未(취증남숙초 을미)

취증에 남숙초에게 드리다

盤桓堂上倒金罍 醉入新豐叩石扉

반환당상도김첩 취팔신풍고석비

玆重主人持酒勸 夜來歌鼓夢中依

진중주인지주권 야래가고몽중의

반환당 위에서 금배를 기울이며, 신풍의 여덟 사람 취해 바위문을 두드리네.

진귀한 술을 들고 주인이 권하니, 밤이 오자 노래와 북소리가

꿈속에서도 들리네.

• 訪愚川不遇鄭弼 丙申(방우천부우정척 병신)

우천을 방문했으나 정척을 만나지 못하고 (병신년에 쓰다)

雙枝山下兩三家 為愛烟霞此地多

쌍지산하량삼가 위애연하차지다

過客獨吟題鳳句 水邊誰唱採蓮歌

과객독음제봉구 수변수창채련가

쌍지산 아래 두세 채 집이 있고, 안 개와 노을 좋아하는 이 이곳에 많도다.

나그네 홀로 봉황의 시구를 읊고, 물가에선 누가 연꽃 따는 노래를 부르나.

• 寄贈尹仲晦晟(기증윤증회성)

윤증회성께 (글을) 부쳐 드리며

茅山勝會去年春 今日重來幸有因

모산승회거년춘 금일중래행유인

蒲座衆賓皆酩酊 與君還作獨醒人

포좌중빈개명정 여군답작독성인

지난해 봄 모산의 성대한 모임, 오늘 다시 찾아온 것 인연이로다.

부자 자리에 손님들 모두 취했는데, 그대와 함께 우리는 홀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었네.

• 伏次聘君韻 二首金別座時忱(복차빙군운 이수김별좌시침)

김별좌께서 벼슬에서 물러나실 때

擾擾人生宇宙間 百年能得幾時閑 鶴山東畔頻回首 雲自無心鳥自還
요요인생 우주간 백년능득기시한 학산동반빈회수 운자무심오자환

溪南寒盡早春生 碧澗涓涓憂玉聲 點檢自家無限意 野梅香動柳絮輕
계남한진조춘생 벽간연연알옥성 점검자가무한의 야매향동류서경

어지럽고 어지러운 인생살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백 년을 살 동안에 몇 번이나 한가로울 수 있을까. 학산 동쪽 언덕에서 자주 머리 돌이켜 바라보니, 구름은 본래 무심하고 까마귀는 저절로 돌아가네.

시냇물 남쪽 차가운 기운 다하니 이른 봄이 생겨나고, 푸른 산골짜기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옥을 두드리는 듯 맑구나. 자신의 마음속 무한한 뜻을 가만히 헤아려 보니, 들매화 향기 바람에 날리고 버들개지 가볍게 훑날리네.

• 送金絨齋歸觀潭陽 時行(송김함재귀근담양 시행)

김함재가 담양으로 돌아가 아버이를 뵈러 갈 때

會向興城作此行 彩衣今復指秋城 湖南勝地皆清賞 渭北春天獨惱情
회향흥성작차행 채의금복지추성 호남승지개청상 위북춘천독뇌정

陟岵已知瞻望切 臨岐還覺別離輕 君歸想得承歡日 佳氣薰濃萬壽觥
척호지지침망절 립기환각별리경 군귀상득승환일 가기훈농만수경

흥성으로 향하여 이번 길을 떠나니, 화려한 옷 입고 이제 다시 가을 고을을 가리키네. 호남의 아름다운 곳곳은 모두 맑고 즐길 만하나, 위수 북쪽의 봄날은 홀로 마음을 괴롭히네. 고개에 올라 이미 바라봄이 간절한 줄 알겠고, 갈림길에 임하여 오히려 이별이 가볍게 느껴지네. 그대가 돌아가 부모님 기쁘게 해 드릴 날 생각하니, 아름다운 기운 가득하여 만수잔에 넘치리라.

• 鶴沙赴密陽以詩酒追餞于甘泉(학사부밀양이시주추전우감천)

학사가 밀양으로 떠나며 감천에서 시와 술로 전송하다

廊廟登庸揔呂周 訐謏經畧煥皇猷 孤臣志願專丘壑 聖主恩和典大州
랑묘등용념려주 우모경략환황유 고신지원전구학 성주은화전대주

조정에 등용되어 여자와 주공처럼 국정을 맡으니, 넓고 깊은 제책과 경륜이 빛나는 임금의 도리 밝히네. 외로운 신하의 뜻은 오로지 산수에 있으나, 성스러운 임금의 은혜 화합하여 큰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네.

• 寓居茅山時贈尹仲晦(우거모산시증윤증회)

모산에 머물 때 윤증희에게 드리다

離家越自去年冬 寄得東西任轉蓬 為容莫言愁未鴈 奉慈惟覺樂無窮
리가월자거년동 기득동서임전봉 위용막언수미안 봉자유각악무궁
故園歸計黃梅後 此地交遊青眼中 風雨一番春又暮 把盃須趁杜鵑紅
고원귀계황매후 차지교유청안중 풍우일번춘우모 파배수진두견홍

지난해 겨울부터 집을 떠나 떠도는 인생, 바람 따라 부평초 같네

근심 많다 말하지 말게나, 기러기도 오지 않지만 부모님 생각하며 끝없는 기쁨 느끼네

고향 돌아갈 생각은 매실꽃 질 무렵이고 이곳의 벚들은 모두 정다운 눈길을 주었네
봄비 한바탕 지나가고 어느새 봄도 저무니잔 들고 진달래 붉을 때를 놓치지 말세

• 在茅山時伏次聘君韻 二首 (재모산시복차빙군운 이수)

모산에 있을 때, 빙군(어른)의 운을 따라 겸손히 차운한 두 수의 시

為卜陰晴門早開 陪遊恐負鶴沙期 皇天潤物還多意 客子思家未授衣
위복음청문조개 배유공부학사기 황천윤물환다의 객자사가미수의
竈下濕薪烟不起 床頭釋子苦啼飢 田廬有事還來早 為報鄰朋且莫譏
조하습신연부기 상두석자고제기 전려유사환래조 위보린봉차막기
茅山一面數椽開 此地陪遊各有期 自分病慵眠石榻 為緣佳會拂塵衣
모산일면수연개 차지배유각유기 자분병용면석탑 위연가회불진의
蘇妻應笑歸槎晚 漂母猶知飯信飢 鵬擊天橫知有日 籬邊斥鷃莫嘲譏
소처응소귀차만 표모유지반신기 봉격천횡지유왈 리변척안막조기

흐림과 갬 속에 아침부터 문을 열고 벚과의 약속 어기지 않으려 놀러 나섰네.

하늘은 만물 적셔줄 뜻 품고 있고 떠도는 나그네는 옷도 변변치 않네.

부엌엔 젖은 장작 연기 피지 않고 침상에선 아이가 배고파 울고 있네.

밭일 때문에 일찍 나와 돌아왔지만 이웃 친구여 나를 비웃지 말게나.

茅山 한켠에 초가 몇 칸 열어 두고 이곳에 놀러들 오기로 한 이들 각자 뜻 있어라.

나는 병에 게으름 더해 돌침상에 누워 있고 좋은 인연의 모임이라 먼지를 털고
일어났네. 蘇妻도 웃겠다 늦게나마 돌아온 배라며 漂母도 굶주림은 알아 밥 주던
일이 떠오르네.

큰 새는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는데 울타리의 새끼 새는 나를 비웃지 말게나.

• 陳月寺次愚川韻(진월사차우천운)

진월사에서 우천의 운에 차운하다

梵宮高在鶴山巔 杖屨來從綠水邊 曾荷秋岡函丈誨 更得蕭寺對床眠
범궁고재학산전 장구래종록수변 증하추강함장회 경득소사대상면
天花耀日禪心寂 春雨經宵客耳先 奉袂沙門還惜別 西峯月色倍依憐
천화耀日禪心寂 春雨經宵客耳先 奉袂沙門還惜別 西峯月色倍依憐

천화요일선심적 춘우경소객이선 봉메사문환석별 서봉월색배의슬

불당은 높이 학산 꼭대기에 있고지팡이와 신 끌며 푸른 물가로부터 왔네.
예전 가을 언덕에서 큰 스승의 가르침 받았고지금은 소사에서 같은 침상에 나란히
잠자네.

하늘 꽃은 햇빛에 빛나고 선심은 고요하며봄비는 밤새 내리고 객은 먼저 귀
기울이네. 승려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손을 잡고서쪽 봉우리의 달빛은 더욱
정겹구나

• 次愚川亭韻(차우천정운)

우천정 운에 차운하다

洞天寥寂石門幽 溪上茅簷倚斷丘 司馬田園空獨樂 淵明樽酒可忘憂
동천요적석문유 계상모침의단구 사마전원공독악 연명준주가망하
靑山有意當軒碧 白水無聲遠竹流 地僻不嫌叅問少 愛者鷗鷺下汀洲
청산유의당헌벽 백수무성원죽류 지僻부협참문소 애자구로하정주

신선 사는 곳처럼 고요하고 적막하며, 돌문은 그윽하네. 시냇가 초가집은 끊어진
언덕에 기대어 있고,

사마온의 전원은 부질없이 홀로 즐거웠지만, 도연명의 술통 속 술은 시름을 잊게
하네.

푸른 산은 뜻이 있어 처마 앞에 푸르게 다가서고, 흰 물은 소리 없이 멀리 대숲
사이로 흐르네.

땅이 외져 찾아와 묻는 이 적다 해도 싫지 않으니, 사랑하는 갈매기와 해오라비는
물가 모래톱에 내려앉네.

• 次伴鶴亭韻(차반학정운)

반학정 운에 차운하다

靑山東畔碧溪曲 上有亭臺佳可遊 仙鶴已乘黃鶴去 狎鷗惟見白鷗浮
청산동반벽계곡 상유평대가가유 선학이승황학거 압구유견백구부
名區別業傳豪士 愚水從遊有小舟 當日諸賢題壁上 分留物色與詩流
명구별업전호사 우수종유유소주 당일제현제벽상 분류물색여시류

푸른 산 동쪽 언덕 푸른 시냇물 굽이진 곳에, 위에 정자가 있어 아름다워 가히 놀
만하네. 신선 학은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나갔고, 갈매기 친숙해 함은 오직 흰 갈매기
떠 있는 것만 보이네.

명승지의 별장은 호방한 선비에게 전해지고, 우수에서 함께 노니는 작은 배 있네.

그날 여러 현인들이 벽에 쓴 글 위에, 아름다운 경치와 시인의 풍류를 나누어
남겼네.

• 遠李參奉赴京二首(원리참봉 부경 이수)

이참봉이 서울로 떠나는 것을 멀리서 보내며

高飛一鴈入秦雲 十月江天木葉紛 酒盡沙亭人未散 不堪明日手相分
고비일안입진운 십월강천목엽분 주진사정인미산 부감명일수상분
點額龍門始得官 世間榮辱不須歎 風塵洛下知多少 倘記山牕對榻歡
점액룡문시득관 세문영욕부수탄 풍진락하지다소 당기산창대탑환

높이 나는 기러기 한 마리 진나라 하늘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시월 강 하늘에
나뭇잎 어지러이 흩날리네. 모래톱 정자에 술잔 비어도 사람들은 아직 헤어지지
못하고, 내일 서로 손 잡고 헤어질 생각하니 차마 견딜 수 없네.

용문에 이마를 부딪친 후에야 비로소 벼슬을 얻으니, 세상사의 영욕은 애써 탄식할
것 없네. 풍진 이는 낙양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라마는, 혹 산 창가 마주
앉아 즐거워하던 날들을 기억해 주오.

• 次啞軒草堂韻三首(차아현 초당운 삼수)

아현초당 운에 차운하다

靑嶂周遭綠水迴 小塘清活絕纖埃 閑吐草堂人不到 渚禽鳴近石階隈
청장주조록수회 소당청활절섬애 한토초당인부도 저금명근석계외
茅齋南畔鑿為池 更就東鼻點勝奇 欲識先生新意思 荷花初動水花飛
모재남반오위지 경취동비점승기 욕식선생신의사 하화초동수화비
色更多情溪邊等 土小壇成楊柳風 來几業清試向閑 中看物態水光山
색경다정계변등 토소단성양류풍 래계업청시향한 중간물태수광산

푸른 산봉우리 둘러 있고 푸른 물은 돌아 흐르는데, 작은 연못 맑고 활기차서 티끌
하나 없네. 한가로이 자리한 초당엔 사람 발길 드물고, 물가의 새는 돌계단 구석
가까이서 우짖네.

초가집 남쪽에는 솔뚜껑으로 연못을 만들고, 다시 동쪽 끝으로 나아가 빼어난 경치
점철했네. 선생의 새로운 뜻을 알고자 하니, 연꽃이 처음 움직이고 물방울이
날아오르네.

색깔은 더욱 정겹고 시냇가에 이르니, 흙으로 작은 단을 쌓고 버드나무 바람에 책상
깨끗하네. 한가로운 가운데 사물의 모습을 살펴보니, 물빛과 산 그림자 거울 속처럼
펼쳐지네.

• 茅山集句(모산집구)

모산에서 여러 시인의 구절을 모아 짓다

一曲高歌醉耳醒 金樽酒重暮山青 人間歡會無多日 杯到君前且莫停
일곡고가취이성 김준주중모산청 인간환회무다왈 배도군전차막정

한 곡조 높은 노래에 취한 듯하던 귀가 깨어나고, 금 술잔에 담긴 술 무겁고 저녁
산은 푸르네. 인간 세상의 즐거운 모임 많지 않으니, 술잔 그대 앞에 이르렀으니
잠시라도 멈추지 마오.

• 次柳生員曲江亭韻(차류생원곡강정운)
유생원의 곡강정 운에 차운하다

江頭曾訪首人庄 舊址依然引脫涼 黃鶴白雲千右恨 杜鵑紅杏一春光
강두증방수인장 구지의연인탈량 황학백운천우한 두견홍행일춘광
新居更覺心多感 往事潛思髮欲蒼 忽有瓊篇留案上 我公高義出尋常
신거경각심다감 왕사잠사빈육창 홀유경편류안상 아공고의출심상

강가에서 일찍이 수인(首人)의 장원을 방문했었는데, 옛 터는 여전히 남아 시원함을
끌어당기네. 황학은 흰 구름 따라 떠나 영원한 한이요, 두견새 붉은 살구꽃은 한
봄의 아름다운 경치로다. 새 거처에 와서 더욱 마음속에 감회가 많으니, 지난 일
가만히 생각하니 귀밑머리 희끗해지려 하네. 홀연히 아름다운 시편이 책상 위에
놓여 있으니, 우리 공의 고결한 의리는 평범함을 뛰어넘는구나.

• 次柳夫韻(차류부운)
유부의 운에 차운하다

四月薰風柳絮飛 雨餘乘興一筇揮 行尋東郭人如王 手採西山蕨正肥
사월훈풍류서비 우여승흥일공휘 행심동곽인여왕 수채서산꺽정비
愧我雕垂同落井 羨君沙鳥共忘機 閑來擬作川頭獵 為越佳期也莫違
괴아조수동락정 이군사조공망기 한래의작천두렵 위월가기야막위

사월의 향기로운 바람에 버들솜이 흩날리고 비 갠 뒤 흥이 올라 지팡이 하나
휘두르며 나섰네. 동쪽 마을 사람을 찾으러 가니, 임금과도 같은 이여 손으로
서산의 고사리를 캐니 때마침 살이 통통하네.

나는 늙고 병들어 우물 속에 떨어진 새 갈아 부끄럽고 그대는 모래밭의 새와 함께
번뇌를 잊으니 부럽도다. 한가로이 나와 시냇가 사냥이나 하려 하니 좋은 약속이
있다면 부디 어기지 마시오

• 次洪判官汝河立春韻 五首(차홍판관여하立春운 오수)
홍판관이 여하에서立春에 지은 시의 운을 따라 차운한 다섯 수

白頭無事對青編 舊學莊然醉裏眠
백두무사대청편 구학장연취리면

今日迎春如有待 幸當蘧瑗識非年
금일영춘여유대 행당거원식비년

흰 머리 되어 할 일 없이 푸른 책 마주하니 묵은 학문 장증하게 취한 듯 졸고 있네.
오늘 입춘 맞으니 기다림 있는 듯하여 다행히 거원이 나이 아닌 앓을 알겠네.

塵世幽懷得酒刪 悠然岸幘見南山
진세유회득주산 유연안책견남산
雪中又策蹇驪去 湖址梅花幾處閑
설중우책새려거 호지매화기처한

속세의 그윽한 회포 술 얻어 잊으니 유연히 수건 벗어 남산 바라보네. 눈 속에 또
검은 말 채찍질하여 떠나가니 호숫가 옛터 매화 몇 곳에 한가로이 피었나.

半日清談俗慮剛 通來相別隔雲山
반일청담속려강 통래상별격운산
離家去作東華客 只有沙鷗自在閑
리가거작동화객 지유사구자재한

반나절 맑은 이야기 속된 걱정 겨우 통했는데 와서 이별하니 구름 덮인 산
가로막혔네. 집 떠나 동쪽 화려한 서울의 나그네 되니 오직 모래 갈매기만이 홀로
자유롭고 한가롭네.

昨夜秋風南浦起 好音今寄北來鴻
작야추풍남포기 호음금기북래홍
十年磨劔塵生匣 田舍還為灌圃翁
십년마일진생갑 전사환위관포옹

어젯밤 가을바람 남쪽 포구에 일더니 좋은 소식 이제 북쪽에서 오는 기러기에
부치네. 십 년 칼 갈았으나 칼집에 먼지만 쌓이고 고향에 돌아가 도리어 채소밭 물
주는 늙은이 되었네.

翠水粼粼帶脫波 青烟點點起人家
취수린린대탈파 청연점점기인가
高人飽得閑中趣 魚躍于淵鷺下沙
고인포득한중취 어약유연로하사

푸른 물결 반짝이며 떠 플린 듯 잔물결 푸르고 안개 점점이 피어나는 곳에 인가
있네. 고상한 사람 한가로움 속의 즐거움 충분히 얻으니 고기 연못에서 뛰놀고
백로는 모래밭에 내려앉네.

• 次伯孝韻(차백효운)

백효의 시운에 차운함

柳色依依生極浦 醉中忘却客懷苦
류색의의생극포 취중망각객회고

山村後會知何時 共說三春猶未暮
산촌후회지하시 공설삼춘유미모

버들빛 강가에 아련히 피어나고 취한 속에 나그네 설움 잊었더니
산골 뒤에서 만날 날 언제일까 함께 말하리, 봄은 아직 저물지 않았다고.

• 次仲孝韻(차중효운)

중효의 시운에 차운함

一場佳會話從容 醉後回頭望洛江
일장가회화종용 취후회두망락강

人生適意無南北 只羨新豐撞鼓聲
인생적의무남북 지이신평당고성

한바탕 좋은 만남 속에 이야기 여유롭고 술 취한 뒤 돌아보니 낙강(洛江)이
눈앞이네.

인생은 뜻에 맞으면 남북이 따로 없거늘 그저 신평(新豐) 마을의 북소리가 부러울
뿐이라.

• 求畫鶴(구화학)

학 그림을 청하다

奇花異草映窓外 只欠清宵鶴叫聲
기화이초영창외 지흠청소학규성

倘盡玄裳移壁上 草堂顏色自華生
당진현상이벽상 초당안색자화생

기이한 꽃과 이국의 풀이 창밖에 어리고
맑은 밤 흰 학 우는 소리만이 아쉬울 뿐.
만일 검은 옷 입은 학을 다 그려 벽에 옮긴다면
초당의 풍경 또한 저절로 빛나게 되리라.

• 鶴沙除工曹叅議 (학사제공조참의)

학사(鶴沙)가 공조참의(工曹叅議)에 제수되다

山斗高名舉世欵 飄然蘭雪灑曾襟 十年臺閣風霜勁 一卧江湖歲月深
산두고명거세관 표연란설새홍금 십년대각풍상경 일와강호세월심
賢俊已看膺布帛 聖明還復戀遺簪 莫道工部清寒地 老杜平生稗契心
현준기간응포백 성명환복련유잠 막도공부청한지 로두평생패계심

산두(山斗)처럼 높은 이름 세상이 우러러보니 난설(蘭雪)이 흩날리듯 가슴에 맑은
기운 퍼졌네. 십 년 대각(臺閣)에서 바람과 서릿발 전디더니 이제 강호(江湖)에 누워
세월만 깊어가도다.

현준(賢俊)들은 이미 포백(布帛)의 영예 얻었건만 성명(聖明)의 군주는 오히려 떨어진
비녀[遺簪]를 그리네. 공부(工部)의 청빈한 삶을 비웃지 말라나이든 두보 평생의
속마음이 여기에 담겼으니.

• 輓黃司藝 又清 (만황사에 우칭)

황사에 우칭을 애도하며

司諫雲孫司藝夫 風流文采自清門 十年鶴列天恩重 一卧龍山齒德尊
사간운손사에부 풍류문채자청문 십년학렬천은중 일와룡산치덕존
塵土閑情輸翰墨 江山豪興對琴樽 九仙佳會今宋落 未死人間獨斷魂
진토한정수한묵 강산호흥대금준 구선가회금송락 미사인간독단혼

사간의 손자이자 사예인 그대 맑은 가문에서 풍류와 뛰어난 문채 드러냈네. 십 년
동안 학처럼 늘어선 벼슬 하늘의 은혜 중하고 한 번 용산에 누우니 연륜과 덕망
존경스러웠네. 세상의 덧없는 정 한묵에 쏟아내고 강산의 호탕한 흥취 거문고와
술잔 대했네. 신선들의 아름다운 모임 오늘 밤 저버리니 아직 죽지 못한 인간
세상에 홀로 애끓는 혼이로다.

• 輓金奉禮堯欽(만김봉례요흠)

김봉례 요흠을 애도하며

三路餘芳裕後昆 多君風骨穹高門 才名早世稱三絕 人事如今已九原
삼로여방유후곤 다군풍골만고문 재명조세칭삼절 인사여금지구원
槐院聲華懸日月 萱關歸夢隔晨昏 機雲幸繼青氈業 庶慰重泉未死魂
괴원성화현일월 환관귀몽격신훈 기운행계칭로업 서위중천미사혼

삼로(三路)의 남은 향기 후손에 전하고 그대의 높은 기상 가문을 빛내었네.

재주와 명성 일찍이 '삼절(三絕)'이라 일컬었건만 이제는 구원(九原)의 사람이
되었구나.

괴원(槐院)의 영화는 해와 달에 걸렸고 환관(萱關)의 꿈은 아침과 저녁에 막혔도다.

다행히 육기·육운(機雲)이 청람(靑氈)의 업을 이어 황천(重泉)의 못 다 핀 넋을
위로하리라.

• 輓安進士 夢徵 (만안진사 몽징)

진사 안몽징을 애도하며

江左家聲伯仲行 知君最是白眉良 晚年交義金蘭契 半世才華翰墨場
 강좌가성백증행 지군최시백미량 만년교의김란계 반세재화한묵장
 司馬名高珠待價 屠龍志大到埋光 從今忍過山陽路 殘笛秋風獨斷腸
 사마명고주대가 도룡지대도매광 종금인과산양로 잔적추풍독단장

강좌(江左)의 가문 소문 형제 중에 그대는 참으로 백미(白眉)처럼 뛰어났네.
 만년에 금란(金蘭)의 의리로 맺고반평생 문장과 필묵으로 이름 떨쳤도다.
 사마(司馬)의 명성은 진주같이 빛났으나용을 잡으려던 뜻은 빛을 감추었구나.
 이제부터 산양(山陽) 길을 지날 적마다깨진 피리 소리에 가을바람만 애달프리.

• 輓金秀才(만김수재)
 김수재를 애도하며

椿府風流衆所宗 多君異骨降喬松 傳家志行水霜操 援俗襟期王雪容
 춘부풍류중소종 다군이골강교송 전가지행수상조 원속금기왕설용
 早歲擬攀丹桂善 朝天期把翠芙蓉 巴山莫作猿腸斷 笙鶴歸來喜再逢
 조세의반단계선 조천기파취부용 파산막작원장단 생학귀래희재봉

아버님 덕망과 풍류는 여러 사람의 으뜸이었고 그대는 빼어난 품격로 높은
 소나무처럼 태어났네.
 집안에 전해오는 뜻과 행실은 물과 서리처럼 맑고 굳으며 세속을 구제하려는
 마음은 왕량과 설용 같았네.
 젊은 나이에 붉은 계수나무 오르려 했고 조정에 나아가 푸른 연꽃 잡으려
 기약했건만,
 파산에서 원숭이 창자 끊는 슬픔 만들지 마오 생황과 학의 울음소리처럼 돌아와
 다시 만나 기쁘게 하소서.

• 輓李容之(만이용지)
 이용지를 애도하며

襟期自與衆人殊 骨相知非小丈夫 生長櫟山情可篤 同歸竹里道相符
 금기자여중인수 골상지비소장부 생장력산정가독 동귀죽리도상부
 青氈舊業今寨落 玄洞新居但草蕪 門下洛江流不盡 望思遺恨與之俱
 청전구업금채락 현동신거단초무 문하락강류부진 망사유한여지구

품은 뜻 스스로 여러 사람들과 달랐고 골상 보니 작은 영웅호걸 아님을 알겠네.
 역산에서 자라나 정은 돈독했고 대숲 마을 함께 돌아가니 도가 서로 부합했네.
 푸른 담요 깔았던 옛 사업은 이제 퇴락하고 검은 골짜기 새 집에는 다만 풀만
 무성하네.
 문 아래 낙양의 강물 끝없이 흐르듯 그리워하는 마음과 남은 한은 그와 함께 하리.

• 輓全秀才(만전 수재)

전수재를 애도하며

淸耀骨格玉京仙 只在人間升十年 鶴髮望思如有待 鸞驂超忽去無邊
 청요골격옥경선 지재인간승십년 학발망사여유대 난참초홀거무변
 新詞妙筆人誰識 隱德潛光我獨憐 休道德門今寂莫 撫孤猶喜繼青氈
 신사묘필인수식 은덕잠광아독련 휴도덕문금적막 무고유희계청전

맑은 기운 뻗속까지 옥경(玉京) 선인이시더니 인간 세상에 단 십 년 머무르셨네.
 백발의 어버이[鶴髮] 그리워 기다리시더니 신선 수레[鸞驂] 갑자기 끝없이
 떠나가셨도다.

새로운 시구와 묘필(妙筆)을 누가 알았으리 숨은 덕과 감춰진 빛 나만이 애뜻히
 여기네.

도덕의 문[道門] 이제 적막하다 말하지 마오 고아를 어루만지며 청전(靑氈) 이을 것
 기뻐하리."

• 輓李述甫(만이슬보)

이슬보를 애도하며

李氏箕裘世業傳 知君最是白眉賢 交情更重連家後 厚意曾聞識面前
 리씨기구세업부 지군최시백미현 교정경중련가후 후의증문식면전
 人事即今成一夢 德音何遽閱重泉 前年哭送吾兄淚 更灑秋天落日邊
 인사즉금성일몽 덕음하거열중천 전년곡송오형루 경쇄추천락일변

이씨(李氏)의 가업[箕裘] 대대로 이어왔건만 그대는 참으로 백미(白眉) 같은 어진
 이시더니 우정은 더욱 깊어 혼인으로 이어졌고 후의(厚意)는 일찍이 면전에서
 들었네.

인간사 이제 한바탕 꿈이 되었고 덕스러운 말씀[德音] 어찌 황천(重泉)에 먼저
 가셨는가 두 해 전 형님[吾兄]을 울며 보내던 눈물 이번엔 가을날 지는 해 곁에
 더욱 쏟아지네.

• 輓閔高原 希顏 (만민고원 희안)

민고원 희안을 애도하며

詩書學業振家聲 人說三蘇父子名 東野失兒人共惜 仲舒登茅世稱榮
 시서학업진가성 인설삼소부자명 동야실아인공석 중서등모세칭영
 治民百里官雖少 憂國多年病獨嬰 末句：孤燈黃卷伴餘生
 치민백리관수소 우국다년병독영

末句：孤燈黃卷伴餘生

말구：고등황권반여생

시서와 학업으로 가문의 명성을 떨치니 사람들은 삼소 부자의 이름을 말하네.
 동야가 아들 잃음에 사람들이 함께 애석해하고 증서가 초야에 묻혀 세상은
 영화롭다 칭송했네. 백 리 백성을 다스린 벼슬 비록 작았으나 나라 근심 여러 해
 깊어 병 홀로 앓았네.

마지막 구절: 외로운 등불과 누런 책이 남은 생 함께하네.

• 輓鄭叅奉愚川(만정참봉우천)

정참봉 우천을 애도하며

昔我從遊鬢已蒼 風流爭仰夫人行 東床義托金蘭契 四海名高翰墨場
 석아종유만이창 풍류쟁앙부인행 동상의탁김란계 사해명고한묵장

軒冕無心眞夢幼 江山八手好倘佯 愚川梅鶴今無主 只有遺篇蒲篋箱
 현면무심진몽유 강산팔수호당양 우천매학금무주 지유유편포협상

옛날 내가 따라 놀 적에 머리 이미 희끗했는데 풍류로운 자태 다투어 부인이
 행차인 듯 우러렀네.

동상에서 의탁한 정의는 금란지교 맺음 같았고 온 세상에 이름 높아 한묵의 장
 드넓었네.

높은 벼슬에 뜻 없어 참된 꿈 어려서부터 품었고 강산의 아름다움 팔 벌려
 좋아하며 거닐었네.

우천의 매화와 학 이제 주인 없으니 오직 남은 글과 부들 상자만 남아 있네.

• 輓安德章(만안덕장)

안덕장을 애도하며

鸞停翠竹好風儀 伯仲行間最白眉 臨事咸稱輸悃福 待人多見去毛父
 란정취죽호풍의 백중행간최백미 림사함칭수곤복 대인다견거모부

興泉新等衰年計 旅榻殘燈一夢悲 冥漠九原難可作 凍雲凝恨照寒曦
 흥천신등쇠년계 려탐잔등일몽비 명막구원난가작 동운응한조한희

푸른 대숲에 머문 난새[鸞] 같은 품모여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白眉]이시더니
 일을 당해선 모두 그 성실함[悃]에 감복하고 사람 대할 땐 흠[疵]을 제해 주기
 일쑤였네.

아버님은 황천[泉壤]에 계시니 노년의 계획 어렵고 여관 등불 아래 한바탕 꿈만
 애달프도다.

아득한 저승[九原]은 다시 만날 수 없어 얼어붙은 구름이 한(恨)을 머금고 찬
 해비치네.

• 輓權座前震英代權姓人作(만권좌전진영대권성인작)

권진영을 대신해 애도하며

積善之家反有殃 元方喪繼李方喪 連年門險天何意 孤露孱孫我獨傷
 적선지가반유앙 원방상계리방상 련년문험천하의 고로잔손아독상
 孝友平生人不間 敦宗厚義信難忘 應知里巷猶嗚咽 孀婦丹旌共一崗
 효우평생인부간 둔종후의신난망 응지리향유오인 상부단정공일강

선행 쌓은 집안에 도리어 재앙 내리고 원방(元方) 잃고 다시 이방(李方)을 잃었네.
 연이어 가문[門祚]의 운명 하늘은 무슨 뜻인가 고아된 약한 손자 나만 홀로
 슬퍼하네.

평생 효성과 우애로 사람들 칭송했건만 친족 돈후한 의리 참으로 잇기 어려운데
 마을 안길엔 오히려 흐느낌 소리 들리고 과부의 붉은 기[丹旌] 한 언덕에 함께하리.

• 輓趙院長獻鄉(만조원장헌향)
 조헌향 원장을 애도하며

自聞公訃我心悲 門運如何遠至斯 草谷可堪他日淚 花山難把去年向
 자문공제아심비 문운여하원지사 초곡가감타일루 화산난파거년향
 英姿美質歸黃壤 厚德家聲付白眉 昭悵東南違執紼 洛江江水倍淒其
 영자미질귀황양 후덕가성부백미 소창동남위집불 락강강수배처기

공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 슬프니 가문의 운명 어찌 이다지도 급히 다가왔는가.
 풀 이슬 같은 인생, 어느 날의 눈물 견디기 어렵고 화산(花山)엔 작년의 잔[厄] 다시
 잡을 수 없구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 이제 황토[黃壤]로 돌아가시니 두터운 덕과 가문의 소문은
 백미[白眉]에게 말기셨도다.

동남쪽에서 장례[執紼] 못한 것이 애달픈데 낙강(洛江) 물결은 더욱 처량하게
 흐르네.

• 輓申定叔(만신정숙)
 신정숙을 애도하며

鵝川茂揆衆所推 為愛吾君最白眉 弱歲幸同葱竹戲 中年多抱樹雲思
 一生忠孝人無間 半世才華子政奇 萬事即今成厄別 淚和殘墨寄哀詩

아천(鵝川)의 명문[茂族]이 모두 추앙하더니 우리 그대는 백미[白眉] 중의
 으뜸이시었네.

어릴 적 함께 죽순 대[葱竹]로 놀던 행복 증년엔 나무와 구름[樹雲]을 벗삼아
 사색했도다.

일생의 충효[忠孝]에 누구도 흠 잡지 못했고 반평생의 재주는 자정(子政)처럼
 기이했는데,

만사가 이제 영결(永別)이 되었으니 눈물을 갈아 남은 먹으로 애도의 시를 부치네.

• 輓李子宜(만이자)의

이자의를 애도하며

曾從試席襲餘薰 二十年来分義敦 李白風流偏愛酒 蘭亭健筆更能文
平生孝友人無間 半世存亡獨斷魂 陶柳謝簪當曰句 至今猶記耳邊聞

한때 과거 시험장[試席]에서 남은 향기[餘薰] 이어받아 이십 년을 의리[分義]로
두터이 지내왔네.

이백[李白]의 풍류로 술을 특히 사랑하셨고 난정[蘭亭]의 굳센 붓[健筆]으로 더욱
글을 잘 지으셨도다.

평생의 효성과 우애[孝友]엔 누구도 흠 잡지 못했건만 반평생의 존망[存亡]을 홀로
애타게 마음 졸이셨네.

도연명[陶]의 버들[柳]과 사영운[謝]의 비녀[簪] 지으신 그날의 시구 오늘까지도
여전히 귓가에 들리는 듯하구나.

• 追步洪學士次退溪先生南洞韻 木齊(추보홍학사차퇴계선생남동운 목제)

홍학사의 퇴계 선생 남동 운을 따라 목제가 짓다

昔我遊四方 驅車苦行邁 風霜入兩鬢 短楊幾破壞

석아유사방 구차고행매 풍상입량빈 단양기파괴

長安目欲暮 世道多險隘 歸來洛水頭 地濟真仙界

장안목욕모 세도다험애 귀래락수두 지제진선계

開荒結數椽 泉列石又恠 時進野老話 或碧良朋屆

개황결수연 천렬석우괴 시진야로화 혹벽량봉계

江山重三公 不以易其介 清流繞一帶 岳色羅千聚

강산중삼공 부이역기개 청류요일대 악색라천취

哦詩足寓興 得酒寧論債 文章一小技 虛譽等餅盡

아시족우흥 득주녕론채 문장일소기 허예등병진

方塘與止水 愛此清景灑 操墨纂古史 研朱點義卦

방당여지수 애차청경쇄 조묵찬고사 연주점의괘

我生宇宙間 無用一土塊 床前蠹簡堆 壁上單瓢掛

아생우주간 무용일토괴 상전두간퇴 벽상단표괘

種桃豈避世 栽杏還堪賣 昔賢既已遠 何人承訓戒

종도기피세 재행환감매 석현기이원 하인승훈계

斯文洪學士 道大多毀 孤芳衆草忌 雪月旨襟灑

사문홍학사 도대다훼 고방중초기 설월지금쇄

棲遲菖菟裘 杖藜修池砦 風櫺靜相對 憐我日衰憊

서지창도구 장려수지채 풍령정상대 련아일쇠비

多君衛道志 軒冕視草芥 為仁須勉勵 不熟等稊稗

다군위도지 현면시초개 위인수면려 부속등제패

夜深忽抱琴 何處有荷簑

야심홀포금 하처유하개

예전에 내가 사방을 떠돌며 수레 몰아 고생스레 길을 가니 풍상이 두 귀밑머리에 스며들고 짧은 버들 거의 부서졌네.

장안의 해 저물려 하고 세상길은 험난하고 막막하여 돌아와 낙수 가에 이르니 이곳은 참된 신선 세계와 같네.

황무지 개간하여 몇 칸 초가 짓고 샘은 돌 틈에 괴이하게 흐르네. 때때로 촌로의 이야기 듣고 혹은 푸른 벗 찾아오네.

강산의 아름다움이 삼공의 벼슬보다 중하니 그 지조를 바꿈지 않으리 맑은 물줄기 한 띠를 이루어 흐르고 뉘의 빛깔은 천 겹으로 모여드네.

시 읊어 흥취를 붙이기에 족하고 술 얻으니 빛이야 어찌 논하랴 문장은 작은 재주요 헛된 명예는 떡과 쌀겨와 같으니,

네모난 연못과 고요한 물을 사랑하여 이 맑은 경치에 먹을 적시네 먹 갈아 옛 역사 기록하고 붉은 칠 찍어 주역의 뜻 풀이하네.

내가 우주 사이에 태어나 쓸모없는 한 덩이 흙과 같으니 상 앞에는 좀 먹은 책 더미 쌓이고 벽에는 외로운 바가지 걸렸네.

복숭아 심어 어찌 세상을 피하리오 살구 심어 오히려 팔 만하네 옛 현인 이미 멀어졌으니 누가 가르침을 이어받으리오.

이 글에 흥학사는 도가 많아 오히려 혈뜯기 당하고,

고고한 꽃은 여러 풀들의 시기를 받으니 눈과 달빛 아래 임금의 뜻 적시네. 창포 샷샷 쓰고 지팡이 짚고 못득을 다듬으니 바람결 든 창살은 고요히 서로 마주보네 날로 쇠약해짐이 가련하네.

그대는 도를 옹호하는 뜻 굳건하여 높은 벼슬을 풀처럼 여기니 인을 행함에 모름지기 힘쓰고 익지 않음은 피와 속대와 같네.

밤 깊어 홀연히 거문고 안으니 어느 곳에 삼래기 있을까.

• 次寄金雲章野軒 八詠 斗岩(차기김운장야헌팔영두암)

금운장·야헌·팔영·두암에게 차운하여 시를 부치다

月上梅花枝 徘徊散清影 主人書不得 留你开中詠

월상매화지 배회산청영 주인서부득 류니개중영

梅間素月

달빛 오른 매화 가지, 머뭇거리며 맑은 그림자 흩뿌리네 주인은 글 읽느라 그대 붙잡지 못하고, 홀로 꽃 속에서 읊으리 매화 사이로 비치는 하얀 달.

매화 사이로 비치는 흰 달

聰外數竿竹 苦孤不你林 霜風攬綠葉 清韻當琴心

총외수간죽 고고부니림 상풍람록엽 청운당금심

竹軒淸風

울타리 너머 몇 그루 대나무, 괴롭고 외로워도 숲을 싫어하지 않네 서릿바람 푸른
잎 흔드니, 맑은 운치 거문고 소리와 같네.

죽헌에 이는 청풍

孫松傲霜雪 帶月光凌亂 攀枝獨悵然 夜久喧寬斷
손송오상설 대월광릉란 반지독창연 야구훤관단

松塢疎影

손자뻘 되는 소나무, 서리와 눈에 굴하지 않고 달빛 드리우니 가지 어지러이 뻗어
홀로 슬프네 밤 깊으니 시끄러움 사라져 끊어지네.

소나무 塢(오)의 성긴 그림자

野軒拔俗韻 遠揖陶淵明 手採東籬菊 清香泛酒觥
야헌발속운 원읍도연명 수채동리극 청향범주굉

菊壇寒香

야헌의 속세 벗어난 운치 멀리 도연명에게 읊하고 손수 동쪽 울타리 국화 꺾으니
맑은 향기 술잔에 떠오르네.

국화 壇(단)의 차가운 향기

為愛山頭雲 却拋書萬卷 朝朝自去來 應笑幽人倦
위애산두운 각포서만권 조조자거래 응소유인권

鶴岵朝雲

산머리 구름 사랑하여 만 권 책 던져두고 아침부터 오가니 응당 은거하는 이의
게으름 비웃으리.

학 모양 봉우리에 걸린 아침 구름

靄靄東坡雨 蕭一蘆外只 添詩客料 不作楚神惱
애애동파우 소일로외지 첨시객료 부작초신뇌

風華暮雨

자욱한 동파의 비, 쓸쓸한 갈대밭 너머 다만 시인의 쓸쓸함 더할 뿐, 초나라 신의
괴로움 만들지 않으리.

바람의 화려함 속 저녁

垂釣斜陽外 投業細雨中 興來歌一曲 十里秋江空
수조사양외 투업세우중 흥래가일곡 십리추강공

鳬川漁歌

기울어진 해 그림자 드리운 뉘싯대 드리우고, 가랑비 속에서 일에 몰두하니 흥이
일어 노래 한 곡조 부르니, 십 리 가을 강이 텅 비었네.

오리내[鳧川]의 어부 노래

綠草長堤畔 牧牛何處童 橫吹蘆蘂去 餘韻逐長風
록초장제반 목우하처동 횡취로약거 여운축장풍

熊川牧笛

푸른 풀 우거진 긴 들판 가에 소 먹이는 아이 어디에 있나 갈대 피리 가로 불며
떠나가니, 남은 가락 긴 바람 따라 사라지네.

곰내[熊川]의 목동 피리

• 次義山不飲酒會韻(차의산부음주회운)

의산이 지은 '금주 모임'의 시운에 차운함

山齋不用酌清樽 醉興何如道味真
산재부용작청준 취흥하여도미진
君子你詩知有意 德將能繼後來人
군자니시지유의 덕장능계후래인

산속 서재 맑은 술잔 기울일 필요 없이 취한 흥취 어떠한가, 도의 맛이 참된 것을
군자의 그 시에 뜻이 있음을 알겠으니 덕망과 재능으로 뒷사람 이어갈 이로다.

• 次金止卿 時行韻 梧麓(차 김지경시행운 오록)

김지경의 시행운에 화답하여 오록에 쓰다

我愛緘齋友詩如杜草堂家 貪樽之綠學富面浮黃
아애함재우시여두초당가 탐준지록학부면부황
更謝新詩寄聊和故意長 交情退管鮑好事唾高陽
경사신시기료화고의장 교정퇴관포호사타고양

내가 사랑하는 함재의 벗, 그의 시는 두보 초당의 시풍과 같네.

술통의 푸른 술 탐하고, 학문은 풍부하나 얼굴은 누렇게 떴네.

새로운 시 보내온 것에 다시 감사하며, 애써 화답하니

오랜 우정 더 깊어지네 관중과 포숙 같은 좋은 일도 이제 물러가니, 고양주처럼
호탕함도 사라졌네.

贈承政院左承旨成均進士府君墓碣銘

증승정원좌승지성군진사부군묘갈명

公諱鳴漢字聞遠趙氏為漢陽大姓始祖諱之壽高麗僉議中書事子諱暉為雙城摠
公휘명한자문원조씨위한양대성시조회지수고려침의증서사자회회위쌍성총
管連三世槃爵至諱仁璧興輔理功臣龍源府院君子諱消國朝佐命功臣漢平府院
관련삼세반작지회인벽흥보리공신룡원부원군자회소극조좌명공신한평부원
君諡良敬三世至諱琮清河縣監始自京徙居榮川郡子孫遂為嶺南人子諱亨琬贈
군익량경삼세지회종청하현감시자경사거영천군자손수위령남인자회형완증
刑曹叅議子諱濟子諱光先禦侮將軍是為公高曾若祖考諱貫號檜溪有詩集娶宣
형조참의자회제자회광선어모장군시위공고증약조고회관호회계유시집취선
城金吏曹判書文邯公淡之五世孫從仕郎允誠之女以嘉靖乙卯某月日生公少聰
성김리조판서문감공담지오세손종사랑윤성지녀이가정을표모월일생공소총
悟七歲能屬文受業於金鶴沙門下大見稱重洪木齋汝訶公亦云寅庚出後于族叔
오칠세능속문수업어김학사문하대견칭중홍목재여가공역윤인경출후우족숙
父諱德秀其受服在練公廬基終三年追盡其月數時人以為禮戊子追士公歿公哀
부휘덕수기수복재련공려기종삼년추진기월수시인이위례무자추사공몰공애
毀血泣亦廬墓三年鶴沙公嘗稱曰父歿觀其行吾見斯人焉家貧親老為赴舉魁鄉
회혈읍역려묘삼년학사공상칭왈부물관기행오견사인언가빈친로위부거괴향
試中壬辰司馬母夫人年老多病沉編床席公晝夜扶護不解衣不交睫手自烹粉樂
시중임진사마모부인년로다병침편상석공주야부호부해의부교침수자팽분악
石浣濯衣服嘗糞祈天六年如一日未嘗少懈其歿也哭泣之哀居處之郎一如前喪
석완탁의복상분기천륙년여일일미상소해기몰야곡읍지애거처지랑일여전상
親戚鄉黨至今稱之歲丙午三月五日公無疾而逝享年五十有二用某年月日葬于
친척향당지금침지세병오삼월오일공무질이서향년오십유이용모년월월장우
某山某向之原配豐山金氏吏曹參判榮祖之孫別座時忱之女生長世家性又明慧
모산모향지원배풍산김씨리조참판영조지손별좌시침지녀생장세가성우명혜
達事理通古今公歿之後教養幼兒使之後師受學教之義方以能有成立有二男三
달사리통고금공몰지후교양유아사지후사수학교지의방이능유성립유이남삼
女長鳳徽次鳳徵兄弟聯登司馬鳳徽早死鳳徵文科縣令女適季斗精進士次適徐
녀장봉휘차봉징형제련등사마봉휘조사봉징문과현령녀적제두정진사차적서
聖耆亦進士次適裴晉錫無後鳳徽有四男元謙元恒元昆元秦鳳徵有一男一女男
성구역진사차적배진석무후봉미유사남원검원항원곤원진봉징유일남일녀남
元益女適李守仁生員李斗精生一男一女男命錫女適士人權恢徐聖耆生二男一
원익녀적리수인생원리두정생일남일녀남명석녀적사인권엄서성구생이남일
女長男萬禧次萬禎女適士人崔周國元謙生二子元恒生四女元鼎生四女元泰生
녀장남만희차만정녀적사인최주국원겸생이자원항생사녀원정생사녀원태생

二子一女皆幼元益生五男一女葵陽宅陽餘皆幼公慈詳愷悌醞籍醇謹少有能詩
 이 자 일녀 개유원익생오남일녀 규양택양여개유공자상개제온적순근소유능시
 聲句語誼籍人口人謂必成大名而卒畸於命又不壽以死其可惜也已然二子皆以
 성구어의적인구인위필성대명이즐기어명우부수이사기가석야기연이자개이
 儒顯而長君亦早天次亦不克展布不幸中道而其子姓之繁能繼父祖業承承不墜
 유현이장균역조요차역부극전포부행중도이기자성지번능계부조업승승부추
 則天之報施於

칙천지보시어

是乎在銘曰

시호재명왈

有行以為本有文以為華何賦之厚何施之差不在其身必在其後公有子孫旣蕃且
 유행이위본유문이위화하부지후하시지차부재기신필재기후공유자손기번차
 秀其佑成之其在於斯

수기우성지기재어사

증 승정원 좌승지 성균관 진사 부군의 묘갈명

공의 이름은 명한(鳴漢), 자는 문원(聞遠)이며, 한양조씨는 본래 한양의
 대성문중이다. 시조는 이름이 지수(之壽)로, 고려시대 첨의증서사(僉議中書事)를
 지냈고, 그 아들 이름은 휘(暉)로서 쌍성총관(雙城摠管)을 지냈다. 이후 삼대에 걸쳐
 벼슬을 하여 훈작(勳爵)에 올랐으며, 인벽(仁璧)에 이르러서는 이조의 흥복이 되는
 공신으로,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으로 봉해졌다. 그 아들 이름은 연(涓)으로 조선
 개국 공신으로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양경(良敬)이다. 그로부터
 3대를 거쳐 종(琮)에 이르러 청하현감(淸河縣監)을 지냈으며, 처음으로 서울에서
 영천(永川)으로 옮겨 살면서 자손들이 영남에서 대대로 이어졌다.

증조는 형완(亨琬)으로 형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조부는 제(濟)로 벼슬하지 않았으며,
 부친은 광선(光先)으로 어모(御侮)장군이였다. 공은 이분들의 고손 혹은 증손이다.

공의 고조부, 즉 증조부의 아버지의 이름은 '관(貫)'이고, 호는 '회계(檜溪)'로
 시문집을 남겼다. 부인은 선성김씨로 예조판서 문절공(文節公) 김담(金淡)의
 5대손이요, 종사랑 김윤성의 따님이다.

공은 가정 을묘년(嘉靖乙卯)에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일곱 살에 문장을
 지을 수 있었다. 김학사(金鶴沙)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크게 칭찬받았으며, 홍목재
 유하공 또한 “그 사람됨을 보면 장차 크게 될 사람”이라 평하였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백부 덕수(德秀)에게 출제되어 그 상복을 삼년 상과 다름없이 다하며 당시 사람들로부터 예법에 밝다는 평을 받았다.

무자년(戊子)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부친이 별세하자 몹시 애통하여 피를 흘리며 슬퍼하고, 상복을 입고 삼년 동안 묘소 곁을 떠나지 않았다. 김학사도 이를 보고 “부친이 돌아가시고도 그 행실을 보면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다” 고 하였다.

집은 가난했고 어머니는 늙고 병이 많았는데 임진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향시에 급제하고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매양 어머니를 수발하며 하루도 옷을 벗지 않고 밤을 지새웠다. 자신의 손으로 약을 달이고 음식을 장만하였으며, 의복도 손수 빨고, 대소변도 맛보며 병세를 가늠하였으니, 6년간 하루도 소홀함이 없었다.

돌아가신 후에도 슬픔과 애도는 여전하여 예전과 다르지 않았으며, 친척들과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효성을 말한다.

병오년(丙午) 3월 5일, 병 없이 세상을 떠나니 향년 52 세였다. 무덤은 처음에는 영천 고향의 갈산촌 남쪽에 있었으나, 나중에 안동부 북쪽 직동 신향원으로 옮겨 모셨다. 그 자리는 바로 부인 김씨의 묘 오른편이다.

부인 풍산김씨는 예조참판 김영조의 손녀이며, 별좌 김시침의 딸로, 세가에서 태어났고, 총명하여 일을 밝게 분별하고 고금의 사리를 잘 알았다. 공이 죽은 뒤에는 어린 아들을 잘 가르쳐 스승을 붙여 교육하며 의지와 예절을 가르쳐 크게 성공케 하였다.

아들은 두 명이고, 딸은 세 명이다. 큰아들 봉휘(鳳徽), 둘째 아들 봉징(鳳徵)은 형제 나란히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봉휘는 일찍 죽었고, 봉징은 문과에 급제하여 현령縣令에 올랐다. 딸 둘은 이두정(李斗精) 진사, 서성구(徐聖耆) 진사, 배진석(裴晉錫)에게 각각 시집갔으며, 마지막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다.

봉휘는 원겸, 원항, 원곤, 원진 네 아들을 두었고, 봉징은 아들과 딸 각각 한 명을 두었는데 아들은 원익이고 딸은 이수인의 생원에게 시집갔다. 그 외에 여러 자손들이 후손으로 이어졌는데 이두정에게는 한 아들과 한 딸이 있었으니 아들은 명석이고 딸은 사인 권염에게 시집갔다. 서성구에게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으니 장남은 만희요 차남은 만정이며 딸은 사인 최주국에게 시집갔다. 원겸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원항에게는 네 딸이 있으며, 원정에게는 네 딸이 있고, 원태에게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으나 모두 어리다. 원익에게는 다섯 아들과 한 딸이 있으니 규양과 택양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공은 자상하고 온화하며 마음이 너그럽고 행실이 순수하고 신중하였다. 젊어서 시에 능하다는 명성이 있어, 시구와 언어의 뜻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반드시 큰 이름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운명이 기박하고 또한 요절하였으니 애석하다. 이미 두 아들이 모두 유학으로 현달하였으나, 장남 또한 일찍 죽고 차남

또한 뜻을 펴지 못하고 불행히 중도에 요절하였다. 그러나 그 자손이 번성하여 능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업을 이어 끌이지 않으니, 하늘의 보응이 이에 있는 것이다. 이에 명을 짓는다.

덕행을 바탕으로 문장을 꽃으로 삼은 사람, 그가 받은 은혜는 두터우며, 그 공은 널리 퍼졌네.

그에게 이루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 자손들이 훌륭하게 뻗어가니, 이 모든 것이 그를 도운 천지의 보답이로다.

幽溪公遺稿

유 계 공 유 고

贈嘉善大夫禮曹叅判同知義禁府事魚五衛都摠府副摠管行奉列大夫黃海道

증가선대부례조참판동지의금부사어오위도총부부총관행봉렬대부황해도

都事府君行狀

도사부군행상

公諱鳳徵字休仲漢陽人始祖諱之壽高麗僉議中書事子諱暉雙城摠管子諱良琪
공휘봉징자휴중한양인시조휘지수고려침의중서사자휘휘쌍성총관자휘량기
子諱暉居北邊連世襲爵子諱仁壁龍原府院君諡襄烈子諱涓八本朝以佐命功封
자휘돈거북변련세습작자휘인벽룡원부원군익양렬자휘연팔본조이좌명공봉
漢山伯左議政諡良敬子諱憐兵曹叅判子諱云從直長子諱琮清河縣監自京徙居
한산백좌의정익량경자휘련병조참판자휘운종직장자휘종침하현감자경사거
榮川子諱智琬通德郎高祖諱涵曾祖諱光虞祖諱德秀贈司僕正無子取從父兄進
영천자휘지완통덕랑고조휘함증조휘광우조휘덕수증사복정무자휘종부형진
士諱貫之子鳴漢為嗣進士贈左承旨是為公考配豐山金氏別座時忱之女吏曹叅
사휘관지자명한위사진사증좌승지시위공고배풍산김씨별좌시침지녀리조참
判榮祖孫也以崇禎後二十四年丁酉十二月二十七日誕公于葛山里茅幼從進士
판영조손야이승정후이십사년정유십이월이십칠월탄공우갈산리아유종진사
公出居于龍宮大竹里甫十歲追士公下世母夫人以客土無親戚且乏師友恐其失
공출거우룡궁대죽리보십세추사공하세모부인이객토무친척차핍사우공기실
教挈歸葛山舊居從師就學文辭日進壬戌魁鄉試與伯氏聯中司馬一時士友多稱
교설귀갈산구거종사취학문사일진임술과향시여백씨련중사마일시사우다칭
譽自是益勵志勤業夙宵不解丁丑丁內艱殯殮葬祭一從文公家禮晨昏哭奠雖疾
예자시익려지근업숙소부해정축정내간빈림장제일종문공가례신훈곡전수질
病不廢三年不食蔬果闕制遊太學諸名士皆與之遊戶屢恒滿同居諸生頻苦之公
병부폐삼년부식소과결제유태학제명사개여지유호구항만동거제생빈고지공
不以為意讀書務要存心每章或讀已過半而心有走作則必舍而從頭改讀嘗與人
부이위의독서무요존심매장혹독이과반이심유주작칙필사이종두개독상여인
聯業安閑整暇不若他人之非迫刻苦而寢食之頃記誦有程殿講比較以賦辭居魁
련업안별정가부약타인지비박각고이침식지경기송유정전강비교이부사거괴
而為有力者所擠其明年癸酉釋楊甲戌除昌樂丞丙子還義禁府都事七月棄官而
이위유력자소제기명년계유석양갑술제창악승병자환의금부도사칠월기관이
歸公嘗愛幽洞泉石之勝戊寅築室而徙居之扁之曰幽溪草堂因以為號閑居無事
귀공상애유동천석지승무인축실이사거지편지왈유계초당인이위호한거무사
日與溪翁野老吟嘯歌咏淡然忘世性不喜飲酒有客則必設之懶齋李公東標松沙
일여계옹야로음소가영담연망세성부희음주유객칙필설지라재리공동표송사
李公通意寒水權公斗紀其友也有麗澤之益焉庚寅春除黃海道都事是年有慶設
이공통의한수권공두기우야유려택지익언경인춘제황해도도사시년유경설
春秋樣公再掌試一道以公正稱其時使相甚器重之每事必諮諏焉一日邀道內守

춘추양공재장시일도이공정칭기시사상심기증지매사필자추언일일요도내수
 令之能詩者六七十人與之賦詩公詩先就一坐皆推轂焉盖公之詩不事雕列流出性
 령지능시자륙칠인여지부시공시선취일좌개추곡언개공지시부사조렬류출성
 情冲淡有餘而不屑爲也或有遺興之作而輒逸之不以示人乙未三月除固城縣令
 정충담유여이부설위야혹유전흥지작이첩일지부이시인을미삼월제고성현령
 政尚寬裕民吏俱安丙申三月以疾罷歸道卒于茶谷高坪之旅舍距生年丁酉至丙
 정상관유민리구안병신삼월이질파귀도졸우다곡고평지려사거생년정유지병
 申享年統六十以其年五月日葬于幽洞水口西坐之原其後五十六年當壬辰以
 신향년문륙십이년오월일장우유동수구유좌지원기후오십륙년당저임진이
 子元益老職推恩贈嘉善大夫禮曹叅判同知義禁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初配
 자원익로직추은증가선대부례조참판동지의금부사겸오위도총부부총관초배
 昌寧曹氏承旨友仁孫通德郎時孟女無子次配禮安金氏進士璃女生一男一女後
 창녕조씨승지우인손통덕랑시맹녀무자차배례안김씨진사리녀생일남일녀후
 配豐山柳氏謙庵雲龍曾孫從仕郎世馨女後公三十六年卒男元益同知中樞府事
 배풍산류씨겸암운룡증손종사랑세형녀후공삼십륙년졸남원익동지중추부사
 女適生員李守仁元益有五男一女長葵陽生員次普陽佐郎次得陽次宜陽生員次
 녀적생원리수인원익유오남일녀장규양생원차보양좌랑차득양차의양생원차
 夢陽生員女適士人朴師虎李守仁有二子長世臣次世靖癸陽有五男一女長錫範
 몽양생원녀적사인박사호리수인유이자장세신차세정계양유오남일녀장석범
 次錫晦承旨次錫忠次錫商次錫景女通士人孫時璞普陽三子一女長勛次晏次集
 차석회승지차석충차석상차석경녀통사인손시박보양삼자일녀장육차안차집
 女適士人全熙復得陽三男長錫昌次錫明次錫宜陽二男二女長錫時次錫良女適
 녀적토인전희복득양삼남장석창차석명차석의양이남이녀장석시차석량녀적
 士人柳萬休次適士人全是杓夢陽一女一男女適士人柳德休男錫眺錫範有五男
 사인류만휴차적사인전시표몽양일녀일남녀적사인류덕휴남석조석범유오남
 二女男顯澤顯漳顯汶顯澧顯濬女適士人申應堯餘幼錫晦四男三女男顯洙女適
 이녀남현택현장현문현례현준녀적사인신응요여유석회사남삼녀남현수녀적
 士人張泰久餘幼勛三女長適士人權若來餘幼晏三男集二男皆幼錫昌二男長顯
 사인장태구여유육삼녀장적사인권약래여유안삼남집이남개유석창이남장현
 洛次幼内外曾玄殆八十餘人幼少不能盡記嗚呼公誠孝出天每痛不及事先考當
 락차유내외증현태팔십여인유소부능진기오호공성효출천매통부급사선고당
 華義之饌必泫然出涕後喪斷指至末年刀痕猶在臨絕示子侄曰吾誤犯曾夫子而
 화의지찬필현연출체후상단지말년도흔유재림절시자질왈오오범증부자이
 今免夫之或今無以啓示汝輩且曰吾幸蒙國恩官至令宰而先考墓表不樹死且不
 금면부지혹금무이게시여배차왈오행몽국사관지령재이선고묘표부수사차부
 瞋其神志之不亂孝思之架篤如此隱伯氏早歿撫視諸孤一如已子性儉約不營生
 진기신지지부란효사지가독여차은백씨조몰무시제고일여사자성검약부영생
 產所居環堵蕭然卒之日衣不給殮棺槨賣所乘馬而具焉平居必明著衣冠不設情

산 소 거 환 도 소 연 졸 지 일 의 부 급 립 관 광 매 소 승 마 이 구 언 평 거 필 명 저 의 관 부 설 타
 慢之容待人接物都是一團和氣聞人之善若已有之聞人之不善輒揪然不樂非大
 만 지 용 대 인 접 물 도 시 일 단 화 기 문 인 지 선 약 이 유 지 문 인 지 부 선 첩 추 연 부 악 비 대
 故不輕絕之知舊皆愛敬而服其德焉公內肝德美而外務韜晦不肯求知於人夫人
 고 부 경 절 지 지 구 개 애 경 이 복 기 덕 언 공 내 간 덕 미 이 외 무 도 회 부 금 구 지 어 인 부 인
 之知不知無加損於公而為子孫者心懼其世代寢遠潛德幽光遂湮沒而無傳也謹
 지 지 부 지 무 가 손 어 공 이 위 자 손 자 심 구 기 세 대 침 원 잠 덕 유 광 수 인 물 이 무 부 야 근
 次世系及履歷行蹟就當世秉筆之君子而聽其筆削焉不肖
 차 세 계 급 리 력 행 적 취 당 세 병 필 지 군 자 이 청 기 필 삭 언 부 초

孫普陽泣血書

손보양읍혈서

가선대부 예조참판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겸 행 봉열대부 황해도 도사부군의 행장

공의 휘는 봉징(鳳徵)이고 자는 휴중(休仲)이며 한양 사람이다. 시조의 휘는
 지수(之壽)로 고려 시대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를 지냈다. 아들의 휘는 휘(暉)로
 쌍성총관(雙城摠管)을 지냈고, 손자의 휘는 양기(良琪), 증손자의 휘는 돈(暉)으로
 북변에 거주하며 대대로 작위를 세습했다. 현손의 휘는 인벽(仁璧)으로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양렬(襄烈)이다. 5대손의 휘는 연(涓)으로
 우리 조선 조정에서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한산백(漢山伯)에 봉해지고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양경(良敬)이다. 6대손의 휘는 련(憐)으로
 병조참판(兵曹叅判)을 지냈고, 7대손의 휘는 운종(云從)으로 직장(直長)을 지냈다.
 8대손의 휘는 종(琮)으로 청하현감(淸河縣監)을 지냈는데, 서울에서 영천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9대손의 휘는 지완(智琬)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고조부의
 휘는 함(涵), 증조부의 휘는 광우(光虞), 조부의 휘는 덕수(德秀)로 사복정(司僕正)에
 추증되었으나 아들이 없어 종부형의 아들인 진사 관지(貫之)의 아들 명한(鳴漢)을
 후사로 삼았다. 명한은 진사로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공의
 아버지이다. 배위는 풍산 김씨 별좌 시침(時忱)의 딸로 이조참판(吏曹叅判)을 지냈다.

영조의 손자이며, 승정(崇禎) 기원후 24년 정유년(丁酉年) 12월 27일에 공이
 갈산리(葛山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진사(進士)이신 아버지를 따라 용궁(龍宮)
 대죽리(大竹里)에서 살았다. 나이 10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께서는
 타향이라 친척도 없고 스승과 벗도 없어 자식 교육을 걱정하여 다시 갈산 옛집으로
 돌아와 스승을 따라 공부하니 글재주가 날로 늘었다. 임술년(壬戌年)에 향시(鄉試)에

장원 급제하고 백부와 함께 사마시(司馬試)에 연이어 합격하니 당시 선비와 벼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이로부터 더욱 학업에 힘쓰고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축년(丁丑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빈소 마련과 염습, 장례, 제사를 모두 문공(文公)의 가례(家禮)에 따라 행하고 아침저녁으로 곡하며 제물을 올리기를 병중에도 폐하지 않았다. 3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다. 탈상 후 태학(太學)에 노니니 여러 명사들이 모두 그와 교유하여 문 앞에는 신발이 끊이지 않았고 함께 거처하는 여러 생도들이 자주 괴로워하였으나 공은 개의치 않았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매 장을 혹은 반 이상 읽다가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반드시 덮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일찍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글짓기를 할 때 편안하고 한가하여 다른 사람처럼 급하게 애쓰지 않았고, 잠자고 밥 먹는 사이에도 암송하는 데 법도가 있었다. 임금 앞에서 하는 강론(殿講)에서 부(賦)로 비교 시험을 치를 때 장원을 하였으나 세력 있는 자에게 밀려났다. 그 다음 해 계유년(癸酉年)에 양재역 벽서 사건(釋楊甲戌)에 연루되었다가 갑술년(甲戌年)에 창락현감(昌樂縣監)에 제수되었고 병자년(丙子年)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로 돌아왔다.

칠월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평소 그윽한 동굴과 샘의 빼어난 경치를 좋아하였다. 무인년(戊寅年, 1638년 추정)에 집을 짓고 옮겨 살면서 '유계초당(幽溪草堂)'이라 이름 짓고, 이로써 자신의 호로 삼았다. 한가롭게 지내며 날마다 시냇가 노인들과 농부들과 더불어 시를 읊고 노래하며 조용히 세상을 잊고 살았다.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술상을 차렸다. 그의 친구로는 난재(懶齋) 이공 동표(李公東標), 송사(松沙) 이공 통의(李公通意), 한수(寒水) 권공 두기(權公斗紀) 등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경인년(庚寅年, 1650년 추정) 봄에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로 제수되었다. 그 해에 경사가 있어 춘추과(春秋科) 시험을 두 번 주관하며 공정함으로 칭송받았다. 당시 황해도 관찰사가 그를 매우 중히 여겨 모든 일을 반드시 자문하였다. 어느 날 관찰사가 도내에서 시를 잘 짓는 수령 6, 7명을 불러 함께 시를 짓게 하였는데, 공의 시가 가장 먼저 완성되자 모두들 칭찬하였다. 대개 그의 시는 꾸밈을 부리지 않고 성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맑고 담백함이 넘치고, 일부러 기교를 부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혹 흥이 나서 지은 작품이 있어도 곧바로 감추어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을미년(乙未年, 1655년 추정) 3월에 고성현령(固城縣令)으로 제수되어 너그럽고
편안하게 백성을 다스리니 관리와 백성 모두 편안하였다. 병신년(丙申年, 1656년
추정) 3월에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차곡(茶谷) 고평(高坪)의
여관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추정)부터 병신년까지 향년
60세였다. 그 해 5월에 유동(幽洞) 수구(水口) 서쪽 언덕에 장사지냈다.

그 후 56년 뒤인 임진년(壬辰年, 1712년)에 아들 원익(元益)의 노년 관직으로
인하여 은혜로운 증직으로 가선대부 예조참판 동지의금부사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에
추증되었다. 첫째 부인은 창녕 조씨(昌寧曹氏)로 승지(承旨) 우인(友仁)의 손녀이자
통덕랑(通德郎) 시맹(時孟)의 딸이었으나, 아들이 없었다.

두 번째 부인은 예안 김씨(禮安金氏) 진사(進士) 이(璃)의 딸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세 번째 부인은 풍산 유씨(豐山柳氏) 겸암(謙庵) 윤룡(雲龍)의 증손녀이자
종사랑(從仕郎) 세형(世馨)의 딸이었다. 공은 그 후 36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원익(元益)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고, 딸은 생원(生員)
이수인(李守仁)에게 시집갔다.

원익에게는 5남 1녀가 있었는데, 장남 규양(葵陽)은 생원, 차남 보양(普陽)은
좌랑(佐郎), 삼남 득양(得陽), 사남 의양(宜陽)은 생원, 오남 몽양(夢陽)은 생원이었고,
딸은 사인(士人) 박사호(朴師虎)에게 시집갔다. 이수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세신(世臣), 차남 세정(世靖)이다. 규양에게는 5남 1녀가 있었는데, 장남
석범(錫範), 차남 석회(錫晦)는 승지(承旨), 삼남 석충(錫忠), 사남 석상(錫商), 오남
석경(錫景)이고, 딸은 통사(通士人) 손시박(孫時璞)에게 시집갔다. 보양에게는 3남
1녀가 있었는데, 장남 욱(勛), 차남 안(晏), 삼남 집(集)이고, 딸은 토인(土人)
전희복(全熙復)에게 시집갔다. 득양에게는 3남이 있었는데, 장남 석창(錫昌), 차남
석명(錫明), 삼남 석(錫)이다. 의양에게는 2남 2녀가 있었는데, 장남 석시(錫時),
차남 석량(錫良)이고, 딸은 사인(士人) 유만휴(柳萬休)와 사인 전시표(全是杓)에게
각각 시집갔다. 몽양에게는 1남 1녀가 있었는데, 딸은 사인 유덕휴(柳德休)에게
시집갔고, 아들은 석조(錫眺)이다.

석범에게는 5남 2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현택(顯澤), 현장(顯漳), 현문(顯汶),
현례(顯禮), 현준(顯濬)이고, 딸은 사인 신응요(申應堯)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어려 기록하지 않았다. 석회에게는 4남 3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현수(顯洙)이고
딸은 사인 장태구(張泰久)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려 기록하지
않았다. 욱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장녀는 사인 권약래(權若來)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안에게는 세 아들이 있고, 집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나 모두

나머지는 어려 기록하지 않았다. 석창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현락(顯洛)이고 차남은 나머지는 어려 기록하지 않았다.

內外 증손과 현손이 거의 80 여 명이나 되어 어리고 적어 모두 기록할 수 없다.

아! 공은 진실로 효성이 하늘에서 나왔으니, 매번 돌아가신 선친께 화려한 음식을 올릴 때면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 후에 손가락이 잘리는 상을 당했는데, 말년까지 칼자국이 남아 있었다. 임종에 이르러 자식과 조카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증자(曾子)를 잘못 인용했으나 이제는 벗어났다. 지금 너희들에게 깨우쳐 줄 만한 것이 없으니, 또 말하노라. 내가 다행히 나라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영재(令宰)에 이르렀으나, 돌아가신 선친의 묘비조차 세우지 못했으니 죽어서도 또한 성내지 않으리라.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효심이 돈독함이 이와 같았다.

둘째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자 남겨진 여러 조카들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보살폈다. 성품이 검소하고 절약하여 생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살던 집은 사방 한 길 남짓한 초라한 곳이었다. 돌아가시던 날, 입을 옷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관곽은 타던 말을 팔아 장만하였다. 평소 반드시 의관을 단정히 하였고, 게으른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 모두 온화한 기운으로 대하였다. 남의 선행을 들으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였고, 남의 악행을 들으면 문득 근심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큰 이유가 없으면 쉽게 관계를 끊지 않았으며, 옛 친구들은 모두 그의 덕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복종하였다.

공은 내면의 덕이 아름다웠으나 외부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여, 남에게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다. 부인이 알든 모르든 공에게 더하거나 빼 것이 없었으나, 자손 된 자의 마음으로는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숨겨진 덕과 은은한 빛이 마침내 묻혀 전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삼가 세계(世系)와 이력(履歷) 및 행적(行蹟)을 기록하여 당대의 붓을 잡은 군자에게 맡겨 그 기록을 다듬도록 한다. 불초 손자 보양(普陽)이 피눈물을 흘리며 쓰다.

詩(시)

• 寄葛山諸益(기갈산제익)

갈산의 여러 벗들에게 부치다

十年窮谷事耕木 羞向朱門拳鋏歌京洛 卽今青眼少 江湖從古白鷗多 功名不就緣才薄
 십년궁곡사경목 수향주문권협가경락 즉금청안소 강호종고백구다 공명부취연재박
 書劔無成奈老何 酒後仰天還一笑 欲彈流水世無牙
 서인무성내로하 주후앙천환일소 욕탄류수세무아

십 년을 궁벽한 골짜기에서 밭 갈고 나무하며 지냈으니, 부귀한 집 문을 향해 칼집
 쥔 채 노래하는 서울의 풍속이 부끄럽네. 지금은 푸른 눈으로 알아주는 이 적고,
 강호에는 예부터 흰 갈매기 많았지. 공명은 이루지 못함이 재주가 부족한 탓이요,
 글과 칼 또한 이루지 못하니 늙음을 어찌하리오. 술 취한 후 하늘을 우러러 오히려
 크게 웃으니, 흐르는 물 같은 내 마음 알아줄 이 세상에 없구나.

• 經痘後口点 丙戌病脚疽故篇中有大病跛行等語丁亥

천연두를 앓은 후 입에 상처 생겼고, 병술년에 다리의 종기로 인해 시편 중에 '큰 병', '절름거리' 등의 표현이 있다. 정해년(丁亥)에 씀

纔經大病又經痘 目眇神昏太損真堪笑 斜陽香陌上跛行縛面是何人
 재경대병우경두목치신혼태손진감소 사양향맥상파행박면시하인

이제야 큰 병을 겪었는데 또 천연두를 앓아 눈곱이 끼고 정신이 혼미하니, 너무도
 손상되어 참으로 우습구나. 저물녘 향기로운 길거리에서 절름거리며 얼굴을 동여맨
 사람은 누구인가?

• 送元謙(송원겸)

원경을 보내며

萬死求生百尺竿 旅窓孤抱與詐寬 辛勤一月扶吾病 跋涉長途念汝艱
 만사구생백척간 려창고포여사관 신근일월부오병跋涉長途念汝艱
 馬載歸人來月出 燈知別恨結花難 還家若問吾消息 傳道其妻不識顏
 마재귀인래월출 등지별한결화난 환가악문오소식 전도기처부식안

만 번 죽을 고비에서 겨우 살아나 백 척의 장대 끝에 선 듯 위태로웠네. 나그네
 창가에 홀로 기대앉으니 세상 인심은 교활하고 속됨과 더불어 넓기만 하구나. 한 달
 동안이나 애써 나의 병을 돌봐주었고, 머나먼 길을 밟아 돌아가는 너의 어려움
 생각하니 마음 아프네. 말은 짐을 싣고 돌아가고 사람은 오는데, 달은 뜨고 등불은
 이별의 슬픈 마음 아는 듯 꽃조차 피기 어렵네. 고향에 돌아가 혹 나의 소식을
 묻거든, 나의 아내가 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다고 전해주오.

• 奉別蔡城主時益(봉별채성주 시익)

채성주 시익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天惠仁候向一善 烏山增重洛水眠 榮州舊澤追思日 江左新氓頌德年
천혜인후향일선 오산증중락수면 영주구택추사일 강좌신맹송덕년
積雨初收雲拂地 征帆欲動水連天 座中適有桐鄉客 暫把離觴倍黯然
적우초수운불지 정범욕동수련천 좌중적유동향객 잠파리상배암연

하늘이 내린 어진 덕화, 한결같이 백성을 향하시니, 오산(烏山)의 기운 더하고
낙수(洛水)마저 잠든 듯 평화롭네. 영주(榮州)의 옛 은택 기리던 날들이여,
강동(江左)의 새로운 백성들 덕을 기리는 해로다.

오랜 장마 막 걸히고 구름은 땅을 스는데, 떠날 배 이제 막 움직이려 하니 강물은
하늘과 이어지네. 마침 자리에 동향(桐鄉) 손님 있어, 잠시 이별의 술잔 잡으니 슬픔
더하네.

• 贈金萬兼重鎰(증김만겸 증일)

김만겸 증일에게 드리는 시

秋聲夜撼禁林枝 遠客沉吟有所思 夢入瑤臺雲五色 愁侵衰鬢雪千絲
추성야감금림지 원객침음유소사 몽입요대운오색 수침쇠빈설천사
樓前側步宮姬笑 城下飢容漂母知 魯泮淒遲君莫歎 聖朝多用讀書兒
루전측보궁희소 성하기용표모지 로반처지군막탄 성조다용독서아

가을 소리 밤에 금림(禁林)의 가지 흔드니, 먼 길 떠나온 나그네 시름에 잠겨
생각에 잠기네. 꿈에는 아름다운 누대에 오색 구름 떠돌고, 시름은 쇠잔한 귀밑털에
흰 실처럼 스며드네.

누대 앞에서 결눈질하며 궁녀는 웃지만, 성 아래선 굶주린 빨래터 아낙의 고단한
모습 알까. 노나라 반수(泮水)의 쓸쓸함에 그대는 탄식하지 마오. 성스러운 조정에는
글 읽는 선비 많이 쓰이니.

• 與諸益分曹 落韻(여제익분조 락운)

제익과 분조(分曹)하며 낙운(落韻)을 나누다

詞客相逢若有期 爭將落韻替吟詩 敲推未辨專心處 進退難分注意時
사객상봉약유기 쟁장락운체음시 고각미변부심처 진퇴난분주의시
誤着篇中多少字 笑呈樽裡淺深盃 白頭豪氣猶疎放 更決雌雄一局碁
오착편중다소자 소정준리천심배 백두호기유소방 경결자웅일극기

시객(詞客)들 만남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투어 낙운(落韻)으로 시를 대신하네.
두드려 살펴도 오로지 마음 쓴 곳 분별하기 어렵고 나아가고 물러남 어려워 주의
기울일 때 분간하기 어렵네.

글자 수많이 잘못 놓아도 웃으며 술잔[樽] 숙 얹고 깊은 잔을 내밀네.

백발의 호기(豪氣)는 오히려 소방(疎放)하니 다시 한 판 바둑[碁]으로 승부를 가리자.

• 贈姜聖叟載後(증강성수재 후)

강성수 어른께 드린 뒤에

晉陽迢遞隔龜城 京洛風塵始識荆蔡澤 窮途煩問相廣文 官吟尚耽觥一年
진양초체격구성 경락풍진시식형채택 궁도번문상광문 관음상탐굉일년

歸思秋虫語 千里鄉音候鴈聲 招帳芳時今已歇 幽蘭采采欲誰呈
귀사추훼어 천리향음후안성 초장방시금이힐 유란채채욕수정

진양은 멀고 험하여 귀성(龜城)을 사이에 두고 있고, 서울과 낙양(京洛)의 풍진
속에서 비로소 형채(荆蔡)의 늠름을 알게 되었네. 막다른 길에서 자주 광문의
안부를 물으며, 벼슬길의 시 읊기는 여전히 술잔을 탐하던 지난 한 해와 같도다.
돌아가고픈 마음은 가을 벌레 소리에 실려 흐르고, 천 리 밖 고향의 말소리는
기러기의 울음 속에 귀 기울이네. 휘장 속 꽃피던 시절은 이제 사라졌고, 깊은
골짜기에서 떠난 난초를 이제 누구에게 바쳐야 할까.

逢君一笑洛陽城 盃酒英雄操與荆逸氣飄然 思虎變病懷零落 恸蛇觥黃浮野稻秋無限
봉군일소락양성 배주영웅조여형일기표연 사호변병회령락 겁사굉황부야도추무한

綠減園林葉有聲 下位棲遲君莫恨 高名將入晉山呈
녹감원림엽유성 하위서지군막한 고명장입진산정

그대 만나 한 번 웃으니 이곳이 낙양성이로다. 술잔 기울이며 영웅의 기개와
초나라의 뛰어난 풍류 떠올리네.

호랑이 변하듯 웅장한 기상을 생각하고, 병든 마음에 스러지는 슬픔은 구렁이 술잔
같네. 누런 들판엔 가을 벼 풍요롭고 끝없이 풍요로우며, 푸른빛 열린 숲 속
나뭇잎은 소리 내네.

낮은 지위에 처져 더디다고 그대여 한탄하지 마오. 높은 이름 장차 진나라 산천에
드날릴 것이니.

千年冤氣鉤埋城 三刖奇珍璞在荆 榮悴無常隨我分 神交有道把君觥
천년원기일매성 삼월기진박재형 영취무상수아분 신교유도파굉굉

高山流水元同曲 夢瑟齊等各異聲 咫尺蓬萊雲香九 三香誰將水調玉樓呈
고산류수원동곡 몽슬제등각이성 지척봉래운향구 삼표수장수조옥루정

천 년 묵은 원한이 비수처럼 성 안에 묻혀 있고, 세 번 잘린 기이한 보배가 형주의 옥 속에 숨어 있네. 영화와 재물은 무상하니, 나와 함께 나눈 것은 오직 하늘의 뜻이요, 심정으로 사귀 도의는, 그대에게 술잔을 들어 기리게 하네.
높은 산과 흐르는 물처럼 우리 노래는 본디 같았으되, 꿈에 그린 거문고는 조율이 같아도 제각기 다른 소리였지. 지척의 봉래산은 구름과 향기로 가득한데,
구삼(九三)은 아득하여, 누가 맑은 곡조로 옥루에 바치려나?

• 用前韻全士達政濟州令梧麓(용전운전사달정제주령오록)

이전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전사달(자 政) 제주령께 드리는 오록

我家何在 在龜城白石 青莎門掩荆 稚子久荒隨日業 老妻應有不時觥
아가하재 재구성백석 청사문엄형 치자구황수일업 로처응유부시굉

山榛濕荅詩中詠 松鶴林猿夢東聲 筭却平生都是幻 歸心已向故人呈
산진습령시중영 송학림원몽동성 산각평생도시환 귀심이향고인정

나의 집 어디인가, 거북성 흰 돌밭에 있고. 푸른 사초 우거진 문은 가시나무로 닫혔네. 어린 아들은 오랫동안 묵어 밭일 따라 날마다 바쁘고, 늙은 아내는 때맞춰 술잔 권할 이 없으리. 산속 개암과 젖은 복령 시 속에 읊고, 소나무 학과 숲 속 원숭이 깡속에서 동쪽 소리 내네. 헤아려 보니 평생 모두가 허깨비 같은 것, 돌아가려는 마음 이미 옛 친구에게 내보였네.

• 九月秋高鴈度城 漢陽羈客夢紫荊(구월추고안도성 한양기객몽자형)

구월 가을 하늘 높고 기러기는 성을 지나가는데, 한양의 나그네 깡속에서도 자형(紫荊)을 그린다.

愁添白岳山邊月 興入青帘影下觥 幾處搔頭悲落葉
수첨백악산변월 흥입청렴영하굉 기처소두비락엽

誰家擣練送寒聲 佳期杳杳時將晚 腹有琅玕欲一呈
수가도련송한성 가기묘묘시장만 복유랑간욕일정

시름은 백악산(白岳山) 달빛 아래 더하고, 흥취는 푸른 주렴 그림자 아래 술잔에 드네. 몇 곳에서 머리 긁으며 낙엽을 슬퍼하는가,
어느 집에서 다듬이질 소리 차가운 바람에 실려오는가. 아름다운 기약은 아득하고 시간은 저물어가니, 가슴속 맑고 깨끗한 생각 이제 한번 드러내고 싶네.

• 次友人韻(차우인운)

벗이 지은 시의 운을 따라 짓다

寒蛩唧唧远秋階 一夜鄉心兩處偕 京邱無眼愁獨坐 旅窓何日不相懷
한공즉즉원추계 일야향심량처해 경구무안수독좌 려창하일부상회
回頭天地青蠅足 失跡東西白眼皆 學道平生眞實意 暮年何事踏香街
회두천지청승족 실적동서백안개 학도평생진실의 모년하사담향가

찬 귀뚜라미 슬피 울어 멀리 가을 계단에 들리니, 하룻밤에 고향 그리는 마음 두
곳에서 함께 하는구나. 서울 고향 눈앞에 아른거려 시름 안고 홀로 앉으니, 나그네
창가에서 어느 날이나 고향 생각 잊을 수 있을까.

고개 돌려 바라보니 천지에 파리떼만 가득하고, 자취 감춘 동서에는 흰 눈초리만
가득하네. 평생 진실한 뜻으로 도를 배우려 했던만, 늙어 무슨 일로 향기로운 거리
밟고 있는가.

• 南仲由奉 贈帖南歸以詩送別(남중유봉 증첩남귀이시송별)
남중유가 남쪽으로 귀향하는 벗에게 시로 이별을 고하다

裹足西來為顯親 堂堂一語動楓宸 朝廷有道褒新人 贈聖主多情憶舊
척족서래위현친 당당일어동풍신 조정유도포신인 증성주다정억구
臣多賀相公能有 子更憐忠孝兩無 倫也應君到門闌 日感抱榮光掇新
신다하상공능유 자경련충효량무 룬야응군도문란 일감포영광양신

서쪽에서 발걸음 바삐 돌아온 것은 부모를 빛내기 위함이고, 당당한 한 마디 말이
궁궐의 임금 마음을 움직였도다. 조정에 도가 있으니 새 사람을 포상하고, 은혜
깊은 성군께서는 옛 신하를 또한 잊지 않으셨네.

그대의 발걸음 문 앞에 달던 날, 감격 속에 영광을 가슴에 안고, 새로이 싹트는
기쁨 하나 조용히 품었노라.

• 送人歸覲(송인귀근)
벗을 조정 혹은 부모 뵈러 보내며

征車曉出何忽忽 紫氣先驅烏嶺東 名動斗南推獨步 眼回天下覺全空
정차효출하홀홀 자기선구조령동 명동두남추독보 안회천하각전공
北堂歸夢雲浮白 南國秋光葉欲紅 老子別君無好緒 蒼茫獨立洛城中
북당귀몽운부백 남국추광엽욕홍 로자별군무호서 창망독립락성중

새벽에 떠나는 수레, 어찌 그리도 급히 나서던가, 자줏빛 기운이 앞서고, 조령 동쪽
하늘이 밝아온다. 그대의 이름은 북두의 남쪽에까지 울려 퍼지고, 천하를 둘러본
눈길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비치네.

북당의 귀향 꿈은 흰 구름처럼 떠오르고, 남국의 가을빛은 단풍잎 곧 붉어지려
하네. 이 늙은 나는 그대를 떠나보내며 좋은 마음조차 없고, 창망한 낙양성 안에
홀로 서 있노라.

• 代人輓(대인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슬픔을 표함

憶曾同上驛南樓 千里神交四十秋 華閥有人方屬望 大才無命只分憂
억증동상역남루 천리신교사십추 화벌유인방속망 대재무명지분우
歌成薩露君何逝 曲斷哦洋我獨愁 詩禮餘風知不墜 三男一弟摠賢流
가성살로군하서 곡단아양아독수 시례여풍지부추 삼남일제총현류

옛날 함께 역남루에 올랐더니, 천리 길 님과 정이 사십 년을 묶었네.
훌륭한 집안 후예라 기대하건만, 큰 재주 명맥 끊겨 근심만 나누었도다.
살로(薩露) 노래 끝에 그대는 가시고, 오양(哦洋) 곡조 끊기니 나만 쓸쓸하네.
시와 예법 남은 풍경 그대로이니, 세 아들 한 아우 모두 빛나는 인재로다

• 送權叔章謫海南(송권숙장적해남)

남쪽 끝 섬, 해남으로 멀리 떠나는 권숙장께

子瞻誦海南 孤忠惟國耳 君今海南去 志同道相似
자침송해남 고충유국이 군금해남거 지동도상사
江頭一樽酒 平生舊知己 漢水寒悠悠 西風吹不止
강두일준주 평생구지이 한수한유유 서풍취부지
相對強一笑 丈夫非無淚 君行衆所榮 此行吾所喜
상대강일소 장부비무루 군행중소영 차행오소희
江南多瘴氣 惟願慎行李
강남다장기 유원신행리

소식(蘇軾)이 남해(海南)를 읊었으니, 외로운 충성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이었네.
그대 지금 남해로 떠나니, 뜻 같고 도 또한 비슷하오. 강가에서 나누는 한 잔 술에,
평생의 오랜 지기임을 다시 느끼네. 한강 물은 차갑게 끝없이 흐르고, 서쪽 바람은
그칠 줄 모르네. 서로 마주보며 억지로 웃어보지만, 대장부가 어찌 눈물 없으리오.
그대의 떠남은 여러 사람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번 길은 내 또한 기쁘게
생각하오. 강남은 습하고 더운 기운 많으니, 바라건대 행장을 부디 신중히 하시오.

• 思家(사가)

집을 생각하며

歲華催客老 忽忽隙駒馳 夢裡家千里 盆中雪一枝
세화취객로 훌훌극구치 몽리가천리 분증설일지
路多新面目 門斷舊親知 不禁敲推興 頻題月下詩
로다신면목 문단구친지 부금고추흥 빈제월하시

세월이 나그네를 재촉하여 늙게 하니 덧없는 사이 말이 달리는 듯하네.
 꿈속에서도 집은 천 리 밖이요 화분 속에 눈 덮인 가지 하나 있네.
 길에서는 낯선 얼굴만 많고 대문은 옛 친지가 끊겼네.
 창을 두드리는 흥취를 어찌할 수 없어 달빛 아래 자주 시를 짓노라.

• 客中鴈懷(객중안회)

객지에서 기러기를 보며 회포를 풀다

佳辰近臘日 桂魄當載生 病或開來減 詩難老去清
 가진근랍일 계백당재생 병혹개래감 시난로거청
 江湖鷗有約 鐘鼓鳥非情 坐見寒梅色 書灰到五更
 강호구유약 종고조비정 좌견한매색 서회도오경

좋은 날이 다가오고, 계수나무의 영혼 태어날 때가 왔다.
 병이 혹시 오더라도, 시를 지으며 나이를 잊고자 하나, 그 맑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강호의 갈매기와 약속이 있고, 종과 북을 치는 새들은 정이 없네.
 앉아서 차가운 매화의 빛을 보며, 책의 먼지가 밤새 쌓인다.

• 送洪監司(송홍감사)

홍감사를 전송하며

朱潘玉蔭鎮南陲 公遠歸京未及期 召伯甘棠人亦愛 羊公峴首口爲碑
 주반옥랑진남수 공원귀경미급기 소백감당인역애 양공현수구위비
 金風一夕庭梧墜 劒閣千重鳥道危 悵望行塵留不得 李膺門下重踟躕
 김풍일석정오추 검각천중조도위 창망행진류부득 리응문하중주지

주반(朱潘)과 옥랑(玉蔭)이 남쪽 변방을 진압하니 공은 멀리 서울로 돌아가 기한을 못 맞추네.

소백(召伯)의 감당(甘棠)을 사람들도 사랑하고 양공(羊公)의 현수(峴首)는 입으로 비석을 삼네.

가을바람 한 저녁에 정원의 오동나무 떨어지고 검각(劒閣)의 천 겹 새의 길은 위태롭네.

행인의 먼지를 바라보며 머물지 못함을 슬퍼하니 이응(李膺)의 문하에서 다시 머뭇거리네.

• 送友人(송우인)

친구를 보내며

秋雨蕭蕭箔外鳴 故人歸後尚餘馨 不知何處深山裏 獨對禪燈悔作行

추우소소박외명 고인귀 후상여형 부지하처심산리 독대선 등회작행

가을비 소소히 발 밖에서 울리는데. 벗이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향기 남아있네.
어느 곳 깊은 산속인지 알지 못하나, 홀로 선등(禪燈)에 마주하니 떠난 것을
후회하네.

• 客中逢故人(객중봉고인)

타향에서 옛 친구를 만나다

久作參商別 郁知萍水逢 君曹似是馬 我道其猶龍

구작참상별 옥지평수봉 군조사시마 아도기유룡

縱續當年契 嗟非舊日容 男兒重意氣 共指歲寒松

종속당년계 차비구일용 남아중의기 공지세한송

오래도록 떨어져 있어 서로 그리워했는데, 떠돌이처럼 타향에서 그대를 만나니
어찌나 반가운지.

예전엔 말과 같았지만 지금 보니 용과 같구려.

비록 다시 옛날의 약속을 이어가지만, 아, 예전 모습은 아니로다.

사나이는 의기를 중히 여기니, 함께 추운 겨울의 소나무를 가리키세.

• 次呈李參奉(차정리참봉)

이참봉께 드립니다

休道風塵十丈深 寢郎無異在山林 夜寒孤館生明月 斟酌詩翁两地心

휴도풍진십장심 침랑무이재산림 야한고관생명월 짐작시옹랑지심

부디 속세의 티끌이 열 길이나 깊다고 말하지 마오. 객지에서의 잠자리가 산림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밤은 차갑고 외로운 객관에 밝은 달이 뜨니, 멀리 떨어진
있는 시우의 마음을 헤아려 보네.

• 洛陽秋思(락양추사)

낙양의 가을날에 드는 생각

多病年來減帶圍 塵途處隨足危機 虛堂酒暖人如王 宮樹風高鳥不依

다병년래감대위 진도처수족위기 허당주난인여왕 궁수풍고조부의

客裡論交交轉密 燈前看字字還微 遙憐夜夜滄洲月 虛照松窓舊芟衣

객리론교교전밀 등전간자자환미 요련야야창주월 허조송창구기의

병 많은 해가 거듭되니 허리띠마저 헐렁해지고, 속세의 길 가는 곳마다 발밑에
위태로움 따르네. 텅 빈 집 따듯한 술에 사람은 왕궁의 나무 같고, 바람 드높으니
새조차 의지하지 않네.

타향에서 사귀니 사귄수록 더욱 친밀해지나, 등불 아래 글자를 보니 글자마저 희미하네. 밤마다 멀리 가련히 떠오르는 푸른 바닷가의 달은, 빈 창가의 오래된 연잎 옷을 부질없이 비추는구나.

• 送友人(송우인)

친구를 보내며

愁城一片壯軍容 實籍青州草檄攻 祀事將行催刻漏 詩情欲動警晨鐘
수성일편장군용 실적청주초격공 사사장행최각루 시정욕동경신종
江湖秋盡君將去 鷗鷺盟寒我亦從 笏外青山看不倦 任教歸意一般濃
강호추진군장거 구로맹한아역종 홀외청산간부권 임교귀의일반농

근심의 성(城)은 한 조각 장한 군용(軍容)이요 청주(靑州)에 소집하여 격서(檄書)를 써 공격하네.

제사 일 장차 행하려니 물시계 재촉하고 시 짓는 마음 일어나려 할 때 새벽종이 경계하네.

강호에 가을 다하니 그대 장차 떠나려 하고 갈매기와 해오라기 맹세 차가우니 나 또한 따르리라.

홀(笏) 너머 청산을 보아도 싫증나지 않으니 돌아가려는 뜻이 한결같이 짙어짐을 그냥 두네.

• 烏臺同宿(오대동숙)

오대에서 함께 묵다

茶時待漏入烏臺 衣染東華十丈埃 時或故歌傷老去 性非耽飲慰來詩
다시대루입오대 의염동화십장애 시혹고가상로거 성비탐음위래시
情得月知難狀客 抱遵君喜暫開直 到五更清不寐仰 仰看星斗已西回
정득월지난상객 포준군희잠개직 도오경청부매앙 앙간성두이서회

해 질 녘 대궐 문 열리기를 기다려 오대에 들어가니, 관복에는 동화문의 열 길 먼지 쌓였네. 때로는 옛 노래 불러 늙어감을 슬퍼하기도 하지만, 본래 술을 즐기지 않으나 시로써 시름을 달래보네.

달빛 아래 마음을 나누니 객의 회포 이루 말하기 어렵고, 그대와 함께 기뻐하니 잠시나마 시름 잊네. 새벽 다섯 시가 되도록 맑은 정신으로 잠 못 이루어, 머리 들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네.

• 次金進士士行 二首 判決令 (차김진사사행 이수 판결령)

김진사 사행께 드립니다

默等相離日 居然寒暑經 蓬飄頭髮白 荷敗客衫青

목등상리일 거연한서경 봉표두빈백 하패객삼칭

驢曲方催酒 鷄籌莫報更 傷心豐縣裡 更有勞勞亭
려곡방최주 계주막보경 상심풍현리 경유로로정

묵묵히 서로 떠날 날 기다리니, 어느덧 세월 흘러 계절 바뀌었네. 썩대처럼 들뜬
머리털은 희어지고, 연잎이 시든 듯 나그네 옷은 퇴색했네. 나귀의 느린 걸음은
겨우 술을 재촉하고, 닭 점괘는 밤을 알려주지 않네. 슬픈 마음 풍현 땅에 있는데,
더욱이 노로정까지 있네.

長安暮雪落紛紛 更鼓初傳遠客心 節近上元愁對月 家臨茅五倍消魂

장안모설락분분 경고초전원객심 절근상원수대월 가림모오배소혼

閑忙自與高人別 行止着從靜者論 谷口當歸春欲吐 分山舊約莫相諼

한망자여고인별 행지착종정자론 곡구당귀춘욕토 분산구약막상훤

장안의 저녁 눈은 흘날리듯 내리고, 초저녁 북소리 멀리 나그네 마음 흔드네.
상원절 가까워지니 시름 안고 달을 바라보고, 고향 초가집 그리움에 더욱 애가
타네.

한가함과 바쁨 속에서 스스로 고인과 이별하고, 거취는 마땅히 조용한 사람의 논의
따르리.

골짜기 어귀에는 돌아갈 봄기운 막 피어나려 하고, 헤어진 산에서의 옛 약속 부디
잊지 마오.

• 贈金致一(증김치일)

김치일에게 주다

半夜郵村動客吟 無端風雪振空林 歸人曉踏溪水裂 征馬寒嘶嶺路巖

반야우촌동객음 무단풍설진공림 귀인효담계빙렬 정마한시령로금

始覺榮枯都是幻 莫歎飢渴苦相侵 南來北去多離別 誰似夫夫送我心

시각영고도시환 막탄기탕고상침 남래북거다리별 수사부부송아심

깊은 밤 우역에서 나그네 홀로 읊조리니, 영문도 없이 바람과 눈보라 빈 숲을
흔드네.

돌아가는 사람은 새벽에 시냇물 언 얼음 깨며 밟고, 떠나는 말은 차갑게 울부짖으며
험준한 고갯길 오르네.

비로소 깨닫노니 영화와 쇠락 모두가 허깨비 같은 것, 주린 배 채울 변변찮은
음식이라도 괴롭다 한탄하지 마오.

남쪽으로 북쪽으로 오가며 많은 이별 겪었지만, 그대들 부부처럼 진심으로 나를
보내주는 이 누구인가.

良宵何處有佳期燕 率峰前短短籬 白雪高歌吾已放 青帘沽酒爾何疑
 랑소하처유가기연 솔봉전단단리 백설고가고사방 청렴고주이하의
 客路荏發晨將發 驛舍團欒夜正宜 明日鐵橋西去路 離情偏惹嶺猿悲
 객로임발신장발 역사단란야정의 명일철교서거로 리정편야령원비

좋은 밤 어디에 아름다운 기약 있을까, 제비처럼 덧없이 지나갔다. 우뚝 솟은
 봉우리 앞에 짧은 울타리만이 있네.

흰 눈 속에서 높은 노래 이미 불렀으니, 푸른 주렴 드리운 술집에 술 사러 가는
 것을 그대는 왜 의심하는가.

나그네 길은 덧없이 흘러 내일 아침 떠나려 하는데, 역참에서 등글게 모여 밤은
 마땅히 즐거워야 할 텐데.

내일 철교 건너 서쪽으로 가는 길, 떠나는 정은 더욱 깊어져 고갯마루 원숭이 슬피
 우는 듯하네.

• 次友人韻(차우인운)

친구의 운을 이어서

西遊俱學谷鶯遷 歲暮風塵步武連 癸藿向陽心一寸 功名對鏡髮三千
 서유구학곡앵천 세모풍진보무련 계곽향양심일촌 공명대경발삼천
 歌酬白雪人如玉 夢伴青燈夜似年 起傍寒梅冷寶唾 暗香清思共天然
 가수백설인여옥 몽반청등야사년 기방한매랭보타 암향청사공천연

서쪽으로 유람하며 함께 곡앵(谷鶯)의 옮겨감을 배우니 세모(歲暮) 풍진(風塵) 속에
 발걸음 이어지네.

계곽(癸藿)은 양지를 향하니 마음은 한 치요 공명(功名)은 거울에 비추니 머리카락
 삼천이라.

노래는 백설(白雪)에 화답하니 사람은 옥과 같고 꿈은 푸른 등불과 짝하니 밤이
 해와 같네.

일어나 찬 매화 곁에서 차가운 보배 타액(唾) 그윽한 향기와 맑은 생각이 함께
 자연스럽네.

掉鞅文場軼馬韓 妙年聲價冠儒冠 非熊未遇文王獵 如此誰憐范叔寒
 도앙문장일마한 묘년성가관유관 비웅미우문왕렵 여차수련범숙한
 報國初心知有素 安民丕責豈無丹 長安歲暮佳期阻 落日停車歎谷蘭
 보국초심지유소 안민비책기무단 장안외모가기조 락일정차탄곡란

뺏을 휘두르는 문장 솜씨는 한나라의 빠른 말보다 뛰어나고, 젊은 나이에 얻은
 명성은 선비들 중 으뜸이네.

비범한 재능을 지녔으나 문왕의 사냥에서 웅(熊)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렇듯 궁핍한
범속의 추위를 누가 가련하게 여길까.

나라에 보답하려는 처음 마음 굳건히 지니고 있으며, 백성을 편안하게 할 큰 책임
어찌 붉은 충심 없을꼬랴.

장안의 저녁 어스름에 아름다운 기악은 막히고, 지는 해 아래 수레 멈춰 서서
골짜기의 난초를 탄식하네.

光陰忽忽歲將除 地底微陽破臘初 賓館有魚長作客 寒天無鴈少傳書
광음홀홀세장제 지저미양파랍초 빈관유어장작객 한천무안소전서
詩能言志空酬唱 交到忘形合爾余 聞道街頭高酒價 一樽誰慰病相如
시능언지공수창 교도망형합이여 문도가두고주가 일준수위병상여
세월은 덧없이 흘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땅 밑에서 미약한 양기가 납월(臘月) 초를
깨뜨리네.

객사(客舍)의 물고기 오랜 객이 되었고 추운 하늘에 기러기 없는지 편지 전하기
드물구나.

시는 뜻을 말할 수 있으나 공연히 화답만 할 뿐 교분이 형체를 잊을 지경에 이르니
너와 내가 합해지네.

듣건대 거리에는 술값이 비싸다 하니 한 잔의 술로 누가 병든 상여(相如)를
위로할까.

寒威陣陣八窓頻 白髮飈飈早覓巾 逐利趨名如許地 吟詩對月幾何人
한위진진팔창빈 백발수수조막건 측리추명여허지 음시대월기하인
臘梅消息胚新意 爆遺風竹謝舊神 美却平生都是幻 沙鷗喚我洛江濱
랍매소식배신의 폭유풍죽사구신 미각평생도시환 사구후아락강빈

매서운 추위 몰아치니 팔방의 창문마다 스산하고, 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
일찍 감투 찾아 쓰네. 이익 쫓고 이름 좇는 세상, 이 얼마나 허망한가. 달빛 아래
시 읊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납매화 소식에 새로운 뜻 싹트고, 폭죽 터뜨리는 옛 풍습에 대나무는 옛 신을
보내네. 아름답던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꿈결같은데, 모래밭 갈매기는 나를
알아보고 낙수 강가에 머무네.

• 次聖叟韻(차성수운)

성수의 운을 따라

黃梁欲孰夢方酣 紫陌青衫老益厭 隱德未施緣竹蟻 浮名何異上竿鮎

황량옥숙몽방갑 자맥청삼로익염 은덕미시연죽의 부명하이상간점
寒憐老杜衾如鐵 詩愛昌黎月似鎌 南國梅花春色報 此翁歸計不謀僉
한련로두금여철 시애창려월사겸 남국매화춘색보 차옹귀계부모침

꿈은 황량한 밤이 익어갈 때 가장 달콤하네. 자주 빗 길, 푸른 옷은 늙을수록
싫증나는데, 숨어든 덕(德)은 대숲 개미처럼 보이지 않고, 헛된 이름은 미꾸라지가
대나무 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추위에 떠는 늙은 두보(杜甫), 이불은 차가운 쇠불이 같고, 시(詩)를 사랑한
창려(昌黎)에게 달은 낮처럼 가늘었지. 남쪽 나라 매화는 벌써 봄을 알리는데,
이 늙은이의 돌아갈 마음은 남의 의견에 묻지 않네.

• 自試射還凍雨終日偶得二首(자시사환동우종일우득이수)

자시사(自試射) 후 돌아오니 얼음비가 내리고, 하루 종일 우연히 얻은 두 수

腰描白羽上高臺 金鼓一聲玉帳開 百步穿楊由正已 三巡誤的奈無才
요묘백우상고대 김고일성옥장개 백보천양유정이 삼순오적내무재
弦如月滿將軍喜 矢不星流吏胥哈 莫道書生無膽氣 壯心猶在白龍堆
현여월만장군희 시부성류리서합 막도서생무담기 장심유재백룡퇴

허리에 흰 깃을 묶고 높은 대에 올라, 금고의 한 소리에 구슬 장막이 열리고,
백 걸음 밖 버들잎 꺾뚝은 건 정직함 탓이요, 세 번 활 쏘아 과녁 놓친 건 재주
없음이라네.

활시위는 달처럼 가득차 장군은 기뻐하며, 화살은 별처럼 흘러 관리들은 소리도 못
낸다.

서생은 용기 없다고 말하지 말라. 강한 마음은 여전히 백룡의 무덤에 있다.

窮冬空雪不空雨 何事明時有咎徵 簷角亂聲交禁漏 街頭急響圻橋水
궁동의설부의우 하사명시유구징 첨각란성교금루 가두급향탁교빙
夢新如桂烟沉竈 越鳥思歸夢伴燈 聽雨三更吟水調 玉樓高處倍寒凝
몽신여계연침조 월조은귀몽반등 청우삼경음수조 옥루고처배한응

모진 겨울에는 마땅히 눈이 내려야 할 텐데, 어찌하여 밝은 세상에 재앙의 징조가
보이는가.

처마 끝에 어지러운 빗소리, 금지된 물시계처럼 번갈아 새어나오고, 거리에는 급한
빗소리, 다리 위의 얼음마저 갈라지게 하네.

새로운 꿈은 계수나무 향기처럼 피어나고, 연기는 부뚜막에 가라앉는데, 남쪽 새는
은혜로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등불 아래 끄는가.

밤늦도록 빗소리 들으며 맑은 가락의 노래를 읊으니, 높은 옥루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하네.

• 大殿元日延祥時戌子(대전원일연상시술자)

술자년 설날, 대전에서 상서로움을 기리던 때

祥風吹動水晶簾 紫禁春回瑞靄纖 化與時行同皞皞 道猶天運自謙謙
상풍취동수정독 자금춘회서애섬 화여시행동호호 도유천운자검검
三微爭望堯雲遠 一線初迎舜日添 王燭均調寰宇裡 洪恩不獨侍臣霑
삼취쟁망요운원 일선초영순일첨 왕촉균조환우리 홍은부독시신점

상서로운 바람 수정 발을 흔들고, 자금성에 봄 돌아오니 상서로운 기운 가늘게 감도네.

덕화는 시절과 함께 밝고 밝게 나아가고, 임금의 도는 하늘의 운행과 같아 스스로 겸손하시네.

세 가지 빛나는 덕망은 요임금의 구름처럼 멀리까지 쟁취하여 바라보게 하고, 한 줄기 햇살 처음 맞이하니 순임금의 밝은 해 더욱 더하는 듯하네.

임금의 밝은 빛 온 누리에 고르게 비추니, 크나큰 은혜는 홀로 신하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네.

• 靑陽一氣肇金殿(청양일기조김전)

청양(靑陽)의 한 기운이 금전(金殿)에서 시작되다

五雲高北陸 羣陰盡東方 泰運遭天休 膺福慶聖化
오운고북륙 군음진동방 태운조천휴 응복경성화
仰鎔陶 今日南山祝 誰呈萬歲桃
앙용도 금일남산축 수정만세도

새봄의 맑은 기운 드높은 궁궐에 비롯되고, 오색 구름 북녘 하늘 높이 떠오르니, 모든 음기 사라지고 동방에 태평한 운세 맞이하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받으시어, 성스러운 교화 더욱 빛나시니, 우리러 그 덕에 감화됩니다.

오늘 남산에서 송축하오니, 뉘라서 만수 복숭아를 바칠 수 있을까요.

天時人事曰相催 義馭初迦 淑景來 與物為春思 化育宸心 不在翫寒梅
천시인사왈상최 희어초가 숙경래 여물위춘사 화육신심 부재완한매

하늘의 때와 인간의 일이 날마다 서로 재촉하며, 태양의 수레가 처음 뜨니 아름다운 경치가 다가오네. 만물과 더불어 봄의 생각을 함께 하시니, 백성 기르고자 하는 깊은 마음, 차가운 매화 완상하는 데 있지 않으시네.

玉漏催銀箭 形闌曉色凝 靑陽當出令 怵惕戒淵氷
옥루취은전 형위효색응 청양당출령 출척계연빙

옥루는 은빛 화살처럼 시간을 재촉하고, 궁궐 문에는 새벽빛이 땀히네. 새봄의 기운 속에 마땅히 임금님의 명령이 내리려 하니, 두려운 마음으로 깊은 얼음을 밟듯 조심하네.

• 次除夕韻(차제석운)

선달 그믐날 읊는다.

義馭徧從旅館催 鄉心坐書地爐灰 人生畏老身全老 佳節春回客未回
희어편 종려관취 향심좌서지로염 인생외로신전로 가절춘회객미회
誰勸屠蘇愁裡飲 莫將更鼓枕邊來 新年不必長為客 夢入溪山雪壓梅
수권도소수리음 막장경고침변래 신년부필장위객 몽입계산설압매

태양의 수레 두루 여관을 따라 고향 그리는 마음 재촉하고, 땅 화로 곁에 앉아 책 보며 인생을 싫어하네. 늙음을 두려워했더니 어느덧 온몸이 늙어버렸고, 좋은 시절 봄 돌아왔건만 나그네는 돌아가지 못했네.

늙어서 수심 속의 나에게 도소주 권할까, 부디 밤을 알리는 북소리 베갯머리까지 가져오지 마오. 새해에는 부디 오랫동안 나그네로 지내지 않으리, 꿈속의 계곡 시내엔 눈 덮인 매화로다.

長安寒盡發新元 幾處殘梅媚遠天 守歲蘇州愁旅館 採春邵子過前川
장안한진발신원 기처잔매미원천 수세소주수려관 채춘소자과전천
詩成縱奔而殿年 老何妨酌則先多 病馬卿無日起 良辰勝會付誰邊
시성종분이전년 로하방작칙선다 병마경무일기 랑진승회부수변

장안의 추위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니, 몇 군데 남아 있는 매화가 멀리 하늘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난다. 수주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여관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봄을 채집하며, 샤오자가 전천을 지나갈 때, 시가 완성되어도, 나이가 많아 뛰어갈 수 없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술을 따를 때 먼저 많이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마경(馬卿)은 하루하루 지나가고, 좋은 날에 함께할 사람은 누구인가?

歲律要端月在寅 天休沓至太平辰 風噓萬物生生氣 花報三元邑色春
세률요단월재인 천휴답지태평진 풍허만물생생기 화보삼원읍색춘
着處同歡矜是日 客中相賀少情親 十年壯志歸虛筭 一任居諸互餞實
착처동환금시일 객중상하소정친 십년장지귀허산 일임거제호전실

세월의 법칙은 엄격하며, 월은 인(寅)에 위치한다. 천운이 이어져 태평의 시기가 다가오고, 바람은 불며 만물이 살아나는 기운을 불어넣고, 꽃은 삼원(三元)의 소식을 전하며, 마을은 봄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이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객중에서 서로 축하하지만, 가족과의 정은 적고, 십 년간의 짧은 패기는 허무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은 자연에 맡기고 서로의 송별을 실속 있게 한다.

• 送南箕瑞 九明(송남기서 구명)

남기서 구명에게 보내며

聞道丹丘近十洲 神仙然後在丹丘 君今乘駟丹丘去 可謂吾君仙者流
문도단구근십주 신선연후재단구 군금승일단구거 가위오군선자류
客重紛紛送客觴 渭城楊柳幾枝長 世間離別催人老 分飲瓊漿也不妨
객중분분송객상 위성양류기지장 세간리별최인로 분음경장야부방

듣자 하니 신선 사는 단구는 십주와 가깝고, 신선이라야 그 후에 단구에 머문다고 하네. 그대 지금 역마 타고 단구로 떠나가니, 가히 우리 그대는 신선의 무리라 할 만하오.

손님 중히 여겨 분분히 송별하는 술잔 오가고, 위성의 버드나무 가지 몇이나 길었던가. 세상사의 이별은 사람을 늙게 하지만,瓊漿(경장) 나누어 마신들 어찌 방해되리오.

天下奇觀處 關東楓岳山 長安春酒暖 人去此中間
천하기관처 권동풍악산 장안춘주난 인거차중간

천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경치 있는 곳, 대궐 동쪽의 풍악산이로다.
장안의 봄 술 따듯하게 사람의 마음 녹이는데, 그대 홀로 이곳을 떠나 그 사이로 가는구나.

去去關東路 征驂不暫留 殘霞曰暮起 知是近丹丘
거거권동로 정참부잠류 잔하왈모기 지시근단구

가고 또 가는 대궐 동쪽 길, 떠나는 말발굽 잠시도 머물지 않네.
저녁놀은 해 저물녘에 붉게 타오르니, 단구에 가까워졌음을 알겠네.

• 送安補天 練石之延日 佳野(송안보천 련석지연일 가야)

안보천을 보내며, 연석의 날을 맞이하다

腰間紫綬聯青春 叱馭羊腸到海濱 人道士元非百里 我知毛義有偏親
요간자수련청춘 질어양장도해빈 인도사원비백리 아지모의유편친
邑稱延日明丹柵 臺近瞻星望紫宸 君去花山試回首 洛中多少未歸人
읍칭연일명단곤 대근첨성망자신 군거화산시회수 락중다소미귀인

허리춤의 자색 끈 젊음과 이어져, 험한 길 몰아 달려 해변에 이르렀네. 사람들은 사원이 백 리 벼슬 아니라 하지만, 나는 모의에게 특별한 친분 있음을 아네. 고을 이름 연일은 붉은 해처럼 밝고, 누대는 가까워 별 바라보며 자금성을 우러르네. 그대 화산으로 떠나 잠시 머리 돌려보오, 낙양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가.

• 偶吟(우음)
우연히 읊다

節序者看二月旬 東風陣陣柳眉伸 殘編閱盡經年蠹 敗絮猶懸禦臘鶉
절서자간이월순 동풍진진류미신 잔편열진경년두 패서유현어람순
半落寒梅寧媚遠 細生芳草未堪茵 却嫌酬唱多機事 要着閑眠酒肆春
반락한매녕미원 세생방초미감인 각협수창다기사 요착한면주사춘

절기는 어느덧 보아하니 이월 중순, 동풍이 문득문득 불어오니 버들 잎 싹 트네. 해묵은 좀 먹은 책 마저 다 읽고, 해진 솜옷은 아직도 걸려 있는 겨울 대비 메추라기 갈네.

반쯤 떨어진 매화는 차라리 멀리서 아련히 아름답고, 갓 돌아난 풀 향기롭지만 아직 자리 깔 만하지 않네. 도리어 번거로운 화답 시 짓기는 싫으니, 모름지기 한가로이 잠들고

• 端午延祥時(단오연상시)
단오의 길함을 기뻐하며 지은 시

陰化細縕必待陽 泰階亨運屬靈長 軟風吹送黃梅雨 和氣先浮紫殿觴
음화세온필대양 태계형운속령장 연풍취송황매우 화기선부자전상
蘭館新功勞不厭 椒闈儉德日聞香 微臣敢獻蠡斯祝 太姒徽音上可方
전관신공로부염 초위검덕일문향 미신감함종사축 태사휘음상가방

음기가 가늘게 감돌아 따듯한 양기를 기다리듯, 태평한 운세는 밝고 어진 임금께 속하였나이다. 부드러운 바람은 매화나무에 비를 뿌려 보내고, 화평한 기운 먼저 자금성의 술잔에 떠오릅니다. 누에고치 기르는 새 공로에 수고로움 싫어하지 않으시고, 왕후의 검소한 덕은 날마다 향기롭게 들려옵니다. 미천한 신하 감히 풍요로운 번성을 기원하오니, 태사의 아름다운 음덕이 위에 견줄 만합니다.

風熏百子殿 蒲葉綠萋萋 日月明相照 乾坤德與齊
풍훈백자전 포엽록처처 일월명상조 건곤덕여제
神謨同翼燕 深戒在鳴鷄 千載關雎化 不惟周史題

신모동익연 심계재오계 천재관수화 부유주사제

바람은 백자전에 향기롭게 불어오고, 창포 잎은 푸르게 무성하네. 해와 달 밝게 서로 비추듯, 임금의 덕은 하늘과 땅에 함께 하네.

신묘한 계획은 쌍 날개처럼 함께 나아가고, 깊은 경계는 새벽을 알리는 닭에 있네. 천 년 이어온 관저의 교화는, 단지 주나라 역사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네.

样風吹動水晶簾 紫殿陰陰不覺炎 日月并行成萬物 化隨佳節一時添
양풍취동수정엄 자전음음부각염 일월병행성만물 화수가절일시첨

상쾌한 바람 수정 주렴을 흔들고, 자줏빛 궁궐 그늘져 더운 줄 모르네.

해와 달 함께 운행하며 만물을 이루니, 변화는 아름다운 절기 따라 한때 더해지네.

上林鶯語滑 金殿鸞泥舍 陰化酬佳節 吾東亦二南
상림앵어활 김전란니사 음화수가부 오동역이남

상림의 꾀꼬리 소리 매끄럽고, 금빛 궁궐의 난새 그림자 머무네. 은밀한 교화는 아름다운 무리에 보답하고, 우리 동쪽 역시 <시경>의 '이남'과 같네..

• 次巡相許亭韻 李公名濟時為海西伯(차순상허정운 이공명제시위해서백)

순상께서 머무르셨던 허정의 운에 차운하여, 해서백을 지내신 이제시 공께 드립니다.

高堂賓客揔才良 堪笑青油白疑郎 暇日名區陪王節 江天物色要瓊章
고당보객총재량 감소청유백의랑 가일명구배왕절 강천물색요경장

嬌歌洪奏行雲逗 危檻移憑醉夢涼 棠樹仁風先養老 壽星前夜照西鄉
교가홍주행운두 위함이빙취몽량 당수인풍선원로 수성전야조서향

높은 집 귀한 손님들, 뛰어난 재능 모두 갖추었네. 푸른 기름 두른 수레 탄 젊은이를 가히 웃으리로다. 한가로운 날 아름다운 명소에서 임금의 절기를 모시니, 강과 하늘의 아름다운 풍경에 옥 같은 시를 짓고 싶네.

아름다운 노래 크게 울려 퍼지니 가는 구름도 머물고, 위태로운 난간에 기대앉아 취한 꿈 시원하네. 아름다운 아가위나무에는 어진 바람 먼저 불어 늙은이 기르고, 수성(별)은 지난밤 서쪽 고을을 비추었네.

西土名區說此臺 俯臨滄海少如盃 天中佳節尋幽至 地上仙翁喜客來
서토명구설차대 부림창해소여배 천중가절심유지 지상선옹희객래

今日宣風周陝樹 異時調鼎傳巖梅 夕陽在嶺歌聲晚 十里溪山馱醉迴
금일선풍주함수 이시조정전암매 석양재령가성만 십리계산태취회

서토의 유명한 지역에서 이 대를 말하며, 이곳은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모습은 컵처럼 적다.

천상의 좋은 절기, 고요함을 찾아 이곳에 이르니, 지상의 선인(仙翁)은 손님이 오는 것을 기뻐한다.

오늘은 바람이 퍼지며, 주 및 섬나무가 흔들린다. 때에 맞춰서 술을 조리듯, 바위와 매화가 전해진다.

석양이 산등성이에 있고, 노래 소리는 저물어가며, 십 리의 계곡과 산은 취기에 휘감겨 돌아간다.

• 題金沙寺(제김사사)

금사사를 읊다

居僧邀我上房前 笑指滄波落照邊 田事關心難覓句 鄉愁擾思不成眠
거승요아상방전 소지창파락조변 전사관심난먹구 향수요사부성면
玉峯知自流沙國 逢海應留採藥船 咫尺登萊何處是 朝天舊路已茫然
옥봉지자류사국 봉해응류채약선 지척등래하처시 조천구로이망연

절에 사는 스님이 나를 맞아 방 앞으로 이끌어, 웃으며 푸른 물결 저녁노을 지는 곳을 가리키네. 농사일 마음 쓰여 시구 찾기 어렵고, 고향 그리운 시름 생각 어지럽혀 잠 못 이루네.

옥빛 봉우리 스스로 유사국으로 흘러가고, 바다 만나 응당 머무르리, 약초 캐는 배여. 지척의 등주와 내주는 어디인가, 임금께 나아가던 옛길 이미 아득하네.

• 觀海吟(관해음)

바다를 보며 읊다

落日真如赤玉盃 滄溟看似小樽壘 莫教橫作長鯨飲 塵客胷中少快哉
락일진여적옥배 창명간사소준첩 막교횡작장경음 진객흉중소쾌재

질 때의 해는 진홍빛 옥잔 같더니 밤바다의 달빛은 작은 술잔이 쌓인 듯하구나. 고래처럼 마시지는 말게나, 먼지 낀 나그네 가슴엔 시원함이 적어라.

• 過龍井(과룡정)

용정을 지나며

老龍千載窟於斯 凜慄神湫不敢窺 一境生靈何厚薄 只將膏澤潤西陂
로룡천재굴어사 림를신추부감규 일경생령하후박 지장고택윤서피

천 년 묵은 늙은 용이 이곳에 굴을 이루었으니, 신령스러운 깊은 못 두려워 감히 엿보지 못하네. 한 지역의 모든 생명에게 어찌 후하고 박함이 있으랴, 다만 기름진 은택 베풀어 서쪽 언덕을 적시네.

• 次文化使君皇華梅韻(차문화사군황화매운)

문화사(文化使) 군의 황화매 운율을 따른다

門樓迢遞近青空 今古行人此路中 仰着遺篇潛下淚 為是難忘舊國風
문루초체근청공 금고행인차로중 앙착유편잠하루 위시난망구국풍

문루(門樓)는 하늘 가까이 끝없이 이어져 예나 지금이나 길손은 이 길을 지나네.
남겨진 글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감추리, 옛 나라의 바람을 잊지 못함이어라.

• 到停轂寺得一絕寄殷栗使君李 漢佐(도정곡사득일절기은숙사군이 한좌)

정곡사(停轂寺)에서 한 수의 절구를 얻어, 은숙사군(殷栗使君)에게 바친다.

踏石穿林境轉迷 白雲多處是漕溪 蕭蕭落葉埋山涇 箇箇秋聲八馬蹄
답석천림경전미 백운다처시조계 소소락엽매산경 개개추성팔마제
鈴閣有人應獨坐 琳宮得句為誰題 何顒孤興今難免 分付肩輿懶上梯
령각유인응독좌 림궁득구위수제 하옹고흥금난면 분부견여라상제

돌을 밟고 숲을 지나니 길은 더욱 아득한데 흰 구름 걷히는 곳마다 샘물이 흐르네.
소리 없이 떨어진 낙엽이 산길을 덮고, 가을 소리마다 여덟 말굽소리로 다가오네.
머나먼 령각(鈴閣)엔 누군가 홀로 앉아 있을 테고, 빛나는 궁전(琳宮)에 쓰인 시는
누굴 위해 적혔을까.

외로운 이 흥(興)을 어찌 피하리, 오늘도 피할 수 없어라.
가마꾼에게 말해두네, 사다리 오르기 싫다고.

• 殷栗倅和詩以 贈即次送之(은를쉬화시이 증즉차송지)

은을 현감이 화답하여 보내온 시에 곧바로 차운하여 (그에게) 보내다.

靑烟九點望中迷 大海真同一道溪 月滿瑤臺仙有迹 秋深哀壑獸無蹄
청연구점망중미 대해진동일도계 월만요대선유적 추심애壑수무제
僧逢俗客多情話 詩到名區盡意題 欲泝銀河身未羽 誰能借我上天梯
승봉속객다정화 시도명구진의제 욕소은하신미우 수능차아상천제

아홉 점 푸른 연기 바라보는 가운데 아득하고, 넓은 바다는 참으로 하나의 시냇물과
갈네. 달빛 가득한 아름다운 누대엔 신선의 자취 있고, 가을 깊으니 기러기 슬피
울고 짐승은 발굽 없네. 스님은 속세 손님 만나 정겨운 이야기 나누고, 명승지에
이르러서는 뜻 다하여 시를 적네. 은하수 거슬러 오르고자 하나 몸에 날개 없고,
뉘라서 나에게 하늘 오르는 사다리 빌려줄까.

• 黃州勝竹樓(황주승죽루)

황주 승죽루(黃州勝竹樓)에서

昔年為客上茲樓 妍姪何論慰客愁 白首探芳心已倦 佳人且莫錯回頭
석년위객상자루 연질하론위객수 백수탐방심이권 가인차막착회두

예년에는 손님으로 이 탑에 올라, 아름다운 조카가 무슨 말로 손님의 근심을 위로하라?

백발이 되어 향기를 찾으려 했으나, 마음은 이미 지쳐버렸다.

아름다운 사람아, 잠시 돌아보지 말라.

• 諭嶺吟得一絕 癸酉登茅時(유령음득일절계유등모시)

고개 넘으며 읊은 절구 — 계유년 봄풀 오를 때

秋風得意馬蹄輕 嶺樹關雲護去程 暴足十年西笑客 不料今作錦衣行
추풍득의마제경 령수관운호거정 폭족십년서소객 부료령작금의행

가을바람에 기운을 얻고 말발굽은 가볍다. 산의 나무와 구름이 길을 지키며,
거침없이 걸음걸이가 이어지니, 십 년을 지나며 서쪽을 웃으며 돌아보지만,
그리움은 뜻밖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길이 된다.

• 過九馬遷(과구마천) 구마천을 지나며

沿江曲曲路分明 盡裏山川幾度經 錦繡千叢粧馬首 代工多意侈吾行
연강곡곡로분명 진리산천기도경 금수천총장마수 대공다의치오행

강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이 뚜렷하게 나뉘며, 끝없이 펼쳐진 산과 강을 몇 번이나
지나쳤다.

수천 개의 아름다운 꽃이 장식된 말 머리가, 화려함을 대체하며 내 걸음을
자랑스럽게 한다.

• 宿黃江驛戊辰(숙황강역무진)

황강역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宿鳥授林夜向昏 驛亭秋葉打榮門 漢陽歸客多愁夢 起向庭前步月痕
숙조수림야향혼 역정추엽타영문 한양귀객다수몽 기향정전보월흔

새들은 숲에 안기며 밤이 깊어가고, 역정(驛亭)엔 가을 잎사귀가 문을 두드리네.
한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꿈에도 시름 많아 일어나 뜰 앞에서 달빛 그림자를
뵈아보네.

• 贈師道羅承旨 學川(증사도라승지 학천)

사도 학천 나승지께 드리는 시

故園南望路還迷 愁踏長安十日泥 想得某丘殘寺裡 小檢無主傍寒溪
고원남망로환미 수답장안십일니 상득모구잔사리 소검무주방한계

고향을 남쪽으로 바라보며, 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길을 잃고 장안을 열흘간
밟으니, 그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다.

어느 언덕에 있는 낡은 절을 떠올리며, 작은 절터에는 주인이 없고, 차가운 시냇물
옆에 버려져 있다.

• 次李持平以達韻 (차이지평이달운)

이치평의 운율에 따라 읊다

雪風吹捲暮雲纖 白月多情影漏簷 半夜寒衾眠不得 鄉愁轉覺十分添
설풍취권모운섬 백월다정영루첨 반야한금면부득 향수전각십분첨

旅食東西問幾家 寒窓眠罷夢鷗沙 鄉心忽覺歸期近 壁上孤燈暗結花
려식동서문기가 한창면파몽구사 향심홀각귀기근 벽상고등암결화

눈보라가 저녁 구름을 실어 날리는데 흰 달은 정도 많아 처마 끝에 그림자
드리우네. 한밤중 찬 이불에 잠들지 못하니 고향 생각이 다시 밀려오네.

동서로 떠도는 세월, 몇 집을 지났던가? 추운 창가에서 깨어나니 꿈엔 갈매기
모래밭. 문득 고향그리는 마음에 돌아갈 날을 재촉하니 벽에 걸린 외로운 등불이
슬며시 꽃을 틔우네.

• 次師道韻(차사도운)

스승 도의 운율을 따른다

千里客逢千里客 相將羈抱話雲山 無端一陣前宵雨 解阻情人咫尺間
천리객봉천리객 상장기포화운산 무단일진전소우 해조정인지척간

客意驚寒坐寂寥 朔風吹雨暮蕭蕭 莫歎孤館無相問 雲路知音慣見招
객의경한좌적요 삭풍취우모소소 막탄고관무상문 윤로지음관견초

천 리 길 나그네가 천 리 길 나그네를 만나 서로 겨안고 구름 낀 산을 이야기하네.

어젯밤 뜻밖의 한 줄기 소나기, 애인을 가로막아 한 치 앞도 못 가게 했구나.

나그네 마음 추위에 놀라 쓸쓸히 앉았는데, 삭풍이 비를 몰아대며 저녁을 적시네.

외로운 숙소에 누가 찾아오지 않음을 탄식 말라, 구름 길엔 늘 뜻 통하는 이가
부르니.

• 次李以能望鄉臺韻(차리이능망향대운)

이이능의 망향대 운율을 따라서

清溪渡盡又碧峯 山靈邀我露真容 氣鐘人傑騰羣鳳 勢作長城卧一龍
청계도진우벽봉 산령요아로진용 기종인걸등군봉 세작장성와일룡

是日聯翩俱遠客 古來登陟幾詞宗 鄉關極目歸心切 萬戶斜陽聽暮舂
시일련편구원객 고래등척기사종 향관극목귀심절 만호사양청모쥬

맑은 시내 건너니 다시 푸른 봉우리, 산의 정령이 나를 불러 참모습을 보이네.
기운은 뛰어난 인재를 모아 봉황처럼 떠오르고, 형세는 만리장성처럼 드리운 한
마리 용이로다.

오늘도 나그네들은 함께 날아가고, 예로부터 이 언덕에 시인들이 발자취 남겼네.
고향을 바라보며 돌아갈 마음 간절한데, 집집마다 석양이 내리는 저녁을 돌아보네.

• 代人輓(대인만) 다른 사람을 위해 애도하다

處變方知君子風 至今南國尚沾瞳 孤臣飲眼埋新土 聖主多情憶舊忠
처변방지군자풍 지금남국상첨동 고신음안매신토 성주다정억구충
千載妥靈逢吉地 一時廩贈煖幽宮 仰着北斗今何夕 中有光芒認是公
천재타령봉길지 일시미증난유궁 앙착북두금하석 중유광망인시공

변화 속에서야 비로소 군자의 품모를 알 수 있다. 지금도 남국은 그 눈빛에 감동을
준다. 외로운 신하는 눈물을 삼키며 새로운 땅에 묻히고, 성스러운 임금은 정에
넘쳐 옛 충정을 기억한다.

천 년을 지나 영혼이 마침내 길한 곳에 달고, 한때 사슴이 보내온 따뜻한 기운이
깊은 궁전에 퍼진다. 북두칠성을 올려다보며, 오늘은 어느 날인가, 그 안에 빛이
비추며 그가 바로 공이었음을 깨닫는다.

• 泮中送友(반중송우)

반중에서 친구를 보내며

秋盡湖山葉脫林 送君仍復望鄉吟 魯從蓮籍知名久 更向芹宮托契深
추진호산엽탈림 송군잉복망향음 로종련적지명구 경향근궁탁계심
彩舞縱成來子願 好音誰和伯牙琴 偏憐一庠西庠月 分照相思兩地心
채무종성래자원 호음수화백아금 편련일청서상월 분조상사랑지심

가을 깊어 호수와 산에 나뭇잎 떨어져 숲은 텅 비고, 그대 보내며 다시금 고향
그리는 노래를 읊네. 그대는 불교계에서 이름난 지 오래되었고, 이제 향교에 기대어
깊은 인연 맺으려 하는구나.

화려한 춤들이 아무리 펼쳐진들, 그대 뜻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름다운 곡조, 누가
백아의 거문고처럼 화답하리. 외로이 홀로 비추는 서쪽의 달빛이, 서로 그리워하는
두 곳의 마음에 함께 드리워 더욱 애뜻하네.

• 輓柳晦叔甲戌(만류회숙갑술)

유회숙을 애도하며, 갑술년

士有有才無命者 送君長逝我何言 草心未盡終天痛 薤露偏舍八地冤
 사유유재무명자 송군장서아하언 초심미진종천통 해로편사팔지원
 旅館月明人灑淚 蘭亭春到孰開樽 遺孩尚慰高堂恨 餘慶將看裕後昆
 려관월명인쇄루 란정춘도숙개준 유해상위고당한 여경장간유후곤

재주 있어도 운이 없는 사람이여, 그대 영원히 떠나보내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풀잎 같은 마음 다하지 못하여 끝내 하늘 향해 아프고, 쓰러진 부추처럼 홀로 남아 온 세상의 원통함 짊어지네.

여관의 밝은 달 아래 사람들 눈물짓고, 화려했던 봄날은 가고 누가 술잔 기울일까. 남겨진 아이는 오히려 부모 잃은 슬픔 위로하고, 남은 복덕은 장차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리니.

• 輓李監察商霖(만이감찰 상림) 이 감독 상림을 애도하며

樑夢初驚桂影凋 朔風吹雪冷蕭蕭 曲江春日憐同醉 紫殿清晨記共朝
 량몽초경계영조 삭풍취설랭소소 곡강춘일련동취 자전청신기공조
 栢府名高才少展 楓林魂斷更誰招 典型猶在盈庭王 繼此于門不寂寥
 백부명고재소전 풍림혼단경수초 전형유재영정왕 계차우문부적요

들보 꿈이 흐릿해질 제 계수는 시들고, 북풍에 눈발 날리니 쓸쓸한 서릿바람.
 봄날 곡강에서 취했던 날은 그리움뿐이요, 자금성 새벽 조회도 이제는 옛이야기.
 백부의 이름에 내 재주는 모자라고, 단풍 숲에 죽어도 부를 이 없건만.
 본보기는 남았어도 뜰엔 빛나는 이들뿐, 이 가문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 次基川倅任(차기천취임) 기천 현령의 부임을 차운하며

暇日部亭醉一迴 華筵令復為君開 雲移岳色聰前滴 雨送灘聲枕上來
 가일부정취일회 화연령복위군개 운이악색총전적 우송탄성침상래
 欲鴈風烟爭染翰 新逢歌管不停盃 征車向暮休相促 分付紅裙月下陪
 욕안풍연쟁염한 신봉가관부정배 정차향모휴상촉 분부홍군월하배

한가로운 날 부사의 정자에서 한번 취하니, 화려한 자리를 다시 그대를 위해 펼치네. 구름은 산빛을 옅기고, 꺾가엔 빗방울 떨어지네. 비는 여울 물소리를 실어 베갯머리로 보내오네.

기러기처럼 바람과 연기 속을 날아가 붓을 적시려하고, 새로 만난 노래와 악기 소리에 술잔 놓을 새 없네. 떠나는 수레 저물녘 향해 재촉하지 마오, 붉은 치마 입은 여인에게 맡겨 달빛 아래 함께 하리니.

面面溪山霽後奇 賞來宜酒又宜詩 多閑獨卧基川上 抱病曾嫌瘴海陲
면면계산제후기 상래의주우의시 다한독와기천상 포병증험장해수
旅舍幾年成濶別 虛堂今日不相思 即今團會真奇遇 莫把東西作二岐
여사기년성활별 허당금일부상사 즉금단회진기우 막과동서작이기

겹겹이 펼쳐진 계곡과 산, 비 갠 뒤의 경치는 기이하게 아름답고, 이 장면을 마주하니 술이 어울리고, 시 또한 절로 흘러나오네. 한가로운 날들, 홀로 기천 위에 누워 지냈고, 병든 몸으로 한때는 아득한 남쪽 바닷가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 여인숙에서 몇 해를 보내며 이별은 멀어졌고, 오늘은 이 텅 빈 집이 이상하게도 전혀 그림지 않구나. 지금 이 만남은 참으로 드문 귀한 인연이니, 부디 이 길을 동서로 갈라놓지 말기를.

溪山十里信鞭迴 太守多情綺席開 酒盡金樽人已醉 雲歸瓊当雨將來
계산십리신편회 태수다정기석개 주진김준인이취 운귀경당우장래
百年開口無多日 一席耽歡有此至 自幸官居相偏側 仙區着處共追陪
백년개구무다일 일석탐환유차왜 자행관거상핍측 선구착처공추배

계곡과 산을 따라 십 리를 말을 달려 돌아오니, 태수(太守)가 정다운 마음으로 화려한 자리를 펼쳐놓았네. 금樽(金樽)의 술이 다하니 사람들은 이미 취했고, 구름은 옥빛 누각으로 돌아드는데, 비가 내릴 듯하구나. 인생 백 년, 웃고 말할 날이 많지 않건만 이 한자리에서 즐거움에 빠질 수 있음이 다행이로다. 내가 다행히도 관사가 가까이 있어, 신선한 이 땅에서 함께 어울리며 즐기네.

- 九月望日遊喜方寺(구월 망월유희방사)
구월 보름날 희방사를 유람하며

使君携我入山遊 南土風烟說此樓 玉洞雨過秋葉亂 不禁清與漱寒流
사군휴아입산유 남토평연설차루 옥동우과추엽란 부금청여수한류

사또께서 나를 데리고 산에 들어 유람하니, 남쪽 지방의 풍경 이 누각에서 이야기하네. 옥동에 비 지나가니 가을 낙엽 어지럽고, 맑음과 차가움 전디지 못해 차가운 물에 씻네.

- 同日次軟泡韻(동일차연포운)

같은 날, '연포'라는 운에 화답하여

秋水清凉不待膠 細沉黃豆脫塵苞 厨眉裊裊青烟起 釜面浮浮白雪交
추수청량부대교 세침황두탈진포 주미뇨뇨청연기 부면부부백설교
一碗便成舍哺樂 諸僧爭數滿盤梢 仙區勝賞平生冠 休道茲遊只為泡
일완편성사포악 제승쟁수만반초 선구승상평생관 휴도자유지위포

가을 물은 맑고 차가워 풀도 필요 없고, 누런 콩은 먼지를 벗고 깨끗이 가라앉는다.
부엌에는 아지랑이처럼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솥 위엔 포슬포슬한 두부 거품이
하얗게 떠오른다. 밥이 없어도 흰 두부 공양 한 그릇으로 기쁨이 넘치고,
스님들은 가득 찬 접시 위의 거품을 서로 세며 즐거워한다. 신선이 노니는 곳보다
더 좋은 이 순간, 이 놀이가 단지 거품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말라.

俯視人間九點埃 秋筇踏遍碧山回 清憐玉澗縈林走 翠愛晴嵐蒲袖來
부시인간구점애 추궁담편벽산회 청련옥간영림주 취애청람포수래
皂盖翩翩留不得 離懷耿耿自難開 菊庭雨過花猶在 忽憶禪宮昨夜盃
조개편편류부득 리회경경자난개 극정우과화유재 홀억선궁작야배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아득히 먼 아홉 티끌이로다. 가을 지팡이 짚고 푸른 산
두루 누비고 돌아오네. 맑은 옥같은 시내는 숲을 휘감아 흐르고 푸른 빛 아침
안개는 소매를 스치며 다가오네
검은 수레휘장 펄럭이며 머물지 못하니 이별의 마음 맺혀 스스로 열리지 않네. 비
갠 뜰에 국화 꽃은 여전히 피어있는데 문득 어제 밤 선궁(禪宮)에서 나눈 술자리
떠오르네

• 寄豐倅(기풍취) 풍주의 아전에게 보내는 편지

野店初分載酒車 夜來離思正何如 世情慣見知交道 旅枕凉生問起居
야점초분재주차 야래리사정하여 세정관견지교도 려침량생문기거
孤陋自難窺奧妙 奇才何許補空疎 着將拙語投詩老 非曰能之願學諸
고루자난규오묘 기재금허보공소 착장줄어투시로 비왈능지원학제

시골 주막에 비로소 술 실은 수레 도착하니, 밤새도록 이별의 그리움 어떠했던가.
세상 인심 익히 보아 아는 사귄의 도리, 나그네 베개 서늘해지니 기거를 묻네.
외롭고 식견 좁아 심오한 이치 엿보기 어렵고, 기이한 재주 기꺼이 허락하여 엉성한
곳 메워주리라 믿네. 서툰 말 지어 시인에게 던지니, 능하다 말함 아니요, 여러 가지
배우길 원하네.

秋雨連長夜 孤懷坐寂寥 滿庭槐葉亂 盈砌菊叢凋
추우련장야 고회좌적요 만정괴엽란 영체극총조
歲僅人無會 官清樽之醪 何為浪自苦 歸興在漁樵

세근인무회 관청준지료 하위랑자고 귀흥재어초

가을비는 긴 밤 내내 이어지고, 홀로 앓은 마음은 적막하고 외롭다.

뜰 가득 회화나무 잎이 흩날려 어지럽고, 석단 가엔 국화 송이 시들어 가네.

흥년 들어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관가는 청렴하여 술 한 잔도 넉넉치 않다.

대체 무엇 위해 헛되이 스스로 괴로운고, 돌아갈 마음은 이미 어부와 나무꾼 속에 있다.

• 次로(차정)

뒤이어 올립니다

寺藏山半腹 秋技不辭深 探勝雖成僻 論詩奈似瘡

사장산반복 추기부사심 탐승수성벽 론시내사음

遂萊何可到 瀟海豈難尋 未盡塵累歸 來一悵心洗

수래하가도 소해기난심 미진진루귀 래일창심세

절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가을 나뭇가지 깊숙이 드리웠네. 경치 찾아 나섰으나

외진 곳이고, 시를 논하려 하나 어찌 병어리 같은가.

수래 땅 어찌 가 닿을 수 있으며, 소상 바다 어찌 찾기 어렵겠는가. 다 떨치지 못한 세상의 번거로움 안고 돌아오니, 마음 씻어도 한 가득 슬픔이네.

• 上東樓書懷呈基守求和(상동루서회정기수구화)

동루(東樓)에 올라 시름을 적어 기수(基守)에게 드리며, 화답을 청합니다

宇宙茫茫客倚樓 思君不寐獨夷猶 炊烟細濕千家雨 霜葉初酣萬木秋

우주망망객의루 사군부매독이유 취형세습천가우 상엽초감만목추

印匣經旬無事合 虫聲竟夜使人愁 通來跡阻平津閣 斗覺育中鄙吝優

인갑경순무사합 혜성경야사인수 통래적조평진각 두각육중비린우

우주는 아득한데 나그네는 누각에 기대어 서서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홀로 머뭇거리며 망설이네. 밥 짓는 불빛은 희미하고, 가랑비는 천 가옥을 적시고, 서리 맞은 나뭇잎은 막 붉게 물들고 만 가지 나무엔 가을이 깊어간다.

보낼 편지도 쓸 일이 없어 도장함은 열어본 지 오래 닫혀 있고, 밤새 벌레 우는 소리만 가득하여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네. 서신 오갈 길은 평진각에서 끊기고, 북두칠성이 뜨는 밤하늘 아래, 이 궁벽한 세상이 더욱 야속하구나.

少年不識秋風悲 一任蕭蕭蘋末吹 老大自然多感慨 郵亭況與故人離

소년부식추풍비 일임소소빈말취 로대자연다감개 우정황여고인리

젊은 날엔 가을바람의 슬픔을 알지 못해 그저 스산히 갈대 끝을 흔들 뿐이었지

나이 들어 이제야 자연히 느끼네 감회라 역정(驛亭)에서 더구나 옛 벗과 이별하니

• 次基川倅韻(차기천쉬운)

기천 현령의 시에 화답하여

棲枝殘雪學梅花 澤國寒多鴈下沙 野店忽聞溪女笑 山翁醉過習家池
서지잔설학매화 택국한다안하사 야점홀문계너소 산옹취과습가지
蘭亭却愧無絲竹 滕閣休謗賦落霞 何似驛亭今夜會 爭將紅袖拂烏紗
란정각괴무사죽 등각휴방부락하 하사역정금야회 쟁장홍수블오사

눈 덮인 잔가지 매화 흉내 내건만, 물 많은 고을 추위에 기러기 모래톱에 내려앉네.
외딴 주막에서 문득 들려오는 시냇가 아가씨 웃음소리, 취한 늙은이는 습가의
연못을 지나가네.

난정은 악기 없어 문득 부끄럽고, 등왕각은 저녁노을의 노래를 그치지 마오. 어찌
오늘 밤 역참에서의 모임과 같으리오, 다투어 붉은 소매 들어 검은 사(紗) 모자를
스치리.

• 次玉溜泉韻(차옥류천운)

옥류천을 노래함

名區稱秀驛 勝賞說溜泉 瀉石同憂玉 盈科學逝川
명구칭수역 승상설류천 사석동우옥 영과학서천
地目茲水勝 書傍大巖懸 久被山靈護 應嫌俗客傳
지목자수승 서방대암현 구피산령호 응혐속객부

이 명승지는 예로부터 수려함으로 이름나 아름다움을 말할 때면 항상 옥류샘이
언급된다. 바위 위로 쏟아지는 물소리는 옥 같고, 맑은 물의 흐름은 학문의 길처럼
이어진다.

이 물로 인해 땅이 명소로 불리게 되었고, 바위 옆에 새겨진 글씨도 오래도록
사람의 눈을 끈다. 산신령이 오랜 세월 이 샘을 보호해 왔고, 세속인들의 소문
전파가 꺼려질 만하리.

• 次贈玄上人(차증현상인)

승려와 도인이 향산의 아름다움을 즐기다

僧道香山勝 香山眼底依 何時辭舊剎 嵐氣滿袈衣
승도향산승 향산안저의 하시사구찰 란기만사의
出世心猶靜 談玄塵幾揮 論文清夜好 不必歎西暉
출세심유정 담현진기휘 론문청야호 부필탄서휘

승려와 도인이 향산의 아름다움을 즐기니, 향산의 경치가 눈 아래 가득하네. 어느
때 옛 절을 떠났던가, 안개 기운이 가사에 가득하네. 세상을 벗어난 마음 여전히

고요하고, 현묘한 도리를 이야기하니 티끌 세상 번뇌 몇 번이나 떨쳐버렸던가. 맑은 밤에 학문 논하기 좋으니, 굳이 서쪽으로 지는 해를 탄식할 필요 없네.

道人無住着 逢勝輒歸依 楓岳留詩軸 香山掛衲衣
도인무주착 봉승첩귀의 풍악류시축 향산괘사의
心將清澗靜 杖逐白雲揮 他日相思處 玄都半落暉
심장청간정 장축백운휘 타일상사처 현도반락휘

도인은 일정한 거처 없이, 뺀어난 경치 만나면 문득 돌아와 의지하네. 단풍 든 금강산에 시축 남기고, 향산에는 가사 걸어두네.
마음은 맑은 시냇물처럼 고요하고, 지팡이는 흰 구름 따라 휘젓네. 훗날 서로 그리워할 곳은, 신선 사는 서울에 저녁 햇살 반쯤 때이리라.

• 次吳以三韻(차오이삼운)
오이삼의 시에 운을 맞춰 읊다

釋舍多開午夢遲 忽驚門外客蹢躅 欣然問我西遊興 笑指床頭酒一危
석사다개오몽지 홀경문외객주지 혼연문아서유흥 소지상두주일위

절집은 한가로워 낮잠이 길어졌고, 문 밖 손님이 있어 깜짝 놀라 깨어났다.
손님은 기쁘게 내게 서쪽 여행의 흥을 묻고, 나는 웃으며 침상 머리맡의 가득 찬 술병을 가리켰네.

• 次吳以三草堂韻(차오이삼초당운)
오이삼의 초당 시에 화답하여

天西二十四州間 杜谷幽居獨占閑 衽席前臨平野濶 風烟遙接海門寬
천서이십사주간 두곡유거독점한 임석전림평야활 풍형요접해문관
瓢空顏巷心猶樂 地接陶園膝易安 乘興欲尋湖上鶴 煩君預掃白雲壇
표공안항심유악 지접도원슬양안 승흥욕심호상학 번군예소백운단

하늘 서쪽, 이십사 주(州)의 땅 사이, 두곡(杜谷)의 깊은 거처가 홀로 한가로움을 차지하고 있다. 깔린 자리 앞으론 평야가 넓게 펼쳐지고, 빛나는 바람은 멀리 바다 어귀까지 닿는다.

질박한 표정의 마을에 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즐겁고, 그 땅은 마치 도연명의 밭과도 연결되어 무릎이 절로 편안하다. 흥이 이는 대로 호숫가의 학을 찾아 떠나고 싶으니, 그대여 미리 흰 구름의 제단을 쓸어 놓아 주시게.

• 送金敬文(송김경문)
김경문을 보내며

昨日送人去 今日送人歸 日日送人去 誰能送我歸
 작일송인거 금일송인귀 일일송인거 수능송아귀
 客懷本多感 春色易生悲 何況天西月 與君相別離
 객회본다감 춘색역생비 하황천서월 여군상별리

어제는 사람 보내고 오늘은 사람 돌아오네. 날마다 사람 보내니, 누가 나를 보내
 돌아가게 해줄까.

나그네 회포 본래 감상이 많아서 봄 경치에 쉬이 슬픔을 느끼네. 하물며 서쪽 하늘
 달 아래, 그대와 서로 이별하려니 어찌하리오.

- 次李持平韻(차리지평운)
 이지평의 시에 화답하여

每歲清明不在家 東風吹夢到鷗沙 草堂無主春將暮 門外紅桃惜放花
 매세청명부재가 동풍취몽도구사 초당무주춘장모 문외홍도석방화

해마다 청명에는집에 있지 못하고, 동풍은 불어 꿈 속 갈매기를 모래밭에 이끈다.
 초당에 주인 없고, 봄은 어느새 저물어 가는데, 문 밖 붉은 복사꽃 애처롭구나.

- 丙子冬至書懷(병자동지서회)
 병자년 동지에 회포를 풀다

一陽初復曰 遠客未歸時 回首迷鄉井 何心逆酒包
 일양초복왈 원객미귀시 회수미향정 하심역주포
 官清高馬骨 政拙戲人眉 故國梅花發 還山定有期
 관청고마골 정졸희인미 고국매화발 환산정유기

햇살 한 줄기 막 돌아오는 동짓날, 아직도 먼 타향에 갇힌 이 몸이여. 고향을
 돌아보니 길은 아득한데, 어찌 술잔 기울일 마음이 있으랴.

청렴한 벼슬살이에 말처럼 여위었고, 정무가 서툴러 사람들이 눈살만 찌푸리네.

고향 마을엔 이미 매화가 피었으니,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으리.

- 書懷(서회)
 회포를 적다

寒窓風急攬衣忙 曉月無光雪意狂 千里客懷難耐處 長途未及二雛將
 한창풍급람의망 효월무광설의광 천리객회난내처 장도미급이추장

찬 창에 바람 거세 옷깃 여미기 바쁘고, 새벽 달빛 없는데 눈 내릴 기세 드세네.

천리 타향 나그네 시름 견디기 어려운데, 두 아이 먼 길 떠날 채비는 아직 못미치네

- 次崔相錫鼎韻 丁丑(차최상석정운 정축)

자축년 최상께서 지으신 '석정(錫鼎)' 운의 시에 화답하다

天公要侈相公行 錦繡千叢鑊去程 爭賀青宮義日耀 古看西塞使星明
천공요치상공행 금수천총확거정 쟁하청궁의일요 고간서새사성명
詩逢勝地頻揮翰 盃到名區更暢情 聖代卽今無棄物 何妨蟋蟀俟秋鳴
시봉승지빈휘한 배도명구경창정 성대즉금무기물 하방실솔사추명

하늘은 크게 베푸시려는지, 재상이 길을 떠나게 되었고, 수많은 비단 무늬처럼 화려한 길을 솔처럼 끊이며 나아간다. 청궁(靑宮)에서는 의로운 날을 축하하고, 서변의 옛 성에서는 사신을 보고 별빛이 밝다.
시는 명승지에서 자주 붓을 휘두르게 만들고, 술잔은 이름난 고을에 이르러 더욱 흥취를 돋운다. 지금 이 성대한 시대에 버릴 것이 없으니, 어찌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려 울겠다 하여 탓하리요.

相公勳業重丘山 千里江南幹事迴 蠻貊回心談笑裡 國風生色去來間
상공훈업중구산 천리강남간사회 만맥회심담소리 국풍생색거래간
玉溜春晚知前度 瓊岳秋深識舊顏 他日金門陳賀處 微蹤自愧阻清班
옥류춘만지전도 경악추심식구안 타일김문진하처 미종자괴조침반

공의 공훈은 산보다 무겁고 강남 천리를 누비며 일을 돌아보시니 오랑캐마저 웃으며 마음 돌리네 나라 기풍은 오고 감에 빛나는데,
흐르는 옥빛 물결은 지나간 봄을 기억하고, 영롱한 산악은 오랜 친구처럼 나를 맞이하네. 훗날 금문에서 하례를 드릴 그날엔 당신의 높은 반열에 내 발이 닿지 못하리.

• 次崔相韻 戊寅三月(차최상운 무인삼월)

무인년 삼월, 최 재상의 운에 차운하다

相國西行慰我民 問先牛喘後憂人 每年王事賢勞獨 暇日名區詠賞頌
상국서행위아민 문선우천후우인 매년왕사현로독 가일명구영상알
無麥綠均蔥秀雨 鶯花紅遍洞仙春 華堂此樂知誰賜 願竭葵忱報聖神
무맥록균총수우 앵화홍편동선춘 화당차악지수사 원갈규침보성신

재상께서 서쪽으로 행차하시어 우리 백성 위로하시니, 먼저 소의 헐떡거림 물으시고 뒤에 백성들의 근심 걱정하시네. 해마다 나라의 일로 수고로우시건만 홀로 한가한 날, 명승지에서 시 읊고 감상하시니 더욱 존경스럽네.

보리 푸르지 않고 파만 무성한 비옥한 땅에, 꾀꼬리 울고 꽃 붉게 피어나 온 골짜기가 신선의 봄이로세. 화려한 집 이 즐거움 누구께서 주셨는지 아오니, 해바라기 같은 충성 다하여 성스러운 임금께 보답하리이다.

• 又次金川暎水屏韻(우차김천영수병운)

다시 김천의 「영수병」 운에 화답하여

花鳥爭迎相國來 華筵何地不空開 陪遊最是難忘處 暎水屏前酒滿盃
화조쟁영상국래 화연하지부의개 배유최시난망처 영수병전주만배

꽃과 새 다투어 재상 오심을 맞이하니, 아름다운 자리는 어디인들 펼쳐지지 않으랴.
함께 거닐던 그곳은 잊기 어려우리, 물에 비친 병풍 앞에서 술잔 가득 채워지네.

• 又次로(우차정)

또 다시 올립니다

村巷傳呼宰相來 西廬昨夜照中台 已將忠信行蠻貊 更訪賢豪老草萊
촌향전호재상래 서전작야조중래 이장충신행만맥 경방현호로초래
佳句成時金擲地 好花開處錦粧腮 平生夢想箕封勝 倘許仍陪赤舄迴
가구성시김척지 호화개처금장시 평생몽상기봉승 당허임배적석회

마을 길마다 재상 오신다 외치고 서쪽 시장 어제 밤 중대를 비추었네. 이미
충신(忠信)으로 오랑캐를 다스렸거니 이제는 초야(草野)에 묻힌 늙은 현자(賢豪)를
찾아가리.

좋은 시 지으면 황금 땅에 떨어지고 아름다운 꽃 필 땐 비단 볼 물들이네. 평생
꿈꾸던 기봉의 승리 다시금 붉은 신 신고 모실 수 있기를

• 次會都事善餘額(차회도사선여액)

회도사 선여액의 운에 차운하며

去去長安路 忽忽駟騎行 功名身外事 雲雨世間情
거거장안로 훌훌일기행 공명신외사 운량세간정
古驛悲揚耆 明時泣賈生 莫言離別苦 何處不相迎
고역비양기 명시읍가생 막언리별고 하처부상영

가고 또 가는 장안의 길, 훌연히 역마 달려가네. 공명은 몸 밖의 일이요, 구름과 비
같은 세상 인정.

옛 역참에서 양기(揚耆)를 슬퍼하고, 밝은 시대에 가생(賈生)을 눈물짓네. 이별의
괴로움 말하지 마오,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맞이하리니.

• 次贈金善餘(차증김선여)

김선여에게 받은 시에 화답하여

邂逅西關路 知音問幾人 臨岐無限意 笑折驛梅春
해후서관로 지음문기인 림기무한의 소절역매춘

서관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이별의 길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이 솟았고, 역참 앞 매화 가지를 꺾으며
웃음으로 작별했네.

• 午眠書懷呈舍兄(오면서회정사형)

낮잠 자다 회포를 적어 사촌 형님께 올립니다

坐看春禽掠晚汀 忽然飛雨滿空庭 耽眠不是緣無事 昨夜池塘草欲青
좌관춘금락만정 홀연비량만공정 탐면부시연무사 작야지당초욕청

앉아서 저녁 물가를 스치는 봄 새를 바라보니, 홀연히 두 마리 날아와 빈 뜰에
가득하네. 단잠에 빠진 것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밤 연못가의 풀이 막
푸르러지려 함이라네.

• 次慎兄後尹壁上韻(차신형후윤벽상운)

근심 많은 형님과 윤벽의 시운을 따르다

誰等茅堂近渡頭 是間知有散仙留 一番春雨魚垂釣 幾處斜陽鴈下洲
수등모당근도두 시간지유산선류 일변춘우어수조 기처사양안하주

老去益嫌塵事苦 閑來小慰此生浮 採菱南浦聊相贈 江樹微茫起遠愁
로거익협진사고 한래소위차생부 채릉남포료상증 강수미망기원수

강나루 가까이 초가집을 지은 이 누구인가 이곳에야말로 흠어진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네. 한바탕 봄비에 고기는 낚시에 걸리고 몇 곳의 노을 속 기러기는
모래톱으로 내려오네

나이 들어 더욱 속세 일이 괴로워지니 한가로이 이 부유하는 삶을 달래보네. 남쪽
개울에서 채취한 연근을 보내니 강가의 나무 아득히 멀리 그리움을 일으키네

• 次舍兄韻(차사형운)

형의 시에 화답함

迹滯龍泉驛 囊無李子金 棣堂花欲老 相憶雪盈簷
적체룡천역 낭무리자김 채당화욕로 상억설영잠

발걸음은 용천역(龍泉驛)에 머물러 있고, 주머니엔 오얏도 없고, 돈도 없네.

형제의 집에는 꽃이 이제 지려 하고, 형을 생각하니 눈발이 머리에 쌓이는 듯하네.

• 隨勅行到東陽次贈趙光璧(수래행도동양차증조광벽)

칙명을 받들고 동양에 이르러 조광벽에게 차운하다

北使西來行復行 郵亭僊客却登程 羈愁對鏡頭將白 詩興逢君眼忽明
북사서래행복행 우정선객갑등정 기수대경두장백 시흥봉군안홀명
南國秋光嗟已負 東陽寒月若為情 清宵不寐心猶壯 雄劍和鳴鼓角聲

남국추광차이부 동양한월약위정 청소부매심유장 응검화명고각성

사신은 북에서 서쪽으로 쉼 없이 달리고 역정의 신선같은 이는 다시 길에 오르네
타향의 시름에 거울 속 머리카락 희어져가지만그대를 만나 시흥이 떠오르니 눈빛
환해지네

남국의 가을빛은 이미 저물었다 아쉽건만동양의 차가운 달빛은 어찌할 바 모르겠네
맑은 밤 잠 못 이루나 마음은 더욱 굳세어칼과 북소리 함께 울려 퍼지네

• 詠月(영월)

달을 읊다

新月如新鏡吾心 可質明猶嫌蟾桂 樹遮却一分清
신월여신경오심 가질명유협섬계 수차각일분청

새로운 달, 갓 간 거울처럼 맑게 내 마음에 비치네. 그 밝음을 가늠할 수 있으나
오히려 두꺼비와 계수나무 때문에 그 맑음의 한 부분을 가려 부족하게 여기네.

• 開情 此下十四首 次西厓先生別集韻(개정 차하십사수 차서애선생별집운)

속마음을 열어 읊다 — 이하 열네 수, 서애 선생 별집의 운자에 화답하여

虛堂靜對草虫鳴 枯葉蕭蕭落滿庭 何處思人懷不禁 簷前夜雨滴寒聲
허당정대초훼명 고엽소소락만정 하처사인회부금 첨전야우적한성

빈 뜰에 홀로 앉아 들플 벌레 우는 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시든 잎이 바스락거리며
뜰 가득 떨어지고 있다.

그 어디에 있을지 모를 그 사람을 생각하니, 처마 끝 밤비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에
마음이 더욱 시리다.

• 定州偶題(정주우제)

정주에서 우연히 짓다

春老芳園節序忙 一年花送滿簷香 客心漸覺看書倦 漫興時憑午夢涼
춘로방원절서망 일년화송만첨향 객심점각간서권 만흥시빙오몽량

봄은 저물고 꽃밭은 시절 따라 바쁘게 피어나, 한 해 동안 온갖 꽃들이 피어 옷깃에
향기 가득하네. 나그네 마음 점점 책 보는 것에 싫증나, 문득 떠오르는 흥취는
때때로 낮잠의 서늘함에 기대네.

• 宿鳥嶺(숙조령)

조령에서의 하룻밤

西行一百里 嶺樹暮烟生 客鬢緣愁白 鄉心伴月明
서행일백리 령수모연생 객빈연수백 향심반월명

知非慙伯王 久敬愧齊嬰 慣向荒村宿 兒童亦知名
지비참백왕 구경괴제영 관향황촌숙 아동역지명

서쪽으로 백 리를 걸으니, 조령의 나무 위에 저녁 연기 감돌고, 나그네의
귀밑머리는 근심에 희어지니, 달빛 아래 고향 생각 더욱 깊어지네.

내 그릇됨을 깨닫고 백이숙제를 부끄러워하며, 오랜 세월 존경해온 제나라 은자
앞에도 스스로 부끄럽구나. 늘 외딴 마을에 묵는 일에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아이들조차 내 이름을 알고 있네.

• 題畫(제화)
그림에 쓰다

仙鶴無聲月欲低 青山流水屋東西 酒樽在後琴先道 荷處騎驪客渡溪
선학무성월욕저 청산류수옥동서 주존재후금선도 하처기려객도계

신선 학은 소리 없고 달은 낮게 드리우는데, 푸른 산 맑은 물은 집의 동쪽과 서쪽에
흐르네. 술통은 뒤에 있고 거문고가 먼저 길을 여니, 연잎 아래 검은 말 탄 나그네
시내를 건너네.

• 元日有感(원일유감)
설날에 느낀 감회

昨日足可惜 今年今日出 自然多感慨 何心睹博六
작일족가석 금년금일출 자연다감개 하심도박륙
歲月不我與 歎息驚住節 梅謝臘前香 雪消磨外旭
세월부아여 탄식경주절 매사랍전향 설소침외욱
兒童并歡笑 問我多愁色 已覺同人少 何妨自修獨
아동병환소 문아다수색 이각동인소 하망자수독
明牕對簡編 探賸亦可悅 西方望美人 恐負黃昏約
명창대간편 탐책역가열 서방망미인 공부황혼약

어제는 아쉽기만 하더니, 올해 오늘이 되자 자연스레 감회가 깊어진다.

여섯 번이나 달력을 넘겼으니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한숨 짓고 놀라니,
명절이 벌써 와 있다.

매화는 선달 전에 이미 졌고, 눈 향기도 처마 밖에서 스러졌다.

아이들은 함께 웃고 떠드는데, 나만 시름 가득한 얼굴이라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
듯하다.

홀로 수양하며, 밝은 창 앞에서 책을 펼쳐보는 것도 좋고, 진리를 더듬는 일도
기쁨이 될 수 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이의 마음을 생각하지만, 혹여 황혼녘의 약속을
저버릴까 두렵다.

• 初春感事(초춘감사)

초봄의 감회

靜對梅開落 冥觀理長衰 不才甘棄擲 多病歎衰遲
정대매개락 명관리장쇠 부재감기척 다병탄쇠지
園柳迎風嫩 階苔得雨空 這中新意思 無語俯清池
원류영풍늘 제태득우의 저중신의사 무어부청지

고요히 매화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이치의 성하고 쇠함을 생각하네.
재능 없어 버려짐 달갑게 여기고, 병 많아 늙고 더듬을 탄식하네. 동산 버드나무는
바람 맞아 부드럽고, 섬돌 이끼는 비 맞아 알맞게 자라네. 이 가운데 새로운 뜻
있어, 말없이 맑은 연못을 굽어보네.

• 義州逆春堂(의주역춘당)

의주 역춘당에서

夢回虛閣兩連空 落葉聲酣萬木風 午夜孤城聞畫角 遼河千里騁望中
몽회허각량련공 낙엽성감만목풍 오야고성문화각 료하천리빙망중

꿈에서 깨어 보니 빈 누각은 두 줄로 하늘에 이어지고, 낙엽 소리는 거세고, 만
그루 나무를 휘젓는 바람이 분다. 한밤중 외로운 성에서 군악의 나팔소리를 들으며,
천 리 뻗은 요하를 바라본다.

• 無題(무제)

무제 (제목 없음)

風滿西林葉梢舞 雲情初濕雨聲交 坐看驚鳥鳴相集 知有飢蛇拱鵲巢
풍만서림엽초무 운정초습우성교 좌간경조명상집 지유기사공작소

서쪽 숲에 바람 가득하니 나뭇가지 끝 춤추고, 구름의 정은 막 젖어들 듯 비 소리
섞여 오네. 앉아 놀란 새들 서로 모여 우는 모습 바라보니, 배고픈 뱀이 까치
둥지를 에워쌌음을 알겠네.

• 高陽途中(고양도중)

고양 가는 길에서

不濟何復歎碧波 江邊卧木替浮槎 短鞭氣馬斜陽晚 看盡沿途處處花
부제하복탄碧波 강변卧木替浮槎 단편기마斜陽晚 관盡沿途處處花

부제 하복탄벽과 강변와목채부차 단편기마사양만 간진소도처처화

건너지 못할 바에야 다시 푸른 물결을 한탄할까, 강가에 누운 통나무가 샛대 없는
뗏목으로 대신하나.

짧은 채찍으로 말을 몰아 저녁 햇살은 기울어가고, 연못 따라 달리며 곳곳에 핀
꽃들을 눈에 담아 가노라.

• 定州南臺懷故人(정주남대회고인)

정주 남대에서 옛 벗을 그리며

節屆三春暮 臺臨十里堦 多情鴻吽侶 有意客登亭
절계삼춘모 대림십리고 다정홍규려 유의객등정
丈鬟愁中白 雙眸夢東靑 何時到京洛 共襲蘭蘭馨
장환수증백 쌍모몽동청 하시도경락 공습란란형

절기가 삼춘의 끝자락에 이르러 정자에서 바라보니, 십 리 휴언덕이 눈앞에
펼쳐진다. 정 깊은 기러기는 짝을 부르고, 뜻이 있는 나그네는 정자에 올라선다.
머리칼은 시름 속에 희어졌고, 두 눈은 동쪽 푸른 하늘을 그리워하는 꿈에 젖는다.
언제쯤 경락에 도달하여, 함께 난초 향기를 누릴 수 있을까.

• 控江亭留別友人(공강정류별우인)

공강정에서 벗과 이별하며

春汀若草綠抽芽 征馬悲嘶客路縣 欲識離亭相別意 控江江水正如何
춘정약초록추아 정마비시객로현 욕식리정상별의 공강강수정여하

봄 언덕에는 부드러운 풀이 연둣빛으로 싹트고, 길 떠나는 말은 슬피 울며 나그네
길을 머뭇거린다. 이별 정자의 작별 마음을 알고 싶다면, 강을 끼고 선 이 자리에서
바라본 강물의 흐름을 보라.

• 暮望定州(모망정주)

저녁에 정주를 바라보니

太行雲杳杳 遊子眼昏昏 那堪情喜懼 定看曠朝昏
태행운묘묘 유자안혼혼 나감정희구 정간광조혼

태행산의 구름 아득하고, 떠도는 나그네 눈은 어둑해져 간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 마음, 아침과 저녁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 西行(서행)

서쪽행

行行二月時 春風尚凜烈 天時將乖和 仰屋到曉徹
 행행이월시 춘풍상름렬 천시장괴화 앙옥도효철
 氷堅澗無聲 梅凍花藏色 若使賈生在 不止長太息
 빙건간무성 매동화장색 약사가생재 부지장태식

길을 가노라니 이월인데도, 봄바람은 아직도 매섭기만 하다. 하늘의 기운은 화평치
 않아 긴 밤 추위에 이불도 소용없어,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을 맞는다.
 골짜기는 얼음으로 굳어 물소리도 없고, 매화는 얼어붙어 꽃빛을 감추었다. 만약
 가생(賈誼)이 살아 있었다면, (오늘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았으리.

• 西齋翫月(서재완월)

서재에서 달을 감상하며

淡心渺渺一輪月 江上巖巖萬文峰 鶴去千秋詩獨在 水光山色朗吟中
 담심묘묘일륜월 강상암암만문봉 학거천추시독재 수광산색랑음중
 맑은 마음에 아득히 떠오른 한 조각 달, 강 위에 힘준하게 솟은 수많은 문필봉.
 학은 떠나 천 년이 흘러도 시는 홀로 남아, 물빛 산색 속에서 맑게 울리네.

• 正月遇雪 與金士俊 偁 同吟(정월우설 여김사준 집동음)

정월에 눈을 만나 김사준과 우연히 함께 읊다

漠漠春郊外 同雲釀雪成 粘林紛有色 落水細無聲
 막막춘교외 동운양설성 점림분유색 락수세무성
 樵濕難炊飯 泥融或害耕 郢吟終寡和 獨立意淒清
 초습난취반 니융혹해경 영음종과화 독립의처청

아득한 봄날 교외에, 같은 구름이 눈을 빚어 내리니, 숲에 둘러붙어 어지러이 빛깔
 내고, 낙수 가늘어 소리조차 없네.
 땀감은 젖어 밥 짓기 어렵고, 진흙 뒤섞여 혹 농사 해칠까 걱정이네. 초나라
 노래(혹은 고독한 노래) 끝내 화답하는 이 적으니, 홀로 선 뜻 처량하고 맑네.

簷前寒溜一燈斜 對榻看書眼欲花 小逕雪埋湮沒膝 不妨携爾宿前家
 첨전한류일등사 대탐간서안욕화 소경설매열물슬 부방휴이숙전가

처마 끝 차가운 물방울 아래 등불 하나 비스듬하고, 평상 마주하고 책 보니 눈이
 어지럽네. 좁은 길 눈에 묻혀 질퍽하게 무릎까지 빠지니, 그대와 손잡고 앞집에
 가서 묵는 것이 어떠한가.

小牕終日為誰開 春雪無端一尺來 瘦骨慙寒催進酒 詩肩欲聲急登樓
 소창종왈위수개 춘설무단일척래 수골겸한최진주 시견욕성급등루
 刷毛沙岸眠鷗立 側翅遙空旅鴈迴 孤夢不知身草野 五更殘月到蓬萊

쇄 모 사 안 면 구 립 측 시 요 공 려 안 회 고 몽 부 지 신 초 야 오 경 잔 월 도 봉 래

작은 창은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해 열려 있는가, 봄눈은 느닷없이 한 자나 쌓였구나.

여윈 몸이 추위에 떨자 술을 부르고, 시는 북받쳐 올라 급히 누각에 오른다.

모래 언덕엔 깃털 고르며 갈매기가 자고 있고, 하늘 멀리선 한 쌍 기러기가 날개 기울여 돌아든다.

외로운 꿈속에서는 자신이 들판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닭 우는 새벽녘, 희미한 달빛이 봉래산 비추네

• 義山八齋時 與諸益酬唱(의산팔재시 여제익수창)

의산에서 팔재 시절, 여러 벗들과 시로 서로 응답하다

春愁忽忽自無端 携酒逢君此日歡 沂上願從曾服詠 塵中不覺貢冠彈

춘수홀홀자무단 휴주봉군차일환 기상원종증복영 진중부각공관탄

醉來豪氣螟蛉少 老去雄心宇宙寬 物色滿前渾漫興 撚髭終夕聘遐觀

취래호기명령소 로거웅심우주관 물색만전혼만흥 년자종석빙하관

봄날의 시름이 아득히 까닭 없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술을 들고 그대를 만나 기쁘기 그지없네. 예전 옛 성현들처럼, 기꺼이 시 읊는 벗이 되기를 바라며, 속세의 허명쯤은 잊고 과거의 관직도 웃어넘긴다.

술 취하면 젊은 날의 호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늙어 가면서도 한껏 펼쳐지는 포부는 우주만큼 넓구나. 만물의 빛깔이 눈앞에 가득하니 흥이 저절로 일고, 수업을 비비며 저녁내 멀리 펼쳐진 경치를 감상한다.

葵藿微誠自向陽 騏驎何日遇王良 林泉八手含盃好 老病關心覓句姑

유곽미성자향양 기기하일우왕량 림천팔수함배호 로병관심먹구고

名教誰知眞樂在 逢場還怕醉言狂 卽今平地風波足 無咎無譽且括囊

명교수지진악재 봉장환파취언광 즉금평지풍파족 무구무예차괄낭

해바라기와 콩잎의 미약한 정성 스스로 해를 향하듯, 천리마는 어느 날 왕량과 만나려나. 숲과 샘에서 여럿이 잔 기울이며 즐거우니, 늙고 병들어 마음 쓰며 시구 찾기 바쁘네.

이름과 가르침 누가 참 즐거움 어디에 있는지 알리오, 모임에 나가면 도리어 취해 미친 말 할까 두렵네. 지금 바로 평지에 풍파 자족하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이 그저 주머니 닫아두리.

君眠我醉爾清談 不待蟾光已對三 下上鳥音春早晚 淺深花色社東南

군면아취이청담 부대섬광이대삼 하상조음춘조만 천심화색사동남

孤村雨霽山呈態 高閣風生容倚酣 點檢自家新意思 蒲庭芳草露珠含

고촌우제산정태 고도풍생용의감 점검자가신의사 포정방초로주함

그대는 잠들고 나는 취한 채, 너는 맑은 이야기를 이어가네. 달빛을 기다릴 것도 없이, 벌써 세 마디 나뉘구나. 새 소리는 아래위로 봄의 아침과 저녁을 알리고, 꽃빛은 질고 열은 채로 동남쪽 마을의 사당에 흐드러진다.

외딴 마을엔 비 갠 뒤 산이 모습을 드러내고, 높은 누각에 바람이 일어 얼굴을 기대어 봄빛에 흠뻑 젖는다. 스스로 새로운 시흥을 정리하며, 부들 정원엔 향기로운 풀과 이슬방울이 맺혀 있다.

• 輓禹錫圭辛巳(만우석규신사)

신사년에 우석규를 애도하며

誰云天可必 仁者亦無徵 我愛文辭足 人多孝悌稱
수운천가필 인자역무징 아애문사족 인다효제칭

南鄉失善士 西泮哭親朋 欲慰高堂恨 哀詞說未能
남향실선사 서반곡친붕 욕위고당한 애사설미능

누가 하늘의 뜻을 가히 안다고 말하는가, 어진 이 또한 그 징험 없으니.
나는 문장과 말이 풍족함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효도와 우애를 칭찬하네.
남쪽 고을에 어진 선비 잃고, 서쪽 물가에서 친한 벗들 곡하네.
높은 집 아버지의 한을 위로하려 하나, 슬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네.

• 輓李院長 聖命(만리원장 성명)

이원장(李院長)의 부음을 듣고 - 임금의 명에 따라 지음

養德山林七十年 人間壽福獨能全 有才虛老其如命 傲世端居亦任天
양덕산림칠십년 인간수복독능전 유재허로기여명 오세단거역임천

行設會看良吏錄 清貧留與子孫傳 鰥生問業今無所 執紼何心向北阡
행설회간량리록 청빈류여자손전 추생문업금무소 집불하심향북천

덕을 기르며 산림 속에서 칠십 년을 보내셨고, 인간 세상에서의 장수와 복을 홀로 온전히 누리셨네. 재주는 있었지만 헛되이 늙어간 건 다만 운명이었고, 세상을 거슬러 살지 않고 조용히 머물며 하늘의 뜻에 맡기셨지.

관리로 부름을 받으면 능히 어진 이로 이름을 남겼고, 맑고 가난한 삶은 자손에게 전할 만한 유산이 되었네. 아랫사람이 배움을 묻는 지금에 와선 남길 가르침도 없고, 상여 줄을 쥐는 마음으로 북쪽 무덤길을 향하니 더욱 애달프다.

• 輓羅院長壬午(만라원장임오)

임오년에 나원장을 애도하며

早聞詩禮過庭時 仙鶴飄然本不羈 羅隱有才終世棄 陶潛無酒亦人隨
조문시례과정시 선학표연본부기 라은유재종세기 도잠무주역인수
平生學道淵源在 今日歸真士友悲 歲暮小庄寒月白 騷魂知在雪梅枝
평생학도연원재 금일귀진사우비 세모소장한월백 소혼지재설매지

일찍이 시와 예절 가르침을 뜰을 지나던 때 들었으니, 신선 학처럼 홀연히 본래
매이지 않았네. 나은은 재주 있었으나 끝내 세상에 버려졌고, 도잠은 술 없었으나
또한 사람들이 따랐네. 평생 학문과 도덕 쌓은 근원 깊으니, 오늘 참됨으로
돌아가니 선비와 벗들 슬퍼하네. 해 저문 작은 마을에 찬 달빛 희고, 시인의 님은
매화 가지에 머물러 있음을 알겠네.

• 韓李承旨東標庚辰(만리승지 동표 경진)

경진년에 이승지 동표를 애도하며

詞林宗匠國著龜 落落孤忠聖主知 曇棹朱旗孤破膽 三分漢竹犬生氍
사람종장국저구 락락고충성주지 담도주기고파담 삼분한죽견생창
草心未盡終天痛 薤露偏舍入地悲 篋東尚留規警語 有時圭復涕雙垂
초심미진종천통 해로편사입지비 협동상류규경어 유시규복채쌍수

문학계의 거장, 나라의 거북으로 이름났으니, 드러나 홀로 충성됨을 성스러운
임금께서 아시네. 검은 배 붉은 깃발 외로이 적의 간담 서늘케 하고, 세 조각 난
한나라 대나무에 개가 꿇 털을 날았네.

풀잎 같은 마음 다하지 못해 끝내 하늘까지 아프고, 비애 섞인 노랫소리 빈집에
스며들어 땅까지 슬프게 하네. 함의 동쪽에 오히려 남은 경계하는 말씀 있으니,
때때로 유가 다시 눈물 두 줄기 흘리네.

• 乙酉春帖(을유춘첩)

을유년 봄에 쓴 글

三冬無雪亦無冰 天意如何有咎徵 大地忽看春色至 兒童猶以太平稱
삼동무설역무빙 천의여하유구징 대지홀간춘색지 아동유이태평칭
知非伯王驚時換 多病相如幾日興 蓬單十年孤客夢 夜來能近九衢燈
지비백왕경시환 다병상여기일흥 봉단십년고객몽 야래능근구구등

겨울 세 달 내내 눈도 얼음도 없으니, 하늘의 뜻은 어찌된 일인가, 무슨 재앙의
징조인가? 대지는 문득 봄빛이 이른 듯하나, 아이들은 여전히 태평한 세상이라
말하네.

자신이 그릇됨을 알아도, 백이숙제처럼 시대의 변화를 보고 놀라고, 병든 몸으로

사마상여처럼 하루하루의 기운마저 묻는다. 풀잎 덮은 거처에서 십 년을 외롭게 떠돌던 나그네의 꿈, 밤이 되자 아홉 갈래 거리에 켜진 등불 가까이서야 깨어난다.

• 孤峰精舍韻 (晩年有移徙豐業之計將築孫拳精舍故先有此詩)

고봉정사에서 읊다(만년에 이사하여 풍요로운 업을 이를 계획이 있어 장차 손권 정사를 지으려 하므로 이에 앞서 이 시가 있다)

孤山去後孤山孤 父老增嗟景物殊 曾不百年山有主 寒梅依舊鶴歸湖
고산거후고산고 부로증차경물수 증부백년산유주 한매의구학귀호

고산이 떠난 뒤에도 고산은 외롭고, 늙은 아버지 탄식 늘어나니, 경물은 예와 다르네. 일찍이 백 년 동안 산에는 주인이 없었지만, 차가운 매화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고, 학은 호수로 돌아가네.

行藏敢擬古人并 老病謀閑有此亭 出由雲呈歸壑意 知還鳥舉倦飛翩
행장감의고인병 로병모한유차정 출유운정귀학의 지환조거권비편
多情曉月峰頭白 無限蒼厓分外青 歸去來方歌一曲 義皇天地送餘齡
다정효월봉두백 무한창애분외청 귀거래방가일곡 의황천지송여령

나아가고 물러남 감히 옛 사람과 견주려 하나, 늙고 병들어 한가로이 지내려 이에 정자를 지었네. 나아감은 구름 드리냄으로 말미암고, 돌아감은 골짜기로 향하는 뜻이니, 돌아올 줄 아는 새는 날갯짓 일으키고, 지친 듯 나는 모습 선선하네. 다정한 새벽 달은 봉우리에 비치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벼랑 더욱 푸르네. 돌아가리라, 비로소 한 곡조 노래 부르니, 복희씨 시대의 넓은 세상이 남은 삶을 보내주네.

• 冬至日 和金以悅 化 韻(동지일 화금이열 화 윤)

동지날 김이열의 '화' 윤에 화답하다

佳客爭隨至日臨 單門休道少參尋 三盃不醉玄為酒 五夜無眠月照襟
가객쟁수지일림 단문휴도소참심 삼배부취현위주 오야무면월조금
荊俗厭勝縻赤豆 復齋迎候美瑤琴 陽生陰極朋來夜 斟酌諸君詩我心
형속염승미적두 복재영후롱요금 양생음극붕래야 짐작제군시아심

좋은 벗들이 서로 앞다투어 동지를 맞이하러 오고, 한가한 집 찾는 이 드물다 말하지 말게나. 세 잔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아득한 뜻이 바로 이 술이리라. 다섯 밤 잠을 이루지 못해도, 달빛은 가슴을 비춘다. 초나라 풍속은 복을 구하러 팔죽에 엮매이고, 나는 다시 몸을 맑게 하며 벗을 맞아

옥금같은 거문고를 타네. 양(陽)이 돋고 음(陰)이 극에 이른 이 밤에 벗들이 찾아오니, 그대들의 시를 따라 내 마음 또한 술잔을 기울인다.

- 立春帖子(입춘첩자)

입춘첩

春回九童關 雪盡萬人家 梅藥休誇艷 君王不賞花
춘회구동관 설진만인가 매약휴과염 군왕부상화

봄이 구동관에 돌아오니, 눈은 온 마을에 다 녹았네. 매화와 모란은 고운 자태 자랑마라, 임금의 꽃을 감상하지 않으시네.

- 伏次(복차)

삼가 차운하다

- 御製韻(어제운)

임금이 지은 시의 운자(황제가 지은 시의 운자에 맞추어 시를 지음)

周邦命維新 國泰歲頻稔 聖代無遺失 康衢有哺飪
주방명유신 국태세빈임 성대무유실 강구유포임
弭災道既盡 示警天何甚 壁上千金字 恭瞻倍惕懍
미재도기진 시경천하심 벽상천金字 공첨배상림

주나라의 운명이 새롭게 일어나고, 나라는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드네.
성왕의 시대에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고, 거리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를 말해준다.
재앙을 막는 도리가 다하였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이리도 심하게 경고를 하는가?
벽 위에 새겨진 천금 같은 글자 앞에, 공손히 바라보며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다.

- 次杜草堂向夕韻(차두초당향석운)

두보 초당의 저녁 무렵 운에 차운하다

日斜雨初霽 岸幘步庭中 宿鳥投高木 溪豚識晚風
일사우초제 안책보정중 숙조투고목 계돈식만풍
天長鄉信斷 地僻野村同 漸覺幽懷苦 園基永多終
천장향신단 지僻야촌동 점각유회고 위기영다종

해 기울고 비 갠니, 머리 덮개 비스듬히 하고 뜰 가운데 거니네. 잠든 새는 높은 나무에 깃들고, 시냇가 돼지는 저녁 바람 아네. 하늘 멀어 고향 소식 끊기고, 땅 외진 시골 마을은 한결갈네. 점점 그윽한 회포가 괴로우니, 바둑 오래 두니 끝이 많네.

• 薄暮韻(박모운)

땅거미 질 무렵의 운에 맞추어

前村忽暮色 暑氣欲殘時 地濕烟籠草 天晴露結枝
전촌홀모색 서기욕잔시 지습연롱초 천청로결지
遣懷無過酒 為客不須悲 坐久茅簷下 蜘蛛欲吐絲
전회무과주 위객부수비 좌구모침하 지주욕토사

앞마을에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깃들고, 무더운 기운도 이제야 사그라지려 한다.
땅은 젖어 있고 안개는 풀 위를 감싸고, 하늘은 개어 맑은 이슬이 가지마다 맺힌다.
시름을 풀기엔 술만 한 게 없고, 나그네 된 몸이니 굳이 슬퍼할 것도 없다.
오래도록 초가 처마 밑에 앉아 있으니, 거미가 이제 막 실을 뽑으려 한다.

• 日暮歌(일모가)

해질녘 노래

炊烟輕羃樹 清月半窺門 信美非吾土 端居憶故園
취연경막수 청월반규문 신미비오토 단거억고원
人閑親桐葉 驛古露槐根 試漱寒泉水 身輕可滌煩
인한친국엽 역고로괴근 시수한천수 신경가척번

해 질 녘 노래, 저녁 연기 가볍게 나무 덮고, 맑은 달은 반쯤 문을 엿보네. 참으로
아름답지만 나의 고향 아니니, 홀로 앉아 고향 동산 그리워하네. 사람 한가로이
국화 잎 가까이하고, 낡은 역참엔 이슬 내린 왜나무 뿌리 드러났네. 차가운 샘물에
입 행구어 보니, 몸 가뿐해져 번뇌를 씻을 수 있겠네.

• 次贈別士達 濟州令公(차증별사달 제주령공)

제주령 사달공의 이별 시에 화답하다

聖代多休告 都門送客觴 江南秋欲老 次慕好歸鄉
성대다휴고 도문송객상 강남추욕로 차모호귀향

성대한 시대에 휴가도 많아, 도성 문 밖에서 벼슬 술잔으로 전송하네.
강남의 가을은 이제 질어 가고, 나는 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일어난다.

• 贈李叅奉 萬根(증리참봉 만근)

이 참봉 만근에게 주다

繼帳霜風動 齋室夢先牽 洞有今秋葉 厨沉昨夜烟
계장상풍동 재실몽선견 동유금추엽 주침작야연
暖寒殊咫尺 苦樂異氏仙 適會樵童去 長吟伐木篇
난한수지척 고악이씨선 적회초동거 장음별목편

이어지는 휘장에 서릿바람 일고, 서재 방엔 꿈이 먼저 이끄네. 골짜기엔 이미 가을
잎 떨어지고, 부엌은 어젯밤 연기에 잠겼네.
따뜻함과 추위는 지척 사이에도 다르고, 괴로움과 즐거움은 다른 신선과 같네. 마침
나무꾼 아이 떠나니, 길게 나무 베는 노래 읊으리.

• 送韓直講 歸觀咸興(송한직강 귀근함흥)

한 직강을 전송하며—함흥으로 돌아가 뵈러감에 부쳐

浮生聚散劇紛紛 春暮長安又送君 征馬慣穿關嶺雪 歸人漸近太行雲
부생취산극분분 춘모장안우송군 정마관천월령설 귀인점근태행운
趁庭是日承殊渥 還府他時白異聞 吾祖世居豐沛邑 為憑君去問先墳
진정시일승수악 환부타시백이문 오조세거풍패읍 위빙근거문선분

덧없는 인생, 모이고 흩어짐이 유난히 번잡한데, 봄이 저문 장안에서 다시 그대를
보내는구나. 길든 말은 눈 덮인 월령을 익숙히 넘어가고, 돌아가는 이는 점차
태항산 구름 아래에 가까워지네.

이날 뜰에 나아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으니, 언젠가 돌아가선 새로 들은 일을
알려주시게. 우리 조상은 대대로 풍패 고을에 살아오셨으니, 가시거든 부디 선산을
찾아 안부를 여쭙어 주시게.

• 輓人(만인)

그를 애도하며

昔在髫齡早識公 故家喬木仰清風 青巖亭下聞詩教 太白山中享福崇
석재초령조식공 고가교목양청풍 청암정하문시교 태백산중향복숭
富貴無心基一局 存亡有限夢三虫 嗟呼今不更承誨 溪灑乾坤此路窮
부귀무심기일국 존망유한몽삼충 차호금부경승회 계쇄건곤차로궁

어렸을 때 일찍이 공을 알았으니, 옛집 큰 나무는 맑은 바람 우러러보네.
청암정 아래에서 시 가르침을 들었고, 태백산중에서 누리는 복이 높았네.
부귀에 뜻 없어 바둑 한 판 두셨고, 삶과 죽음 유한하니 꿈속의 세 별레 같네.
아, 이제 다시 가르침 받을 수 없으니, 눈물 강물처럼 쏟아져 이 길 끝났네.

• 輓金監司(만김감사)

김 감사를 애도하며

玉署薇垣步武揚 同時父子擅恩光 至今關嶺棠陰老 終古思臺草色傷
 옥서미원보무양 동시부자천은광 지금관령당음로 종고사대초색상
 邦國有人方注意 嶺中無福遽云亡 龍門舊客今安放 哭向靈運是若堂
 방국유인방주의 령중무복거운망 룡문구객금안방 곡향령운시약당

옥서와 위원의 관직을 밟으며 이름을 드날렸고, 한 시대에 부자가 함께 임금의
 은총을 독차지했네. 지금도 관령의 당나무 그들은 늙어가고, 오래도록 사대의
 풀빛은 슬픔을 머금는다.

나라 안에는 그를 주목하던 이들이 많았는데, 영남에서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하네. 용문에서 함께 하던 옛 벗은 이제 어디에 묻히셨는가,
 영운(靈運)을 향해 곡을 하니, 그곳이 바로 당신의 영당이로다.

• 輓南岳李先生 葛庵舊號(만남악리선생 갈암구호)

남악 이 선생을 애도하며, 갈암은 옛 호.

斯文欲褰泰山傾 朝野偏深殄悴情 經席都俞心暗記 緇帷警誨耳猶盈
 사문욕구태산경 조야편심진취정 경석도유심암기 치유경회이유영
 大賢出處關時運 聖代恩波有重輕 天道十年終悔禍 行看瓜奠及佳城
 대현출처관시운 성대은파유중경 천도십년종회화 행간조전급가성

이 학문 덮으려 하니 태산이 기울 듯, 조정과 재야에 두루 깊은 수척한 정.
 강단에서 모두 옳다고 칭찬함 마음속 깊이 새기고, 승려들 오직 경계하는 가르침에
 귀 오히려 가득하네. 큰 어진이 나아가고 물러남은 시운에 달렸으니, 성스러운 시대
 은혜의 물결에도 경중이 있네. 하늘의 도리 십 년 만에 마침내 재앙 누우치니, 장차
 손톱으로 제사 지내며 아름다운 무덤에 이르기를 보리라.

• 輓李察訪裕叔碩意(만리찰방유숙석의)

이찰방 유숙 석의(裕叔 碩意)를 애도하며

靑袍玉帶早蜚英 水部烏臺次第榮 南國烟霞終老計 西關花月少時情
 청포옥대조비영 수부오대차제영 남국연하종로계 서관화월소시정
 思臺有恨王孫草 旅館無人蜀魄聲 修短贊愚三尺土 向來哀樂不須驚
 사대유한왕손초 려관무인촉백성 수단찬우삼척토 향래애악부수경

푸른 관복에 옥띠 띠고 일찍부터 이름을 떨쳤고, 수부와 오대의 벼슬을 차례로
 누리며 영화로웠네. 남녘의 안개와 노을 속에서 마침내 늙을 계획이었고,
 서쪽 관문 꽃과 달은 젊은 날의 정이었지.
 사대에는 아직도 원망이 남아 왕손초는 스러졌고, 여관에는 사람이 없고 촉나라

흔백만이 소리치는 듯하네. 길고 짧은 인생을 세 자의 흠으로 찬송하니, 삶의 슬픔과 기쁨은 원래 놀랄 일이 아니로다.

• 輓竹林權生員畢(만죽림권생원필)

죽림 권생원을 애도하며

草潤遺風未寂寥 貌如冰玉氣仍豪 竹林高興劉伶鉢 錦水詩丸處士瓢
초운유풍미적요 모여빙옥기잉호 죽림고흥류령시 금수시환처사표
寸草心違烏及哺 三生夢罷鹿藏蕉 陽春欲和朱絃斷 花落江南獨魂消
촌초심위오급포 삼생몽막록장초 양춘욕화주현단 화락강남독혼소

풀은 남긴 풍모 윤택하여 쓸쓸하지 않고, 얼굴은 얼음과 옥 같고 기상은 여전히 호방하네. 죽림의 높은 흥취는 유령의 술이고, 금수 땅의 시 구슬은 처사의 표주박 같았네. 작은 풀잎 마음 까마귀 새끼 먹일 때 어미 마음 어기니, 삼생의 꿈은 사슴이 파초 잎에 숨듯 아득하네. 화창한 봄날 화답하려는데 붉은 거문고 줄 끊어지고, 꽃 지는 강남에 홀로 닳마저 사라지네.

• 輓柳士會(만류사회)

유사회를 애도하며

花岳淒涼潭月荒 百年天地死生忙 嶺人無命多凋落 士論乖和孰主張
화악처량담월황 백년천지사생망 령인무명다조락 사론괴화숙주장
塵局忍着碁黑白 詩壇錄絶格蘇黃 仙庄寂寞寒花笑 有客舍悲過草堂
진국인착기흑백 시단록절격소황 선장적막한화소 유객사비과초당

꽃 산은 쓸쓸한데 연못 달빛은 황량하구나 천지간 백 년 인생 죽고 사느라 분주하다. 영남 선비들 명맥 끊겨 흩어지는데 사대부 논의 어그러지니 누가 주장할까
속세의 판국 검고 흰 말 참아 견디는데 시단은 이제 소동파의 떨치는 기백도, 황정건의 절제미도 잃어버린 빈 껍데기가 되었구나. 신선의 초당 적막한데 찬 꽃만 웃고 한 나그네 슬픔 안고 초가집 지나가네

• 輓金進士(만김진사)

김진사를 애도하며

哭向秋天潭月明 江梅落盡鶴無聲 身遊太學為模範 名與孤山孰弟兄
곡향추천담월명 강매락진학무성 신유태학위모범 명여고산숙제형
東野連垂三子淚 謝庭長悴一枝英 荒詞敢擬韓公記 蒿里悲歌只寫情
동야련수삼자루 사정장취일지영 황사감의한공기 호리비가지사정

가을 하늘 향해 우니 연못 달 밝고, 강가의 매화 다 떨어지니 학 소리 없네. 몸은 태학에 노닐며 모범이 되었고, 이름은 고산과 누가 형제인가. 동야는 연이어 세

아들의 눈물 흘리고, 사정의 뜰엔 한 떨기 꽃 시들었네. 거친 말 감히 한공의 기록에 비하라마는, 황량한 슬픈 노래 다만 정을 적을 뿐이네.

• 輓金叅奉 輝壁(만김참봉 휘벽)

김참봉 휘벽(金叅奉輝壁)을 애도하며

童穉情親四十莫 幾從蘭室襲餘馨 文章舊價留蓮榜 詩禮遺風自鯉庭
동치정친사십명 기종란실습여형 문장구가류련방 시례유평자리정
鶴墅雲烟吟外白 驪陵松柏夢中青 龍亾大澤無窮恨 不忍他時過雨亭
학서운연음외백 려릉송백몽중청 룡망대택무궁한 부인타시과우정

어린 시절부터 정을 나눈 지 마흔 해, 몇 번이나 난실에 함께하며 그윽한 향기를 이어받았네. 문장의 옛 명성은 연방(蓮榜)에 남아 있고, 시와 예의 유평은 잉어가 노니는 집안에서 이어졌지.

학사는 구름과 안개 속에 묻혀 시를 읊던 자취는 사라지고, 여울 언덕 묘소엔 송백이 푸르게 꿈에 어린다. 용이 사라진 큰 못처럼 아득한 한이 남아, 훗날 비 오는 정자를 다시 찾는 일이 차마 어려우리라.

• 輓權進士(만권진사)

권진사를 애도하며

一燈相對記前冬 兄把深樽第亦從 人道機雲才共妙 天生郊島命還窮
일등상대기전동 형파심준제역종 인도기운재공묘 천생교도명환궁
學源有自公何試 麗澤無功我太庸 湛樂不隨存沒異 鶴鶴飛近白楊叢
학원유자공하시 려택무공아태용 담악부수존몰이 척령비근백양총

지난 겨울 등불 아래 마주 앉았던 그때 형이 술잔 기울이니 아우도 따랐더라
사람들은 육기 육운 재주 같다 하더니 하늘은 맹고 가도처럼 가난하게 내렸네
학문의 근원은 스스로 터득한 그대인데 함께 배움에 이룬 것 없어 내가 부끄럽구나
깊은 즐거움은 생사도 넘나드니 지빠귀는 이제 백양나무 숲으로 날아가네

• 輓權生員(만권생원)

권 생원을 애도하며

二十年前行興事 襄人莫若我知之 親喪自盡今猶或 兄死身隨古亦稀
이십년전행흥사 양인막약아지지 친상자화금유혹 형사신수고역희
天意未曾扶庚袞 匣琴收聲忍微之 可憐蒿里誰家地 聚歛雙魂不復歸
천의미증부경곤 갑금수성인휘지 가련호리수가지 취감쌍혼부복귀

이십 년 전의 즐거웠던 일을, 상인 중에 나만큼 아는 이 없으리. 아버지 상에 스스로 그림 그린 일 지금도 혹 있으나, 형 죽음에 몸 따라 죽은 일 예로부터

드무네. 하늘 뜻은 일찍이 경곤을 돕지 않았고, 상자에 거문고 넣어 소리 감추니 슬픔 전디기 어렵네. 가련하구나, 황량한 땅 그 누구의 땅인가, 모아 거둔 두 혼백 다시 돌아오지 못하네.

• 韓李進士妹兄 斗精(만리진사매형 두정)

이진사의 누이오라비 두정(斗精)을 애도하며

為弟為兄四十年 死生窮達捻閱天 親如同氣情何限 病不臨喪涕自漣
위제위형사십년 사생궁달념관천 친여동기정하한 병부림상체자련
暮境心期園有竹 妙齡聲價手攀蓮 弱孀抱恨兒孫哭 何處青山葬醉仙
모경심기원유죽 묘령성가수반련 약상포한아손곡 하처청산장취선

동생이자 형으로 사십 년을 함께하며, 죽음과 삶, 가난과 영화 속에 하늘의 뜻을 함께 헤아렸네. 혈육처럼 가까운 정은 헤아릴 수 없이 깊었고, 병석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눈물은 저절로 흘렸네.

늙은 뒤 함께 마음 모은 정원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젊은 시절 명망은 손수 과거의 연방을 잡던 빛이었지. 연약한 과부는 원한을 안고 자손들과 함께 곡하며, 어느 푸른 산속에 이 취한 선비를 묻었을까.

• 韓柳諮議君誨 後章(만류자의근회 후장) 유근회 자문관을 애도하며 (후편)

人說名家裔 淵源有自來 儒林推巨匠 甲觀試英才
인설명가에 연원유자래 유림추거장 갑관시영재
厚地雖終孝 高堂不忍哀 可憐江上月 虛照玉淵臺
후지수종효 고당부인애 가련강상월 허조옥연대

사람들 말하네 명문의 후예라 학문의 근원 대대로 이어왔다고. 유림의 거장으로 추앙받았고 궁정의 현관에서 재능을 떨쳤네

넓은 땅에 효도 다했지만 높은 사랑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네. 애달픈 강 위의 달빛 헛되이 옥연대만 비추네

• 佳嶺膾魚(가령회어)

아름다운 고개 회

春節晚擲小溪東 村杏新開鳥喚風 本不相期何處客 情如有待主人翁
춘절만척소계동 촌행신개조환풍 본부상기하처객 정여유대주인흙
魚鱗出沼盤飛膾 花色侵盃面映紅 好是林泉無事跡 不妨來往此山中
어린출소반비회 화색침배면영홍 호시림천무사적 부방래왕차산중

늦은 봄날 작은 시내 동쪽에 던져두니, 마을 살구꽃 새로 피어 바람 부르네. 본래 기약 없던 어느 곳 손님인가, 정을 기다리는 듯 주인은 맞이하네.

비늘 돋은 물고기 못에서 나와 접시에 날 듯 회 치니, 꽃빛 술잔 침범하여 얼굴 붉게 비추네. 좋다, 이 숲과 샘에 흔적 없으니, 이 산중에 오가는 것 방해될 것 없네.

• 義山次南注書雪攀 圖翼韻(의산차남주서설거 도익운)

의산에서 남주서 설거와 도익의 운에 차운하다

一日探幽度幾峯 斷霞殘照古猶令 詩情得友較長短 花影入簾無淺深
일일탐유도기령 단하잔조고유령 시정득우교장단 화영입렴무천심

若燭照人能起敬 清篇戒飲却為箴 半庭春草時將晚 誰識生生一片心
약촉조인능기경 청편계음길위잠 반정춘초시장만 수식생생일편심

하루 동안 그윽한 곳을 찾아 몇 고개를 넘었고, 끊긴 노을과 남은 햇살은 옛날처럼 여전히 아름다웠네. 시는 벗을 만나 길고 짧음을 겨루게 되고, 꽃 그림자는 발 아래 드리워져 깊고 얕음이 없다.

사람을 밝히는 촛불처럼 존경을 일으킬 수 있다면, 맑은 시편은 술을 경계하는 경계문이 되리라. 뜰 한켠 봄풀 무성하고 날은 저물어 가건만, 누가 이 생생한 한 조각 마음을 알아줄까.

世間離別苦 華髮亦驚秋 老覺詩情減 春催酒興優
세간리별고 화발역경추 로각시정감 춘취주흥우

升沉元有數 緘默貴無尤 明日芳郊上 望君愁復愁
승침원유수 함묵귀무룡 명월방교상 망군수복수

세상 이별의 괴로움 이별의 쓰라림이 세상을 가득 채우니 흰 머리카락도 가을을 놀라네. 늘어난 나이에 시정(詩情)은 줄어드는데 다가온 봄은 술흥만 더욱 돋우네. 출세와 침탁(沈濁)은 정해진 운명 침묵 속에 사는 게 허물이 없도다. 내일 아름다운 들판에 올라 그대를 바라보면 슬픔에 슬픔만 겹치리

• 又次南上舍韻(우차남상사운)

다시 남상사(南上舍)의 운에 화답하다

陽春召我最高巔 勝處清遊挾散仙 山雨欲來雲吐去 征人初發路南天
양춘소아최고전 승처청유협산선 산우욕래운탕거 정인초발로남천

好將盃酒今宵話 合有新詩異日傳 物色蒲前渾漫興 任他花鳥笑華顛
호장배주금소화 합유신시이왈전 물색포전혼만흥 임타화조소화전

봄별이 나를 가장 높은 봉우리로 이끄니, 아름다운 곳 맑은 유람엔 신선의 기운이 따르네. 산비가 오려는지 구름은 흩어지고, 떠나는 이는 남쪽 하늘 길로 막 출발하네.

좋은 술잔 기울이며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시가 생기면 특별한 전고로 전해지리. 부들 앞의 풍경은 온통 흥취로 가득하니, 꽃과 새가 나를 웃는다 해도, 이 늙은 정수리는 개의치 않네.

• 中宮殿春帖(중궁전춘첩)

왕비의 궁궐에 불이는 봄을 맞이하는 글

徽音不獨詠周南 千載吾東化亦覃 坤德方看專靜一 泰階爭賀屬春三
희음부독영주남 천재오동화역담 곤덕방간부정일 태계쟁하속춘삼

奇祥早著金宮燕 織事還勤繭館蚕 誠感神明瘳聖疾 太平和氣萬民舍
기양조저금궁연 직사환근견관천성감신명추성질 태평화기만민사

아름다운 노래는 주남만 읊은 것이 아니니, 천 년 지나 우리 동방에도 교화 미쳤네.
드넓은 덕은 바야흐로 오직 고요함과 하나됨을 보이니, 태평한 세상 다투어
춘삼월에 들을 경하하네.

기이한 모습 이미 궁궐 제비에 나타나고, 길쌈하는 일은 누에고치 집 누에 부지런히
하네. 정성스러운 감동 신명께 미쳐 성스러운 병 나으니, 태평한 화기가 온 백성의
집에 가득하네.

天災消臘雪 春色動葭灰 德配坤元至 化隨令郎催
천재소랍설 춘색동단회 덕배곤원지 화수령랑취

玉缺瘳舊疾 佳氣滿新梅 敢祝多男慶 將看萬福來
옥결추구질 가기만신매 감축다남경 장간만복래

하늘의 재앙은 납월의 눈 녹든 사라지고, 봄빛은 문혀 있던 털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지극한 덕은 대지의 본원에 짝하여 이르고, 그 조화로움은 아드님의
회복을 따라 함께 이루어진다.

옥에 흠이 있었으나 오랜 병은 이제 낫고, 좋은 기운은 새로 핀 매화에 가득하네.
감히 많은 아들을 낳는 경사를 기원하며, 머지않아 만복이 찾아옴을 함께 보기를
바란다.

由來乾道亦資坤 懿範多年配至尊 與物皆春敷大化 脫簪陳戒捲嘉言
유래건도역자곤 의범다년배지존 여물개춘부대화 탈잠진계권가언

하늘의 도리도 땅의 힘을 빌리나니 아름다운 덕행 오래도록 임금을 보필하였네
만물에 봄을 베풀어 큰 교화 펼치시고 비너 풀어 경계 올리니 아름다운 말씀
펼쳐졌네

禁苑春光早 椒闈細旭紅 吾王瘳舊疾 歡意八方同
금원춘광조 초위세옥홍 오왕료구질 환의팔방동

금원(禁苑)에 봄빛 이르니 후궁의 방에 살짝 비치는 아침햇살 붉구나
우리 왕께서 오랜 병환이 나오시니 기쁨이 사방으로 퍼져가네

• 避炎亭八景韻 李希音(피염정팔경운 이희음)

피염정 팔경의 운에 따라, 이희음

紅輕粉薄浥芳塵 長送清香襲醉身 莫教東風容易吹 人間恐漏武陵春
홍경분박음방진 장송청향습취신 막교동풍용역취 인간공루무릉춘

붉은빛 가볍고 흰 분 얹으니, 향기로운 먼지 촉촉이 적시고, 길게 푸른 향기 보내와,
취한 듯한 몸 감싸네. 동풍에게 쉬이 불게 하지 마오, 인간 세상에 도리어
무릉도원의 봄 놓칠까 두렵네.

免峴春花
면현의 봄꽃

青山斫盡發樵歌 葉裡秋霜半着華 石涇蕭蕭紅錦爛 此間知有葛洪家
청산작진발초가 엽리추상반착화 석경소소홍금란 차간지유갈홍가

푸른 산 베어내니 나무꾼 노래 터져 나오고, 잎 속의 가을 서리 반쯤 꽃처럼
피었네. 돌길은 쓸쓸하고 붉은 비단 펼쳐진 듯하니, 이곳이 바로 갈홍의 집임을
알겠네.

葛路秋葉
갈로의 가을 잎

懸崖白日響雷霆 劍立虹飛掛翠屏 願酌一盃清冷水 松牕喚得醉魂醒
현애백일향뢰정 검립홍비괘취병 원작일배청랭수 송창환득취혼성

꺾아지른 벼랑 한낮에 우레 소리 울리고, 칼날처럼 솟은 무지개 푸른 병풍에
걸렸네. 바라건대 맑고 차가운 물 한 잔 마시니, 소나무 창가에서 취한 넋 깨어나네.

月巖懸瀑
월암의 매달린 폭포

不成霖雨謾從風 終日英英梧岵東 鸞鍵元非特贈物 主人怡悅對長空
부성림량만종풍 종일영영오수동 애채원비특증물 주인이열대장공

비 내리지 못하고 헛되이 바람 따르니, 마침내 밝고 아름다운 구름 오수 동쪽에
머무네. 아득히 피어오름은 본래 특별히 준 물건 아니니, 주인 기쁘고 즐거워하며
넓은 하늘 마주하네.

梧岵歸雲
오수산에 돌아온 구름

霜翎不墜楚弓張 春北秋南意自忙 寒夜一聲沙月白 草堂驚罷夢黃梁

상령부추초궁장 춘복추남의자망 한야일성사월백 초당경파몽황랑

서리에 젖은 것은 떨어지지 않고 초나라 황은 팽팽히 당겨져 있고, 봄에는 북쪽,
가을에는 남쪽을 오가니 뜻은 스스로 분주하네.

차가운 밤, 모래벌에 울려 퍼지는 한 소리에 달빛은 희고, 초가집에서 황량한
꿈에서 깨어난다 — 황량몽은 끝났구나.

寒沙驚鴈

한기에 놀라 날아오른 기러기

漫漫長夜幾時朝 牛背高吟白石謠 十里平郊來又去 雨餘芳草綠迢迢

만만장야기시조 우배고음백석요 십리평교래우거 우여방초록초초

기나긴 밤 언제나 밝아오려나, 소 등 위에서 높이 읊는 백석의 노래. 십 리 평평한
들판 오고 또 가니, 비 온 뒤 향기로운 풀 푸르름 끝없이 이어지네.

平郊牧牛

평교의 소 먹이기

亭亭授甲傲霜威 笑殺春華只一時 廊廟乏材應見取 盤桓不獨醉吟宜

정정수갑오상위 소살춘화지일시 랑묘핍재응견취 반환부독취음의

우뚝 솟아 갑옷 입고 서릿발 위엄 자랑하니, 덧없는 봄꽃 잠깐 피었다 지는 것
비슷는 듯. 조정에 인재 부족하니 응당 등용되리라, 머뭇거리는 것 홀로 취해
읊조리는 것만이 마땅하랴.

井上蒼松

우물 위의 푸른 소나무

甘谷曾聞菊水迴 小庭今見佛頭來 主翁愛菊追前古 花下他年壽席開

감곡증문국수회 소정금전불두래 주옹애국추전고 화하타년수석개

감곡에서 일찍이 국화수 돌아움을 들었는데, 작은 뜰에 이제 불두화 피어났네. 주인
어른 국화 사랑하여 옛 풍류 따르니, 꽃 아래 다른 해에 잔치 열리리.

庭前甘菊

뜰 앞의 감국

• 伊山南寺次諸益(이산남사차제익)

이산남사(伊山南寺)에서 여러 벗의 시에 차운하다

千年洞壑秘清奇 方丈新開亦有時 大醉高歌春曰暮 谷禽催我短節持

천년동학비청기 방장신개역유시 대취고가춘왈모 곡금취아단절지

천년 된 골짜기와 협곡은 맑고 기이한 풍경을 간직하고, 방장에 새 문을 여는 때가
또한 있도다.

한껏 취해 큰 노래를 부르니 봄날은 저물어 가고, 계곡의 새가 우니 짧은 피리를
들고 나는 다시 길을 떠난다.

• 又次煎花詩韻(우차전화시운)

다시 '꽃을 달이며 지은 시'의 운에 차운하다

靑烟一抹起山腰 小鼎花魂半欲消 江上清遊堪書處 醉仙爭渡夕陽橋
청연일말기산요 소정화혼반욕소 강상청유감서처 취선쟁도석양교

푸른 연기 한 줄기 산허리에서 피어오르고, 작은 솥 안에 꽃의 넋은 반쯤 사라지려
한다.

강 위의 맑은 유람은 기록할 만한 정경이고, 취한 신선은 저녁노을 속 다리에서
다투어 건너가네.

• 伊山呼韻(이산호운)

이산에서 운을 부른다

湖山歲晏孰華余 望美西方陟彼阿 已覺餘年同逝水 不妨終日酌流霞
호산세안숙화여 망미서방척피아 이각여년동서수 부방종일작류하
文章不覺多齊氣 歌曲還思絕鄭哇 感激芳時今已歇 吟髭撚斷日西斜
문장부각다제기 가곡환사절정과 감격방시금이헐 음자연단일서사

호수와 산에 해 저무니 누가 꽃다울까, 서쪽 아름다움 바라보며 저 언덕에 오르네.
이미 남은 세월 흐르는 물과 같음을 깨달으니, 날마다 흐르는 노을빛 술 마시는 것
방해될 것 없네. 글 짓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기운 고르고, 노래 부르며 도리어
정나라, 위나라 곡조 끊으려 생각하네. 아름다운 시절 감격스러웠으나 이제 이미
스러졌으니, 읊조리던 수업 비틀어 끊으니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네.

• 次金叔商老韻(차김숙상로운)

김숙상로(金叔商老)의 시운에 차운하다

雨過江村秋一園 荻花楓葉共紛紛 頭回世路無青眼 夢入溪山有白雲
우과강촌추일원 획화풍과공분분 두회세로무청안 몽입계산유백운
好對羣賢終日話 也應前夜動星文 一年光景歸題品 誰識幽蘭澗底芬
호대군현종일화 야응전야동성문 일년광경귀제품 수식유란간저분

비 갠 강촌에 가을이 한창이니, 거두는 꽃과 단풍, 열매가 함께 흩날린다.
세상길을 돌아보니 반겨주는 이 없고, 꿈속엔 시내와 산 속 흰 구름이 어린다.
어진 이들과 마주 앉아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고, 아마도 지난밤 별자리를 읊직인

감응이 있었으리라. 한 해의 세월을 제목과 품격에 돌이켜 보건대, 누가 시내 밑 깊은 곳의 난초 향기를 알아줄까.

赤壁秋深楓葉多 詩人乘興倒叵羅 白沙錦石無邊地 明月清風有酒家
적벽추심풍엽다 시인승흥도파라 백사금석무변지 명월청풍유주가
千載清遊今再續 名區物色古來佳 試看當日羣仙會 窈窕詩章果孰歌
천재청유금재속 명구물색고래가 시간당왈군선회 요조시장과숙가

적벽에 가을 깊으니 단풍잎 많고, 시인 흥취에 취해 술병 기울이네. 흰 모래와 아름다운 돌 끝없는 땅에, 밝은 달과 맑은 바람 있는 곳에 술집 있네. 천 년의 맑은 유람 이제 다시 이어가니, 명승지의 풍경 예로부터 아름답네. 보라, 당시에 여러 신선 모였으니, 아름다운 시 누가 불렀을까.

次權進士宅于韻 庚辰(차권진사택우운 경진)

권진사 집에서 '宅于' 운에 차운하다

雨餘溪水細添聲 夜半疎燈漸覺明 把酒君須歌一曲 披襟我且吐深情
우여계수세침성 야반소등점각명 파주군수가일곡 피금아차토심정
湖山有債身長往 軒冕無心夢不驚 老去詩篇渾漫興 吟髭撚斷句難成
호산유채신장왕 현면무심몽부경 로거시편혼만흥 음자연단구난성

비 지난 뒤 시냇물 소리 더욱 잦아지고, 한밤중 성긴 등불은 점점 더 밝아오네. 술을 들고 그대는 노래 한 곡 불러 주고, 나는 옷깃을 열며 마음속 깊은 정을 토하네.

호산(湖山)에 빚진 마음에 늘 몸은 떠돌고, 벼슬엔 뜻이 없으니 꿈길도 놀라지 않는다. 늙어가니 시 짓는 흥도 마구잡이요, 수업을 만지며 읊조리다 보니 한 구절 이루기도 어렵구나.

輓金院長 孝基(만김원장 효기)

김원장 효기를 애도하며

生長南州世祿家 英姿雅望鎮浮華 草心未盡林烏哺 哀怨偏深薤露歌
생장남주세록가 영자아망진부화 초심미진림오포 애원편심해로가
見我洛中情眷戀 送君泉下淚傍沱 典刑幸有贊郎在 食報前人福慶多
견아락중정권련 송군천하루방타 전형행유현랑재 식보전인복경다

남쪽 고을, 대대로 복록 누린 집안에 태어나 빼어난 품채와 고아한 모습 속된 영화 잠재웠네. 마음 다 못 다해 숲 속 까마귀 새끼 기르셨건만 슬픔 깊어지니 구슬픈 「애가」 절로 흘러나오네.

낙양에서의 정 잊지 못해 나를 돌아보셨건만 저승길 떠나시는 그대 보내며 눈물
하염없이 흐르네. 다행히 슬기로운 아들 있어 남긴 법도 이어가리니 선조의 복덕
이어받아 길이 빛나라.

• 東閣偶題(동각우제)

동각에서 우연히 쓰다

匹馬東來地勢窮 瘴雲飛盡海天空 郡齋終夜清無寐 窮鬼揶揄笑伯龍
필마동래지세궁 장운비진해천공 군재종야청무매 궁귀야유소백룡

홀로 말을 타고 동쪽으로 오니 땅의 형세 막다른 곳ियो, 나쁜 기운의 구름 흩날려
사라지니 바다와 하늘 넓고 넓네. 군청에서 밤새도록 맑게 잠 못 이루니, 궁귀가
비웃으며 백룡을 조롱하는구나.

江縣秋深野菊芳 一年佳節近重陽 傷心此老風流盡 誰把東籬白酒觴
강현추심야국방 일년간절근중양 상심차로풍류진 수파동리백주상

강가 고을에 가을은 깊어 들국화 향기 짙고, 한 해의 좋은 절기, 중양이 가까워오네.
가슴 아프게도 이 늙은이의 풍류는 다했으니, 누가 동쪽 울타리 넘어 흰 술잔 올려
줄 것인가.

清燈燄燄郡齋冷 海月依依上曲欄 天際白雲頻入夢 牢愁難借酒盃寬
청등염염군재랭 해월의의상곡란 천제백운빈인몽 퇴수난차주배관

맑은 등불 불꽃만 일렁이는 지방 관아의 서재는 쓸쓸하고, 아득한 바다의 달,
휘어진 난간을 어루만지듯 비추네. 하늘 끝 흰 구름 자주 꿈에 보이니, 굳건한 시름
술잔 빌려 풀어내기 어렵네.

使君為政問如何 恐蹈尋常俗吏科 千古關防嚴鎖鑰 一邦縫掖試絃歌
사군위정문여하 공도심상속리과 천고관방엄쇄약 일방봉액시현가

軒臨滄海蓬萊近 樓壓澄湖菡萏多 御罷郡齋無一事 獨凭梧几日吟哦
헌임창해봉래근 루압징호함치다 어파군재무일사 독빙오계일음아

사또의 정사는 어떠한가 물으니, 평범한 아전의 길 따를까 염려스럽네.

천 년의 요충지 굳게 자물쇠 채운 듯, 한 고을 백성들 시험 삼아 현악 노래 부르네.
누각은 푸른 바다에 임하여 봉래산 가깝고, 다락은 맑은 호수를 덮으니 연꽃 많네.
임금 행차 그치고 고을이 가지런히 아무 일 없어, 홀로 오동나무 책상에 기대어
날마다 읊조리네.

• 送李郎守仁(송리랑수인)

이낭(李郞) 수인(守仁)을 전송하며

短鞭羸馬出東城 天地蕭蕭落木聲 百尺樓臨清海水 白雲千里送君情
단편영마출동성 천지소소락목성 백척루림청해수 백운천리송군정

짧은 채찍에 여윈 말을 타고 동쪽 성을 나서니, 하늘과 땅은 쓸쓸하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 가득하네.

높은 누대는 맑은 바닷물에 임해 있고, 천 리 흰 구름이 그대를 보내는 나의 마음을
대신하네.

邑弊民殘政亦苛 宦情偏覺薄如羅 玉人佳句清心目 葷血全無白雪歌
읍폐민잔정역가 환정편각박여라 옥인가구청심목 훈혈전무백설가

고을은 피폐하고 백성은 쇠잔하니, 정치 또한 가혹하구나. 벼슬하는 마음은 더욱
얇아 비단 같음을 깨닫네.

옥 같은 그대의 아름다운 시구는 심안을 맑게 하고, 기름지고 비린 것 없는 백설
같은 노래만 남네.

• 觀燈夜登南門樓口占(관등야등남문루구점)

등불 구경하는 밤 남문루에 올라 즉흥적으로 읊다

• 불교와 세속의 아름다운 날, 절에서 비롯되었으니

佛俗佳辰自釋門 滿城燈燭照黃昏 願將十丈光明色 分照來麻百里村
불속가진자석문 만성등촉조황혼 원장십장광명색 분조래마백리촌

佳辰扶醉上南門 十里懸燈夜不昏 祇恐高樓歌管響 隨風飄落未炊村
가진부취상남문 십리현등야부혼 저공고루가관향 수풍표락미취촌

, 온 성안의 등불과 촛불이 황혼을 비추네. 바라건대 열 길이나 되는 밝은 빛깔을
나누어, 멀리 떨어진 백 리 마을까지 비추기를 원하네.

아름다운 날, 취기를 빌려 남문에 오르니, 십 리에 걸쳐 매달린 등불 밤에도 어둡지
않네. 다만 높은 누각의 노래와 피리 소리가 바람 따라 날려, 아직 밥 짓지 않은
마을에 떨어질까 염려스러울 뿐이네.

• 七月望日 登悅樂亭得一韻示座中(칠월망일 등열악정득일운시좌중)

칠월 망일, 열악정에 올라 한 수의 운율을 얻어 좌중에 보여주다

秋宵斜倚鏡中船 卽事依然壬戌年 桂棹蘭槳來往地 清風明月古今天
추소사의경중선 즉사의연임술년 계도란장래왕지 청풍명월고금천

笛聲不讓吹簫客 詩興何如作賦仙 宇宙千秋吾輩在 古人奚獨勝遊專

적성부양취소객 시흥하여작부선 우주천추오배재 고인해독승유부

가을 밝은 밤, 비스듬히 기대어 있노라, 거울 같은 물 위의 배여.

이 순간도 여전히 임술년 그날과 같구나. 예수나무 노와 난초 장식의 배가 오가는 이곳,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옛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피리 소리는 통소 부는 객을 양보하지 않으니, 시의 흥은 어찌하여 부(賦) 짓는 신선과 같으리오. 우주 천년에 우리 무리가 함께 하니, 옛사람들만이 어찌 홀로 아름다운 유람을 독차지하랴

• 又次崔生韻(우차최생운)

다시 최생의 운을 따르노라.

秋風乍動叩舷聲 沂盡滄波上下汀 赤壁清遊誰復續 一天明月古今情
추풍사동고현성 기진창파상하정 적벽청유수복속 일천명월고금정

가을 바람이 문득 일어나니, 뱃전 두드리는 소리여. 물결은 끝없이 출렁이며, 위와 아래로 갈라지는 모래톱이로다. 적벽에서의 청아한 유람을 누가 다시 이으리오. 하늘 가득한 밝은 달은, 옛과 지금의 정을 비추네.

• 次以悅韻(차이열운) '

기쁠 열(悅)' 자 운에 차운하다

聲價慚非十五城 明時猶許佩符行 天涯厭伴厨人宿 林下將乖野老盟
성가참비십오성 명시유허패부행 천애염반주인숙 림하장괴야로맹
離別關心驚客夢 瘡痍溢目見民情 莫教千里音書阻 魚動洛江春水生
리별관심경객몽 창이일목견민정 막교천리음서조 어동락강춘수생

나의 명성이 비록 열다섯 성의 가치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나, 밝은 시대에 오히려 부절을 차고 다님을 허락받았네. 먼 곳에서 함께하는 이 없이 주방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하고, 숲 아래에서 장차 촌로와의 맹세를 어기게 되겠네. 이별의 슬픔이 마음을 쓰이게 하여 나그네의 꿈을 놀라게 하고, 눈에 가득한 상처를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보네. 부디 천 리 밖 소식마저 막히게 하지 마오, 물고기 움직이는 낙양의 강에 봄 물결이 이는구나.

• 次沈承旨李良韻(차침승지리량운)

심승지 이량의 운을 따르노라

渭城離思漸茫茫 鏡裏霜毛幾箇長 病客不須愁瘴色 聖息猶許望乘鄉
위성리사점망망 경과상모기개장 병객부수수장색 성식유허망승향

[CJ1]

詩情懶酌東軒酒 壯志全消左肘楊 旅館春歸多別夢 有時推枕誦瓊章
시정라작동헌주 장지전소좌주양 려관춘귀다별몽 유시추침송경장

위성(渭城)을 떠나니 이별의 정점이 점점 아득해지고, 거울 속 흰 머리카락은 몇
가닥이나 더 길어졌는가. 병든 나그네여, 흥측한 산중의 안개색을 근심하지 말라.
성은(聖恩)이 오히려 고향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시네.

시의 정(詩情)이 게을러져 동쪽 난간에서 술도 마시지 않는데, 한때의 웅대한 뜻은
온전히 왼팔의 버들가지처럼 시들었도다. 여관에 봄이 돌아오니 이별의 꿈만
많아지고, 때로는 베개를 밀어내고 옥 같은 시구(詩句)를 읊조리네.

• 赴水操口占示姪兒(부수조구점시질아)

水操(수조)에 부쳐 - 조카에게 보이는 즉흥시

洗兵何似籌邊樓 玉帳高開地盡頭 紫塞無虞勤操鍊 明時運籌尚網繆
세병하사주변루 옥장고개지진두 자새무우근조련 명시운산상망무
旌旗蔽海魚龍變 砲鼓掀天日月愁 班筆欲投吾已老 中宵撫劒意悠悠
정기폐해어룡변 포고흔천일월수 반필욕투오이로 중소무검의유유

• 水操(수조)에 부쳐 - 조카에게 보이는 즉흥시

무기를 씻는 일이 어찌 변방 망루를 준비하는 것과 같으랴. 옥 같은 장막은 높이
열리니 땅 끝에 다다랐도다. 자색 성벽은 평온하니 부지런히 군사를 연마하고,
밝은 시대의 제책은 오히려 정교하네.

깃발은 바다를 가리니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고, 포성과 북소리는 하늘을 뒤흔들어
해와 달도 근심하네. 관직의 붓을 던지고 싶으나 내 이미 늙었고, 한밤중에 검을
어루만지니 마음은 아득하도다.

• 次朴佐郎 斗寅 韻(차박좌랑 두인 운)

박좌랑 두인(斗寅)의 운에 차운하다

聲價多慚十五城 聖恩猶許佩符行 習池對酒花圍縣 鴈塞聞笳月照營
성가다참십오성 성은유허용부행 습지대주화위현 안새문가월조영
地是瘴鄉思慎疾 官非刺史亦云榮 夜闌海閣吟佳句 斟酌詩翁送我情
지시장향사신질 관비자사역운영 야란해각음가구 짐작시옹송아정

나의 명성이 열다섯 성의 가치에 못 미침을 많이 부끄러워하나, 임금의 은혜로
오히려 부절을 차고 다님을 허락받았네. 습지에서 술 마주하니 꽃이 고을을
에워쌌고, 변방에서 피리 소리 들리니 달빛이 군영을 비추네.

이곳은 나쁜 기운 감도는 땅이니 병을 삼가야 생각하고, 비록 자사 벼슬은 아니나
또한 영광스럽게 여기네. 밤 깊은 바닷가 누각에서 아름다운 시구 읊으니,
시옹께서 헤아려 나의 정을 보내주시는 듯하네.

- 寄金士行(기김사행)
김사행에게 부치노라

客總中夜越吟苦 消息初傳夢也真 愁東厭看江上月 鶴山南畔有情人
객총중야월읍고 소식초전몽야진 수동염간강상월 학산남반유정인

나그네는 한밤중에 고향의 노래를 쓰며 괴로워하고, 소식이 막 전해지니 꿈마저도
참되구나.

근심에 잠겨 동쪽을 바라보니 강 위의 달마저 싫어지는데, 학산 남쪽 기슭에는 사모
하는 이가 있네.

- 無題(무제)
제목 없음

避俗年來不過溪 小堂深與白雲棲 晴牕日午無人至 惟有山禽樹上啼
피속년래부과계 소당심여백운서 청창일오무인지 유유산금수상제

세속을 피하여 오랜 세월이 흐르니, 내를 건넌 없이 작은 정자 깊은 곳에서, 흰
구름과 머무네.

맑은 창가에는 한낮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오직 산새만 나무 위에서 울고 있네.

- 觀物(관물)
사물을 보다

鳶飛魚躍太和中 萬物生成一氣融 春雨歇時若草緣 這般心意與人同
연비어약태화중 만물생성일기융 춘우힐시약초연 저반심의여인동

솔개 날고 물고기 뛰노는 것은 크나큰 조화 속이며,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융합된 것이네.

봄비 그치니 풀이 돋아나는 듯, 이와 같은 마음은 사들과 한결 같네.

- 輓黃叅奉昌述(만황참봉창술)
황참봉 창술을 애도하노라

月佩霞裾地上仙 詩腸夢滌竹溪邊 高才暫試攀蓮日 一命纔沾釣渭年
월패하거지상선 시장몽척죽계변 고재잠시반련왈 일명재침조위년

百藥老來思益壯 葛洪仙去尸如眼 黃公爐下當時客 慙愧新阡負漬綿
백약로래사익장 갈홍선거시여안 황공로하당시객 참괴신천부지면

달을 차고 구슬을 두른, 이 땅의 신선이여. 시의 창자(詩腸)가 끊처럼 맑아져 대숲
시냇가에 머물렀도다. 높은 재주는 잠시 연꽃을 타고 올랐으나, 한 줄기의 명(命)이
겨우 위수 강에서 낚시질할 나이에 이르렀네.

백 가지 약으로 늙어갈수록 정신은 더욱 강건했건만, 갈홍(葛洪)이 신선이 되어
떠나니 시체만 눈처럼 희구나. 황공(黃公)의 화로 아래에서 함께했던 나그네인 나,
새로운 무덤 길에 젖은 숨을 바치지 못함이 부끄럽도다.

• 次姜聖叟呈李上舍景玉(차강성수정리상사경옥)

강성수에게 보낸 시,李상사 경옥

旅食三年只此遊 一春光景杖頭收 殘紅落地渾疑錦 軟綠披溪僅辨流
려식삼년지차유 일춘광경장두수 잔홍락지혼의금 연록피계근변류
醉把并州看故土 頓忘馮館有新愁 浮生好事今難再 要借罷眠作書留
취파병주간고토 돈망풍관유신수 부생호사금난재 요차파면작서류

삼 년을 떠돌며 먹고살다, 오직 이번 여행뿐, 한 봄의 풍경을 지팡이 머리에 다
담았도다. 떨어진 꽃잎은 어지럽게 수놓은 비단 같고, 연초록이 시내를 덮어 흐름만
겨우 알아보겠네.

취한 듯 병주를 바라보니 고향 땅 같아, 문득 풍관의 새 근심을 잊었구나. 떠도는
인생 좋은 일 이제 다시 오기 어렵고, 다만 잠 못 이루며 글을 남기고 싶을 뿐.

• 次金護軍榮進 慶席 韻(차김호군영진 경석 운)

김호군 영진(金榮進)의 경사스러운 잔치 운에 차하다

舞袖差差雪共翩 星文夜夜耀南天 高堂鶴髯俱遐算 聖代恩榮及暮年
무수차차설공편 성문야야요남천 고당학염구하산 성대은영급모년
榜憶三清今換甲 牢同重慶此開筵 誰人不賀公多福 桂影蓮芳擁後前
방억삼청금환갑 퇴동중경차개연 수인부하공다복 계영련방옹후전

춤추는 소매 가지런히 눈과 함께 흩날리고, 별빛 글자는 밤마다 남쪽 하늘을
비추네. 높은 집 학 같은 수염의 노인들 함께 멀리 생각하니, 밝은 시대의 은혜
늙음에 이르러 영화 누리셨네. 과거 합격자 명단 삼청을 기억하니 이제 갑옷으로
바뀌었고, 전고함이 중경과 같으니 이에 잔치를 베풀네. 누가 공의 많은 복을
축하하지 않으리오, 계수나무 그림자와 연꽃 향기가 앞뒤로 에워싸네.

• 次基川太守李禎慶席韻(차기천태수리정경석운)

기천태수 이정경의 자리에서 지은 운을 따르노라.

基川太守稱家兒 頭戴宮花額未髭 嗣葉孫枝相次第 錦袍烏帽不差池
기천태수칭가아 두대궁화암미자 사엽손지상차제 금포오모부차지

豹文藏霧斑斑在 鳳羽冲霄世世奇 千載吾東一盛事 騷壇付與彩毫知
표문장무반반재 봉우충소세세기 천재오동일성사 소단부여채호지

기천태수는 집안의 자랑스러운 자식이라, 머리엔 궁궐 꽃을 꽃았으나 턱엔 수염 없네. 앞이 이어지고 가지가 나누어져 형제 이어가니, 비단 옷과 검은 모자 어긋남 없도다.

표범 무늬는 안개 속에서도 반짝이고, 봉황 깃털은 하늘로 날아 대대손손 기이하네. 천년에 한 번 있을 우리 동방의 큰 경사, 시단(詩壇)에 색동 붓이 알려주리라.

祖孫趾美又崑科 況乃年纔十七過 三世簪纓家或有 一時榮耀古無多
조손지미우외과 황내년재십칠과 삼세잠영가혹유 일시영요고무다
桂宮光倍前宵月 梅閣重聞去歲歌 雨露恩光歡抃地 不妨枯木近陽和
계궁광배전소월 매각중문거세가 우로은광환변지 부방고목근양화

조손의 발자취 아름답고, 다시 높은 과거 급제라 하물며 나이는 이제 겨우 열일곱이 지났을 뿐이니. 삼대에 벼슬 이어온 집안이라 하나 한때의 영화로도 예로부터 이만한 일 드물었도다
계궁의 영광은 지난밤 달빛보다 더욱 빛나고 매화 누각엔 지난해의 노래 다시 울려 퍼지네. 임금의 은혜는 단비처럼 대지를 적시고 말라버린 나무도 별 가까이서 다시 생기를 얻는구나

• 輓人(만인) 그를 애도하며

賢父兄存子氣賢 德門和氣正融然 平生大志期攀桂 半世芳名止採蓮
현부형존자분현 덕문화기정용연 평생대지기반계 반세방명지채련
抱可用才身竟屈 嬰難醫疾命還愆 誰言仁者能遐壽 此理吾將問彼天
포가용재신경굴 영난의질명환건 수언인자능하수 차리오장문피천

어진 아버지 형님 제셨으니, 그 기운 아들에게도 어질게 남았네. 덕 있는 집안 화목한 기운 바야흐로 화기애애하더니, 평생의 큰 뜻은 계수나무 오르기를 기약했으나, 반평생의 아름다운 이름은 연꽃 꺾는 데서 멈추었네. 가히 쓸 만한 재능을 품었으나, 몸은 마침내 굽어지고, 고치기 어려운 병을 앓다가, 목숨마저 그르쳤네. 누가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고 말했던가, 이 이치를 내 장차 저 하늘에 물어보리라.

• 寓中與士俊唱和(우중여사준창화)

숙소에서 사준(士俊)과 시를 주고받노라

一片愁城勢敵聊 不堪簷角兩聲驕 柳將春色初歸岸 雪妬山花半壓條
일편수성세적료 부감첨각량성교 류장춘색초귀안 설투산화반압조
浮世清歡憐此夜 暫時離思惜明朝 燈前壯志頻看劒 忘却秋霜八鬢簫
부세청환련차야 잠시리사석명조 등전장지빈간검 망각추상팔빈소

한 조각 시름의 성(愁城)은 기세가 사납고, 견디기 어려운 처마 끝 두 마리 새의
교만한 울음. 버들은 봄빛을 데리고 강가에 막 돌아오고, 눈은 산꽃을 시기하여
가지를 반쯤 눌렀네.

덧없는 세상의 맑은 기쁨, 이 밤을 아끼며, 잠시의 이별 생각으로 내일 아침을
아쉬워하네. 등불 앞에서 응대한 뜻 자주 검을 보며, 가을 서리 어린 두 귀밑머리
통소 소리 잊었도다.

漠漠春宵不冝明 潺潺溪水細添聲 寒侵紙帳人眠覺 雪壓庭柯鳥夢驚
막막춘소부금명 잔잔계수세첨성 한침지장인면각 설압정가조몽경
富貴在天非所願 江山多暇最關情 野翁欲識昇平像 請看郊頭水向榮
부귀재천비소원 강산다가최관정 야옹욕식승평상 청간교두수향영

아득한 봄밤은 좀처럼 밝으려 하지 않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더욱 잔잔히
들리네. 한기가 종이 장막을 스미며, 잠든 이 깨우고 눈이 뜰마당 가지 놀러, 새의
꿈마저 놀라게 하네.

부귀란 하늘에 맡길 일,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니오 산천은 한가로움 많아, 마음
붙이기에 그만이라. 들어선 노인은 태평의 형상을 알고 싶다면 교외의 물가를
보게나, 봄빛 속에 꽃피고 있도다

半壁疎燈覺夜關 滿簷疎雨釀微寒 青春欲暮湖山裏 白雪誰歌宇宙間
반벽소등각야관 만첨소우양미한 청춘욕모호산과 백설수가우주간
病湯當盃鯨吸浪 詞源教筆海翻瀾 灞橋餘興吾濟在 莫恠吟肩夏聳山
병탕당배경흡랑 사원교필해번란 파교여흥오제재 막괴음전하용산

벽 한천 성긴 등불, 밤 깊은 줄 깨닫고 처마 가득 듬성한 비, 은근한 한기 빚어내네.
푸른 봄빛은 기울어 가고, 호수와 산엔 아직 눈의 자취 남았으니 이 우주 속 누가
저 백설을 노래하랴.

약탕기 술잔 삼아, 고래가 물결을 들이키듯 시의 근원은 붓을 시켜 바다의 큰
물결을 일게 하네. 파교의 남은 흥취 속에 내 뜻 머물거니 내 시 읊는 어깨를
이상히 여기지 말게, 여름에도 산은 솟아 있으니.

• 次柳望久贈別韻(차류망구증별운)

유망구(柳望久)의 증별시에 차운하다

斜陽若草短長亭 誰似吾君送我情 可笑十載來往地 白頭猶是舊丞名
사양약초단장정 수사오군송아정 가소십재래왕지 백두유시구승명

지는 석양 아래 풀처럼 짧은 긴 정자, 누가 우리 임금처럼 나에게 정을 보내줄까.
우습구나, 십 년 동안 오가던 땅에서, 흰 머리털에도 오히려 옛 승상의 이름
그대로이네.

• 次柳知禮後光 詠霧 韻(차류지례후광 영무 운)

류지례후광의 '詠霧' 운을 따르노라.

十步難者是書昏 山中輕霧一天痕 曹迷大澤英雄困 帝出平城曆數存
십보난자시서혼 산중경막일천흔 조미대택영웅곤 제출평성력수존
棲島未能知古道 歸人或寡得其門 暮來風報驅青白 無恙前川月浪翻
서도미능지고도 귀인혹과득기문 모래품보구청백 무양전천월랑번

十步 안도 보이지 않으니 글씨가 흐릿하고, 산중에 가벼운 안개 하늘에 자취를
남기네. 曹操는 큰 늪에서 길을 잃고 영웅이 곤궁했으며, 漢高祖는 平城에서 나와
천명이 유지되었도다.

섬에 사는 이는 옛길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는 자도 그 문을 얻기 어려워라.
저녁이 되어 바람이 푸르고 흰 안개를 몰아내니, 무사한 앞 강에 달빛 물결이
뒤집히네.

• 輓李院長鴻逵(만리원장홍규)

이홍규 원장님을 애도하며

六十光陰沙策鴻 花山蕭瑟士林空 嗟呼天欲窮吾輩 已矣今誰惜此翁
륙십광음사촉홍 화산소슬사림공 차호천욕궁오배 이의금수석차옹
知己無人空我淚 傳家有子不悲公 他時忍對西隣酒 醉夢難醒厚地中
지이무인공아루 전가유자부비공 타시인대서린주 취몽난성후지중

예순 해의 세월, 모래 위 큰 새 발자국 같고 꽃피던 산도 쓸쓸해, 선비들 사이
허전하도다. 슬프도다, 하늘도 다할 즈음, 우리 또한 끝자락인데 이제 그 누가 이
어른을 아까워할까.

마음을 알아주던 이 사라지고, 내 눈물만 덧없구나 가문엔 자제 있어 그대의 뜻
이어질 터 그러니 나는 슬퍼하지 않으려다. 훗날, 서쪽 이웃의 술잔 마주할 때 꿈결
같던 취한 마음 땅속에서조차 쉬이 깨지 못하리라

• 朶巡相(정순상) 순상(巡相)께 올리다

聖意將何體若病 西州前後任觀風 再來山色輕還重 新法民情異復同
 성의장하체약통 서주전후임관풍 재래산색경환중 신법민정이복동
 江漢歸心懸日下 海山佳會屬天中 仙庄一別清儀遠 他日那堪馬首東
 강한귀심현왈하 해산가회속천중 선장일별청의원 타일나감마수간

임금의 뜻 장차 어떠하신지, 아픈 듯 헤아리시니, 서쪽 지방 전후로 풍속 살피도록
 맡기셨네. 다시 오니 산 빛깔 가벼웠다 다시 무거워지고, 새로운 법에 백성들의
 마음 다르면서도 같네.

강과 한수 백성들의 마음 해 아래 매달려 돌아가고,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모임
 하늘 가운데 속했네. 신선 사는 마을 한 번 이별하니 맑은 모습 멀어지고, 훗날
 어찌 감히 말머리 돌려 편지 올릴 수 있으리오.

• 次呂天卿江亭韻示姜聖叟(차려천경강정운시강성수)
 여천강의 정자에서 지은 운을 따라 강성우에게 보이노라

少年遊輪墨志欲吞三江 鵬路才難展龍文力易扛
 소년유륜묵지욕탄삼강 봉로재난전룡문력역강
 雙禽感歲暮八翼夢天狔 壯髮霜侵鏡雄心劒擊鉦
 쌍금감세모팔익몽천공 장발상침경웅심검격공
 郢聲元寡和周俗再難厯 市語橘皮叟病尋杞園槐
 영성원과화주속재난망 시어굴피수병심기포방
 逢君露肝膽覓句對軒牕 君是劉曹輩長忙鄒曾鄉
 봉군로간담묵구대헌창 군시류조배장망추증향
 騷壇赤幟豎詩壘墨兵降 歌奏馮郎硤眠酣吏部缸
 소단적치수시루묵병강 가주콩랑협면감리부공
 豈無經世策尚有戀君腔 顧此男兒志異諸匹婦慳
 기무경세책상유련군강 고차남아지이제필부공
 世多翻覆手空慎去來爰 願學乘槎聖思追釋來龐
 세다번복수공신거래공 원학승차성사추석래롱
 未聞道貫一敢擬士無雙 湖海心長往風塵夢亦攬
 미문도관일감의사무쌍 호해심장왕풍진몽역쌍
 春庭對芳草野渡泛虛艘 學道蛙聞海謀生鼠飲瀧
 춘정대방초야도범허쌍 학도와문해모생서음롱
 愁看竹嶺月醉訪花村幢 不耐南歸興詩付付漢淙
 수간즉령월취방화촌당 부내남귀흥시부부한종

젊은 날의 유람과 붓의 뜻은 삼강을 삼키고자 하였네.

봉새의 길은 재주 펴기 어렵고 용의 무늬는 힘으로 전디기 쉬웠도다.

두 마리 새는 해 저물음을 느끼고 여덟 날개는 하늘을 날 꿈꾸네.

군센 머리카락은 서리가 거울을 엄습하고, 웅대한 뜻은 칼로 창을 치네.

영성의 소리는 본래 화답이 적고 주나라 풍속은 다시 어지러워졌구나.

시장의 말은 굴 껍질 같은 노인의 병은 기구의 발을 찾네.
 그대를 만나 간담을 터놓고 시구를 찾아 창가에 대하노라.
 그대는 유비와 조조의 무리로, 항상 추증의 고향을 바쁘게 살았네.
 시단의 붉은 깃발을 세우고 시의 진영에 먹의 군대를 항복시키네.
 풍랑의 노래를 연주하고 이부의 창에서 잠들었도다.
 어찌 세상을 다스릴 계책이 없으랴, 오히려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 있네.
 이 사내아이의 뜻을 돌아보니 보통 여인의 마음과 다르구나.
 세상은 뒤집는 손이 많으나, 빈 발소리로 오고 감을 삼가네.
 배 타고 가는 성인을 배우고자 하여,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네.
 아직 도가 하나임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선비의 쌍둥이를 감히 비하리오.
 호수와 바다의 마음은 오래도록 가고, 바람과 먼지의 꿈도 또한 그러하네.
 봄 뜰에 꽃다운 풀을 대하고, 들길에서 빈 배를 띄우네.
 도를 배우는 개구리는 바다 소문을 듣고, 삶을 꾸리는 쥐는 시내 물을 마시네.
 대숲 산의 달을 근심하며 보다가, 취해 꽃 핀 마을의 깃발을 찾네.
 남쪽으로 돌아가는 흥을 전디지 못하여, 시를 한강의 졸졸 흐르는 물에 부치노라."

• 千秋郎為巡相製箋(천추랑위순상제전)

천추랑이 순상 어른께 올릴 편지를 올립니다

三年疾瘳 仰宗社之多慶 千秋節屆 祝聖壽之無疆 舞之蹈之 今夕何夕 恭惟主上殿下
 삼년질추 앙종사지다경 천추랑계 축성수지무강 무지도지 금식하식 공유주상전하
 億兆願戴 四十餘年 當金宮達豫之時 不廢庶務 逮王侯平復之日 盆軫萬機
 억조원대 사십여년 당금궁달예지시 부폐서무 채왕후평복지일 분진만기
 茲當彌月之辰 永膺自天之佑 伏念臣才非專制 職忝分憂 獻寶鑑於龍樓
 자당미월지진 영응자천지우 복념신재비부제 직침분우 헌보감어룡루
 縱違雀躍之列仗 玉節作鴈塞度竭駑
 종위작약지렬장 옥랑작안새서갈노

삼 년의 병환 나으시니 종사의 많은 경사를 우러러 기뻐하며, 천추의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여 성상의 무궁한 수명을 축원합니다. 춤추고 뛰노니 오늘이 어느 날인가,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억조창생이 우러러 받드시는 분이십니다. 사십여 년 동안 금궁에 불편하신 때에도 서정을 폐하지 않으셨고, 왕후께서 평복되신 날에 이르러 더욱 많은 국사를 염려하셨습니다. 이에 만사를 맞이하신 오늘, 영원히 하늘의 도우심을 받으시니,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의 재주는 오로지 못하고 직책은 외람되게 근심을 나누는 것이나, 보배로운 거울을 용루에 바치오니, 비록 참새 뛰듯 줄지어 늘어선 의장에는 어긋나오나, 아름다운 꽃으로 변방을 만들어, 변변치 못한 힘이나마 다하고자 합니다.

• 輓全君俊(만전군준)

전군준을 애도하며

詛重連家契斷金 詩壇半世我知心 夜闌伊院相論抱 秋老松亭幾盞簪
저중련가계단김 시단반세아지심 야란이원상론포 추로송정기합잠
博學無成人最惜 為仁早夭理難諶 病違臨穴平生恨 忍作何懷撫匣琴
박학무성인최석 위인조요리난심 병위림혈평생한 인작하회무갑금

굳건한 맹세로 맺어진 집안의 인연, 그 굳기가 황금 끊을 정도였네. 시단에서 반평생을 함께하며 내 마음 알아주었네. 밤 깊어 이원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며 품었던 뜻, 늙은 소나무 정자에서 몇 번이나 함께 비녀 꽂았던가. 널리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인을 행하다 일찍 죽으니 천리를 어찌 믿을 수 있으랴. 병들어 삶의 마지막에 이르니 평생의 한이요, 차마 어찌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상자 속 거문고를 어루만지네.

• 進士公輓全君俊 辛酉正月幸得進士公文積故寓于此(진사공만전군준신유정월행득진사공문적고사우차)

진사공 전군준(全君俊)을 애도하며 - 신유년 정월, 진사급제 기록 문서에서

早從騷壇襲蘭薰 二十年来獨見君 行篤家庭人不問 詩鳴一世起吾軍
조종소단습란훈 이십년래독견군 행독가정인부문 시명일세기오군
仁而未壽夭何老 才博無成數亦艱 他日松亭携酒處 夕陽隣笛豈堪聞
인이미수천하로 재박무성수역간 타일송정휴주처 석양린적기감문

일찍이 시단(詩壇)에서 난초의 향기를 이어받았더니 이십 년을 두고 오직 그대만 보았네. 행실이 돈독하되 집안사람들은 묻지 않았고 시로 세상에 울려 내 군대를 일으켰도다.

어짊이 있으나 장수하지 못하니 하늘은 어이 늙었는가 재주는 넓으나 이루지 못하니 운수 또한 험하네. 훗날 송정(松亭)에 술을 가지고 갈 제 석양에 이웃의 피리 소리 어이 들을 수 있으리오

• 輓(만)

強疾初離漳海潯 南民護切去思忱 招魂驛合春無迹 返視鄉山日欲陰
강질초리장해심 남민호절거사침 초혼역합춘무적 반친향산일욕음
交道百年如淡水 牙絃一曲失知昔 英姿雅度難重見 忍作西州醉後尋
교도백년여담수 아현일곡실지석 영자치도난중견 인작서주취후심

몸쓸 병 처음 나으니,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로다. 남쪽 백성들 간절히 보호하며 떠나가는 모습에 생각 깊어지네. 혼을 부르는 역참에 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고향 산을 배경 삼으니 해는 저물려 하네. 백 년의 사궤이 맑은 물과 같았는데,
상아 거문고 한 곡조에 옛날의 지음(知音) 잃었네. 젊고 빼어나던 모습 다시 보기
어려우니, 차마 서쪽 고을에서 술 취한 후에야 그를 찾으려 하네.

李進士台翊
진사 이래익

西林風雨夜蕭蕭 曉起山雲在半腰 遠客臨行愁路險 主人呼酒慰無聊
서림풍우야소소 효기산운재반요 원객림행수로힘 주인호주위무료

서쪽 숲에 비바람 몰아치던 밤은 쓸쓸하고, 새벽에 일어나니 산 구름은 산허리에
머무네. 먼 길 떠나는 나그네는 험한 길 걱정스러운데, 주인은 술을 불러 마음의
무료함을 달래주네.

• 趙休仲為昌樂郵官往訪醉吟 丙子

조휴증이 창락우체국 관리로 갔다가 취음(醉吟)을 방문하여 병자년에 쓰다

李進士台翊
진사 이래익

• 輓(만)

青春高價許連城 三世四科藉有聲 西幕清遊真象幻 南州一官豈恩榮
沉痾不幸愁炎瘴 旅襯何知返故程 漢邱相從如昨日 臨風垂淚麗丹旌

젊은 시절 높은 뜻으로 연성(連城)을 약속했더니 삼대에 걸쳐 네 번 과거에 이름을
نال렸네. 서쪽 막부에서의 청렴한 유람은 참으로 꿈같고 남쪽 고을의 한 관직이 어찌
은혜와 영광이라.

깊은 병으로 불행히도 더운 못자리를 근심하니 떠돌이 관직이 어찌 고향 길을
알았으리오. 한구(漢邱)에서 따르던 일이 어제 같은데 바람 앞에 서서 붉은 깃발에
눈물을 뿌리네.

右李重培 文正郎
문정랑 이증배 씀

山谷公遺稿

산 곡 공 유 고

詩(시)

• 句溪會中次雲亭韻(구계회중차운정운)

구계 모임에서 운정(雲亭)의 운에 차운하다

千右香山九老翁依然相對一齋中
천우향산구로옹의연상대일재중
還嫌小榻宵猶短不覺東窓日已紅
환혐소탑소유단부각동창일이홍
怜我彫賓莖霜雪遍多君詩興墨花濃
령아표빈경상설편다군시흥묵화농
呼兒更酌盃中物笑灌疎慵襞積胷
호아경작배중물소관소용벽적흉

천우와 향산의 아홉 노인이 여전히 마주하여 하나의 서재 안에 있네. 오히려 작은 평상에 밤이 짧기만 하다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 동쪽 창에 해가 이미 붉게 떠올랐네. 늙은 나의 귀밑머리는 서리와 눈처럼 희끗희끗한데, 그대의 시흥은 먹으로 그린 꽃처럼 농염함을 가련히 여기네. 아이를 불러 다시 잔 속의 술을 따르게 하고, 웃으며 성긴 가슴속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씻어내네.

又

九老推乃節 歲暮天行行 逾嶺即泉田
구로추내절 세모천행행 유령즉천전
寒梅值閏欺春汲 明月多情是臘前
한매치윤기춘급 명월다정시랍전
永夜幸同諸子飲 有年誰似此翁顛
영야행동제자음 유년수사차옹전
且將真學從今夕 山外是非須莫傳
차장진학종금석 산외시비수막부

또,

구로(九老)가 그대의 절개를 추앙하네. 해가 저물어 하늘은 쉽 없이 가고 고개를 넘으면 곧 샘과 밭이로다.

추운 매화는 윤달을 만나 봄을 속이고, 달빛은 정 많아서 선달 전이로구나.

긴 밤에 다행히 여러 벗과 술을 마시니, 오랜 세월 누가 이 늙은이처럼 흔들리랴.

참된 학문을 오늘밤부터 따르리니, 산 밖의 시비는 전하지 말아야 하리라.

• 次李輝謙光翊 亭西齋 韻(차리휘겸 광익 정서재 운)

이휘겸 광익(李輝謙 光翊) 정서재(亭西齋)의 운에 차운하다

爲傍槐陰築小齋 亭中八景近南崖 家聲不墜詩盈匱 書釵無成花滿階
위 방 괴 음 축 소 재 정 중 팔 경 근 남 애 가 성 부 추 시 영 협 서 인 무 성 화 만 계
從古地靈胚淑氣 至今形勝得人佳 避炎揭號君能緒 名利場頭豈介懷
종 고 지 령 배 숙 기 지 령 형 승 득 인 가 피 염 게 호 군 능 서 명 리 장 두 기 개 회

느티나무 그늘 곁에 작은 서재를 지으니, 정자 안의 아름다운 여덟 경치가 남쪽
벼랑 가까이 있네. 가문의 명성 떨어지지 않아 시가 함에 가득하고, 글과 칼로는
이룬 것 없으나 꽃이 섬돌에 가득하네. 예로부터 땅의 신령함이 맑은 기운을 품어,
지금에 이르러 빼어난 형승이 어진 사람을 얻었네. 더위를 피하여
'능서정(能緒亭)'이라 이름 지으니 그대가 능히 이어받았고, 명예와 이익 다투는
세상살이에 어찌 마음 두리오.

• 寄謝李亭西(기사리정서)

이정서에게 감사의 말을 부치노라

偶閱詩箱眼忽清 誦君佳句悅聞笙 科名敢擬三清桂 樗櫟還慚五朶馨
우 열 시 상 안 홀 청 송 군 가 구 열 문 생 과 명 감 의 삼 청 계 저 력 환 참 오 타 형
孤露一身猶苟在 二難連榜亦云榮 暮春佳節華筵上 莫使五儂更悵情
고 로 일 신 유 구 재 이 난 련 방 역 운 영 모 춘 가 절 화 연 상 막 사 오 농 경 창 정

우연히 시 상자를 들추니 눈이 홀연히 맑아지고, 그대의 좋은 시구를 읊으니 쇠통소
소리처럼 즐거웁구나. 과거의 명예를 감히 삼청계의 계수나무에 비길 수 있으랴만,
저 들쭉나무는 오히려 다섯 송이 향기를 부끄러워하네.

외로운 이 몸이 아직도 간신히 살아있고, 두 어려운 일을 연이어 이루니 또한
영광이라 하겠네. 늦봄의 아름다운 날, 화려한 잔칫자리에서 우리 다섯이 더욱
서운해하지 않게 하소서

• 義山次李亭西(의산차리정서)

의산이 이정서의 시에 차운함

七年吟病閉茅堂 來到山齋獨夜長 幹事更添衰鬢靈 寬依惟有菊花黃
칠 년 음 병 폐 모 당 래 도 산 재 독 야 장 간 사 경 침 쇠 빈 령 관 의 유 유 국 화 황
江村月白人閑塌 精舍秋深酒滿觴 借問騷仙諸會處 未知詩會出何場
강 촌 월 백 인 관 타 정 사 추 심 주 만 상 차 문 소 선 제 회 처 미 지 시 회 출 하 장

칠 년을 시름하며 시상에 병들어 덧집에 틀어박히고 산속 암자에 이르러서야
외로운 밤을 길게 맞이하네. 속세의 일은 늙은 귀밑머리만 더 희게 만들고 의지할
데라곤 그저 누렇게 핀 국화뿐이로다
강마을엔 달빛 희고, 사람들은 다 문을 닫았고 정갈한 집엔 가을이 깊어 술잔마다

가득 찼구나. 문도에게 묻노라, 시선(騷仙)들은 어디 모이나 이번 시회는 과연 어떤 자리에서 열릴는지 모르겠네

- 次東坡韻謝追齋送桃竹葉雨扇 李崇彦任寶城時 (차동파운사추재송도죽엽우선 리승언임보성시)

이승언(李崇彦)이 보성(寶城)에 부임시, 추재(追齋)가 보내준 복숭아, 죽엽 우비 부채에 대해 동파(東坡)의 운을 빌려 감사하며 쓰다

經春饘粥保殘軀 故舊誰憐此老夫 二載音書締此路 一封佳惠自南隅
경춘전죽보잔구 고구수련차로부 이재음서체차로 일봉가혜자남우
桃花紅艷驚人眼 竹葉清風拂鬢鬚 當夏炎威誰得避 雨中無帽慟登途
도화홍염경인안 죽엽청풍불빈수 당하염위수득피 우중무모겁등도
봄 내내 죽으로 겨우 남은 몸 보전하니, 옛 친구 중 누가 이 늙은이를 가련히
여길까. 이 길로 이년 동안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한 묶음 아름다운 선물 남쪽에서
왔네.

복사꽃 붉은빛 고운 자태 사람들의 눈 놀라게 하고, 죽엽 청풍은 귀밑머리 스치네.
한여름 뜨거운 위세 그 누가 피할 수 있으랴, 비 내리는 속에 갇도 없이 힘겹게
길을 나서네.

- 寄謝亭西倒顧(기사정서도고)
정서에게 감사를 부치며 뒤를 돌아보노라

雨家分義百年情 同里科名世共榮 山谷幾時萌鄙吝 花階今日龍若馨
우가분의백년정 동리과명세공영 산곡기시맹비린 화계금일룡약형
頻從詩篋看瓊律 如向仙臺聽王笙 亭下沙川依舊在 翟纓歌罷此心清
빈종시협간경률 여향선대청왕생 정하사천의구재 적영가파차심청

두 집안이 나눈 의리 백 년의 정이며, 한 마을에서 과거 급제하여 세상에 함께
영화로웠네. 산골이 어느 때부터 비루함을 싹틔웠던가, 꽃 피는 뜰에 오늘은 용의
향기로다.

자주 시 상자에서 옥 같은 시율을 보니, 마치 선대(仙臺)에서 왕의 피리 소리를
듣는 듯하네. 정자 아래 모래 강은 여전히 흐르고, 적영(翟纓)의 노래 끝나니 이
마음 맑아졌도다.

- 輓再從兄(만재종형)
재종형을 애도하며

雨蕭蕭兮落葉下 秋天暮兮患風吹 魂飛飛兮向何之 仰看高堂日將薄
우소소혜락엽하 추천모혜환풍취 혼비비혜향하지 앙간고당일장박

輜車不發故遲魂 歸去兮未忍辭 九原寂寂誰與友 先埋賢季又白眉

천차부발고지혼 귀거해미인사 구원적적수여우 선매현계우백미

可憐宜宜魂相隨 一聲長痛望青山 少弟悲懷無人知 無人知兮可奈何

가련의의혼상수 일성장통망청산 소제비회무인지 무인지해가내하

寫哀詞兮淚自垂

사애사해루자수

비는 쓸쓸히 내리고, 낙엽은 떨어지니 가을 하늘 저무는 날, 병든 바람 불어오네
형의 낮은 월월 날아 어디로 가는가 높은 집 지붕 바라보니 햇살도 이미 엷어지고
영구차는 떠나지 못해 낮을 기다리는데 돌아가려 하면서도 이별은 쉽지 않구나
저 구청은 고요하기만 한데, 누가 벗 되어주리 먼저 묻힌 이는 어진 아우, 이제는
백미 형까지

가엾도다, 마땅한 이어, 그 영혼 따라가고 싶구나 길게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 푸른
산을 바라보며

막내된 아우는 애통한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고 정녕 모른다면, 어찌하랴
애도의 글을 쓰노라니 눈물이 저절로 흐르누나

• 輓槐川金瑞炯(만괴천김서형)

괴천 김서형을 애도하며

文窮貧鬼一生憂 私計公名兩不收 清霸幾憐韓戾麗 故山綏見杜茅誅

문궁빈귀일생우 사계공명량부수 청패기련한려려 고산수견두모주

中卽篋斷兒孫護 東野喪無故舊調 老死閑溪悽愴語 誦君遺包涕橫流

중즉협단아손호 동야상무고구주 로사한계처창어 송군유포체횡류

글로 살다 가난한 귀신 되어, 한평생 근심뿐이었고 사사로운 셈도, 공적인 이름도
끝내 손에 쥐지 못했네. 맑고도 준엄한 그 기상, 마치 한(韓)·려(戾麗)의 인물 같고
옛산 편안히 지키려 했건만, 두엄 속의 썩처럼 일찍 썩었구나

숨 거들 무렵엔 관조차 채우지 못했으니, 자손이 곁에서야 막았고 들판의 죽음엔
슬퍼할 벼도 없고, 도을 옛 친구도 없었네. 한적한 시냇가에서 늙어 죽으니 그
말조차 애달프고 그대의 남긴 문서를 읽노라니, 눈물이 흘러 넘치도다

兩從具賢一季存 失君猶可保清門 只憐他日書齋會 難得阿兄拔俗論

량종구현일계존 실군유가보청문 지련타일서재회 난득아형발속론

두 분 종형은 모두 어질었고, 막내 아우만이 이제 남았구나. 그대를 잃었어도
청렴한 집안은 지킬 수 있으련만, 다만 슬프다, 훗날 서재에서 형님과 나눌 그
고상한 말썽을 다시는 듣기 어렵게 되었으니.

• 輓百拙齋黃公陽中(만백졸재황공양중)

백졸재(百拙齋) 황공 양중(黃公 陽中)을 애도하며

中霄撫枕咄嘆頻 繼失龍山二好人 自少深交期白髮 何知短折在青春
 증소무침돌박빈 계실룡산이호인 자소심교기백발 하지단절재청춘
 魂歸寂寞天長夜 藝罷歌謠里獨仁 猶賀德門餘慶在 謝庭蘭玉正嶙峋
 혼귀적막천장야 예파가요리독인 유하덕문여경재 사정란옥정린순

깊은 밤 베개 어루만지며 탄식 잤더니, 용산의 두 좋은 사람 잇따라 잃었네.
 어려서부터 깊은 사귄을 백발까지 기약했던만, 어찌 알았으랴, 꽃다운 젊음에
 갑자기 꺾일 줄을.

넓은 적막한 긴 밤 하늘로 돌아가고, 재주와 노래 그치니 마을에 홀로 어진 이만
 남았네. 그럼에도 덕 있는 집안에 남은 경사가 있어 기쁘니, 사안의 뜰에 아름다운
 자제들 빼어나게 자라네.

• 贈趙伯謙元益經痘後(증조백겸 원익 경두후)

조백겸 원익(趙伯謙 元益)에게 천연두를 앓은 후에 주다

大川世外是明神 今古一經各有辰 世世君家餘慶在 典形重見再成人
 대천세외시명신 금고일경각유진 세세군가여경재 전형중견재성인

넓은 내 세상 밖에 밝은 신령함이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법칙 속에
 각각의 때가 있네. 대대로 그대 집안에 남은 경사가 있어, 훌륭한 모습 다시
 보이니 거듭 어른이 된 듯하네.

右李亭西
 이정서 씀

• 石居公原文抄出(석거공원문초출)

석거공(石居公)의 원문을 베껴내다

• 誄趙中樞山谷公文(퇴조증추산곡공문)

증추부사 조산곡공을 애도하는 제문

近故中樞府事漢陽趙公以碩德君子受天胡暇其子姓之繁衍科第之燠赫名壽之无疆乃與封
 근고증추부사한양조공이석덕군자수천호가기자성지번연과제지옥혁명수지무강내여봉
 人祝聖之言相符天其厚公哉
 인축성지언상부천기후공재

噫蓮桂成林彩舞方張公於是乎以絳衣大冠臨其上而党爾焉不知世間何樂可以代比哉是以
 희련계성림채무방장공어시호이강의대관림기상이당이언부지세간하악가이대비재시이
 一世之人莫不欽慕景仰知其為古家餘蔭而以唐之郭汾陽比焉年九十一以天年易簣是歲之
 일세지인막부흠모경앙지기위고가여음이이당지곽분양비언년구십일이천년역책시세지

中秋月日葬于西溪南負丙之原

증추월일장우유계남부병지원

悲夫小子之仲子相於公為曾孫女也小子雖迷不可無言於襄奉之日以服制不敢詩謹呈一闕

비부소자지증자상어공위증손녀야소자수미부가무언어양봉지일이복제부감시근정일결
 誄以叙區區之下懷曰走馬岡頭月欲低翩翩仙駕芳上天梯德星晦彩芳吾誰仰通切公私芳
 槐이서구구지하회월주마강두호월욕저편편선가방상천제덕성회채방오수앙통절공사방
 滿睇
 만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증추부사 한양 조공께서는, 덕망 높은 군자로서 어찌
 하늘의 너그러우심을 그리 많이 받으셨던가. 그 자손은 번성하고 과거 급제는
 빛났으며, 이름과 수명은 끝이 없으니, 이에 봉읍을 받은 사람이 성인을 축하하는
 말과 부합하는구나. 하늘이 어찌 이리도 공을 두터이 하셨는가!

아아! 연꽃과 계수나무 숲 이루고 아름다운 춤 바야흐로 펼쳐지니, 공께서 이에
 붉은 옷과 큰 관을 쓰시고 그 위에 임하여 으짖하시니,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이와
 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고 우러러보며,
 그가 오랜 가문의 남은 덕택임을 알고 당나라의 꼭분양에 비기네. 아흔한 살의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시니, 이 해 증추절 그믐날 유계 남쪽 병좌향 언덕에
 장사지냈네.

슬프다, 소자의 들쭉 아들은 공의 증손녀의 남편이네. 소자가 비록 어리석으나
 장례를 받드는 날에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상복을 입었으므로 감히
 시를 짓지 못하고, 삼가 한 편의 제문을 올리어 소자의 간절한 슬픔을 서술하노라.
 말을 달리는 언덕 위로 밝은 달빛 낮게 드리우고, 훗훗 나는 신선의 수레 향기로운
 꽃다발 밟고 하늘 계단 오르네. 덕 있는 별빛 사라지니 향기로운 그대, 이제 누구를
 우러러볼까. 공과 사에 두루 밝으시던 향기로운 모습, 눈에 가득하네.

正憲大夫同知中樞府事府君行狀

정헌대부동지중추부사부군행장

府君諱元益字伯謙漢陽人高麗僉議中書事諱之壽其始祖也子暉以東北面兵馬
부군휘원익자백점한양인고려침의중서사회지수기시조야자회이동북면병마
使封雙城摠管子良琪子暉運世襲封子仁壁漢山伯襄烈公以麗朝舊臣避地通川
사봉쌍성총관자량기자돈운세습봉자인벽한산백양렬공이려조구신평지통천
郡人組豆之子涓入

군인조두지자연입

本朝右議政漢平府院君歷數世至諱琮清河縣監始居榮川草谷里高祖諱光虞隱
본조우의정한평부원군력수세지회종청하현감시거영천초곡리고조휘광우는
不仕曾祖諱德秀贈司僕正無子取從父兄進士諱貫之子為嗣諱鳴漢進士贈左承
부사증조휘덕수증사복정무자취종부형진사회관지자위사회명한진사증좌승
旨考諱鳳徵贈禮曹參判行都事初配昌寧曹氏通德郎時孟之女次配禮安金氏進
지고휘봉징증례조참판행도사초배창녕조씨통덕랑시맹지녀차배례안김씨진
士堉之女是實生府君次配豐山柳氏從仕郎世馨之女俱贈貞夫人府君以戊辰六
사우지녀시실생부군차배풍산류씨종사랑세형지녀구증정부인부군이무진륙
月初八日生于榮川葛山里第質性貞固有執守不冝與羣兒嬉戲未嘗隨人俯仰九
월초팔일생우영천갈산리제질성정고유집수부금여군아희희미상수인부앙구
歲丁內憂時參判公以郵官在海西府君與婢僕數人在家無他看護之人猶不廢朝
세정내우시참판공이우관재해서부군여비복수인재가무타간호지인유부폐조
夕哭戊寅春衆判公移卜于安東府幽洞里

석곡무인촌중판공이복우안동부유동리

府君年十一與從兄殿中公聯業口強不能讀然每有述作參判公必稱善少多疾病
부군년십일여종형전중공련업구강부능독연매유술작참판공필칭선소다질병
且鮮兄弟參判公未嘗督課曰使我有後足矣參判公有起居出入之節必趨而扶持
차선형제참판공미상독과왈사아유후족의참판공유기거출입지절필추이부지
之稍長漸喜讀書又勤抄諸書至累十卷自是出遊文場多居前茅稍稍有聞於士友
지초장점희독주우근초제서지루십권자시출유문장다거전모초초유문어사우
間丙戌參判公患腳疽證甚危篤府君晝夜侍疾目不交睫首尾五六月藥餌必親嘗
간병술참판공환각저증심위독부군주야시질목부교첩수미오륙월약이필친상
飲膳必親調未嘗一息懈庚寅參判公以金吾郎畱京邸府君因科便趨侍至則參判
음선필친조미상일식해경인참판공이김오랑류경저부군인과편추시지척참판
月藥餌必親嘗飲膳必親調未嘗一息懈庚寅參判公以金吾郎畱京邸府君因科便
월약이필친상음선필친조미상일식해경인참판공이김오랑류경저부군인과편
趨侍至則參判公以海西掌試都事發程已數日矣
추시지척참판공이해서장시도사발정이수일의

府君出場後卽向海西謁于神光寺乙未春參判公益固城府君以道路痘瘧未卽跟
부군출장후즉향해서알우신광사을미춘참판공익고성부군이도로두가미즉근
隨七月始往侍以海鄉水土為憂形於言色參判公曰吾意亦然但幽洞非久居之地
수칠월시왕시이해향수토위우형어언색참판공왈오의역연단유동비구거지지
若營十區范裘當以明春賦歸耳其年十月參判公始有潮熱往來之證猶力疾視事
약영십구범구당이명춘부귀이년십월참판공시유조열왕래지증유력질시사
至丙申正月證候寢重府君夙夜憂煎激醫療治靡不用極而僻鄉無善藥二月始圖
지병신정월증후침증부군숙야우전격의료치미부용극이벽향무선약이월시도
罷三月初興疾還歸以春寒未解日行不過數十里旬餘始到恭谷高坪驛不得前進
파삼월초흥질환귀이춘한미해일행부과수십리순여시도공곡고평역부득전진
十八日遂至大故喪在客土行豪如洗至賣坐馬以為之柩而附身附棺之物必誠必
십팔일수지대고상재객토행호여세지매좌마이위지구이부신부관지물필성필
慎無憾於禮中路多忘疾諸從及親舊皆欲迂路而行公不可曰

신무감어래증로다망질제종급친구개욕우로이행공부가왈

吾先人行不由徑且以此路之官今以何路歸乎遂直行到家既殯府君寢苦枕塊不
오선인행부유경차이차로지관금이하로귀호수직행도가기빈부군침고침괴부
離殯次時春寒尚峭地氣上濕人皆危之府君堅執不動至五月克葬而後始居廬次
리빈차시춘한상초지기상습인개위지부군견집부동지오월극장이후시거려차
府君體素羸弱且積月侍病因有攀躄之痛顛踣道路氣力漸敗若不保朝夕貞夫人
부군체소리약차적월시병인유반벽지통전복도로기력시패약부보조석정부인
柳氏憂之勸之肉府君涕泣不從食素三年終無疾病既除喪府君念新遭大憾家事
류씨우지권지육부군체음부종식소삼년종무질병기제상부군념신조대감가사
無津諸子皆幼若不勤農勤教無以立家門奉賓祭遂刻意教誨非有疾病賓客不廢
무진제자개유약부군농근교무이림가문봉빈제수각의교회비유질병빈객부폐
勸課與用事僮儀同苦樂以故雖逢鹵歲未至乏絕不肖等得辨魚魯者皆府君之教
권과여용사동의동고악이고수봉로세미지핍절부초등득변어로자개부군지교
也癸卯夏不肖等困于暑暫臥納涼時雨新晴月初升蛙蝥亂鳴府君蹴起責曰吾嘗
야계묘하부초등곤우서잠와납량시우신청월초승와굉란명부군촉기책왈오상
勸汝讀汝輩不從彼蛙有誰歡之鳴而若是不撤也不肖等感懼始知勤業丙午秋府
권여독여배부종피와유수환지명이약시부철야부초등감구시지근업병오추부
君廢舉時年三十九親友皆勸之起府君曰吾年至不惑且自知不才豈可與年少才
군폐거시년삼십구친우개권지기부군왈오년지부혹차자지부재기가여년소재
藝爭名於場屋況兩兒容有望其將代予甲子以後至辛卯前後五六榜四男連中
예쟁명어장옥황량아용유가망기장대여갑자이후지신묘전후오륙방사남련중
司馬府君瞿然曰我以不識字耕田一夫見四子得小成得無懼乎壬辰以八十五蒙
사마부군구연왈아이부식자경전일부전사자득소성득무구호임진이팔십오몽

朝家例恩批望受點超授同知推恩三世癸巳普陽與兄子錫晦僥倖得大闡府君愀
 조가례은비망수점초수동지추은삼세제사보양여형자석회요행득대천부군초
 然不樂曰吾德薄恐不足以承當飾喜告事之日其無用樂丙申長子葵陽沒府君哭
 연부악왈오덕박공부족이승당식회고사지일기무용악병신장자규양몰부군곡
 數聲卽收淚曰吾之至今不宛幸耳渠今年七十一復何悲也其達理如是篤於奉先
 수성즉수루왈오지지금부완행이거금년칠십일복하비야기달리여시독어봉선
 忌日必先期齋戒祭需各品必盡心預備必務精潔未嘗臨時窘窄生家宗兄失業以
 기일필선기재제제수각품필진심예비필무정결미상림시군착생가종형실업이
 曾祖考她祭祀托於府君流離客士三十年不返府君奉祭盡誠宗兄歸後始返之戊
 증조고저제사탁어부군류리객사삼십년부반부군봉제진성종형귀후시반지무
 戌春府君謂普陽曰吾豈久於世耶今限至矣恐無以追孝於父祖私家祫祭非禮也
 술춘부군위보양왈오기구어세야금한지의공무이추효어부조사가겹제비례야
 然欲合祭高曾以下子一室通于宗家使來助祭紙榜設位日則用寒食費則吾已措
 연육합제고증이하자일실통우종가사래조제지방설위일칙용한식비칙오이조
 置矣遂以其日行祀府君不能拜起設席于門外使子孫將事祭畢卽命餽于親戚隣
 치의수이기일행사부군부능배기설석우문외사자손장사제필즉명준우친척린
 里以及奴僕曰吾之不畱神惠止於今日矣觀者或至感泣五月初孫集亾家人不以
 리이금노복왈오지부류신혜지어금일의관자혹지감음오월초손집망가인부이
 告至夕府君忽扶杖而出東望涕泣曰孰其宛矣解衣而使之歛神志之不亂非凡人
 고지석부군홀부장이출동망체음왈집기완의해의이사지감신지지부란비범인
 所及六月旬間感微疾卻食臨終之夕無一吉及於他事惟平日所藏先世遺稿榜目
 소금록월순간감미질각식림종지석무일길금어타사유평일소장선세유고방목
 及若干文書一點檢然後返之舊所遂終時六月二十一日也用其年八月二十五
 금약우문서일일점검연후반지구소수종시록월이십일일야용기년팔월이십오
 日葬于醴泉東面杜谷村南癸向原新卜也嗚呼府君以堅固之質端潔之行明透之
 일장우례천동면두곡촌남계향원신복야명호부군이전고지질단결지행명투지
 識出言必謹慎臨事必恐懼小心翼翼務在儉約未嘗有侈大矜肆之心故居家而身
 식출언필근신림사필공구소심익익무재검약미상유치대금사지심고거가이신
 以修處鄉而人不非子弟或於文會及鄉試偶得參額則必戒之曰孝弟本也文藝末
 이수처향이인부비자제혹어문회급향시우득참액칙필제지왈효제본야문예말
 也汝輩雖從事科場內外輕重之分不可不知且不耻鄙事繩絢莞簞之屬必手自親
 야여배수종사과장내외경증지분부가부지차부치비사승현완점지속필수자친
 之子弟憫其勞苦則曰天生四民各食其業人旣不能為士為農賈而暖衣飽食遊談
 지자제민기로그척왈천생사민각식기업인기부능위사워농가이난의포식유담
 博奕者天民之蠹也晚年喜讀中庸讀至萬遍猶不已曰吾聞祖先有讀萬遍書者子
 박혁자천민지두야만년회독중용독지만편유부이왈오문조선유독만편서자자

孫必生文章蓋不欲以讀書自處也少不喜為詩中年以後乎抄唐律鼓吹及靖節放
손필생문장개부욕이독서자처야소부희위시중년이후호초당률고취금정절방
翁詩常目在之過五六年後始為詩不令子孫見之曰吾宛汝輩出視可取取之不可
옹시상목재지과오륙년후시위시부령자손견지왈오완여배출시가취취지부가
取無取既葬出見所藏書冊得

취무취기장출견소장서책득

曾祖考檜溪公詩若干首祖考竹林公詩若干首先考幽溪公詩一卷釐為上卷府君
증조고회계공시약천수조고죽림공시약간수선고유계공시일권리위상권부군
所為訶三百餘篇為下卷總二卷藏于家配禮安李氏高麗太師諱棹之後政丞文莊
소위가삼백여편위하권총이권장우가배례안리씨고려태사회도지후정승문장
壯公諱混之幾世孫處士諱基晚之女也贈貞夫人夫人生于儒素之家多所見聞雖
장공휘혼지기세손처사회기만지녀야증정부인부인생우유소지가다소견문수
不事文字而凭聰明古今治亂興亡人物邪正賢否無不記識不肖等或有疑晦輒仰
부사문자이빙총명고금치란흥망인물사정현부무부기식부초등혹유의회첩앙
質之則責之曰汝輩讀書而不知此事科第何可望也治家有法盡心賓祭人未嘗知
질지칙책지왈여배독서이부지차사과제하가망야치가유법진심빈제인미상지
其艱乏教子孫必以義方少有過失告于府君不肖掩覆慈教之嚴無異嚴君子丁巳
기간핍교자손필이의방소유과실고우부군부금엄복자교지엄무이엄군자정사
臘月以宿患添別證臨終召諸子諸婦護之曰吾年六十幾盡成立汝之父親氣力猶
렵월이숙환첨별증림종소제자제부호지왈오년륙십기진성립여지부친기력유
不衰吾無恨矣更有一言告汝其明聽之人家兄弟爭鬪小故至於失和者皆由婦人
부쇠오무한의경유일언고여기명청지인가형제쟁랑소고지어실화자개유부인
之言男子剛腸者幾人汝等無墜吾言宛且瞑目矣言訖而終享年五十五生於癸亥
지언남자강장자기인여등무추오언완차명목의언홀이종향년오십오생어계해
九月二十三日卒于丁巳十二月二十一日越明年正月初十日葬于榮川陳月寺
구월이십삼일졸우정사십이월이십일일월명년정월초십일장우영천진월사
東覺與向之原從先兆也有子五人女一人不肖子普陽泣血書

동각여향지원종선조야유자오인녀일인부초자보양읍혈서

정헌대부 동지중추부사 부군(府君)의 행장(行狀)

부군(돌아가신 아버님)의 휘는 원익(元益)이시고, 자는 백겸(伯謙)이며 한양(漢陽) 사람이다. 고려 시대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를 지낸 휘 지수(之壽)가 시조이다. 그의 아들 휘(暉)는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쌍성총관(雙城摠管)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양기(良琪)의 아들 돈운(墩運) 대에 이르러 세습하여 봉해졌다. 그의 아들 인벽(仁璧)은 한산백(漢山伯)에 봉해졌고, 양렬공(襄烈公)은 고려의 옛 신하로서 난을 피해 통천군(通川郡) 사람이다. 조두(組豆)의 아들 연(涓)은 본조(本朝, 조선)에 들어와 우의정 한평부원군(右議政漢平府院君)을 지냈다. 여러 세대를 거쳐 휘 종(琮)에 이르러 청하현감(淸河縣監)으로 처음 영천(榮川) 초곡리(草谷里)에 거주하였다. 고조부의 휘는 광우(光虞)이시며 벼슬하지 않고 운둔으로 지내셨다. 증조부의 휘는 덕수(德秀)이시며 사복정(司僕正)에 증직되셨으나 아들이 없어 종형님의 진사 휘 관(貫)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니, 그가 휘 명한(鳴漢)으로 진사에 올라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되었다. 부군의 아버님의 휘는 봉징(鳳徵)이시며 예조참판(禮曹參判) 행도사(行都事)에 증직되셨다. 처음 배필은 창녕 조씨(昌寧曹氏) 통덕랑(通德郎) 시맹(時孟)의 딸이었고, 다음 배필은 예안 김씨(禮安金氏) 진사 우(塢)의 딸로, 바로 부군을 낳으셨다. 다음 배필은 풍산 유씨(豐山柳氏) 종사랑(從仕郎) 세형(世馨)의 딸로, 모두 정부인(貞夫人)에 증직되셨다. 부군께서는 무진년(戊辰年) 6월 8일에 영천 갈산리(葛山里) 사저에서 태어나셨다. 천성이 곧고 굳건한 지조가 있어,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일찍이 남에게 아첨하지 않으셨다. 아홉 살에 상을 당하시니, 참판공(參判公, 아버님)께서 우체국 관리로 해서(海西)에 계셨고, 부군께서는 여종 몇 사람과 함께 집에 계시며 다른 돌보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침저녁으로 곡하는 것을 폐하지 않으셨다. 무인년(戊寅年) 봄에 참판공께서 안동부(安東府) 유동리(幽洞里)로 이사하여 거처를 정하셨다. 부군께서 열한 살 되시어 종형 되시는 전중공(殿中公)과 함께 학업을 시작하셨으나, 입이 굳어 글을 잘 읽지 못하셨다. 그러나 매번 글을 지으면 참판공(參判公)께서는 반드시 칭찬하셨다. 어려서부터 병이 많으셨고, 형제도 적었으나, 참판공께서는 일찍이 학업을 독려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게 후사를 둘 수 있다면 족하다" 하셨다. 참판공께서 거처하시거나 출입하실 때면 반드시 달려가 부축해 드렸다. 조금 자라면서 점차 글 읽기를 좋아하여, 낮에는 부지런히 여러 책을 베껴 써서 그 권수가 수십 권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과거 시험장에 나가면 늘 앞자리에 있었고, 점차 선비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병술년(丙戌年)에 참판공께서 발에 종기가 생겨 병세가 매우 위독해지셨다. 부군께서는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눈 한번 붙이지 못하고 다섯, 여섯 달을 꼬박 간호하셨다. 약과 음식은 반드시 먼저 맛보시고, 마시고 먹는 것을 친히 조절하며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경인년(庚寅年)에 참판공께서 금오랑(金吾郎)으로 서울 집에 머무르시자, 부군께서는 과거 시험을 기회 삼아 달려가 모셨다. 그러나 이미 참판공께서는 해서(海西) 지방의 장시도사(掌試都事)로 발령받아 떠나신 지 며칠 뒤였다.

부군께서 과거에 나아가신 후 즉시 해서(海西)로 향하여 신광사(神光寺)에서 참판공을 뵈었다. 을미년(乙未年) 봄에 참판공께서 고성부(固城府)에 계셨는데, 길에 천연두가 유행하여 즉시 따라가지 못하고 7월에야 비로소 가서 모셨다. 바닷가 고을의 물과 흙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굴빛에 드러나자, 참판공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도 그러하나, 유동(幽洞)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만약 열 집 정도 되는 땅을 경영하여 범구(范裘)를 얻으면 내년 봄에 세금을 내고 돌아갈 것이다" 하셨다. 그해 10월에 참판공께서 비로소 오르내리는 열병 증세를 보이셨으나, 억지로 병을 무릅쓰고 일을 보셨다. 병신년(丙申年) 정월에 이르러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자, 부군께서는 밤낮으로 근심하며 온갖 약을 써서 치료에 힘썼으나, 외딴 시골이라 좋은 약이 없었다. 2월에야 비로소 사직을 청하고 3월 초에 병을 이끌고 돌아오셨다. 봄 추위가 아직 풀리지 않아 하루에 수십 리도 가지 못하고, 열흘이 넘어서야 공곡(恭谷) 고평역(高坪驛)에 이르렀으나 더 나아가지 못하고, 18일에 드디어 세상을 떠나셨다. 객지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살림이 텅 비어, 타던 말까지 팔아 관을 마련했다. 시신에 입히고 관에 넣는 물건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하여 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했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 번 병을 앓았으나, 여러 종친과 친한 친구들은 모두 먼 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부군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선친께서는 정도(正道)로만 다니셨고, 또 이 길의 관리셨으니, 이제 어찌 다른 길로 돌아가겠는가." 하시고는 드디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셨다. 장례를 치른 후 부군께서는 흙덩이를 베개 삼아 빈소 곁을 떠나지 않고 괴로워하셨다. 그때는 봄 추위가 아직 매섭고 땅의 습기가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으나, 부군께서는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5월에 장례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여막에 거처하셨다. 부군께서는 본래 몸이

약하셨고, 오랫동안 병환을 간호하느라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셨고, 기력이 쇠진하여 아침저녁을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부인
 유씨께서 걱정하며 고기를 권했으나, 부군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따르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채식을 하셨으나 끝내 병이 없으셨다. 탈상을 마치고 부군께서는 새로 큰
 슬픔을 당하여 집안 살림이 막막하고, 여러 아들들은 모두 어리므로 농사에 힘쓰고
 가르침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안을 일으키고 손님을 대접하며 제사를 받들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 이에 정성을 다해 가르치셨고, 병이 있지 않으면 손님 접대를
 폐하지 않으셨다. 농사일과 집안일에 종사하는 아이들과 고락을 함께 하셨으므로,
 흉년을 만났을지라도 굶주림에 이르지 않았고, 못난 저희들이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부 군께서 가르치심 때문이다. 어느 계묘년 여름, 못난
 저희들이 더위에 지쳐 잠시 누워 더위를 식힐 때, 막 비가 개고 초승달이 뜨며
 개구리와 올챙이가 시끄럽게 울어댔다. 부군께서 발로 차 일으키시며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너희들에게 글을 읽으라 권했던건만 너희들은 따르지 않았다.
 저 개구리 울음소리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너희들의 게으름을 당장 버리지
 못할까!" 하셨다. 못난 저희들은 송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비로소 학업에 힘쓸
 줄 알게 되었다. 병오년 가을, 부군께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셨을 때
 나이 서른아홉이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다시 일어나라고 권하자, 부군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이 불혹에 이르렀고, 또 스스로 재주 없음을 아는데, 어찌 짧은
 재능 있는 자들과 과거 시험장에서 명예를 다투겠는가. 하물며 두 아들은 장차
 가망이 있으니, 그들이 장차 나를 대신할 것이다." 갑자년 이후 신묘년 전후로
 다섯, 여섯 번의 과거에서 네 아들이 연이어 사마시에 합격하자, 부군께서 놀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글자도 모르는 농사꾼으로 네 아들이 작은 성공을 거두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하셨다. 임진년에 여든다섯의 나이로 조정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동지에 초수(超授)되고 삼대에 걸쳐 은혜를 입으니, 계사년에 보양과
 조카 석회가 요행히 크게 현달하자, 부군께서 슬픈 듯 기뻐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덕이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려울까 두렵다" 하시고, 기쁜 일을
 알리는 날에도 쓸데없는 즐거움을 삼가셨다. 병신년에 큰아들 기양이 죽으니,
 부군께서 몇 번 우시더니 곧 눈물을 거두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온전한
 것은 다행일 뿐이니, 저 아이가 올해 일흔하나이니 다시 무엇을 슬퍼하겠는가." 그

이치를 깨달음이 이와 같았고, 선조 제사를 받드는 데 돈독하여 기일이 되면 반드시 미리 재계하고, 제사에 필요한 각 물품은 반드시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반드시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임시로 곤궁한 적이 없었다. 친가 종형이 실직하여 증조부 이하의 제사를 부군께 맡기고, 객지에서 떠돌아다닌 지 3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하자, 부군께서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받들어 종형이 돌아온 후에야 돌려주었다. 무술년 봄에 부군께서 보양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 오래 살겠느냐? 이제 기한이 다 되었으니, 부모 조상께 효도를 다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사사로운 집안에서 합쳐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나, 그러나 고조부 이하의 여러 대를 한 방에서 함께 제사 지내고 싶으니, 종가에 알려 와서 제사를 도우라 하고, 신주를 모시는 날은 한식으로 하며, 비용은 내가 이미 마련해 두었다." 하셨다. 드디어 그날 제사를 지냈는데, 부군께서는 절하고 일어나지 못하시어 문 밖에 자리를 마련하고 자손들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셨다. 제사가 끝나자 친척, 이웃, 그리고 노복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정신과 은혜가 머무는 것도 오늘까지일 것이다." 바라보는 이들 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5월 초에 만손자가 병으로 죽었으나, 집안사람들이 감히 알리지 못했는데, 저녁 무렵 부군께서 홀연히 지팡이를 짚고 나와 동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기를, "내 만손자가 죽었구나!" 하셨다. 옷을 벗어 그에게 수습하게 하셨는데,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으심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미치기 어려웠다. 6월 열흘 사이에 가벼운 병을 앓아 식사를 거르셨고, 임종하는 저녁에는 다른 일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오직 평소에 간직하시던 선대의 유고, 과거 합격자 명단 및 여러 문서를 하나하나 점검하신 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시고, 드디어 6월 21일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해 8월 25일에 예천 동쪽 두곡촌 남쪽 제좌향의 새로 정한 못자리에 장사지냈다. 아아! 부군께서는 굳건한 바탕과 단정하고 깨끗한 행실, 밝고 통찰력 있는 지식을 가지셨으며,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신중하셨고,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삼가 검소함에 힘쓰셨다. 일찍이 사치스럽고 과장된 마음이 없으셨으므로, 집안에 계시면서 몸을 닦으셨고, 고을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셨다. 자제들이 문학 모임이나 향시에 우연히 이름을 올리게 되면 반드시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효도와 공경이 근본이고, 문예는 말단이다. 너희들이 비록 과거 공부에 종사하지만, 안팎의 경중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또 비천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밧줄, 휘장, 왕골 돛자리 따위는 반드시 손수 하셨다. 자제들이 수고로움을 안쓰러워하면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사민(士農工商)을 내어 각각 그 업에 따라 먹고살게 하셨으니, 사람이 이미 선비, 농부, 상인이 되지 못하고 따듯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며 놀고 장기 두는 것은 하늘 백성의 죄이다" 하셨다. 만년에 《중용》 읽기를 좋아하여 만 번을 읽고도 그치지 않으셨다. 말씀하시기를, "내 들으니 조상 중에 만 번 책을 읽은 자가 있으면 자손에게 반드시 문장이 난다고 하니, 이는 독서로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셨다. 젊어서는 시 짓기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중년 이후에 당률, 고취 및 도연명, 육유의 시를 베껴 늘 눈여겨보셨다. 5, 6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시를 지으셨으나, 자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놓아 보이니, 취할 만한 것이 있으면 취하고, 취할 만한 것이 없으면 취하지 말라" 하셨다. 장례를 마치고 나가서 평소 소장하시던 책들을 보니, 증조부 회계공(檜溪公)의 시가 수천 수, 조부 죽림공(竹林公)의 시가 수십 수, 선친 유계공(幽溪公)의 시 한 권을 정리하여 상권으로 삼고, 부군께서 지으신 시 삼백여 편을 하권으로 삼아 총 두 권을 집에 간직하였다. 배필은 예안 이씨(禮安李氏)로, 고려 태사(高麗太師) 휘 탁(棹)의 후손이며, 정승 문장장공(文莊壯公) 휘 혼(混)의 몇 세손 되는 처사 휘 기만(基晩)의 딸이다. 정부인(貞夫人)에 증직되셨다. 부인께서는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많은 것을 보고 들으셨다. 비록 글을 읽지는 못하셨으나, 총명함에 의지하여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다스려짐과 혼란, 흥망성쇠, 인물의 사악함과 올바름, 어짊과 어리석음 등을 모두 기억하셨다. 못한 저희들이 혹 의심스럽고 어두운 점이 있어 여쭙어보면,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니, 어찌 과거 금제를 바라겠느냐!" 집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고 손님 접대와 제사에 정성을 다하여,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 자손을 가르침에 반드시 의로운 방법으로 하셨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부군께 고하여 감추려 하지 않으셨다. 자애로운 가르침의 엄함이 엄한 아버지와 다름없으셨다. 정사년(丁巳年) 설달에 오랜 병환에 다른 병까지 더하여 위독해지시자, 임종에 이르러 여러 아들과 며느리들을 불러 당부하시기를, "내 나이 예순을 넘겨 거의 다 되었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으니, 나는 한이 없다. 다시 한마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세히 들어라.

집안 형제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어 불화하게 되는 것은 모두 아녀자의 말 때문이다. 대장부로서 굳센 마음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말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고는 곧 눈을 감으셨다. 향년 55세이셨다.

계해년(癸亥年) 9월 23일에 태어나 정사년 12월 21일에 돌아가셨다. 다음 해 정월 10일에 영천 진월사 동쪽 각여향 언덕에 선영의 뜻에 따라 장사지냈다.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셨다.

불초자(不肖子) 보양(普陽)이 피눈물로 쓰다.

正憲大夫同知中樞府事趙公墓碣銘

정헌대부동지중추부사조공묘갈명

予嘗讀八友軒先生文集見其先府同樞公行錄深嘆夫義方之教足以使子孫顯也
여상득팔우현선생문집전기선부동추공행록심탄부의방지교족이사자손현야
日其後孫東樂東翰甫奉其錄訪予山廬責以墓道之訶顧老廢者其可堪乎而辭不
일기후손동악동한보봉기록방여산려책이묘도지가고로폐자기가감호이사부
獲則謹按公諱元益字伯謙號山谷姓趙氏漢陽人以高麗中書事諱之壽為上祖其
획칙근안공회원익자백점호산곡성조씨한양인이고려증서사회지수위상조기
後世襲封諡為東方著族入本朝有諱涓右議政漢平府院君至諱琮縣監始居榮川
후세습봉시위동방저족입본조유회연우의정한평부원군지회종현감시거영천
之草谷里高祖諱光虞曾祖諱德秀贈司僕寺正无嗣以從父兄進士諱貫之子子之
지초곡리고조휘광우증조휘덕수증사복사정무사이증부형진사회관지자자지
諱鳴漢進士贈左承旨考讀鳳徵文縣令贈禮判妣昌寧曹氏通德郎時孟女禮安金
휘명한진사증좌승지고독봉징문현령증례판비창녕조씨통덕랑시우녀례안김
氏瑀女豐山柳氏從仕郎世馨女徂贈貞夫人八金氏出也公以景廟戊辰六月初八
씨우녀풍산류씨종사랑세형녀조증정부인팔김씨출야공이경묘무전록월초팔
日生于葛山里第九歲丁内憂時先公以郵官留海西公獨與婢僕在家猶不廢朝夕
일생우갈산리제구세정내우시선공이우관류해서공독여비복재가유부폐조석
爰十一歲如就學不煩長者教督而能躬自肆力抄數十卷書以資誦讀出遊文場冠
원십일세여취학부변장자고독이능궁자사력초수십권서이자송독출유문장관
羣儒自是聲譽噪鄉里先公患脚疽危劇日夜侍側嘗藥視膳來嘗少懈及先公守固
군유자시성예조향리선공환각저위극일야시측상약시선래상소해급선공수고
城公往侍之固海邑也

성공왕시지고해읍야

先公以瘴藕彌淹與疾而還到州奄遭故行李蕭然賣坐馬而身棺附物誠信無憾從
선공이장우미엄여질이환도주엄조고행리소연매좌마이신관부물성신무감종
者多忌疾欲迂路公不可曰吾父平日行不由徑遂直行至家既殯葬守制踰禮毀瘠
자다기질욕오로공부가왈오부평일행부유경수직행지가기빈장수제유례훼척
太甚太夫人憂之勸之肉泣不從食素終祥家素窶無以供賓祭則任僮課農歲歉無
태심태부인우지권지육읍부종식소종상가소구무이공빈제척임동과농세점무
乏憂絢繩党簞之類皆親之子弟憫其勞諫止之則曰天生四民各食其業旣不能為
핍우도승당점지류개친지자제민기로간지치척왈천생사민각식기업기부능위
士為農賈而飽煥優逸天民之蠹也時當天晴月朗蛙蝥亂鳴公蹴起責曰吾嘗勸汝
사위농가이포환우일천민지두야시당천청월랑와굉란명공촉기책왈오상권여
讀而聽瑩彼蛙有誰勸而不轍鳴也
독이청형피와유수권이부첼명야

子弟皆感惕勤業四子連中司馬又次房暨介孫并大闡公乃瞿然曰我以耕田一夫
 자체개감척근업사자련증사마우차방기개손병대천공내구연왈아이경전일부
 而恐不足以承當飾喜告事之日不用樂先忌必前期齊沐祭需要腆潔本生家旁落
 이공부족이승당식희고사지일부용악선기필전기제목제수요전결본생가방락
 公奉祀事盡誠年踰八耄蒙恩例授爵推恩三世晚年喜讀中痛曰吾聞為祖者讀書
 공봉사사진성년유팔질몽은례수작추은삼세만년희독중통왈오문위조자독서
 萬遍則必生文章子孫文章非人人所能致而公之一心專注於子孫者始終不懈則
 만편칙필생문장자손문장비인인소능치이공지일심전주어자손자시종부해칙
 宜有是個個榮耀如銅洛之應也戊戌六月二十一日以疾終享九十一壽葬東面杜
 의유시개개영요여동락지응야무슬륙월이십일일이질종향구십일수장동면두
 谷癸向原配禮安李氏忠義將豐隱洪仁后司僕寺正基晚女有婦行生五子一女葵
 곡계향원배례안리씨충의장풍은홍인후사복사정기만녀유부행생오자일녀규
 陽生員普陽文佐郎得陽宜陽生員老同樞夢陽生員女朴師虎
 양생원보양문좌랑득양의양생원로동추몽양생원녀박사호

蔡陽子錫範錫晦文承旨錫忠錫商出錫景錫全女孫時璞普陽子勗晏集錫暘女全
 채양자석범석회문승지석충석상출석경석전녀손시박보양자욱안집석우녀전
 熙復金弼星得陽子曼昇僞宜陽子錫時錫良出錫晨錫春錫晶女柳萬休全文豹馬
 희복김필성득양자만승준의양자석시석량출석신석춘석정녀류만휴전문표마
 思淵金應龍金相華夢陽子錫光錫俊女柳胖休錫範子顯模顯漳出顯汶出顯澧顯
 사연김응룡김상화몽양자석광석준녀류반휴석범자현모현장출현문출현풍현
 濬生員女申應堯李昌述金永習錫晦子顯洙顯龜生員顯潞顯淳女張泰僞朴宗臣
 준생원녀신응요리창술김영습석회자현수현구생원현로현순녀장태준박종신
 李昌瑾洪最根安廷敏李敬秀錫忠子顯震生員顯喆女權休復權緯度錫景嗣子顯
 리창근홍최근안정민리경수석충자현진생원현철녀권휴복권위도석경사자현
 璋錫全子顯發顯豹顯潤顯福晶嗣子顯湜女權若采李仁變孫鎮一晏子顯湜出顯
 장석전자현발현표현윤현복정사자현식녀권약채리인변손진일안자현식출현
 迪顯燾出女柳儒文集子顯佐生員顯奎出女權若度錫暘子顯澤顯道曼子顧洛顯
 적현도출녀류유문집자현좌생원현규출녀권약도석우자현학현도만자고락현
 浩昇手顯龍女張胤貴權槁僞子顯春女金重履錫時子顯斗女申顯成金道一錫晨
 호승수현룡녀장윤귀권우준자현춘녀김중리석시자현두녀신현성김도일석신
 子顯比顯昌顯玉錫晶子顯錫光嗣子顯燾女權衡益金會淳錫俊子晚興今其鬯胃
 자현비현창현옥석정자현석광사자현도녀권형익김회순석준자만흥금기창위
 七代孫吉永銘曰羸金至貴人孰不知公若指掌教以得之五蓮雙桂大彰門楣尚或
 칠대손길영명왈영김지귀인숙부지공약지장교이득지오련쌍계대창문미상혹
 戒盈戰兢履危一家之祖萬姓之師來者考據其惟在茲
 계영전증리위일가지조만성지사래자고거기유재자

정헌대부 동지증추부사 조공의 묘갈명

내가 일찍이 팔우헌 선생 문집을 읽다가 그 선친 동추공의 행적 기록을 보고, 바르게 가르침이 자손을 현달하게 할 수 있음을 깊이 탄식하였다. 얼마 후 그 후손 동락, 동한보가 그 기록을 받들고 나의 산속 초가집을 찾아와 묘도에 새길 비문을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니, 늙고 병든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마는, 사양할 수 없어 삼가 살펴보니, 공의 휘는 원익(元益), 자는 백겸(伯謙), 호는 산곡(山谷)이시며, 성은 조(趙)씨, 본관은 한양(漢陽)이시다. 고려 시대 중서사(中書事)를 지낸 휘 지수(之壽)를 시조로 하며, 그 후손이 대대로 봉해지고 시호를 받아 동방의 명문가가 되었다. 조선에 들어와 휘 연(涓)은 우의정 한평부원군(右議政漢平府院君)에 이르렀고, 휘 종(琮)은 현감으로 처음 영천(榮川) 초곡리(草谷里)에 거주하였다. 고조부의 휘는 광우(光虞)이시고, 증조부의 휘는 덕수(德秀)이시며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증직되었으나 후사가 없어 종형의 아들로 진사인 휘 관(貫)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니, 그의 휘는 명한(鳴漢)으로 진사에 올라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되었다. 아버님은 봉징(鳳徵)으로 문과 현령을 지내시고 예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어머니는 창녕 조씨 통덕랑 시맹의 딸과 예안 김씨이시다.

김씨 부인과 풍산 유씨 종사랑 세형의 딸에게서 모두 정부인이 추증되었다. 공은 경묘 무진년 6월 8일에 갈산리 사저에서 태어났다. 아홉 살에 상을 당했을 때 선친께서 우체국 관리로 해서에 머무르셨는데, 공은 홀로 비복들과 집에 있으면서도 아침저녁으로 곡하는 것을 폐하지 않았다. 열한 살에 이르러 학업에 나아가서는 어른들의 가르침과 감독 없이도 스스로 힘써 수십 권의 책을 베껴 읽고 외우는 데 힘썼다. 과거 시험장에 나가서는 여러 유생들 가운데 으뜸이었고, 이로부터 명성이 온 고을에 자자했다. 선친께서 밭에 종기가 생겨 위독해지자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약을 맛보고 음식을 살피며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선친께서 고성(固城)을 지키게 되시자 공이 따라가 모셨는데, 그곳은 바닷가 고을이었다.

선친께서 풍토병에 오랫동안 시달리시다가 병을 얻어 돌아오시어, 고을에 이르러 갑자기 돌아가셨다. 행장은 쓸쓸하여 타던 말까지 팔아 관과 수의를 마련했으나, 정성과 신의로 부족함이 없었다. 따르는 자들이 병을 꺼려 먼 길로 돌아가려 했으나, 공께서 안 된다 하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님께서는 평소 정도(正道)로만 다니셨다" 하시고는 드디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셨다. 장례를 치르고 상을 지내는 동안 예에 지나치게 몸이 쇠약해지자, 태부인께서 걱정하며 고기를 권했으나, 눈물을 흘리며 따르지 않고 채식을 하여 탈상까지 마치셨다. 집안이 본래 가난하여 손님 접대와 제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으나, 종들에게 농사일을 맡겨 흉년에도 굶주림이 없었다. 밭줄을 꼬고 왕골 돛자리를 만드는 따위의 일은 모두 손수 하셨다. 자제들이 수고로움을 안쓰러워하며 그만두시기를 간청하면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사민(士農工商)을 내어 각각 그 업에 따라 먹고살게 하셨으니, 이미 선비, 농부, 상인이 되지 못하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하늘 백성의 죄이다" 하셨다. 때마침 날씨가 맑고 달이 밝은 밤에 개구리와 올챙이가 시끄럽게 울어대자, 공께서 발로 차 일으키시며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너희들에게 글을 읽으라 권했거늘 너희들은 듣지 않는구나. 저 개구리 울음소리를 누가 시켜서 저렇게 쉬지 않고 울겠느냐!" 하셨다.

자제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학업에 힘쓰니, 네 아들이 연이어 사마시에 합격하고, 또 둘째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크게 현달하자, 공께서 놀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농사꾼으로 외람되이 이러한 경사를 감당하기 어려울까 두렵다" 하시고, 기쁜 일을 알리는 날에도 즐거워하지 않으셨다. 선친 기일에는 반드시 미리 재계하고 목욕재계하며, 제사 음식은 풍성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셨다. 친가 종친이 몰락하자 공께서 제사를 정성껏 받드셨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임금의 은혜로 작위를 받고 삼대에 걸쳐 은혜를 입었다. 만년에 《증용》 읽기를 좋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들으니 조상 된 자가 만 번 책을 읽으면 반드시 자손에게 문장이 난다고 하였으니, 자손의 문장은 사람마다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공께서 오로지 자손에게 마음을 쏟아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니, 마땅히 이처럼 자손들이 모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쇠불이가 녹에 응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셨다. 무술년 6월 21일에 병으로 돌아가시니 향년 91세이셨다. 예천 동쪽 두곡 계좌향 언덕에

장사지냈다. 배필은 예안 이씨 충의장군 품은 홍인의 후손이자 사복시정 기만의 딸이다.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기양은 생원, 보양은 문좌랑, 득양과 의양은 생원, 노동추와 몽양은 생원이며, 딸은 박사호에게 시집갔다.

채양의 아들은 석범, 석회는 문승지, 석충, 석상, 석출, 석경, 석전이며, 딸 손자는 시박이다. 보양의 아들은 욱, 안집, 석우이며, 딸은 전희복, 김필성에게 시집갔다. 득양의 아들은 만, 승준이며, 의양의 아들은 석시, 석량, 석신, 석춘, 석정이며, 딸은 유만휴, 전문표, 마사연, 김응룡, 김상화에게 시집갔다. 몽양의 아들은 석광, 석준이며, 딸은 유만휴에게 시집갔다. 석범의 아들은 현모, 현장, 현문, 현풍, 현준 생원이며, 딸은 신응요, 이창술, 김영습에게 시집갔다. 석회의 아들은 현수, 현구 생원, 현로, 현순이며, 딸은 장태준, 박종신, 이창근, 홍최근, 안정민, 이경수에게 시집갔다. 석충의 아들은 현진 생원, 현철이며, 딸은 권휴복, 권위도에게 시집갔다. 석경의 사후 아들은 현장이며, 석전의 아들은 현발, 현표, 현윤, 현복이며, 석정의 사후 아들은 현식이며, 딸은 권약채, 이인변, 손진일에게 시집갔다. 안집의 아들은 현식, 현디, 현도이며, 딸은 유유문에게 시집갔다. 집의 아들은 현좌 생원, 현규이며, 딸은 권약도에게 시집갔다. 석우의 아들은 현심, 현도이며, 만의 아들은 고락, 현호, 승수, 현룡이며, 딸은 장윤귀, 권우에게 시집갔다. 준의 아들은 현춘이며, 딸은 김중리에게 시집갔다. 석시의 아들은 현두이며, 딸은 신현성, 김도일에게 시집갔다. 석신의 아들은 현비, 현창, 현옥이며, 석정의 아들은 현석광이며, 사후 아들은 현도이며, 딸은 권형익, 김희순에게 시집갔다. 석준의 아들은 만흥이다. 지금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드는 7대손 길영이 명하여 말한다. 돈은 지극히 귀한 것이나, 사람 중에 그것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공께서는 손바닥으로 가르치듯 자손을 가르쳐 얻게 하셨다. 다섯 연꽃과 두 계수나무가 문중을 크게 빛내었으나, 오히려 가득함을 경계하고 위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셨다. 한 집안의 조상이자 만 백성의 스승이시니, 후세 사람들이 마땅히 이곳에서 그 행적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예안(禮安)의 이회춘(李會春)이 삼가 쓰다

世稿跋

세 고 발

漢陽趙氏之居在嶠南而以文學德望世齊厥美爲鄉坊所矜式者蓋已久矣日吾友
한양조씨지거재교남이이문학덕망세제절미위향방소금식자개이구의일오우
東奎東樂東翰以其先祖檜溪竹林幽溪山谷四世遺稿示余而請一言題其尾竊嘗
동규동악동한이이선조회계죽림유계산곡사세유고시여이청일언제기미절상
觀於其弁首之文小山李先生已言之盡矣顧此拙劣烏足以贊一辭第念吾兩家十
관어기변수지문소산리선생이언지진의고차졸렬오죽이찬일사제념오랑가십
世之誼便同一室固不敢辭焉謹按公之後世有若鈍巖八友軒梧竹齋一峯諸君子
세지의편동일실고부감사언근안공지후세유약둔암팔우헌오죽재일봉제군자
之遺集先已領布於世善讀者多有所感發興起則趙氏一門先徽之嘉惠後人誠亦
지유집선이령포어세선독자다유소감발흥기칙조씨일문선휘지가혜후인성역
大矣若並與此編而塗人耳目豈不爲昏衢之取光乎吁其可敬也哉令不須覩縷說
대의악병여차편이도인이목기부위혼구지취광호우기가경야재령부수전루설
去而只舉其慈孫明仁之續有如此云
거이지거기자손명인지속유여차운

丁巳重陽節慶州後人李宰賢謹跋

정사증양절경주후인리재현근발

유고집에 부치는 글

한양 조씨 가문은 교남(嶠南)에 세거하며 문학과 덕망이 세상에 뛰어나,
그 아름다움이 고을 사람들이 본받고 자랑삼는 바 되었으니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친구 동규, 동락, 동한이 그들의 선조인 회계(檜溪), 죽림(竹林),
유계(幽溪), 산곡(山谷) 네 분의 유고를 내게 보여주며 말미에 한마디 글을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그 서문을 살펴보니 소산(小山) 이선생께서 이미 모든 말씀을 다하셨기에
감히 내 졸렬한 글이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하였으나, 다만 우리 두 가문이 십대에
걸친 의리로 한집과도 같으니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살펴보건대 이 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둔암(鈍巖), 팔우헌(八友軒), 오죽재(梧竹齋),
일봉(一峯) 같은 여러 선비들의 유집이 이미 세상에 널리 퍼졌고, 그 글을 잘 읽는

이들마다 감동하고 일어섰으니 조씨 가문 한문(開門)의 빛나는 선대의 가르침이 후세에 끼친 은혜가 참으로 크도다.

이 유고집 또한 함께 세상에 나아간다면 사람들의 귀와 눈을 밝혀줄 것이니 이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않겠는가.

아, 진실로 존경스럽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길게 늘어놓는 말을 하지 않겠다.

다만 그 자손인 자손 명인(明仁)의 정성스러운 이어짐이 이렇듯 빛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사년 중양절 경주 후손 이재현 삼가 씀